

한국사진문화연구소 자료집 vol.11

《대한민국미술전람회》 사진부 자료집

목 차

《대한민국미술전람회》사진부 자료집

5	《대한민국미술전람회》사진부의 시작과 종말 - 구왕삼의 「사단, 전환기에 선 사진의 자세 - 사진의 《국전》참가를 계기로」를 중심으로 / 최봉림
10	일러두기
11	상세 목차
17	1950년대
33	1960년대
137	1970년대
313	1980년대

참고 자료

351	《국전》 관련 참고 자료 목록
-----	------------------

한국사진문화연구소는

한국사진사 자료의 수집·정리·보존·연구를 목적으로 2009년 1월 가현문화재단에서 설립한 학술연구기관입니다.

발 행 가현문화재단
주 소 138-724 서울시 송파구 위례성대로 14 한미타워 19층
전 화 02-410-9123
팩 스 02-418-1316
웹사이트 <http://photomuseum.or.kr>
이메일 research@photomuseum.or.kr

발행인 송영숙
기 획 한국사진문화연구소
편집인 최봉림, 김소희, 장정민
디자인 IANN
출력인쇄 문성
발행일 2016년 2월

한국사진문화연구소는 원문 자료 및 참고 자료 제공에 협조해주신
국립현대미술관 미술도서실,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 이길주, 홍순태 님께 감사드립니다.

© 2016 Korea Institute of Photography and Culture All rights reserved.

이 책에 실린 모든 글과 사진의 저작권은 한국사진문화연구소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해당 저작권자의 서면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No part of this book may be reproduced or utilized in any form or by any means
without written permission from the copyright holders.

ISSN 2093-2731

한국사진문화연구소는 한국 근현대 사진사와 관련된 사진 및 자료를 기증받고 있습니다.
기증된 자료는 사진문헌의 부재와 소실로 척박한 환경에 처해있는 한국사진사 연구에 귀중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후 원  Hanmi Science Co., Ltd.

《대한민국미술전람회》사진부의 시작과 종말 - 구왕삼의 「사단, 전환기에 선 사진의 자세 - 사진의 《국전》 참가 를 계기로」를 중심으로

최봉림 / 한국사진문화연구소 소장

1964년 6월, 예술원이 《대한민국미술전람회》(약칭 《국전》) 제7부 사진부의 신설을 가결하고 그 해 8월 문교부 장관이 이를 고시하자, 대구 사진계의 주축인 구왕삼(1909-1977)은 8월 27일 자 『매일신문』에 그 의의와 사진계의 문제점, 그에 의거한 향후 방향을 당위론적으로 제시하였다. 이 글의 요점은 1981년에 막을 내리는 《국전》 사진부를 변함없이 커버한다. 따라서 이 기고문을 꼼꼼히 읽으면 그것의 전모를 헤아릴 수 있다. “1964년 가을! 한국 ‘아카데미즘’의 전당인 《국전》에 또 하나의 미학의 대관식을 올리기로 결정하였다.”로 시작하는 이 글의 주요 문장들을 회고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필자가 《국전》 사진부 신설을 감탄부호와 ‘아카데미즘의 전당’, ‘미학의 대관식’과 같은 장엄한 어사로 환대한 것은 사회적 지위, 예술적 위상이 보잘것없었던 사진이 한국에서 처음으로 고상한 기예, 순수미술로서 대접받는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제국주의의 조선 침탈과 더불어 도입되었고 사진관을 통해 일반화된 사진은 《국전》 가입 이전에는 언제나 돈벌이를 위한 기예, 상업미술 혹은 할 일 없는 도락가의 여가 행위로만 여겨졌었다. 《국전》 가입은 구왕삼을 비롯한 모든 사진계의 인물들에게 사진이 이제 천박한 기예의 오명을 떨쳐버리고 바야흐로 순수한 예술정신의 산물로 인정받을 결정적 계기로 받아들여졌다. 그들은 《국전》 제7부를 사진행위가 예술원이라는 아카데미즘의 총화로부터, 국가의 교육대계를 책임지는 문교부로부터 예술과 지성의 활동으로 인정받는 사건으로 믿고자 했다. 그래서 구왕삼은 이렇게 단정했다. “세계 조형예술의 추세와 조류에 의하여 (...) 이제부터 사진이 회화와 조각과 동등의 지위에서 예술성을 인정하게 되었고 의적이 자격을 획득하게 된 셈이다.”



구왕삼

그러나 사진계의 바람과 믿음은 좌절과 불신으로 변모할 소지를 다분히 품고 있었다. 당시 《국전》 체제는 이 글로서는 해설할 수 없는 복잡한 역사적 경로를 통해 이미 서열화되어 있었다. 예술의 사회적 등급으로 보아도 큰 무리가 없는 미술의 위계질서를 서수를 통해 명시하고 있었다. 그것들을 열거하면, 제1부 동양화, 제2부 서양화, 제3부 조각, 제4부 공예 당시의 다른 용어를 쓰면 응용미술, 제5부 서예 그리고 1955년에 가입된 제6부는 건축이었다. 그러니까 1964년에 창설된 사진은 《국전》 제7부로 서열상, 좋게 말하면 막내, 나쁘게 말하면 꼴등이었다. 물론 구왕삼처럼 사진의 독자성과 자율성에 침윤된 모더니스트들은 마태복음의 말씀대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를 꿈꿨다. 그러나 시작부터 사태는 녹록지 않았다.

《국전》의 주무기관인 예술원과 문교부는 “신흥예술인 사진에 대하여 탈모를” 하지 않았다. 오히려 차별과 제한을 명확히 했다. 우선 《국전》 사진부 심사위원 풀(pool)인 동시에 무심사 《국전》 참가권을 갖는 ‘추천작가’ 제도를 허용하지 않았고, 대통령상, 국회의장상, 국무총리상 밑에 있는 문교부장관상을 사진부의 최고상으로 정했다. 전시장도 동양화, 서양화, 조각 등과 같은 메이저(major) 미술이 전시되는 경복궁미술관이 아니라, 공예, 서예, 건축 등 마이너(minor) 미술이 전시되는 덕수궁미술관이었다. 게다가 5·16 정권의 포고령 제5호, 사회단체 해산령의 후속조치로 설립된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산하 한국사진협회가 사진계의 대표 단체로 인정받는 양상을 띠었다. 그런데 관변적인 한국사진협회 회원 상당수는 예술사진의 통념과는 거리가 있는 사진관, 사진업체 주인들이었기 때문에, 이 조처는 ‘아카데미즘의 전당’에 입성했다고 자부한 사진‘작가’들의 분노를 불렀다.¹⁾ 그리고 《국전》 사진부의 만성적인 분규의 한 요인이 되었다. 정희섭(1917-1971) 이 이사장으로 군림한 한국사진협회, 이해선(1905-1983) 이 주도한 대한사진예술가협회, 임응식(1912-2001) 이 이끄는 한국창작사진협회는 《국전》 사진부의 주도권 장악을 위해 끝끝내 상호비방을 주저하지 않았다. 당파적인 리뷰, 자신들의 사진경향에 의거한 재단 비평, 타 협회 심사위원에 대한 매도, 정실 심사 등은 연례행사였고, 이에 기인한 심사위원 사퇴와 작가들의 출품 및 수상 거부, 진정서와 탄원서 제출은 잇을 만하면 터져 나왔다. 1964년과 1966년에는 이해선, 임응식이 심사위원직을 사퇴했고, 1973년에는 한국창작사진협회 소속 홍순태의 특선 입상에 대한 임응식의 편법심사가 문제 되었다. 1976년에는 대한사진예술가협회 회장인 안준천의 추천작가 지정이 내용을 불렀다. 다른 협회 소속 초대·추천작가 14명은 이를 도모한 이해선의 《국전》 사진부 운영위원직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추천작가 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문화공보부에 제출했고, 이진중은 대통령에게까지 탄원서를 보냈다. 간단히 말해서 ‘미학의 대관식’을 치른 《국전》 사진부가 마지막까지 가장 열심히 한 일은, 다른 부문도 일정 부분 마찬가지였지만, 각 협회와 파벌의 헤게모니 싸움이었다. 구왕삼의 1964년의 바람은 공염불이 되었고 그가 우려한 내용은 《국전》 참가를 계기로 더욱 악화되었다. “《국전》을 통하여 실력의 ‘에너지’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고 《국전》에 우수



정희섭



이해선



임응식

1) “이번 《제13회 국전》의 신인 부문인 ‘사진부’는 심사원을 둘러싸고 ‘사협’[한국사진협회] 측과 ‘창협’[한국창작사진협회] 측 사이에 반목과 투쟁의 어두운 그림자를 빚어내고 있다. 지난 7일에 문교부는 사진부 심사위원으로 이진중, 이경모, 임응식, 이해선, 정희섭 5씨를 위촉했다. 심사원의 비율을 따지면 사협 측의 정희섭, 이진중, 이경모 씨, 창협 측은 임응식, 중립의 이해선 (...)”, 『주간한국』, 1964년 10월 11일, 11쪽.

한 작품이 집결됨으로써 사단 자체의 주류는 자연적으로 《국전》에 집결하게 되고 사진의 개화를 볼 것이다. 일부 사진작가 중에는 《국전》의 참가를 거부하고 있다. 이것은 ‘콘테스트’에서도 마찬가지로 현실이지만 자기파(이념적인 분파가 아니고 정실적인 것)와 달리한 모 씨와 주동이 된 《국전》에는 참가할 수 없다는 ‘세크트’[sect]적인 방언(放言)과 거부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일이 이쯤 되면 대한민국의 민족성을 타탈 수밖에 없다.”

사실 ‘이념적인 분파’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이해선의 대한사진예술가협회와 한국사진협회의 리더들은 회화주의(pictorialism)에 의거한 유태주의, 조형성 탐구를 예술사진의 본령으로 삼고 있었고, 임응식은 ‘생활주의’로 대변되는 리얼리즘을 사진의 정수로 삼고 있었다.²⁾ 인간적 관계는 결끄러웠지만 사진적 이념에 대해서는 임응식과 노선을 같이 한 모더니스트 구왕삼으로서는 《국전》에 가입한 사진이 해야 할 가장 긴급한 사안은 회화주의와의 연계를 끊고 사진만의 독자성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회화에의 종속성을 떨쳐버리고 사진의 특질, 사진만의 고유한 표현영역을 찾아내는 일이었다. 그의 사고는 1920년대 후반, 라슬로 모호이너지(László Moholy-Nagy)가 개진하는 사진의 모더니즘과 일정 부분 유사성을 보인다.³⁾

“(…) 사진이 회화의 식민지에서 벗어나 독립된 영토를 마련하여야 한다. 미술관에 전시하는 사진이 회화와 닮은 ‘사진그림’이 되어서는 사진의 참가는 아무 의미가 없다. 독립국으로 사진이 자기 미학을 가져야 할 것이다. 과거 회화의 법칙에서 해방된 새로운 사진미학 즉 사진의 현대화를 지향하는 방법론을 시도하고 사진의 특질의 시각표현에 새로운 영역을 발견하여 사진만이 가지는 영상의 세계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구왕삼은 1964년을 일제강점기 이후 한국 예술사진의 주류로 자리 잡은 회화주의와 결별해야 하는 시간으로 보았다. 사진의, 사진에 의한, 사진을 위한 사진의 완전한 자립을 실현하는 해가 되기를 바랐다. 그에게 있어서 사진의 본질은 리얼리즘이었다. 외계현실을 정확히 기록하는 사진의 메커니즘에 의거하는 재현이었다. 여기에서 그는 유럽의 모더니즘인 뉴 비전(New Vision)이 아니라, 1910년대에 발흥한 미국 사진의 모더니즘인 스트레이트 사진(straight photography)의 주장을 좇는다. “사진예술의 본질은 과학성에 기초를 두고 발달하는 철두철미 ‘메카니즘’의 예술이다. (...) 객관적인 자연현상과 인간생활을 ‘리얼’하게 정직히 묘사하는 조형기록이다. 그러나 한국의 작화경향은 사진 본질과는 정반대의 길인 추상주의 작화수법으로 발전하여 생장한 까닭에 사진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말초적인 인상과 회화나 자연주의 방향으로 오염을 하고 있는 것이 현상이다.”⁴⁾

2) “《국전》에 전시된 사진작품을 둘러보면 사실주의적인 경향의 것과 조형적인 작품의 둘로 대별할 수가 있겠는데 입상권 내의 작품은 조형적인 것이 중심이 되어 있는 인상이었다.” 임응식, 『제13회 국전』을 결산한다, 골육적 기입 ‘조진부’ 시정=사진부, 회화부=구상·비구상의 철저한 분리기 시급, 『대학신문』, 1964년 11월 26일 3면, ‘생활주의 사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최봉림, 『임응식의 ‘생활주의 사진’ 재고』, 한국사진문화연구소(편), 『사진+문화』vol. 8, 2014, 2~6쪽을 참조할 것.

3) 최봉림, 『서양 사진사 32장면』, 아카이브북스, 2011, 210~220쪽을 참조할 것.

4) 구왕삼, 『사진의 리얼리즘 문제-작화의 이론 수립을 위하여』, 『동아일보』, 1955년 2월 17일 4면. 스트레이트 사진과 이 글의 연관성을 보기 위해서는 Paul Strand, 『Photography』, 『The Seven Arts』, New York, 1917을 참조할 것.

임응식과 언제나 이해관계를 함께한 『동아일보』의 이명동(1920-) 역시 ‘사진적인 것’의 구현을 《국전》 리뷰를 통해 되풀이해서 주장했다. 구왕삼과 동일한 사진의 리얼리즘을 주장했고, 흑백프린트에 행한 채색과 회화용 액자 사용을 질타했다. 사진의 독자성을 위해 회화재료의 사용, 회화적 전시 장치에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던 것이었다.⁵⁾ 그것만이 아니었다. 그는 사진의 리얼리즘에서 일탈하는 ‘뉴 비전’의 기법에도 분개를 감추지 못했다. 오직 사진의 정수를 조작과 연출을 가하지 않은 스냅사진, 꾸밈없는 현실의 기록에만 두었다.⁶⁾ 사진의 진정성에 대한 이 청교도주의는 임응식과 더불어 컬러사진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다. 촬영, 현상, 인화의 모든 과정이 작가의 손에서 이루어질 때만이 진정한 예술사진이라는 교조주의적 주장을 펼쳤다.⁷⁾ 컬러랩에 현상과 인화를 의뢰하는 컬러사진은 예술사진의 진정성이 결여된 것으로 질타했다. 그러니까 작가가 순수 현상하고 인화하는 흑백작업만이 진정한 작품사진이라는 주장을 행간 속에서 드러냈다.

《국전》 사진부를 둘러싼 저널리즘은 전적으로 형식적 당위론과 상투적 예술론에 기댔다. 언제나 구도, 질감, 디테일과 같은 형식적 요소를 일별하거나 사상, 감동, 내용이라는 용어로 정신성의 유무를 근거 없이 판단할 뿐이었다.⁸⁾ 그러나 세 부류의 공통점은 분명하다. 단선적이고 공격적이다. 작품에 대한 분석을 기피하고 과학적 이론에 의거한 이해를 시도하지 못한다. 오직 자기가 속하고 지지하는 당파의 의견을 과격하게 주장할 뿐이다. 물론 《국전》 사진부의 침체를 극복하려는 제안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김행오는 구왕삼, 임응식 그리고 이명동으로 이어지는 순진한 리얼리즘의 한계를 지적했고,⁹⁾ 이명동은 단 한 장의 ‘결작주의’ 사진 대신 ‘엮음 사



이명동

- 5) “흑백사진에다 붉고 푸른 물감으로 채색을 해서 칼라사진을 모방하는 따위의 추태를 노정하는가 하면 이중 삼중의 액자로 표구를 한 풍경 사진을 입선작으로 뽑아 조소 거리가 되기도 했고 (...)” 이명동, 「사진, 《국전》에서 제외」, 『신동아』, 1970년 9월, 437쪽.
- 6) “그리고 특선으로 뽑힌 흑백 작품 (마지막 일새)의 표현기법인 몽타즈[라]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수법을 썼다는 점이다. 농기는 먼도날로 오려 붙이고 철새는 그려 넣어 교묘하게 조작한 것을 특선으로 뽑았다는 사실은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지금으로부터 8, 9년 전 《사진 국전》 특선 작품 중에 독수리의 박제에다 닭을 매어 단 조작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경우가 있었다. 이와 같은 용납할 수 없는 조작된 것을 특선작으로 뽑은 그 책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심사위원들이 져야 한다. 사진성을 짓밟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으며 지탄되어야 할 것이다.” 이명동, 「개운치 못한 《사진 국전》」, 『신동아』, 1977년 6월, 386쪽.
- 7) “(...) 최종적 작화를 판 사람에게 의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 작화상의 기술과정을 모조리 스스로의 손으로서 이룩해야 한다.” 임응식, 《제1회 건축사진전》을 보고, 『대한일보』, 1971년 9월 15일, “심지어는 작가가 필름을 칼라 라보에다 맡겨 그 작품의 중요한 부분인 트레[리]밍마저도 일임하는가 하면 장정까지도 부탁해버리는 무책임한 작가가 있다면 이것이 어찌 자신의 작품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앞으로 《사진 국전》은 칼라 작품 일색이 되고 또 우리나라 몇몇 칼라 라보의 기술 경쟁 장으로 변할 것 같다.” 이명동, 「실속 없는 화려한 《사진 국전》」, 『신동아』, 1973년 10월, 370쪽.
- 8) 한 예를 들어보자. “대상작인 강상규의 〈복악설경〉은 작화상의 기법이 훌륭한 것 외에는 아무 내용이 없다. 내용이 없는 작품이란 생명이 없고, 따라서 감동을 주지 못한다. 사진이 예술로서의 의의를 지니는 것은 거기 담긴 내용이 풍부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 작가의 사상은 좀 더 높은 차원에서 모티브를 컷팅[커팅]했어야 할 것이었다. 금상의 〈갈치〉를 다룬 홍순태 씨는 질감의 묘사가 부족한 것 같고 거기서 더 나아가 독자적인 톤[톤]에 이끌려 울리지 못한 아쉬움이 앞선다.” 서상덕, 《제1회 사진 국전》의 언저리, 전근대적인 심미안으로는 새로운 사진 영상을 심사하지 못한다, 『포토그래피』, 1971년 10월, 81~82쪽.

진’ 혹은 ‘조사진’의 경선을 주장하기도 했다.¹⁰⁾ 그러나 이러한 제안에 어느 누구도 응답하지 않았다.

1964년에 쓴 구왕삼의 길지 않은 글이 1981년까지 행해진 한국 사진계의 가장 권위 있고 규모가 큰 전시회를 둘러싼 담론의 대부분을 요약한다면, 그것은 한국 사진계가 《국전》을 발판으로 도약하지 못한 채 그저 제자리걸음만을 되풀이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물론 이러한 사태의 책임이 전적으로 사진계로만 귀결될 수는 없다. 예술의 생산과 평가 그리고 유통을 국가기관이 주도한다는 것 자체가 전근대적 발상이었고 이미 시효를 상실한 정책이었기 때문이다. 전제정체 하에서, 단일한 미학체제 아래서나 실효성이 있었던 ‘관전’이 형식의 다양성과 이데올로기의 제모순을 탐구하는 현대미술의 담론과는 어울릴 수 없는 것이었다.¹¹⁾ 그럼에도 한국 사진계가 이 시대착오적인 《국전》에 목을 매달았던 것은 국가의 권위, 정책의 효율성에 기대어 사진의 사회적 인식을 고양시키고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찰카다이 무슨 예술이냐는 예술계의 냉소와 사진작가가 아니라 사진사로 처신하고, 예술가가 아니라 기능인으로 취급받는 현실을 하루마써 벗어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 욕망을 관제 《국전》은 충족시킬 수가 없었다. 현대미술의 동향에 등을 돌린 ‘한국 아카데미즘의 전당’은 시간이 감에 따라 저 스스로 유폐되어 폐궁으로 전락했고, 급기야 그 신민들은 과거에 대한 노스텔지어는커녕 욕설로 가득 찬 그곳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버렸기 때문이었다. 결국 사진계의 숙원이었던 《국전》 가입은 한국 사진계의 발전에, 사진담론의 확장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못한 채 폐쇄적이고 보수적인 사진단체의 연례행사로 넘어가게 된다. ‘국전’이 ‘민전’으로 이양되는 1982년은 한국에서 공모전을 위한, 공모전을 통한 예술사진의 시대가 저물어간 한 해였다.

- 9) “(...) 소재에서 별개의 영상을 만들어 내고 개성화된 자기 ‘이미지’ 창조 및 승화 과정에서의 노력이 결여되어 있다. 객관적인 사실에만 집착하고 작가의 의도보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데 급급하고 영상에의 주관도입을 오히려 사도시하는 객관주의가 꽤 오래도록 한국 사단에 고착되어 있다. 작가의 주체성을 등한시하고 그 사고의 자세보다는 주로 객관적 사실의 기술적 재현의 완성에만 목표를 둔다는 것은 너무도 전진을 모르는 슬픈 현상이라 아니할 수 없다.” 김행오, 「사단의 양상과 사명감」, 『중앙일보』, 1973년 9월 12일 4면.
- 10) 이명동, 「복수 사진의 개발 문제」, 『신동아』, 1973년 12월, 353쪽, 이명동, 「단일사진의 탈피」, 『신동아』, 1974년 6월, 311쪽을 참조할 것.
- 11) 웃지 못 할 한 예를 들기로 하자. 1970년, 국전제도연구위원회에 의해 사진과 건축 부문은 《국전》에서 분리되어 《대한민국 건축 및 사진 전람회》라는 명칭으로 미술관이 아닌 국립공보관에서 전시하게 된다. 이와 관련된 제2회 개최공고 중 ‘작품내용’을 인용한다. “가. 순수한 민족 정서에서 창작된 작품. 나. 민족 총화의 새 가치관을 고취시키는 작품. (...) 라. 새마을 운동에 따른 농어촌 주택 개량에 활용할 수 있는 작품.” 이쯤 되면 이 프로파간다 ‘관전’은 현대 ‘미학의 찬탈식장’이라고 봐야한다.

일러두기

- 1 본 자료집은 1950년대부터 1982년대까지 《국전》 사진부 관련 자료를 연대기적으로 정리한 『《국전》 사진부 자료집』이다. 《국전》 창설 이후 사진부 설치 운동부터 《제13회 국전》 사진부 신설과 《제30회 국전》으로 폐전하기까지 사진부 개최 공고, 관련 규정 및 개정, 도록, 심사평 및 수상 소감, 사진분과 위원 및 입상자 등 관련 기사와 문서를 순서대로 수록했다. 상세 목차에서 그 수록 면을 확인할 수 있다.
- 2 이 자료집에 수록한 자료명의 배열은 발행일자 혹은 시행일자, 매체명 혹은 소장처, 게재 면, 필자 혹은 발행·주최 기관, 명제의 순이다. 단, 전시 도록의 경우 편의를 위해 전시일, 장소, 전시명으로 대체했다.
- 3 《국전》 도록은 《국전》 운영위원, 사진분과위원회 및 사진부 입상자 명단과 특선작 이상의 도판만을 수록했다. 그 외 일부 기사 자료는 사진부 부분만 발췌했다.
- 4 전시 작품 도판의 배열은 도록에 수록된 순서를 따랐다. 각 도판의 크기는 지면에 맞게 조정된 것으로 실제 작품 크기와는 무관하다.
- 5 자료집에 수록되지 않은 《국전》 사진부 자료 및 《국전》 자료는 그 목록을 정리해 참고 자료로 수록했다.
- 6 타이핑 자료는 원문 표기 형식 그대로를 원칙으로 하되, 오·탈자는 []안에 수정해 병기했다. 세로쓰기는 가로쓰기로, 띄어쓰기는 현행의 관행에 맞춰 수정했다. 내용의 수정 혹은 삽입이 필요한 부분은 편집자가 []로 표기해 보충했다.
- 7 한자는 국문으로 바꿔 표기했다. 의미 전달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안에 병기했고 간체자는 본자를 사용했다. 한자, 영어 등의 원어 병기는 초출(初出)에 한했다.
- 8 자료 원문 중 판독이 어려운 글자는 ■로 표기했다. 그 외의 문장 부호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용되었다. 특히, 매체명, 전시명 혹은 행사명, 작품명을 표시하는 기호는 원문의 표기와 관계없이 아래와 같이 통일했다. ‘ ’: 강조, “ ”: 인용, 《 》: 전시명, 행사명, < >: 작품명, 「 」: 논문, 에세이명, 기사명, 『 』: 서명, 잡지명, 신문명, [?]: 소장처 미상으로 자료의 게재 면을 확인 못한 경우

1950년대

- 19 이해선, 「사진예술의 독자성, 《국전》에 사진부 설치하라」, 『동아일보』, 1956.1.26.
- 21 임석제, 「사단의 자아반성」, 『경향신문』, 1957.3.6.
- 22 「《국전 사진부》 설치안 부결」, 『조선일보』, 1957.6.24.
- 23 임응식, 「사진은 예술이 아닐까?-예술원에서의 논란을 보고-」, 『서울신문』, 1957.6.30.
- 25 「(휴게실) 《국전》과 사단」, 『세계일보』, 1957.7.2.
- 26 서상덕, 「사진은 예술이 아닌가? (상)」, 『경향신문』, 1957.7.8.
- 29 문화공보부 예술국 예술1과, 「《제7회 국전》 사진부 신설에 관한 건」, 『제7회국전철』, 1958.6.23.
- 30 한국사진작가협회, 「《국전》 사진부 설치 및 문화인 등록에 관한 건의서」, 1959.4.20.
- 32 「(내외 문화단신)《국전》 사진부 설치 예술원에서 부결」, 『자유신문』, 1959.7.3.

1960년대

- 35 임응식, 「사진작품의 예술성,《국전》에 사진부 설치를 주장한다」, 『서울일보』, 1960.3.31.
- 38 최계복, 「사진 부문도 《국전》에 참가하여야 한다」, 『한국일보』, 1961.3.14.
- 40 정희섭, 「(새 설계-사진) '지방순회전' 열고, 신인 양성도 활발하게, 올해에는 《국전》에」, 『동아일보』, 1962.1.7.
- 41 「'사진 국전'의 창설 건의, 한국사진협회 각계 요로에」, 『동아일보』, 1962.7.26.
- 42 「《국전》에 사진 부문도」, 『동아일보』, 1963.4.10.
- 42 「《국전》에 사진 부문 추가토록, 예총서 관계 당국에 건의서」, 『동아일보』, 1963.5.8.
- 43 문교부, 「《대한민국미술전람회》 실시 요강 공고」, 『경향신문』, 1964.8.20.
- 45 「사진 부문 신설 뒤에 오는 것, 기쁨에 얽힌 기우」, 『한국일보』, 1964.8.20.
- 46 구왕삼, 「광복 20년의 문화계 지표① 전환기에 선 사진의 자세-사진의 《국전》 참가를 계기로」, 『매일신문』, 1964.8.27.

- 48 한국사진협회, 「《국전》 사진부 신설 안내서」, 1964.9.
- 49 문교부, 「제13회 대한민국 미술전람회」 심사위원회 소집, 1964.10.7.
- 50 임응식, 「《국전》 심사위원 사퇴서」, 1964.10.9.
- 51 「'사진예술성을 무시', 《국전》 심사원 두 명이 사퇴」, 『조선일보』, 1964.10.9.
- 51 「문교부령 제150호 《대한민국미술전람회》 규정」, 『관보』(3870호), 공보부, 1964.10.12.
- 55 「(황철수설)」, 『동아일보』, 1964.10.14.
- 56 문화공보부 예술국 예술1과, 「《제13회 국전》 사진부 심사위원 해촉에 관한 건」, 1964.10.15.
- 58 문교부, 「임응식 《제13회 국전》 심사위원 해촉 통보서」, 1964.10.15.
- 58 「세 사진작가 수상을 거부, 심사위 구성에 불만」, 『조선일보』, 1964.10.15.
- 59 『제13회 국전』 도록, 태서문화사, 1964.
- 63 이해선, 임응식, 「사진부 심사위원 사퇴한 이유」, 『주간한국』, 1964.10.18.
- 65 「《국전》 총평, “현실은 있으나 작가의 눈은 없다”, 전문가들과 문화계 인사들의 의견」, 『조선일보』, 1964.10.20.
- 65 「(뉴스와 화제-미술)욕먹는 예술원」, 『신동아』, 1964.11.
- 66 「대통령령 제1,979호 《대한민국미술전람회》 전시작품 심사위원회 규정」, 『관보』(3885호), 공보부, 1964.11.10.
- 69 「《제13회 국전》을 결산한다. 굴욕적 가입 '조건부' 시정=사진부, 회화부=구상 비구상의 철저한 분리가 시급」, 『대학신문』, 1964.11.26.
- 70 문교부, 「《제14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 요강 공고」, 『경향신문』, 1965.7.3.
- 72 한국창작사진협회, 「《국전》 사진부에 관한 건의서」, 1965.7.19.
- 74 「《국전》 심사 차별 철폐 '창작시험'서 건의」, 『경향신문』, 1965.7.21.
- 75 『제14회 국전』 도록, 태서출판사, 1965.
- 79 문교부, 「《제15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 요강 공고」, 『한국일보』, 1966.7.9.
- 81 「《제15회 국전》 입상작 발표」, 『동아일보』, 1966.10.8.
- 81 「평년작 《국전》, 각 분과별 심사위원들의 지상 개평」, 『조선일보』, 1966.10.9.
- 82 『제15회 국전』 도록, 태서출판사, 1966.
- 87 「《국전》론」, 『조선일보』, 1966.10.18.
- 88 정희섭, 「1966년 사단 회고」, 『포토그래피』, 1966.12.
- 90 「《제15회 국전》 심사평」, 『포토그래피』, 1966.12.
- 92 임응식, 「《국전》에 대한 나의 소견」, 『사진예술』, 1966.12.
- 93 임응식, 「《국전》 심사 사퇴자의 변」, 『포토그래피』, 1967.3-4.
- 95 문교부, 「《대한민국미술전람회》 요강」, 『서울신문』, 1967.6.24.
- 97 방근택, 「《국전》 사진부의 문제점-사진예술의 부재 현상」, 『포토그래피』, 1967.7-8.

- 98 문화공보부 예술국 예술1과, 「《국전》 사진부 정상화에 관한 건의 건」, 『제16회국전철』, 1967.8.16.
- 101 「문화계의 두 움직임」, 『경향신문』, 1967.8.19.
- 102 정희섭, 「제16회 국전」 사진 부문 심사위원 구성의 모순성을 지적」, 『포토그래피』, 1967.9.
- 103 「질 · 양적으로 향상 보여, 《국전》 심사분과위원장들의 종합보고」, 『조선일보』, 1967.9.24.
- 104 『제16회 국전』 도록, 고려서적주식회사, 2001.
- 109 「특집 좌담 · 한국 사진의 오늘과 내일」, 『카메라예술』, 1967.11.
- 111 「문화공보부 설치, 정조법개정안 각의 의결 국회에」, 『경향신문』, 1968.6.22.
- 111 문교부, 「공고」, 『서울신문』, 1968.6.25.
- 114 「《국전》 문공부의 제도변경을 계기로 본 그 문제점」, 『조선일보』, 1968.9.5.
- 116 『제17회 국전』 도록, 고려서적주식회사, 2001.
- 121 문화공보부, 「공고」, 『동아일보』, 1969.6.9.
- 123 「《국전》 심위구성 개혁, 문공부지명인위원회서 추천」, 『동아일보』, 1969.8.29.
- 124 임응식, 「《국전》 사진부를 바로 잡아야 한다-문공부예의 제언」, 『공간』, 1969.10.
- 127 「잡음 《국전》...말썹부린 심사」, 『조선일보』, 1969.10.16.
- 128 『제18회 국전』 도록, 고려서적주식회사, 2001.
- 133 「특집: 현대미술관과 《국전》-자료, 설문, 좌담」, 『공간』, 1969.10.
- 134 장원훈, 「《제18회 국전》 특상 소감」, 『포토그래피』, 1969.12.
- 135 이명동, 「(뉴스와 화제-사진)《국전》에 나타난 사진」, 『신동아』, 1969.12.

1970년대

- 139 문화공보부 예술국 예술1과, 「《국전》 제도 개선 연구위원 위촉 및 1차 회의」, 『제19회 국전철(1)』, 1970.1.23.
- 141 「3권' 쥐고 독주 우려, 파문 안은 문공부의 《국전》 운영 초안...미술계에 들어본다」, 『동아일보』, 1970.7.22.
- 144 「문공부 절충안 제시로 드러난 《국전》 제도개혁안과 그 문제점」, 『조선일보』, 1970.7.22.
- 147 정희섭, 「《국전》 개혁 초안을 보고」, 『포토그래피』, 1970.8.
- 150 「사진 · 건축은 분리, 국전운영위 결정 공에는 포함」, 『경향신문』, 1970.8.6.
- 150 이명동, 「(뉴스와 화제-사진)사진, 《국전》에서 제외」, 『신동아』, 1970.9.
- 151 「문화가 산책④(사단) 《국전》서의 제외로 큰 충격」, 『조선일보』, 1970.9.9.
- 153 최인진, 「《국전》에서 제외된 사진」, 『예술계』, 1970.10(가을호).
- 155 문화공보부, 「제1회 건축, 사진전 개최 공고」, 『서울신문』, 1971.1.21.
- 157 문화공보부, 「제1회 건축 및 사진전 개최일 변경 공고」, 『서울신문』, 1971.3.20.
- 157 「(미술이 여는 가을)《국전》 10월 11일 개막. 래(來) 1일 《건축 · 사진전》 '스타트'로, 대구서 첫 지방전도」, 『한국일보』, 1971.8.21.

- 159 「추천작가 인선반발, 작가들, 사협 천거에 “자격없다”」, 『한국일보』, 1971.8.25.
- 160 「사단법인 한국사진협회」, 『포토그래피』, 1971.9.
- 161 문화공보부, 『《제1회 대한민국 건축 및 사진 전람회》』, 1971.
- 164 「(문화산책)《제1회 사진·건축 합동전》, 주최한 문공부, 성의 없이 시늉만 낸 듯」, 『중앙일보』, 1971.9.6.
- 165 임응식, 「(사진)《제1회 건축 사진전》을 보고」, 『대한일보』, 1971.9.15.
- 166 「《국전》입상 특선 소감」, 『포토그래피』, 1971.10.
- 168 서상덕, 「《제1회 사진 국전》의 언저리, 전근대적인 심미안으로는 새로운 사진 영상을 심사하지 못한다」, 『포토그래피』, 1971.10.
- 171 장원훈, 「(독자의 투고)《제1회 사진 국전》을 보고서」, 『포토그래피』, 1971.10.
- 174 강대환, 「《건축 및 사진 독립전》심사 발표를 보고」, 『포토그래피』, 1971.10.
- 176 「《제2회 건축 및 사진전》개최 공고」, 『포토그래피』, 1972.4.
- 177 이명동, 「(뉴스와 화제-사진)추천작가 증원 문제」, 『신동아』, 1972.6.
- 178 임응식, 「《건축 사진전》심사후감, 사진부의 문제점」, 『공간』, 1972.8.
- 179 「막 올린 《2회 건축 사진전》, 모두 4백 10점 출품」, 『경향신문』, 1972.9.6.
- 180 문화공보부, 『《제2회 대한민국 건축 및 사진 전람회》』, 1972.
- 184 문화공보부 예술국 예술1과, 「《국전》제도 개선에 따른 운영위원회 결과보고」, 『제22회 국전철』, 1973.1.10.
- 186 「(낙서) 뒤늦게 들어난 정실심사로 진통…사협」, 『신아일보』, 1973.6.4.
- 187 한국사진협회, 「《제2회 건축 및 사진 전람회》심사과정 관련 이사회 소집 공문」, 1973.6.20.
- 188 문화공보부, 「《제3회 건축 및 사진전》개최 공고」, 『서울신문』, 1973.7.27.
- 190 한국사진협회, 「《제2회 건축 및 사진 전람회》심사과정 관련 이사회 결과」, 1973.8.11.
- 191 이명동, 「(뉴스와 화제-사진)《국전》의 정실 심사 파동」, 『신동아』, 1973.9.
- 193 문화공보부, 『《제3회 대한민국 건축 및 사진 전람회》』, 1973.
- 197 김행오, 「사단의 양심과 사명감」, 『중앙일보』, 1973.9.12.
- 199 이명동, 「(뉴스와 화제-사진)실속 없는 화려한 《사진 국전》」, 『신동아』, 1973.10.
- 200 서상덕, 「《국전》과 개인전의 차이-《제3회 건축 사진전》의 문제점」, 『포토그래피』, 1973.10.
- 202 장원훈, 「《제3회 대한민국 건축 및 사진 전람회》를 보고서」, 『포토그래피』, 1973.10.
- 205 서상덕, 「《국전》과 개인전의 차이-《제3회 건축 사진전》의 문제점」, 『포토그래피』, 1973.11.
- 207 「국전운영위원회 위원(23명)」, 1974.1.21.
- 208 「《국전》…4개 독립전으로 개최」, 『동아일보』, 1974.1.31.
- 209 「《제23회 국전》개최 공고」, 『경향신문』, 1974.2.1.
- 212 「《국전》2·4부 영예의 2인」, 『경향신문』, 1974.4.22.
- 212 서상덕, 「유정재의 영광과 사단, <새아침>의 대통령상 수상을 더욱 의의 깊게 하는 일」, 『포토그래피』, 1974.5.

- 214 『《제23회 국전》도록』, 광명출판사, 1975.
- 220 문화공보부, 「《대한민국미술전람회》운영위원회 규정」, 1974.5.16.
- 222 이명동, 「(뉴스와 화제-사진)단일사진의 탈피」, 『신동아』, 1974.6.
- 224 문화공보부, 「《제24회 국전》개최 요강」, 1975.1.
- 228 문화공보부 예술국 예술1과, 「《국전》운영위원(사진 분야) 증원 건의에 대한 회신」, 『제24회국전철』, 1975.1.17.
- 230 「두드러진 개성 표현, 《봄 국전》부분별 작품 경향」, 『경향신문』, 1975.4.23.
- 231 『《제24회 국전》도록』, 광명출판사, 1976.
- 237 김태한, 「《24회 국전》사진을 보고-다양한 소재 훌륭한 인화 처리」, 『포토그래피』, 1975.6.
- 239 문화공보부, 「《제25회 국전》개최 공고」, 『서울신문』, 1976.2.2.
- 241 임응식 외, 「국전운영위원회 위원 위촉 관련 진정서」, 1976(추정).
- 242 「(사진계 소식)《국전》운영위원 위촉」, 『포토그래피』, 1976.4.
- 243 문화공보부, 「《국전》심사위원 위촉 및 심사위원회 개최 공문」, 1976.4.16.
- 244 《국전》사진부 초대 및 추천작가, 「《국전》제4부(사진 부문) 추천 및 초대작가 지정에 관한 진정서」, 1976.4.17.
- 245 「추천작가 지명 문제로 사단중진들 반발」, 『동아일보』, 1976.4.21.
- 246 「《《봄 국전》》잡음 줄인 첫 공개심사, 뛰어난 작품 못 가려 최고상 없애」, 『조선일보』, 1976.4.25.
- 248 『《제25회 국전》도록』, 광명출판사, 1977.
- 254 문화공보부 예술국 예술1과, 「《국전》추천작가 결정에 따른 진정서에 대한 건의문 회신」, 『제25회국전철(2)』, 1976.5.7.
- 259 이명동, 「(뉴스와 화제-사진)추천작가 지명 시비」, 『신동아』, 1976.6.
- 260 문화공보부 예술국 예술1과, 「[이건중] 청원서에 대한 회신」, 1976.6.7.
- 264 이명동, 「(뉴스와 화제-사진)탈피 못하는 회화양식」, 『신동아』, 1976.7.
- 266 「(뉴스와 화제-미술)《국전》의 존재 문제」, 『신동아』, 1977.2.
- 267 문화공보부, 「《제26회 국전》개최 공고」, 『동아일보』, 1977.2.1.
- 270 「《봄 국전》심사에 물의, '사진' 심사위원에 시비」, 『동아일보』, 1977.4.21.
- 271 『《제26회 국전》도록』, 광명출판사, 1978.
- 276 「(뉴스와 화제-미술)쓸쓸한 《봄 국전》」, 『신동아』, 1977.6.
- 277 이명동, 「(뉴스와 화제-사진)개운치 못한 《사진 국전》」, 『신동아』, 1977.6.
- 278 「《제26회 봄 국전》」, 『월간사진』, 1977.6.
- 279 성두경, 홍순태, 「《제26회 국전》사진에 관한 나의 의견」, 『영상』, 1977.7.
- 281 문화공보부, 「《제27회 국전》개최 공고」, 『서울신문』, 1978.2.1.

- 283 『《제27회 국전》 도록』, 고려서적주식회사, 1979.
- 289 이경모, 「《제27회 봄 국전》 사진부 심사평」, 『월간사진』, 1978.6.
- 291 서상덕, 「《제27회 국전》 논평-실망감 주는 '무감사 작품'」, 『월간사진』, 1978.6.
- 293 문화공보부, 「《제28회 국전》 개최 공고」, 『서울신문』, 1979.2.16.
- 295 『《제28회 국전》 도록』, 고려서적주식회사, 1980.
- 300 서상덕, 「(사진전)뿌리내린 《국전》」, 『월간사진』, 1979.6.
- 302 박용숙, 「(뉴스와 화제-미술)《제28회 가을 국전》」, 『신동아』, 1979.11.
- 303 원동석, 「(특별기고)《국전》 30년의 실태와 공과」, 『계간미술』, 1979.12(겨울호).

1980년대

- 314 「《국전》 운영 갈팡질팡, 또다시 종전대로 - 시상만 바뀌」, 『동아일보』, 1980.2.6.
- 314 「《제29회 국전》 개최 공고」, 『동아일보』, 1980.2.7.
- 316 박용숙, 「(뉴스와 화제-미술)끊이지 않는 《국전》 개혁안 시비」, 『신동아』, 1980.3.
- 318 「《국전》 사진부 심사 광경」, 1980년도 추정.
- 318 「《봄 국전》 운영과 문제점」, 『동아일보』, 1980.4.23.
- 320 『《제29회 국전》 도록』, 고려서적주식회사, 1981.
- 325 「《제29회 국전》 수상작품, 사진부 대상 이창남 씨의 〈반영〉」, 『영상』, 1980.6.
- 326 이명동, 「(뉴스와 화제-사진)질 높여야 할 《국전》 사진 부문」, 『신동아』, 1980.6.
- 327 서상덕, 「(사진평론)제2부 《국전》(사진부분) 문제점들-그 활성화와 바람직한 운영을 위한 개선」, 『월간사진』, 1980.6.
- 331 「《제30회 국전》 개최 공고」, 『경향신문』, 1981.3.10.
- 333 『《제30회 국전》 도록』, 고려서적주식회사, 1982.
- 340 「《국전》 개혁 후 사진예술계 초비상, 새 전시회 창설 계기 운영방안 놓고 파란 일 듯」, 『매일경제』, 1982.1.26.
- 342 「《국전》 제도 폐지」, 『월간사진』, 1982.2.
- 342 전순룡, 「(시론)《국전》 사진부 발지[폐지]의 뜻」, 『영상』, 1982.3.
- 344 이명동, 이경모, 홍순태, 「(특별대담)《대한민국 사진 전람회》 출범 이렇게 생각한다」, 『영상』, 1982.4.

1950년대

1956년 1월 26일, 『동아일보』 4면

이해선, 「사진예술의 독자성, 《국전》에 사진부 설치하라」

寫眞藝術의 獨自性

國展에 寫眞部設置하라 李海善

寫眞·靜 路·雨 相 像 作 善

한국의 사진예술은 현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독자성을 띠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독자성은 아직까지도 '국전'에 사진부를 설치하라는 주장과 함께 논의되고 있다. 이 글은 사진예술의 독자성을 논하며, '국전'에 사진부를 설치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寫眞藝術의 獨自性은 藝術의 本質에 依하여 決定된다. 寫眞은 現實의 寫眞을 表現하는 藝術이다. 寫眞의 價値는 寫眞의 眞實性과 美의 價値에 依하여 決定된다. 寫眞의 獨自性은 寫眞의 本質에 依하여 決定된다. 寫眞의 價値는 寫眞의 眞實性과 美의 價値에 依하여 決定된다. 寫眞의 獨自性은 寫眞의 本質에 依하여 決定된다. 寫眞의 價値는 寫眞의 眞實性과 美의 價値에 依하여 決定된다.

하나의 시대는 언제나 이에 상응하는 예술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믿는다. 현대는 경이적으로 발달한 과학과 기계문명의 세계이며 우리들은 이 과학과 기계가 끊임없이 움직이는 심한 운동과 벽찬 힘의 테두리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으로써 현대의 예술생리는 필연적으로 구래(舊來)의 그것과는 판이하지 않을 수 없으며 더구나 과학과 기계를 본질로 하는 사진은 가장 새로운 현실적인 예술의 하나로써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는 즉 과학과 기계로써 이루어지는 현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예술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대중들은 아직까지도 예술이라면 개인적이고 수공적이며 또한 단일 생산성을 가져야만 예술의 특장(特長)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 마치 이것은 보석의 생산이 근소하므로 보석의 가치를 크게 보는 것과 같은 관념으로 예술의 가치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사진가들은 이러한 관념을 재검토하지 않을 수 없으며 우리들은 예술의 가치 중에서 보통 다른 사물의 가치에서와 동일한 효용적인 성분을 요구하며 어떻게 인류 일반에게 널리 공헌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조항을 예술평가의 극히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한 점의 미술품이 한사람 내지 소수의 특수계층층만을 즐겁게 하는데 그치고 대다수의 대중

들에게 그 혜택을 주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예술로서의 가치는 희박한 것이 아닐 수 없다. 여기에 서 기계 예술은 기계를 이용하여 예술을 널리 일반 대중에게 분여(分與)하여 공락(共樂)케 할 수 있는 것이다.

언제나 예술 행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되는 것은 창작적인 정신부 면이고 수법은 제2의 문제라고 하겠으며 작품의 가치는 수공적이거나 기계적이거나 이러한 것 등은 문제가 되지 않을 뿐더러 더구나 경중의 차도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사진화(寫眞畵)는 발생 시초부터 순수한 기계 예술로서 다량생산의 독자적인 특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현시대의 예술이 지향하는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아직까지도 이러한 사진예술을 극히 냉대하고 있다.

이는 두말할 것 없이 작품에 있어서 수공적인 조작만이 예술의 전(全) 생명인 것처럼 생각하는 낡은 관념의 사람들이 과학과 기계로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예술에 대한 인식 부족에서가 아닌가 생각된다.

여기 새삼스리 사진화의 예술적인 구성요소라든가 창작과정은 언급할 필요조차 없으나 사진기는 어떠한 정위치에서 고정적인 운동을 되풀이하는 기계와는 달리 사람의 수중에서 사람의 두뇌로부터 직접 명령을 받아 경쾌하게 모든 환경에 응하여 임기응변적인 기능을 발휘케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사진예술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도 벌써 삼십여 년이 되었고 그동안 많은 작가들이 헤아릴 수 없는 작품 행동도 하여 왔으며 또 근년에 이르러서는 작품의 제작도 국제수준 선에까지 육박한 감을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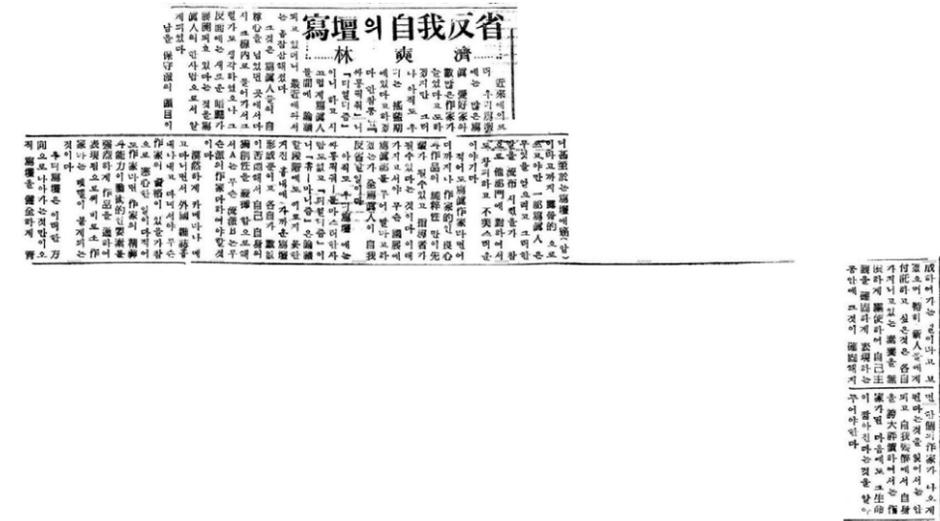
이와같이[이와같이] 알뜰히 여무러가는[여물어가는] 사진예술은 인류생활에 있어서 불가분의 존재로서 그 중요성이 절실히 인식되고 있는 이때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인 예술기관에 언권(言權)을 가지고 참여할 만한 단 한 사람의 대표도 없고 국가 주최인 예술제전으로써 매년 열리는 《국전》에도 아직까지 그 말석이나마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새삼스럽게 선진 외국들의 실례를 예거(例擧)할 필요조차 없이 대내 대외적으로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금년에야말로 관계 당국은 사진예술에 대해서 깊은 이해와 따뜻한 태도로써 《국전》에 사진부를 설치해 주기를 바라는 동시에 더우기 전국의 우리 사진작가들도 사진예술의 높은 승화를 위해 일 층의 노력이 있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필자=‘사연(寫研)’¹⁾ 고문)

1) 대한사진예술가협회(大韓寫眞藝術家協會). 경성아마추어카메라구락부(1937)와 백양사우회(1939) 회원들이 참여한 사진단체로, 1945년 박영진(초대회장), 이해선(지도위원), 김정래, 박필호 등이 '조선사진예술연구회'로 창립했다. 1947년 대한사진예술연구회, 1957년 대한사진예술가협회로 개칭해 현재에 이른다.

1957년 3월 6일, 『경향신문』 4면

임석제, 「사단(寫壇)의 자아반성」



근래에 이르러 우리 사단에는 많은 사진 애호가와 수많은 작가가 늘었다고도 하겠지만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요람기에 있다고 하겠다. 한참동안 '짜롱픽취'니 '리얼리즘'이니 하고 시끄럽게 사진인들 간에 논의되고 있더니 최근에 와서는 좀 잠잠해졌다.

그것은 사진인들의 자존심을 넘었던 곳에서 다시 그 선대로 들어가서 그럴가도 생각하였으나 그 반면에는 새로운 암투가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사진인의 한사람으로서 알게 되었다.

남을 보수파의 두목이니 심지어는 사단에 癩(암)이라고까지 노골적으로 쓰고야만 일부 사진인은 무엇을 얻으려고 그러한 말을 유포시켰을가 참으로 타 부문에 대하여서도 창피하고 불미스러운 이야기다.

적어도 사진작가라면 어디까지나 작가적인 양심과 작품의 순수성만이 선배가 될 수 있고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레가지고서야 무슨 《국전》에 사진부를 무어 달라고 하겠는가 전 사진인이 자아 반성할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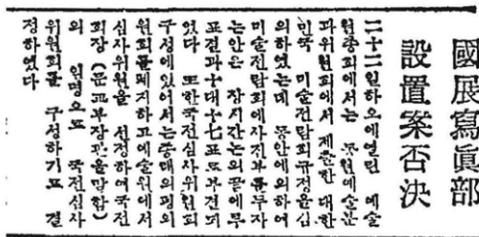
아직도 우리 사단에는 짜롱픽취-를 마스터한 사람도 없고 '리얼리즘'이니 '휴-마니즘'은 논의 할 단계에도 이르지 못한 거진 흉내에 가까운 사단형성뿐이고 각자가 수없이 고민해서 자기 자신의 독창성을 발휘함으로써 비로소 작가라는 랫렛[레터(letter)]이 붙게 되는 것이다.

막연하게 카메라나 메고 다니면서 외국 잡지 흉내나 내고 다녀서야 무슨 작가의 자격이 있을가 참으로 한심한 일이다. 적어도 작가라면 작가의 정신과 능력이 예술적인 요소를 강렬하게 작품을 통하여 표현됨으로써 비로소 작가라는 랫렛[레터(letter)]이 붙게 되는 것이다.

우리 사단은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오직 사단을 건전하게 육성하여가는 일이라

고 보겠으며 특히 신인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각자가 지니고 있는 소양을 무한하게 구사하여 자기주관을 확고하게 표현하는 동안에 그것이 확고해지면 한 개의 작가가 나오게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고 자아도취에서 자신을 과대평가하여서는 작가가 된 다음에도 그 생명이 짧아진다는 것을 알아두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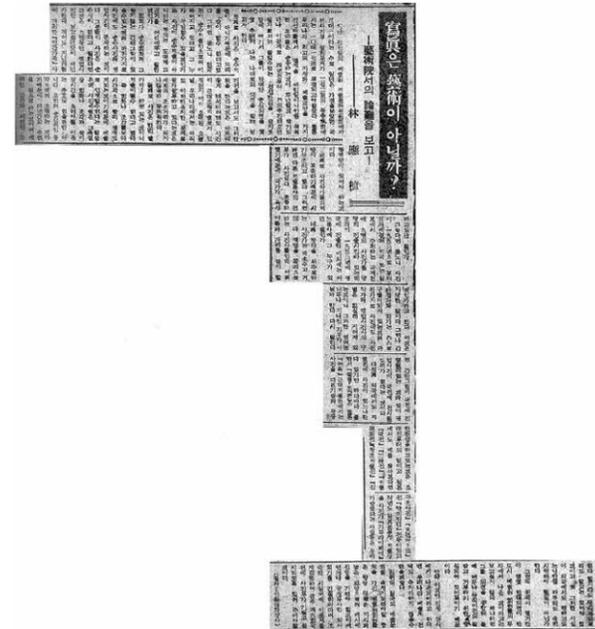
1957년 6월 24일, 『조선일보』 3면
「《국전 사진부》 설치안 부결」



22일 하오에 열린 예술원²⁾ 총회에서는 동원 예술분과위원회에서 제출한 《대한민국미술전람회》 규정을 심의하였는데 동 안에 의하여 미술전람회에 사진부를 두자는 안은 장시간 논의 끝에 투표 결과 10대 17표로 부결되었다. 또한 《국전》 심사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종래의 평의원회를 폐지하고 예술원에서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국전》 회장(문교부 장관을 말함)의 임명으로 《국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하였다.

2) 대한민국예술원. 국가에서 예술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54년 개원했다. 문학, 미술, 음악, 연극·영화·무용의 4개 분과로 나누어진다. 총회는 재적회원 전체로 구성되며 임원회 구성은 회장, 부회장 및 각 분과회장의 6인으로 구성된다.

1957년 6월 30일, 『서울신문』 4면
임응식, 「사진은 예술이 아닐까?-예술원에서의 논란을 보고-」



지난 17일의 예술원 미술분과위원회³⁾에서 5대 3이라는 수로 일단은 가결을 보았던 《국전》 사진부 설치 문제가 22일의 동 총 회에서는 10대 17표로 부결되고야 말았다. 물론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과 예술교양을 가지신 선배들께서 결정을 내린 일이니만큼 묵묵히 우리들은 순종하는 것이 무난할 것 같기도 하나 이 문제로 4년 전부터 건의 추진해오던 필자로서는 말할 수 없는 섭섭한 감을 금치 못함에 여기서 그들이 반대한 중심 의견을 몇몇 추려서 나는 나대로의 의견을 말해 보고자 한다.

첫째로 사진은 순수미술이 아니기 때문에 자리를 같이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 물론 현 《국전》이 순수미술만으로써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 누가 장담할 수 있을 것인가. 또 사진이 순수미술이 아니라는 정의는 도대체 그 근거를 어디에 두고 말한 것인가.

회화가 순수회화와 그렇지 않은 간판 그림이 있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진에도 순수사진과 영업사진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분들이 사진은 순수성이 없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오랫동안 영업사진만 보고 왔던 탓이 아닌가 한다. 적어도 지난 4월에 개최한 《인간가족 사진전》을 보

3) 1957년 예술원 미술분과위원회는 노수현, 도상봉, 배림, 김환기, 배길기, 김인승, 윤희중이다. 종신회원은 고희동, 오상순, 엄상섭, 현제명이었으며 6년 회원은 박종화, 장발, 이상범, 손재형, 성경린, 유치진, 이규환, 김성태, 김동리, 조연현이었다.

고서도 그러한 말을 한다는 것은 아무리 좋게 해석하려 해도 사진이 근대 조형미술로서 인정된 지 이미 오래된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이러한 유치한 문제로 알가알부하고 있다는 것은 세계의 조소거리가 되거나 않을까 두려워한다.

둘째로 사진은 한번 짧가닥! 하면 되는 것이니 미술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즉 회화나 조각들보다 시간적으로 빨리 결정짓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술로 인정할 수 없다는 말 같은데 사진에 예술은 그 특질상 회화나 조각과 같이 장시간을 요해야 될 이유는 추호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순간적인 동작으로써 조형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년간의 수련을 필요로 하는 것이며 예리한 감각과 세련된 조형 역량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셋째로 사진작가들의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기상조라고 했다. 그러면 과연 다른 미술 분야의 전부가 사진보다 훌륭하였기 때문에 국가가 육성하고 있던 말인가.

그렇다면 문노니 사진이 1953년으로부터 5차에 걸쳐 미국 또는 일본에서 주최하는 국제전에 9명의 사진가를 당당히 진출시킨 바 있는데 조각이 1953년에 영국에 진출한 이외에는 어느 분야에 그 누가 있던 말인가.

넷째 창작을 위주로 하는 사진가는 극소수고 거의 다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진사들인데 어찌 이들과 자리를 같이할 것인가라고 한다. 이것은 지당한 말이다. 그러나 간판업자와 화가는 스스로 구별이 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진에도 사진작가와 영업사진사의 구별은 확실히 지켜져 있는 것이니 그러한 염려는 너무나 지나친 기우가 아닐까 한다. 다시 말한다면 간판 그림이 《국전》에 진렬될[진열될] 리 없는 것과 같이 영업사진이 《국전》에 전시될 도리가 없다는 것이다.

다섯째 외국에서도 미술전에 사진이 있느냐 한다. 있기는 하다가다. 불란서《쌀롱》또 《똥》은 물론 '뉴욕' 근대미술관에서는 사진을 다른 기술과 동등한 취급을 하고 있는 것은 오래전부터의 일이고 일본에서도 예를 찾아본다면 《국전》⁴⁾, 《이과전(二科展)》⁵⁾, 《미술문화전》, 《창조미술전》, 《신구조사전》, 《모던아트전》, 《안데판단전》 등이 있고 작년도 일본 문부성 미술상을 사진가 '기무라 이헤이'⁶⁾가 받았다는 사실 등은 우리가 꼭 본받아야 할 이유는 없다할지라도 상식 정도로라도 알고는 있어야 할 것이고 또 그러한 사실이 외국에서도 행하고 있느니만큼 하루라도 속히 시행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한다.

그런데 위에서 열거한 이 몇몇 반대의견이 반드시 예술원 회원들의 무식에서 나온 것이라고는 보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그들 의견을 종합해 볼 때 너무나 상식 이전의 말 같고 거부하기 위한 중심되어 있어 보이기 때문이다.

4) 일본 문부성 주최의 미술전람회, 《문부성미술전람회》(약칭 문전(文展), 현재 《일본미술전람회(日本美術展覧會)》)를 말한다.
5) 1914년 《문부성미술전람회》에 대항하는 재야 미술 단체로 이과회(二科會(니카가이))를 조직해 개최한 것이 《이과전》이다. 아카데미한 관전에 반하는 성향으로 양화계의 신경향을 대표했다. 1952년 사진부가 편입되어 현재 회화, 조각, 디자인, 사진부로 구성되어있다.
6) 기무라 이헤이(木村伊兵衛, 1901-1974). 1930년대 이후 일본 사진계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친 대표적인 원로 사진가이다. 1976년 『아사히카메라』에서 《기무라이헤이상》을 제정해 이어오고 있다.

만약 이것이 진정 무식에서 나온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예술계 전체의 수치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원컨대 일국의 예술문화를 육성 지도해야 할 중책을 가진 예술원 회원들은 항상 새로운 지식과 높은 교양으로써 매사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언제나 공정 무사한 처사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이 문제를 재검토하여 금추 《제8회 국전》에 사진부가 기필코 설치되도록 힘써 주어야 할 것이다. (필자=이화대 강사)

1957년 7월 2일, 『세계일보』 4면 「(휴게실) 《국전》과 사단」



세계적인 미술계의 조류를 볼 때 오늘날 사진이 당당히 조형예술의 일각을 점하고 있음은 거의 상식화된 이야기일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국전》이 생기면서부터 사진 부문의 설치 여부로 논란이 많았으나 아직껏 사진예술은 캄캄한 암실 속에서 서광을 보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지난 22일의 예술원 총회에서는 미술분과위에서 5대 3으로 가결된 《국전》에 사진 부문을 두자는 안을 17대 10으로 부결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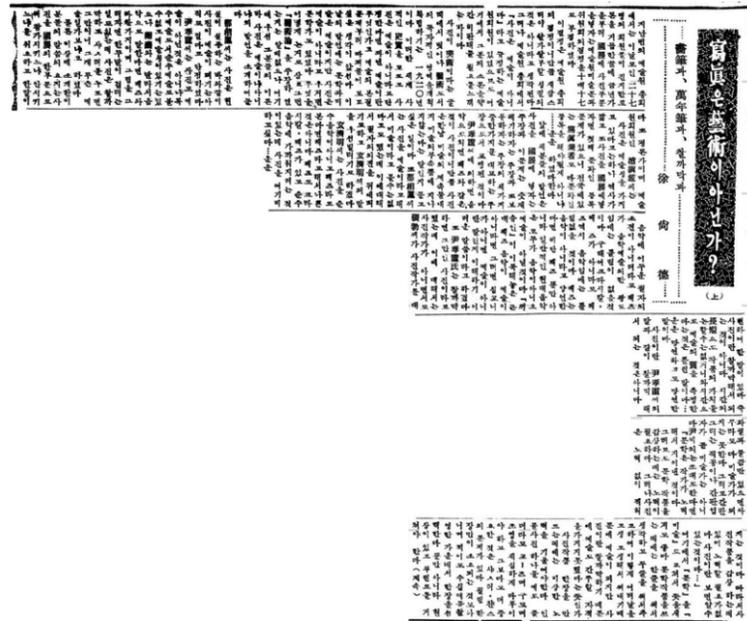
이유야 많았지만 결국 따지고 보면 [보면] 예술계의 암적 존재인 파벌성에 사진작가들이 희생을 당했다고 봄이 가장 타당할 것이다.

또한 일부 사단 '보스'들의 위선적 분과작용도 크게 역효과를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리하여 "사진부의 심사위원이 될 사람은 나밖에 또 누가 있겠느냐"고 기고만장하며 김치국[김치국]부터 꿀꺽꿀꺽 마시고 다니던 모모 씨의 코만 납작하게 되고 말았다.

열렬한 반대론자였던 모 예술원 회원은 휴계자(休憩子)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사진 부문을 《국전》에 두면 《국전》이 흐려질 하나의 요소를 자초하는 길밖에 안 될 것이다. 재료상으로 치부했고 파쟁을 일삼는 사단의 '보스'인 아무개와 같은 사람을 제거하고 사단의 정화를 꾀하는 한편 사진예술의 질적 향상이 있기 전에는 《국전》 참가는 시기상조일 것이다."

모름지기 사진작가들은 한 번쯤 귀담아들을 만한 이야기가 아닐까 한다. (霖)

1957년 7월 8일, 『경향신문』 4면
서상덕, 「사진은 예술이 아닌가? (상)-화필과 만년필과 찰까닥과」



지난번의 예술원 총회에서는 이날 모인 27명의 회원들이 진지한 토론을 거듭한 끝에 금년 가을부터 《국전》에 사진 부문을 넣자는 예술원 미술분과위원회의 결정을 10대 17로 부결하였다.

이 결정은 예술원 총회의 결정이니만큼 새삼스러이 왈가왈부할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예술원 총회에서 "사진은 예술이 아니다"라고 규정하는 예술원 회원이 있었으므로 여기에서 그분의 소론을 약간 비판해볼 필요를 느끼는 바이다.

사진이 미술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예술로서의 독자적인 영역을 개척 확립하기는 1920년이다. 이러한 세계사적인 사실을 모르고 사진은 예술이 아니라고 단정한다면 과연 예술이란 무엇인가고 예술의 본질문제부터 따져 물어보고 싶은 생각이 앞선다. 이날의 발언에는 문학과 미술은 예술이지만 사진은 예술이 아니라고 우겨댄 문학가도 있었다. 무엇을 어떻게 논거로 삼고 그런 '예술론'을 주장하였는지는 알배[알배] 없으나 여기에 우선 그분들의 이른바 사진은 예술이냐 아니냐의 발언을 소개하여둔다.

도상봉⁷⁾씨는 사진은 현실이 실증하는 바와 같이 사진이 예술이 되기는 아직도 멀다고 단정하였다.

윤효중⁸⁾씨는 사진도 예술이 아닌 것은 아니나 특수예술로서 순수예술로 볼 수 없고 예술성이 있기는 있으나 회화와는 달라서 음악으로 말한다면 쟁쟁과 마찬가지로 그림을 그리자면 한두 달이 걸리는 일도 있는데 사진은 찰까닥하고 샷터를 누르면 그만이니 그게 무슨 예술일가보냐고 하였다.

물론 이상에 소개한 이분들의 말씀의 요지는 사진을 《국전》의 한 부문으로에 참가시키느냐 안 시키느냐를 위요하고 한 말이다. 또 평론가이며 예술원 회원인 조연현⁹⁾씨는 사진은 예술성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나 역사가 짧고 또 사진을 《국전》에 넣자면 첫째 문화인 등록문제가 있으니 전국에 있는 사진업자도 다 문화인 등록을 해야 될게 아니냐……운운 하였다 한다.

앞에 세 분들의 발언은 사진을 《국전》에 넣자는 주장과 이 문제는 숫재[숫재] 폐기하자는 주장과 또 보류하자는 주장의 세 가지 중 한 가지를 대표하는 주장으로서 표명된 것이다.

윤효중 씨에 의하면 음악으로 치면 쟁쟁과 같은 것이 사진이니만큼 사진은 한낱[한낱] 미술의 예속물 내지 미술의 부속품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인지 묻고 싶은 일이다. 또 도상봉 씨는 사진을 예술이라고 해서 미술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도 했는데 이에 대해서 필자의 의견을 뒤에 퍼기로 하고 현제명 씨의 말을 우선 빌리기로 하겠다.

7) 도상봉(都相鳳, 호는 도천(陶泉), 1902~1977). 함경남도 흥원 출생의 서양화가이다. 교회동에게 사사하고 1927년 도쿄 미술학교(東京美術學校)를 졸업했다. 1948년 대한미술협회 창립멤버, 《국전》 초대·추천작가·심사위원, 대한미술협회장, 한국미협이사장을 역임했다.
8) 윤효중(尹孝重, 호는 불제(弗齋), 1917~1967). 경기도 장단 출생의 조각가이다. 김복진에게 사사하고 1941년 도쿄미술 학교 조각과를 졸업했다. 1949년 홍익대학교 미술학부를 창설해 교수로 부임했고 《국전》 초대·추천작가·심사위원, 예술원 회원을 역임했다.
9) 조연현(趙演鉉, 호는 석제(石濟), 1920~1981). 경상남도 함안 출생의 문학평론가이다. 1945년부터 본격적인 비평 활동을 시작하였고 『현대문학』을 창간했다. 문단 여러 기구에 참여했고 예술원 회원과 《국전》 운영위원을 역임했다.

현재명¹⁰⁾씨는 사진을 순수음악이 아니고 재즈라고 본다면 재즈라고해서 나쁜 것은 아니다. 재즈도 크라시칼[클래식컬] 재즈가 있고 순수음악에 가까워지려는 것이 있는데 사진을 여기비하고 싶다...운운.

음악에 어두운 필자의 소견이 아니더라도 재즈가 음악예술의 한 장르[장르]임에는 틀림이 없을 것이다. 구태여 크라시칼 재즈가 아니라도 재즈 역시 음악임에는 틀림없을 것이다. 재즈는 음악이 아니라고 양언한다면 비단 재즈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현대음악은 모두가 음악이 아니오 예술이 아닐 것이다. '거슈인'[George Gershwin, 1898-1937]이 이룩해놓은 근대 재즈 음악이 예술이 아니라면 그러면 심포니가 아니면 예술이 아니라 말인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라고 하겠다.

또 윤희중 씨는 찰카닥하면 그만인 사진이라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사진작가가 아니면서도 장발¹¹⁾씨가 사진작가를 대변하여 한 말이 있다. 즉 사진이란 찰카닥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시간의 장단으로 작품의 가치를 논할 수는 없거니와 시간으로 예술의 질을 측정한다는 것은 틀린 말이다...운운 당연하고도 당연한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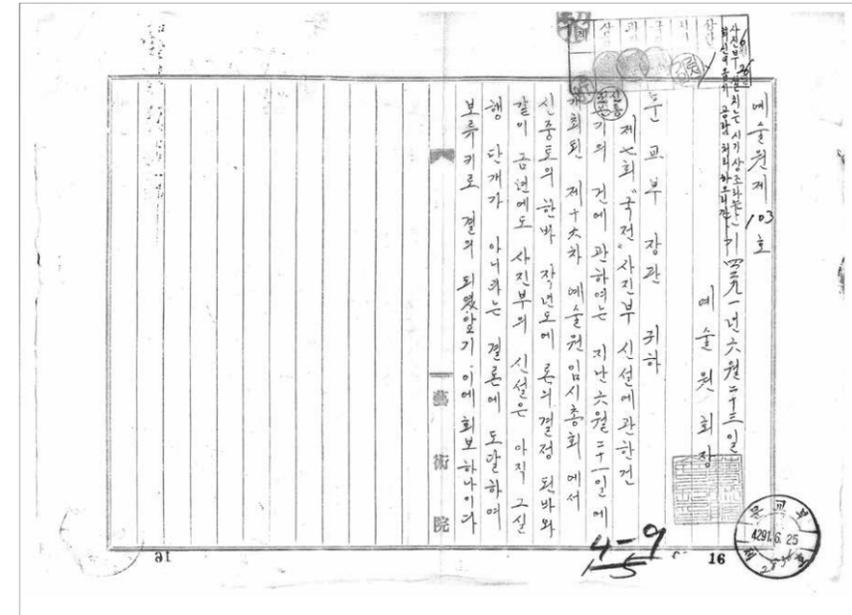
사진이란 윤희중 씨의 말과 같이 찰카닥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 화필과 물감만 있으면 아무라도 다 미술가가 되지는 못한다. 그리고 간판 그리는 직공이나 간판업자가 곧 미술가는 아니다. 윤 씨의 논조대로 한다면 '문학은 작가가 노력해서 지어낸 것이다. 그러므로 문학 작품을 감상하는 데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사진은 노력 없이 찍혀지는 것이다. 따라서 사진작품을 감상 하는 데 있어 노력할 필요가 없다. 사진이란 보면 알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문학'을 '미술'로 고쳐서 뜻을 새겨도 좋다. 문학작품을 쓰는 데에는 한 줄을 써서 생각하고 두 줄을 써서 추고 하여 이렇게 여러 날을 고생 고생해서 써내기 때문에 예술이 되지만 사진이란 찰카닥하기 때문에 예술로 간주할 자격을 가지지 못했다는 뜻인가.

사진작품 한 장을 만드는 데에는 비상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인물사진 하나를 예로 들더라도 포즈며 구도며 조명을 세심하게 다루어야 하고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샷터 찬스의 문제가 있다. 필립 한 장만이 소요되는 것도 아니며 적어도 수십 매를 촬영한 가운데서 한 장을 선택한다. 뿐만 아니라 현상이 있고 푸린트[프린트]를 거쳐야 한다.(계속)

10) 현재명(玄濟明, 호는 현석(玄石), 1902~1960). 대구 출신의 성악가이자 음악교육자이다. 조선음악협회, 경성후생실내악단 등에 가담했으며 대한민국예술원 회원으로 활동했다.
11) 장발(張勃, 호는 우석(雨石), 1901~2001). 서양화가이자 미술교육자이다. 일본의 도쿄미술학교를 거쳐 미국 컬럼비아 대학에서 미학과 미술사를 전공했다. 1955년 한국미술가협회를 창립, 《국전》 초대작가·심사위원,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초대 학장을 역임했다.

1958년 6월 23일, 국가기록원-제7회국전철, p.16
문화공보부 예술국 예술1과, 《제7회 국전》 사진부 신설에 관한 건



예술원 제103호
단기 4291년 6월 23일
예술원 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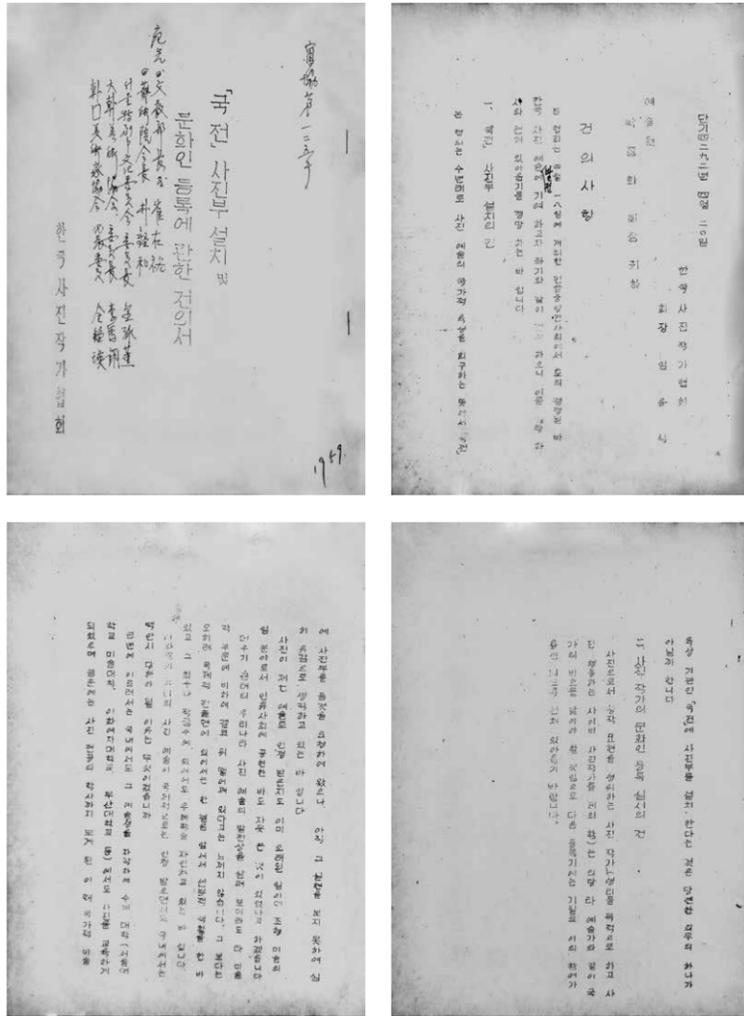
문교부 장관 귀하
《제7회 국전》 사진부 신설에 관한 건

표기의 건에 관하여는 지난 6월 21[22일]일에 개최된 제16차 예술원 임시총회에서 신중 토의 한 바 작년도에 논의[논의] 결정 된 바와 같이 금년에도 사진부의 신설은 아직 그 실행 단계[단계]가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하여 보류키로 결의 되었았기[되었기에] 이에 회보 하나이다.

예술원

1959년 4월 20일, 임응식 스크랩북 자료

한국사진작가협회¹²⁾, 《국전》 사진부 설치 및 문화인 등록에 관한 건의서



[표지 수기: 사협 제125호 ■■■[충선(充先)] 문교부 장관 최재유¹³⁾, 예술원 회장 박종화¹⁴⁾, 서울특별시 문화위원회 위원장 김영훈, 대한미술협회 위원장 이마동, 한국미술가협회¹⁵⁾ 대표위원 김종영¹⁶⁾]

12) 전국 사진작가 연합을 목표로 현일영, 임석제, 임응식 등을 중심으로 1952년 12월 부산에서 결성되었으나 1961년 포고령 제6호로 인해 해산되었다.
 13) 최재유(崔在裕, 1906~1993), 1937년 일본 교토대학(京都大學)에서 의학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57~1960년 문교부 장관을 역임했다.
 14) 박종화(朴鍾和, 1901~1981), 소설가이자 비평가이다. 1920년 휘문의숙(徽文義塾)을 졸업했다. 1955년 예술원 회장을 역임했다.
 15) 한국미술가협회, 1955년 장발 중심의 미술인들이 발족한 미술단체이다. 회화부, 조소부, 동양화부, 응용미술부, 건축부, 서예부, 사진부의 6부를 두었다. 사진부에는 임응식, 최창희, 지부원 등이 발기인으로 참여해 활동했다.

단기 4292년 4월 20일

한국사진작가협회 회장 임응식

예술원 박종화 회장 귀하

건의사항

본 협회는 4월 18일에 개최한 긴급중앙간사회에서 토의 결정된바, 한국 사진예술에 기여하고 자 좌기와 같이 건의하오니 이를 심량 하시와 선처 있어옵기를 경망하는 바입니다.

1. 《국전》 사진부 설치의 건

본 협회는 수년래로 사진예술의 국가적 육성을 회구하는 뜻에서 《국전》에 사진부를 둘 것을 요청하여 왔으나, 아직 그 실현을 보지 못하여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는 바입니다.

사진이 제7 예술로 인정받은 지도 이미 오래된 일이며, 조형미술의 일 분야로서 인류사회에 공헌한 바도 자못 큰 것이 있었다고 하겠습니까.

더우기 근래의 우리나라 사진예술의 발전상을 살펴보다라도 타 미술 각 부문에 비하여 결코 뒤떨어져 있다고는 느끼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국제적 진출 면에 있어서는 한걸음 앞서서 선봉적 역할을 한 바 있고 그 횡수나 작품 수에 있어서도 우세함을 자인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와같이 우리의 사진예술이 국제적으로는 인정받으면서도 국내에서는 백안시당해야 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근년에 이르러서는 국내에서도 그 예술성을 자각하여 수개 대학(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이화여자대학교, 부산대학교 등)에서도 사진을 교육하게 되었으며¹⁷⁾ 금년에는 사진전공의 학사까지 보게 된 이 때 국가적 미술육성 기관인 《국전》에 사진부를 설치한다는 것은 당연한 의무의 하나가 아닐까 합니다.

2. 사진작가의 문화인 등록 실시의 건

사진으로서 창작 표현을 영위하는 사진작가(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사진 행동하는 사이버 사진 작가를 제외함)는 의당 타 예술가와 같이 국가의 비호를 받아야 할 것임으로 다음 등록기에는 기필코 이의 참여가 용인되도록 선처 있사옵기 바랍니다.

16) 김종영(金鍾瑛, 1915~1982), 조각가이다. 1941년 도쿄미술대학을 졸업하고 1953년부터 수차례 《국전》 심사위원을 역임했다.
 17) 대학 내 사진 교육은 기록상 1952년 덕성여자대학교 가정과 내 사진학 개설이 최초이다. 1953년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교양과목으로 예술사진 강의가 개설되었고, 몇 달 뒤 서울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부에서 개설되었다. 이어 1957년에 부산대학교에서 사진예술론 수업이 개설되었고 1960년대에 들어 홍익대학교를 시작으로 대학 내 사진과목이 신설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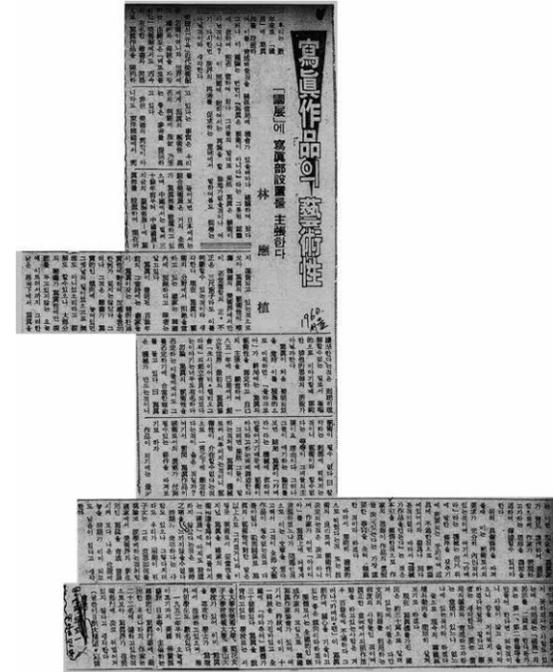
1959년 7월 3일, 『자유신문』 4면

「(내외 문화단신) 《국전》 사진부 설치 예술원에서 부결」

한국예술원에서는 지난 27일 오후 2시 서울대학교 교수회관에서 92년[단기 4292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지난번 한국사진가협회와 미술가협회로부터 건의된바 있는 《국전》에의 사진부 신설을 논의한 결과 아직 시기상조라는 이유로써 신설치 않기로 결정하였다 한다.

1960년대

1960년 3월 31일, 『서울신문』 조간 4면
임응식, 「사진작품의 예술성, 《국전》에 사진부 설치를 주장한다」



우리는 수년 내로 《국전》에 사진부를 설치하여 이를 육성해 줄 것을 관계 당국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건의하여 왔다. 그러나 이 건의는 번번이 “사진은 예술이 아니다”라는 그릇된 인식에 의하여 거부당하여왔다. 그네들의 말대로 과연 사진은 예술이 아닐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하여서는 재론을 할 여지가 없을 것이나 여기 다시 한 번 사계(斯界)의 재고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말하여봄도 도로(徒勞)는 아닐 것이라 생각한다.

미국의 ‘뉴욕’ 근대미술관은 물론이려니와 세계에 그 권위와 전통을 자랑하는 유서 깊은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도 고급의 유명한 회화와 동격으로 사진작품을 진열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사진의 예술성 여부의 판단에 지침 내지는 좋은 참고를 제공하고 있다.

비단, 미국의 예만이 아니라도 동양제국에서 예를 들어보면 일본에서는 종합미술전은 거의 전부가 사진부를 설치하고 있으며 중국에서는 벌써 30여 년 전부터 중국 《국전》—지금의 《대만성전(臺灣省展)》—에 사진부를 설치하여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사진의 예술성이 유독 한국의 미술계에서만 부정당함의 정(正) 부정(不正)은 삼척동자라도 이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현재 사진이 예술의 분야에서 거절을 당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 외에 별무(別無)하다고 필자는 알고 있다.

사진이 발명된 백여 년 전의 그 당시에는 화가들이 사진이 갖는 정밀한 사실성에 대하여 반

감을 표시한 예가 없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것은 회화가 사실적인 경향에 놓여있던 그 옛날의 일이었으므로 무리도 아니었으리라고 양해도 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회화가 사실성에만 근거(根底)를 두고 있지 않는 오늘에 이르러서까지 그러한 낡은 사고 하에서 사진을 혐오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로서 극단적으로 이야기할 때 단순한 배타적 사상의 소치가 아닐까 한다.

사진이 처음 발명되었을 당시 이를 적극적으로 미워하던 ‘들라크로아’[외젠 들라크루아(Eugène Delacroix)]가 중국에는 사진의 예술성을 인정하고 자기의 주장을 번의(翻意)하여 1851년에 파리에서 창립된 세계 최초의 사진협회 ‘쏘사이어티 헬리오그래픽’¹⁾의 창립회원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너무도 유명하다.

물론 사진의 예술성을 부정하는 이들에게서도 그를 부정하기에 합당한 이유를 들고 있다. 왈(曰) 사진은 기계가 만드는 것이니 예술이 될 수 없다. 왈 찰카하는 찰라에 찍혀지는 것이니 예술이라 할 수 없다는 등등이 그네들의 주장이요 이유이다. 그러나 그들이 얘기하는 논지를 보면 결국 사진이 ‘카메라’라는 기계에 의하여 만들어지기 때문에 예술이 아니라고 하는 데에 귀착한다.

그러면 과연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사진이 기계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니 예술성이 개재(介在)할 수 없다는 것으로 일언지하에 단정한다는 것이 옳은 것일까? 여기서 잠깐 사진작품이 예술로서의 가치가 부여될 수 있는 조건을 따져보기로 하자.

작품이 되기에는 최소한도로 자연에서 일어나는 어떤 현상을 사진가가 발견, 선택하여 촬영함으로써 작가가 표현하고자하는 사상을 화면을 통하여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위의 구술조건을 따져볼 때 이는 예술로서의 요구가 충분히 내포되어 있는 것이며, 여기서 ‘카메라’라는 기계는 단지 위에서 말한 조건을 갖추기에 소요되는 수단이며 도구에 불과한 것으로 회화에 있어서의 화구나 별다른 것이 없다. 따라서 “기계가 작품을 만든다”는 것은 본말(本末)을 [전]도한 것으로 작가의 사상이 작품의 가치를 결정짓는다는 가장 중요한 사실을 전혀 무시한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단순히 기계적으로 찍혔다는 것 또는 기술의 양부(良否)로써 예술성이 결정되는 것은 결코 아니며, 작가가 어떤 ‘아이디어’를 사진상에 어떻게 표현하였느냐가 문제인 것으로, 이는 문장을 썼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 문예작품이 될 수 없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지면 관계로 사진의 예술성에 대한 말은 이상으로 그치겠거니와 이렇듯 예술로서 타당성을 지닌 사진을 국가의 미술 창달을 위하여 베풀어지는 《국전》에 아직도 설치하지 않았다는 것은 만시지탄(晩時之歎)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시기가 상조하다는 사람도 있으나,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적령이 된 자녀는 그의 의사 여부를 막론코 취학(就學)케 하는 것처럼 국가에서 미술계의 신생아인 사진을 육성, 발전시켜, 보다 나은 위치에 놓을 시기가 이미 되고도 남음이 있다고 생각한다.

1) 엘리오그래픽협회(Société Héliographique). 1851년 프랑스에서 창립된 세계 최초의 사진협회. 에두아르 발두스(Édouard Baldus), 구스타브 르 그레이(Gustave Le Gray), 앙리 르 세크(Henri Le Secq) 등이 창립멤버로 활동했다.

또 《국전》 회장(會場)이 협소하다는 이유로 참가시키지 못하겠다는 사람도 있는데, 이 문제는 《국전》의 전시를 2회로 한다든가 또는 제1, 제2회장 등을 만들어 한다면 되는 것이니, 사람이 많고 솜이 작으니 밥을 지어 먹지 못하겠다는 말과 같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요는 당국의 성의와 육성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느냐 없느냐에 있는 것이라 하겠다.

끝으로 현금의 한국 사단의 동향을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겠다.

현재 사진기를 가진 국민은 약 삼십만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들은 다만 문명의 이기를 이용하는 정도의 사람들인 것이며, 진정한 의미에서의 창작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은 겨우 백여 명에 불과하다. 그러나 ‘카메라·맨’이 사진창작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좋은 경향이라 하겠다.

단체로서는 전국적인 기성작가의 모임으로 한국사진작가협회가 있어 여기서는 작추(昨秋)에 이미 11회전을 가진 바 있고, 전국에 ‘아마츄어’ 단체가 삼십여 개가 있다. 사진을 교육하고 있는 학교로는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이화여자대학교 미술대학, 부산대학교가 있어 이미 사진을 전공한 학사가 사단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해외 유학생도 수명(數名)있다.

1952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미국 불란서, 호주, 일본 등이 주최하는 국제적인 사진행사에 진출한 우리나라의 작가는 22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사진계가 타 미술 부문에 결코 뒤떨어져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글쓴이=이대강사·사협회장)

1961년 3월 14일, 『한국일보』 4면
최계복, 「사진 부문도 《국전》에 참가하여야 한다」



우리 사진인이 타 예술부문 인사들에게 요망하고 싶은 것이 있다. 그것은 사진이 가지는 예술성을 우리 국내 예술인들이 너무나 안가(安價)²⁾하게 평가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점이다.

그 실례를 든다면 사진의 《국전》 참가문제가 있다. 본질적인 문제로 사진의 예술성을 운위(云謂)하게 된 역사는 다른 예술부문에 비하여 어리다고 보겠으며 또한 사진이 꼭 《국전》에 참여함으로써 그 목적이 달해지는 것은 아니다.

사진은 독자적인 면에서 이것이 성장되어 나가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겠으나 우리나라 현실정을 살펴볼 때 그 가치 보상의 길이 없고 사진에 있어서는 사진인 자체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보겠으나 먼저 국가적인 원조를 얻을 수 있다면 그 발전성이 빠를 것이라는 점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도에 있어서 (물론 그전에도 그것이 거론된 일은 있지만) 예술원 총회에서 사진 부문의 《국전》 참여문제가 논제로 상정되었을 때 회원 중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한 태도로 발언한 인사가 있어 이의 실현이 기대되기도 했으나 동 문제를 미술분과위원회에 일임하기로 되었는데 그 후 동 분위(分委)에서 부결됨으로써 《국전》 참여는 실현을 보지 못하게 된

2) 시세보다 훨씬 값.

것이다.

이는 우리 사진인으로 볼 때 유감된 일이 아닐 수 없는바 이 숙제를 금년에는 기어이 실현토록 기대하는 마음 간절하다. 작금 양년(兩年) 사단은 작품활동에 있어서 약간의 저조를 불면(不免)하고 있다.

이것은 그 첫째 원인이 경제적인 혼란에서라고 보아 틀리지 않을 것이다.

앞에도 말한 바와 같이 가치보상이 없는 제작활동(경비 지출)은 우리들 사진인의 큰 고통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례적인 전람회 행사는 그 질적인 면에서 그다지 기록할 만한 우수작이 적었으나 명맥을 이어왔으며 다만 연구단체의 발표전 또는 개인 작품전이 비교적 저조였었다는 것은 전기(前記)한 원인이 컸으리라고 보겠다. 한편 예년에 비해 괄목할 일은 해외에 우리 작품이 많이 진출한 점이다. 이것은 그만큼 우리 사진작가의 작품이 국제수준에 도달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인데 작품 내용에 대해 고려할 점이 있다는 것을 언급한 작가가 있으나 이점은 본고(稿)와 관계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기회로 미루겠다. 이상으로 침체화한 사진의 현황과 이에 대한 후진성 극복에의 필자대로의 견해를 표명한 것인데 우리는 항상 멀고 어려운 것의 동경보다 가깝고 손쉬운 데서부터 점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것은 우리 사진인의 작품 의식에서 그렇고 지도층의 각성이 또한 그렇다고 하겠으며 한편 각도를 돌려 사단의 발전을 도울 수 있는 타 예술부문 인사의 이량에서 우리의 작은 기구(冀求)³⁾는 충족될 수 있는 것으로 믿는다.

최계복

3) 얻기를 바라다.

1962년 1월 7일, 『동아일보』 4면

정희섭, 「(새 설계-사진) '지방순회전' 열고, 신인 양성도 활발하게, 올해에는 《국전》에」



새해를 맞이하여 사진인들이 수십 년 동안 마음속에 쌓아온 욕망을 마음껏 풀어 보고 싶다.

첫째, 오래동안[오래동안] 희구(希求)하여오던 사진만의 독자적인 《국전》을 개설하는 문제가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로 생각된다. 이는 국제문화교류 면으로 볼 때에도 국내 사단의 수준을 질적으로 향상시키는데 큰 목적이 있으며, 이 전시회는 지방순회를 열어 사진문화의 보급을 기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둘째, 한국을 사진으로서 올바르게 외국에 소개할 수 있는 해외사진전의 필요성을 느낀다. 이는 한국이 그릇되게 선전되어온 것을 시정하는데 효과적일 것이다. 한국의 눈부신 건설 면, 산업부흥 면, 민주적인 교육 면 그밖에 광범한 현실 면을 사진화하여 전시 선전함은 문화 선전에 크게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세째[셋째], 사진작품의 국제전 출품에 있어서 기회를 균등히 부여할 수 있는 적극적인 알선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본다.

넷째, 신인들의 양성을 위하여 사진에 대한 강습회, 연구회, 촬영회, 전시회 등이 지방별로도 활발히 전개되어야 하겠다.

다섯째, 진취성 있고 우수한 국내 작가들의 해외 사단 시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며 이는 민간 외교적인 면에서도 그렇거니와 사단이 발전하자면 우선 시야를 넓혀 직접 세계를 눈으로 보고 알아야 될 줄로 안다.

여섯째, 사진문화상 제도의 설정이 필요하다.

영화상은 있으면서 사진상이 없음은 모순된 일이다. 오늘날 영화는 독특한 경지를 개척하는 종합예술이라고는 하나 사진예술의 밑받침 없이는 우수한 영화의 제작이 곤란[곤란]하기 때문에 사진문화상이 설정됨으로써 비약적인 발전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느끼는 바이다.

일곱째, 예술원에 사진분과위원회의 설정이 필요하다.

이상 일곱 가지는 사단의 발전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발전을 위하여서도 절실히 요망되는 바이다. 임인년(壬寅年) 이아말로 사진작가들이 힘과 뜻을 같이하여 사진문화의 역사를 새로 창조하고 찬란히 장식할 수 있는 해가 되기를 바라며 사진협회는 차근차근히 실천해 나아갈 것이다.

정희섭 <한국사진협회 이사장>

1962년 7월 26일, 『동아일보』 4면

「'사진 국전'의 창설 건의, 한국사진협회 각계 요로에」

한국사진협회는 24일 상호 사진예술의 독자적인 성격에 비추어 사진국전의 새로운 제도를 창설하도록 최고회의 문사 위원장, 공보부 장관, 예총 이사장 앞으로 각각 건의서를 냈다. 건의서에 의하면 1951년 8월 문화보호법이 제정 공포된 이후 예술분야에서 현저한 발전을 보아 《국전》은 올해 11회를 거듭하게 되었는데 사진 분야만은 이 《국전》에서 제외되어 1세기의 역사를 가진 사진예술이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하고 있으니 사진이 오늘날 과학적인 실효성과 시학(視學)적인 사진성, 선정성 등에서 뛰어난 실적을 나타내고 있음에 비추어 공보부는 사진국전을 창설, 작품발전의 기회를 주어야 될 것이라고 요망하고 있다.

일본은 《이과전》이라고 하여 사진만 전시하는 제도가 있고 자유중국도 《국전》에 사진을 포함시키고 있다 한다.

1963년 4월 10일, 『동아일보』 7면
「《국전》에 사진 부문도」⁴⁾

문교부서 종목 첨가 검토

10일 상오 이종우 문교부 장관은 올해 《국전》부터 사진 부문을 수상 종목으로 넣을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사진 부문을 《국전》 종목으로 넣는 문제는 ‘《국전》 심사규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이나 문교부에서 앞으로 이를 연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1963년 5월 8일, 『동아일보』 7면
「《국전》에 사진 부문 추가토록, 예총(藝總)서 관계 당국에 건의서」

예총에서는 《국전》의 사진 부문 추가를 촉구하는 건의서를 관계 당국에 제출하였다. 예총 이사장 윤봉춘⁵⁾ 씨 이름으로 된 이 건의서는 우리 생활 속에 넓고 깊이 침투되어 있는 사진 부문이 아직까지 《국전》에 들어있지 않음은 예술계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의 커다란 손실이라 주장하고 있다.

사진예술이 역사는 짧지만 국내에서 열리는 전시회와 그 감상자들의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하여 동(同) 건의서는 산하 사진협회의 통계에 의하면[의하면] 해마다 50만 명의 감상자가 동원되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유럽’ 각국에서는 50년 전부터 이를 현대미술의 한 분야로 인정하고 있으며 동양에서도 여러 나라가 미술전에 사진 부문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열거하고 있다.

아울러 권위 있는 국내전이 없으므로 많은 작가들여[이] 해외전에서 입선 입상되고 있는 사실을 지적하여 대중의 애호를 받고 있는 사진예술이 금년부터는 《국전》의 한 부문으로 추가되어야 할 것이라고 건의하고 있다.

4) 1963년 5월 18일자 『경향신문』 7면 「10월 10일부터 올해 《국전》」 기사에 따르면, 1963년 설치가 논의되었던 사진 부문은 예산관계로 빠지로 했다고 전하고 있다.

5) 윤봉춘(尹逢春, 1902~1975). 영화배우 겸 영화감독. 1963년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1964년 8월 20일, 『경향신문』 3면
문교부, 「《대한민국미술전람회》 실시 요강 공고」



1964년도 《제13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 실시 요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주최 문교부
2. 회기 1964년 10월 16일 11월 15일(31일간)
3. 회장 경북공미술관
4. 출품종목 제1부 동양화 제2부 서양화 제3부 조각 제4부 공예 제5부 서예 제6부 건축 제7부 사진
5. 출품작품
 - 가. 내용 순결한 민족정서에서 창작된 예술작품이어야 한다.
 - 단,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되는 작품은 제외한다.
 - ①국내에서 이미 공개 발표된 작품
 - ②우리나라 미풍양속에 해롭다고 인정되는 작품
- 나. 규격 ①회화에 있어서는 폭 200cm이내
 - ②조각, 공예, 건축에 있어서는 150cm평방 이내의 면적과 고 200cm 이내
6. 작품 출품 절차 및 작품 반입
 - 가. 출품원서 배부처 문교부, 각 시도 교육위원회, 각 미술대학
 - 나. 출품원서 배부 기간 1964년 9월 10일-9월 30일
 - 다. 출품료(수입인지) 출품작품 1점당 300원 (소정 출품원서에 수입인지 첨부)
 - 라. 출품원서 및 작품 반입 기간 1964년 10월 1일-10월 7일
 - 마. 출품원서 제출 및 작품 반입처 경북공미술관
7. 작품심사
 - 가. 심사기관 국전심사위원회[‘월’은 오기]
 - 나. 심사기일 1964년 10월 8일-10월 11일

다, 심사 결과 발표 1964년 10월 13일

8. 전시작품

가, 입선된 작품

나, 심사위원 작품(각1점)

다, 추천작가 작품(각1점)

9. 시상

가, 특전[특선]작가 중 최우수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구라파 여행을 주선하고 여비 전액을 보조함

나, 특선작품 중에서 우수한 작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시상함

대통령상 1점 상장 및 부상(384,500)(해외 여비 포함)

국무총리상 1점 " 80,000

부총리상 1점 " 50,000

문교부장관상 7점 " 120,000[30,000]

10. 작품반출

가, 전시작품 전시종료 후 10일 이내

나, 낙선작품 심사결과 후 10일 이내

단, 전기 반출 기간 내에 반출하지 않는 작품에 대하여는 분실, 파손 및 기타 보관의 책임을 지지 않음.

11. 심사위원 추후 발표함.

12. 기타 상세한 것은 문교부 문예체육국 예술과나 원서 배부처에 문의할 것.

1964년 8월 일

문교부 장관 윤천주

1964년 8월 20일, 『한국일보』 7면

「사진 부문 신설 뒤에 오는 것, 기쁨에 얽힌 기우」

어려울 심사기구

‘우리 사진도 예술’임은 국제전서 증명

여러 갈래의 ‘그룹’ 배합해야

《국전》 《국전》에 금년부터 사진 부문을 신설한다는 결정은 십여 년간에 걸친 숙원을 이룬 사단에 기쁨과 함께 적지 않은 진통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매년 되풀이된 사진 부문의 《국전》 가입 문제가 50여 일을 앞둔 작품 반입 기간을 앞두고 줄지에 문호개방이 되리라고는 대부분의 사진인들이 예상 못 하는 가운데 문교 당국의 이례적인 선심으로 실현되고 보니 우선 심사기구 등 앞길은 결코 만만치 않다.

1953년도부터 두드러지게 태동했던 사진 부문 가입 운동은 1959년 예술원 미술분과위원회[미술분과위원회]에서 마침내 승인되었으나 그해 총회에서 14대 13으로 부결되고 말았으며 그 후 매년 청원서, 건의서를 관계 당국에 제출하는 등 끈덕진 운동을 벌인 끝에 작년 6월 26일 예술원 정기총회에서 13대 7로 가입심의가 통과를 보기까지에는 여러 가지 요건이 있었겠으나 ‘사진이 예술이냐’하는 논의에 따른 인식불가 내지 편견이 많이 작용했던 것만은 부인 못 할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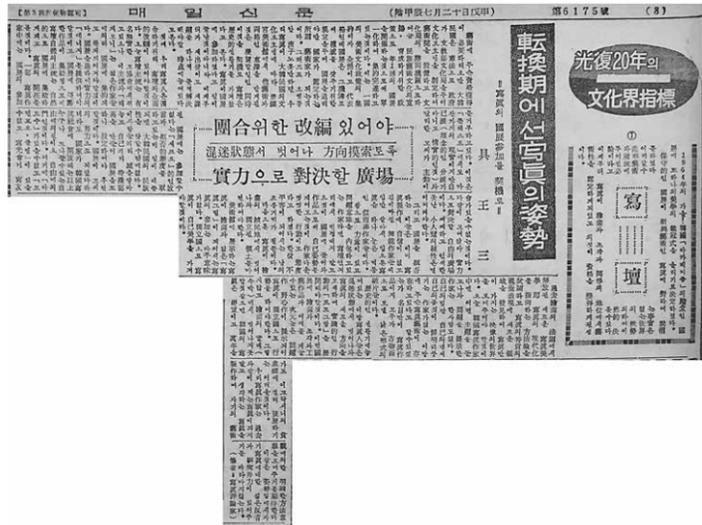
이리하여 국내에서 발표의 광장을 갖지 못한 사진작가들은 해외의 각종 ‘콘테스트’에 응모하여 작년만 해도 《US 카메라 콘테스트》에 4위부터 6위까지 55점이 입상하는 실적을 올렸다.

1952년부터 시작된 해외로의 작품진출은 전술(前述)한 편견과 인식 부족을 불식하는 데 공헌하는 바 컸다고 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1961년 말에 예총 산하단체로 한국사진협회가 발족하여 다음 해부터 공보부에서 주최하는 또 하나의 《국전》이라고 할 《신인예술상 사진전》을 갖게 되므로 사진은 불모의 이 땅에서 비로소 싹트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게 됐고 마침내 올라올부터 타 부문과 어깨를 나란히 하여 ‘예술의 전당’을 차지하게 됐다.

그간 자자분한 사진전에서도 심사를 둘러싸고 반목과 말썽이 많았던 사단이기 때문에 바라고 바라던 《국전》에서의 심사기구의 공정성과 권위는 못 사진애호가들의 최대 관심사일 수밖에 없고 다 차려논 밥에 재를 뿌리는 사태가 만에 일이라도 있어서는 안 되겠기에 범사단적인 참여의 문호는 활짝 열려 있어야 하겠다.

《국전》에 사진부문 신설의 단을 내린 문교 당국에서는 방금 개정 중이라는 《국전》 규약에 건축 부문의 전례에도 있듯이 추천작가제도를 사진 부문만은 금년도에 한해서 두어야 할 것이며 그들로 하여금 심사진을 천거하도록 노파심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며 각 사진 ‘그룹’에서는 거시적인 안목에서 이를 뒷받침하여 명실공히 《국전》을 이룩하기를 바라는 소리가 높다. 【秉】

1964년 8월 27일, 『매일신문』 8면
구왕삼, 「광복 20년의 문화계 지표①」 사단, 전환기에 선 사진의 자세-사진의 《국전》 참가를 계기로



**단합 위한 개편 있어야
 혼미상태서 벗어나 방향 모색토록
 실력으로 대결할 광장**

1964년 가을! 한국 '아카데미즘'의 전당인 《국전》에 또 하나의 미학의 대관식을 올리기로 결정하였다. 보수적인 《국전》이 신흥예술인 사진에 대하여 탈모(脫帽)를 하였다는 사실은 어찌할 수 없는 세계조형예술의 추세와 조류에 의하여 이루어진 필연적 결론이라고 볼 수 있다. 이제부터 사진이 회화와 조각과 동등의 지위에서 예술성을 인정하게 되었고 의적이 자격을 획득하게 된 셈이다. 예술에 무슨 자격획득이 필요하리오만 대한민국은 헌법으로 정부가 문교부 문화국을 두어 문화보호법을 제정하여 예술원을 설치하고 문화국의 자문기관으로 하여금 민족예술문화의 선양(宣揚) 육성하기 위한 정책으로 연 1회의 《국전》을 개최하는 것으로써 단일화하여 집약 완수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일국의 미술문화정책의 집약이자 전체이고 대표 격인데 《국전》은 그 기구으로써 권위를 갖추기 위한 규정을 두며 《국전》을 통해야만 국가가 인정하는 소위 예술가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랫동안 서자노릇만 하던 우리 사진이 대한민국의 문화보호법에 따라 경복궁미술관에서 타 예술과 동격인 혜택을 받게 된 것은 경하할 일인 동시에 이것을 계기로 사단은 역사적 전환기를 가져왔다고 본다. 사진은 《국전》에 참가하였다고 일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가 새 출발이고 새 과제를 하나씩 해결해야할 시점에 놓여 있다고 본다.

첫째 우리 사진인은 단합하기 위해 사단의 전면적 개편이 있어야 할 것이다. 오늘 사단 주류

는 유명무실한 모 협회에서 쥐고 있으나 이 주류와 '헤게모니'는 젊은 작가들에 의해 《국전》에 집약되고 환치되어야 할 것이다. 《국전》을 통하여 실력의 '에너지'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고 《국전》에 우수한 작품이 집결됨으로써 사단 자체의 주류는 자연적으로 《국전》에 집결하게 되고 사진의 개화를 볼 것이다. 일부 사진작가 중에는 《국전》의 참가를 거부하고 있다. 이것은 '콘테스트'에서도 마찬가지로 현실이지만 자기파(이념적인 분파가 아니고 정실적인 것)와 달리한 모 씨와 주동이 된 《국전》에는 참가할 수 없다는 '셰크트' [셰크트적인 방언(放言)과 거부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일이 이쯤 되면 대한민국의 민족성을 타할 수밖에 없다. 이 사람들끼리 성을 쌓아놓고 자기끼리 특수부락을 만들어 《국전》을 또 하나 설정하여야 후련할 것이다. 《국전》이 모 씨의 노력으로 되었다 하더라도 국가가 한국사진사회에 개방해 논 이상 드나들 수 있는 자유에 의 길이요 자유에의 문인 것이다. 여기에 '아르수'가 있을 수가 없고 '모던포토클럽'이 있을 수 없고 사광회나 사우회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다 같이 모여 앉아 실력으로 대결할 자유의 광장이다. 쩌쩌하고 인색한 못난 소인배의 근성을 떨어버려야 한다.

그리고 《국전》을 거부하는 이들은 이미 사진 제작에 자신이 없고 김이 빠진 무능작가들이 입만 살아서 입은 사진을 하나 눈은 먹통인 사이버 작가들이다.

참으로 역량이 있고 문제의식을 내포하고 있는 작가라면 사단 언저리에서 빈정대지 말고 오 것이 《국전》에 들어와 작품으로써 자기 자세를 재어보는 것이 작가다운 떳떳한 행동이고 태도라고 하겠다. 한갓 불평객이 되어서는 남의 조롱거리가 될 뿐이다.

다음은 사진이 회화의 식민지에서 벗어나와 독립된 영토를 마련하여야 한다.

미술관에 전시하는 사진이 회화와 닮은 '사진그림'이 되어서는 사진의 참가는 아무 의미가 없다. 독립국으로 사진이 자기 미학을 가져야 할 것이다.

과거 회화의 법칙에서 해방된 새로운 사진미학 즉 사진의 현대화를 지향하는 방법론을 시도하고 사진의 특질의 시각표현에 새로운 영역을 발견하여 사진만이 가지는 영상의 세계를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오늘 한국 사진작가 중엔 어떤 주제를 들고 나와 문제를 제시한 작가는 한사람도 없다. 자기의 빛깔 자기의 냄새 자기의 몸짓이 선명히 풍기는 작가가 없는 이 땅에 무슨 사진 예술이 존재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 명목만이 사진작품이지 모두가 고물상으로 보낼 낡은 형식의 파편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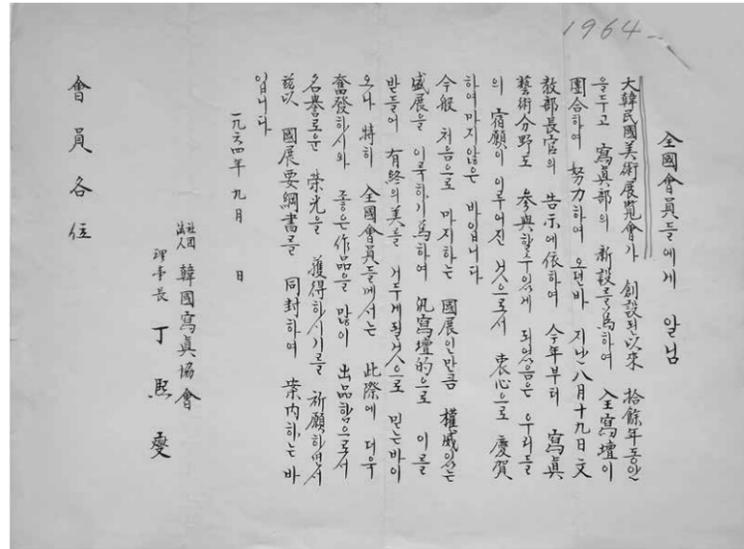
역사적인 전환기에 놓여 있는 이 땅 사진인들은 혼미상태에서 벗어나와 사진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여 실천적인 행동의 '프로그램[프로그램]'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이번 《국전》에 회화와 조각과 공예작품과 어깨를 겨룰 수 있는 차원 높은 문제작 야심작이 제시되어 사진이 독립국으로 행세를 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고 회화의 굴레(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으면 한국의 사진은 절망이고 만년을 가도 이 꼬락서니의 빈혈증에 걸려 발전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우리 사진작가는 과거와 같이 찍는 사진이 되지 말고 생각하는 사진을 제작하여 자기의 예술관에 의한 명확한 방법의식을 보여주기 바란다.

이 같은 자세 밑에서 자기 사진에 대한 깊은 반성과 연구노력이 있어주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필자=사진평론가)

1964년 9월

[한국사진협회, 《국전》 사진부 신설 안내서]



©이해선 유족 제공

전국 회원들에게 알림[알림]

《대한민국미술전람회》가 창설된 이래 십여 년 동안을 두고 사진부의 신설[을] 위하여 전 사단이 단합하여 노력하여 오던 바 지난 8월 19일 문교부 장관의 고시(告示)에 의하여 금년부터 사진예술 분야도 참여할 수 있게 되었음은 우리들의 숙원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충심(衷心)으로 경하하여 마지않은 바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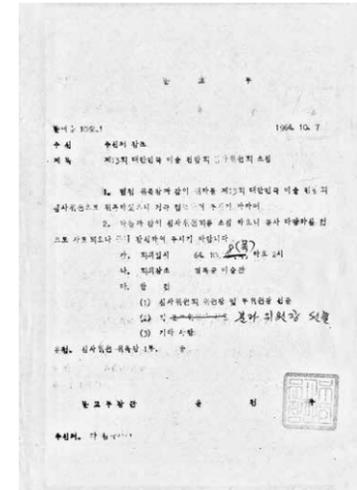
금번 처음으로 마지하는 《국전》인 만큼 권위 있는 성전(盛展)을 이룩하기 위하여 범사단적으로 이를 받들어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될 것으로 믿는 바이오나 특히 전국회원들께서는 차제(此際)⁶⁾에 더욱 분발하시와 좋은 작품을 많이 출품함으로써 명예로운 영광을 획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자이(茲以) 《국전》요강서를 동봉하여 안내하는 바입니다.

1964년 9월 일
사단법인 한국사진협회
이사장 정희섭
회원각위

6) 때마침 주어진 기회.

1964년 10월 7일, 임응식 스크랩북 자료

문교부, 《제13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 심사위원회 소집



문교부

문예 1062.1 1964. 10. 7

수신 수신처 참조

제목 《제13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 심사위원회 소집

1. 별첨 위촉장과 같이 귀하를 《제13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였으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2. 다음과 같이 심사위원회를 소집하오니 공사다망하실 것으로 사료되오나 부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회의일시 64. 10. 8(목) 오후 2시

나. 회의장소 경북공미술관

다. 안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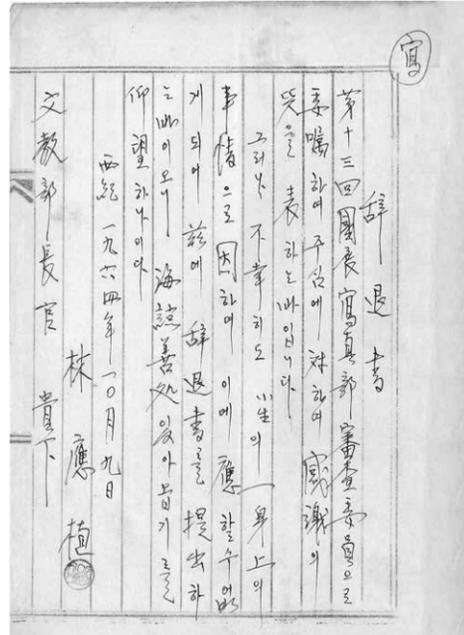
- (1) 심사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 (2) 각 분과위원
- (3) 기타 사항

유첨. 심사위원 위촉장 1부. 끝

문교부 장관 윤천주

수신처. 각 심[사위원]

1964년 10월 9일, 임응식 스크랩북 자료
임응식, 《국전》 심사위원 사퇴서



《제13회 국전》 사진부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주심에 대하여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소생의 일신상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에 응할 수 없게 되어 자(茲)에 사퇴
서를 제출하는 바이오니 해량 선처(海諒善處) 있어움을 앙망(仰望)하나이다.
서기 1964년 10월 9일
임응식

문교부 장관 귀하

1964년 10월 9일, 『조선일보』 3면
「『사진예술성을 무시』, 《국전》 심사원 두 명이 사퇴」

8일 《국전》 심사위원으로 위촉받은 사진 부문 심사위원 이해선(李海善), 임응식(林應植) 양 씨
는 심사위원을 사퇴할 뜻을 밝히고 “심사위원 위촉에 있어 당국이 《국전》의 권위와 사진의 예술
성을 무시한 느낌이 있다”고 말했다.

1964년 10월 12일, 공보부 발행 제3870호 관보(1964.10.23)
문교부령 제150호 《대한민국미술전람회》 규정

문교부령 제150호
《대한민국미술전람회》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공시한다.
1964년 10월 12일
문교부 장관 윤천주
다음

《대한민국미술전람회》 규정

- 제1조 (전람회의 개최 등) ①우리나라의 미술의 발전과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문교부는 매년 《대한민국미술전람회》(이하 “《국전》”이라 한다)를 개최한다.
- ②《국전》의 회기·회장 및 사무소는 그 개최일 3월 전에 이를 공고한다.
- 제2조 (조직) ①《국전》에 회장 1인, 부회장 2인과 간사 및 서기 약간인을 둔다.
- ②회장은 문교부 장관, 부회장은 문교부 차관과 문교부 문예체육국장이 되고, 간사와 서기는 문교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문교부 장관이 임명한다.
- ③회장은 회무(會務)를 통리(統理)하고, 《국전》을 대표한다.
- ④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지정하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간사는 회장의 명을 받아 《국전》의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3조 (부문) 《국전》에 다음의 7부를 둔다.

- 제1부 동양화
- 제2부 서양화
- 제3부 조각
- 제4부 공예
- 제5부 서예
- 제6부 건축
- 제7부 사진

제4조 (전시) ①《국전》에 전시할 작품은 다음과 같다.

1. 대한민국미술전람회 전시작품 심사위원회(이하 “국전심사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사한 결과 입선된 작품.
2. 국전심사위원회 회원의 작품
3. 추천작가의 작품.

②전 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작품은 1인당 1점씩으로 한다.

③《국전》에 전시할 작품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국전》전시작품표를 첨부한다.

제5조 (추천작가) 전 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한 “추천작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문교부 장관이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1. 《국전》에서 계속 4회 이상 특선한 자.
2. 《국전》에서 6회 이상 특선한 자.
3. 《국전》에서 15회 이상 입선한 자.

제6조 (촬영 등의 승인) 《국전》에 출품된 작품을 촬영 또는 모사(模寫)하고자 하는 자는 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 (출품인의 자격) ①《국전》에 작품을 출품할 수 있는 자는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 한다.

②작품의 제작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유가족이 출품할 수 있다.

제8조 (작품의 출품 범위) ①《국전》에 출품할 수 있는 작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작품이라야 한다.

1. 국내외에서 이미 공개 발표된 작품.
2. 공서양속(公序良俗)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작품.
3.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전시에 부적당한 작품.

②동일인이 출품할 수 있는 작품의 출품범위는 제3조에 규정한 각 부를 통하여 매부당 3점 이내로 한다.

③작품의 형태·표장(表裝) 등이 동일 의장에 의한 1개의 작품이라고 인정되는 것은 2개 이상으로 분리되어 있더라도[있더라도] 이를 1점으로 본다.

제9조 (작품의 규격) ①《국전》에 출품할 수 있는 작품의 규격은 회장이 정한다.

②회장은 전 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품작품의 규격을 정한 때에는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시에 함께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출품원서) ①《국전》에 작품을 출품하고자 하는 자는 그 작품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출품원서를 《국전》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작품에는 매점마다 명제·제작자의 성명과 출품인의 성명 등을 기재한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출품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국전》사무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품원서를 받은 때에는 그 작품의 훼손유무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접수증과 영수증을 제출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1조 (작품의 장식) 《국전》에 출품하는 작품은 적당한 장식을 갖추어야 하며 취급상 특히 주의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그 출품표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12조 (출품료) ① 문교부 장관은 《국전》에 출품하는 작품의 관리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출품료를 받을 수 있다.

②문교부 장관은 전(前) 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품료를 받기로 한 때에는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시에 함께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 (낙선작품의 반출) ①출품인은 그 작품이 《국전》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낙선된 때에는 그 심사결과와 발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반출하여야 한다.

②회장은 전 항의 기간 내에 반출하지 아니한 작품에 대하여는 분실·파손 기타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4조 (전시의 위치) 《국전》에 전시하는 작품의 전시 위치 및 배열 등에 관하여 출품인은 이를 제출할 수 없다.

제15조 (옥외전시) ①회장(會長)은 회장(會場)의 형편에 따라 작품을 옥외에 전시할 수 있다.

②옥외에 전시할 작품은 《국전》심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회장이 결정한다.

제16조 (반출금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출품작품은 《국전》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발표 전에는 이를 반출하지 못하며 전시할 작품은 회기 종료 전에는 이를 반출하지 못한다.

제17조 (전시작품의 반출기간) ①《국전》에 전시되었던 작품은 회기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반출하여야 한다.

②전 항의 기간 내에 반출하지 아니한 작품에 관하여는 제13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 (입선·특선 및 수상작품) ①입선된 작품 중 우수한 작품을 특선작품으로 하고, 특선된 작품 중 우수한 작품을 수상작품으로 한다.

②입선작품은 《국전》심사위원회에서 심사선정하고, 특선작품과 수상작품은 《국전》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한 특선 후보작품 및 수상 후보작품 중에서 각각 문교부 장관이 이를 결정한다.

제19조 (입선장·특선장 및 상장) ① 입선작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입선장을 수여한다.

②특선작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특선장을 수여한다.

제20조 (매매 가격의 표시) 출판인으로서 그 작품의 매도를 원하는 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출판원서에 그 가격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1조 (관람)①《국전》에 전시된 작품은 공개관람하게 한다.

②관람시간은 회기 주에 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회장은 관람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22조 (관람료)①회장은 《국전》 전시작품의 관람인에 대하여 문교부 장관이 정하는 비에 의하여 관람료를 받을 수 있다.

②문교부 장관이 전 항의 시정에 의하여 관람료를 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3조 (관람인의 퇴장조치 등) 회장은 작품의 전시회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또는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퇴장시키거나 그 입장을 금지시킬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령은 공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령 시행 당시의 《국전》 개최에 관한 공고는 이 령에 의하여 행한 공고로 본다.

[이하 별지 생략]

1964년 10월 14일, 『동아일보』 1면

「(횡설수설)」

◆올해의 《국전》도 입선작품과 특선작이 발표된 뒤를 이어 그 화려한 막을 내일부터 연다. 해마다 그러하듯이 이번에도 심사원 선출 문제로 각 부에서 불만과 불평이 다소간 있었던가 보다. 그로 인해서 또다시 어떤 부의 대가와 중견작가 몇 사람들이 출품을 거부한 것은, 예술의 전당인 《국전》 앞날의 보다 더 큰 발전을 위해서 매우 서운하게 됐다. ◆특히 금년 《국전》의 특색은 일제 때부터 영년(永年)의 숙제로 내려오던 사진이 곁들여 ‘금상첨화’ 격이 된 것이지만, 거기에 가입되기까지엔 여러 가지로 불미한 물의를 일으켰고, 또 그 심사원 선정에도 말썽을 일으켜 아직도 그 여진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매양 우리 사람의 하는 일들이란 공평을 결하고 편사(編私)로 흐르는 것이, 이번의 사진부 경우에서도 분규의 원인으로 돼 있다. ◆사진문화가 출판문화와 함께 우리에게 준 혜택과 공헌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특히 ‘저널리즘’에 있어서는 그것이 “보는 신문”이라고까지 고품을 받게 됐다면 그 문화적 가치의 비중이 어떻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기에 오래 푸대접받던 이 사진이 이 해부터 다른 부문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영예를 차지하게 된 “보공(報功)의 선물”이 아니던가. ◆그러한 과거를 생각해서라도 이 사진의 첫 번째 출품작들을 심사하려면, 신진들의 ‘사표(師表)’가 되는 사계의 권위자들을 망라해야만 후진들의 향상 의욕을 북돋아 주려니와, 대외적으로도 그 품위도 높아질 것인데, 막상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 세론이다. 그 ‘불화음’을 말하는 것이 심사 위촉받은 이 모, 임 모 양 씨가 사진예술의 모독이라고 수락을 사퇴했다는 그 점이다. ◆이것도 결국은 ‘정실인사’가 도화선이 됐다는 비난을 듣고 있지만, 《국전》의 다른 분야에서도 어느 해나 심사원을 뽑을 적마다 번번 공정성을 잃는다 해서 예술인들의 구설에 오르내리고 있는 문교부다. 그 모두가 관료적인 독선 때문이라 하겠으나, 그러한 비민주적 태도를 고치지 않는 한, 언제까지 가도 《국전》의 각 부별 내분의 씨가 더욱 커질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다시 사진 문제로 돌아가, 이것의 특선작 시상문은 문교부장관상으로 국한했다는 목계설이 있고, 전람장소도 덕수궁으로 분가시켰다는 자체는, 일견 《국전》에 참여시킨 첫해부터 경시 받는다는 것이 ‘카메라·맨’들의 원성이다. 장소는 좁으니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시상을 제한한다는 것은 마지못해 예술의 서열에 한몫 넣어주었다는 인색성(吝嗇性)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이와 같이 언제 어떤 《국전》 부문에서나 시비를 듣지 않는 것이 없는 문교부요, 또 그 까닭에 ‘전국적’이며 ‘전 예술인적’이 못 되는 《국전》이라는 말을 듣고 있다. 그래서 어딘가 모르게 ‘이’ 빠진 그릇 같은 《국전》이라는 인상과 함께 애석한 생각이 없지 않다. 예술인들의 대동단합과 출품의 진폭을 넓히기 위해서라도, 문교부 당국자 먼저 편파(偏頗)한 태도의 지양을 바라고 싶다.

1964년 10월 15일, 국가기록원-제13회국전철, pp.270-272

문화공보부 예술국 예술1과, 《제13회 국전》 사진부 심사위원 해촉에 관한 건

기안지

제안자	예술국 예술1과	제안번호	5123	장소	1964.10.15
제안 목적	국전	제안 이유	국전	제안 방법	서신
제안 일자	64.10.15	제안 대상	국전	제안 대상	국전
제안 내용	제13회 국전 심사 불합격률 계속 1. 표기 국전 작품을 심사하기 위하여 당부에서 위촉한 심사위원 중 사진부 심사위원 "임응식" "이해선" 양 씨는 사전에 하등의 연락도 없이 동 심사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심사위원직을 해촉코저하오니 재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제안 결과	결재 1-222 (제13회 국전 심사위원 해촉)				

수신처: 예술국 예술1과
제13회 국전 심사위원 해촉

270

기안지

제안은 표기 국전 심사위원직 사진 연락없이 불참하였으므로 동 해촉직을 계속함을 통보합니다. 끝.

수신처: 이해선, 임응식.

제안 목적: 제13회 국전 심사 불합격률 계속

제안 이유: 1. 표기 국전 작품을 심사하기 위하여 당부에서 위촉한 심사위원 중 사진부 심사위원 "임응식" "이해선" 양 씨는 사전에 연락도 없이 동 심사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심사위원직을 해촉코저 하오니 재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제안 일자: 64.10.15

제안 대상: 국전

제안 방법: 서신

제안 내용: 제13회 국전 심사 불합격률 계속

제안 결과: 결재
1-223 (제13회 국전 심사위원 해촉)

수신처: 1-1 (8)

271

기안용지

제안자	예술국 예술1과	제안번호	5123	장소	1964.10.15
제안 목적	국전	제안 이유	국전	제안 방법	서신
제안 일자	64.10.15	제안 대상	국전	제안 대상	국전
제안 내용	제13회 국전 심사 불합격률 계속 1. 표기 국전 작품을 심사하기 위하여 당부에서 위촉한 심사위원 중 사진부 심사위원 "임응식" "이해선" 양 씨는 사전에 연락도 없이 동 심사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심사위원직을 해촉코저 하오니 재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제안 결과	결재 1-223 (제13회 국전 심사위원 해촉)				

수신처: 1-1 (8)

272

기안일 64.10.15

분류기호 문예술 1062.1

제목 《제13회 국전》 심사불참 위원 해촉

1. 표기 《국전》 작품을 심사하기 위하여 당부에서 위촉한 심사위원 중 사진부 심사위원 "임응식" "이해선" 양 씨는 사전에 하등의 연락도 없이 동 심사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심사위원직을 해촉코저하오니 재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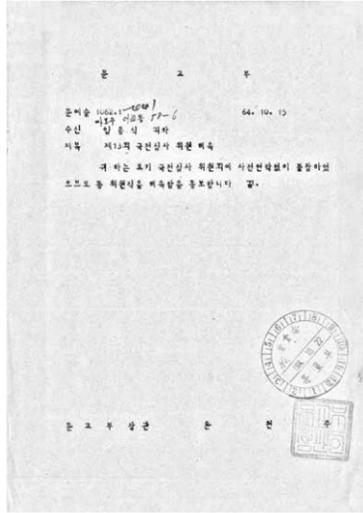
참고 64.10.8 《국전》 심사위원회 총회에서 지상 사퇴 기사를 보고 분격하여 엄중처단 할 것을 건의한 바 있음. 장관 지시에 의거함.

제목 《제13회 국전》 사진부 심사위원 작품 처리

1. 표기 《국전》 사진부 심사위원 "임응식" "이해선" 2명은 심사에 불참하였을 뿐만 아니라
2. 작품 출품에 있어서도 일반 작가 작품으로 출품되었으므로 출원 내용에 따라 일반작가 작품으로 처리코저 하오니 재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결재 참고,, 새로히 신설된 사진부 심사위원의 작품은 그 출원 내용에 따라 특선으로 간주기로 결정 한 바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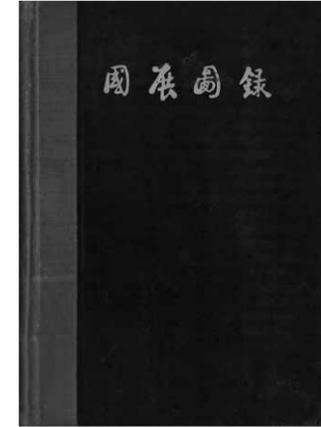
1964년 10월 15일, 임응식 스크랩북 자료
문교부, 임응식 《제13회 국전》 심사위원 해촉 통보서



1964년 10월 15일, 『조선일보』 7면
「세 사진작가 수상을 거부, 심사위 구성에 불만」

【대구지사】《13회 국전》 사진부에서 입선한 대구의 사진작가 박달근(朴達根), 정태영(鄭台泳) [정태수], 김재수(金在洙) 씨 등 3명은 심사에 불만을 품고 “수상을 거부하겠다”고 14일 성명했다. <격정(激情)>, <내의의 벽(內衣의 壁)[내재의 벽]>, <애소(愛巢)> 등 출품작으로 입선했던 이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프로’ 작가가 심사위원으로 낀다는 것은 사진예술의 순수성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현재 전시되고 있는 그들의 작품도 철회할 것이라고 말했다.

1964년 10월 16일-11월 15일, 경북공미술관, 덕수궁미술관
문교부 주최, 《제13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



《제13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

임원 명단

- 회 장 문교부 장관 윤천주
- 부회장 문교부 차관 한상봉
- 부회장 문교부문예체육국장 이철희
- 간 사 문교부예술과장 류해인

심사위원 명단

- 위원장 이종우
- 부위원장 도상봉
- 사진 분과위원장 정희섭
- 이건중 이경모 이해선[사퇴] 임응식[사퇴]

《제13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작품 및 작가 명단

제7부 사진

- | | | |
|-----------------|--------------------|-------------------|
| 〈통신표〉 김복만 | 〈아침〉 박래성 | 〈심상〉 이장호 |
| 〈어항(漁巷)〉 최민식 | 〈가랑비〉 허중배 | 〈환정(歡情)〉 이장호 |
| 〈애소(愛巢)〉 김재수 | 〈개구쟁이 형제〉 주한화[송진화] | 〈눈 오든 날〉 황우중 |
| 〈내재(內在)의 벽〉 정태수 | 〈노목(老木)〉 이진권 | 〈어촌의 동심〉 송재희 |
| 〈누드〉 정태수 | 〈딸〉 박병준 | 〈춘광의 마을〉 김광덕 |
| 〈격정〉 박달근 | 〈투지〉 한경선 | 〈풍랑 머즌[멋은] 날〉 김창권 |

- 〈눈 오는 날〉 박영달
- 〈석양〉 박효주
- 〈비상〉 김종순
- 〈엄마 왜 울어?〉 박여일
- 〈여인〉 성재경
- 〈건어장의 노도(怒濤)〉 김갑연
- 〈나무(裸木)의 행렬〉 김갑연
- 〈시속 100km〉 서선화
- 〈환상〉 배상하
- 〈사각의 조형〉 노익배
- 〈양떼의 행렬〉 이수강
- 〈장고의 환상〉 김재우
- 〈여청(女靑)[여정(女靑)]〉 이정강
- 〈소녀상〉 이창원
- 〈대양을 향하여〉 강상규
- 〈원형질〉 박경득
- 〈깃〉 박형철
- 〈겨울풍경〉 주명덕
- 〈정적〉 조무형
- 〈강변〉 조무형
- 〈목교(木橋)〉 장태원
- 〈강변소견〉 장태원
- 〈콘도지춘[콤포지선]〉 정규봉
- 〈구성〉 이원진
- 〈가을〉 김상욱
- 〈고양이〉 김용기
- 〈전념〉 박성강
- 〈천직〉 계춘근
- 〈성숙〉 장원훈
- 〈무제〉 Klye Wilson
- 〈삶〉 한규성
- 〈조건〉 이종화
- 〈류(流)〉 이창근
- 〈한복〉 이혜숙
- 〈강아지〉 오순자
- 〈분노〉 김경자
- 〈비둘기의 죽음[비둘기의 죽음]〉 김열수
- 〈Composition[Composition]〉 박성진
- 〈조형〉 전이한
- 〈망추(望秋)〉 이기주
- 〈채석장 풍경〉 변일용
- 〈빛물 띄기는 동우(同友)〉 정동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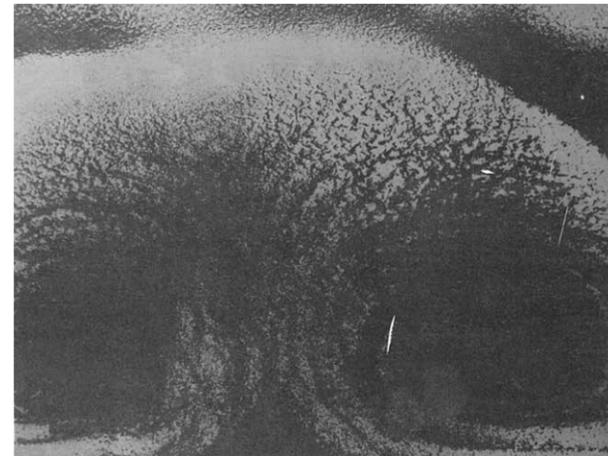
- 〈백로〉 김응태
- 〈노상〉 오승현
- 〈비들기[비들기]〉 김한용
- 〈해안선〉 윤세금
- 〈소년들〉 임범택
- 〈비망〉 임응식
- 〈고립된 인간인가(人家)〉 박창희
- 〈생존〉 신현국 문교부장관상
- 〈울동〉 이현우 특선
- 〈가을비[가을비]〉 문선호 특선
- 〈누드〉 이정강 특선
- 〈누드〉 임효도 특선
- 〈작품 7〉 조현두 특선
- 〈눈〉 공길남 특선
- 〈반영〉 김갑연 특선
- 〈한적〉 이경모 심사위원
- 〈비상〉 정희섭 심사위원
- 〈이동〉 이진중 심사위원



〈한적〉 이경모 심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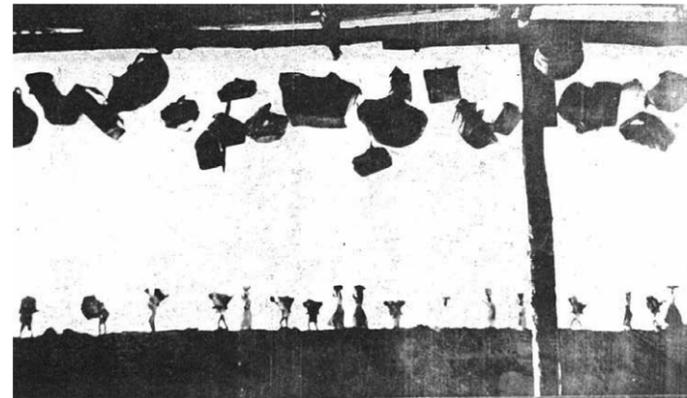
〈비상〉 정희섭 심사위원



〈이동〉 이진중 [심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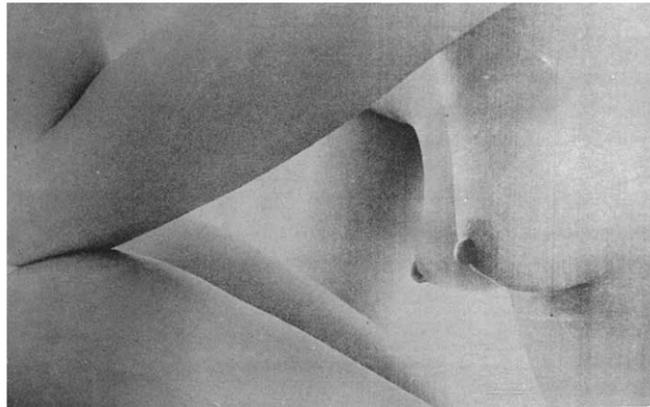
〈눈〉 공길남 [특선]



〈생존〉 신현국 문교부장관상



〈울동〉 이현우 [특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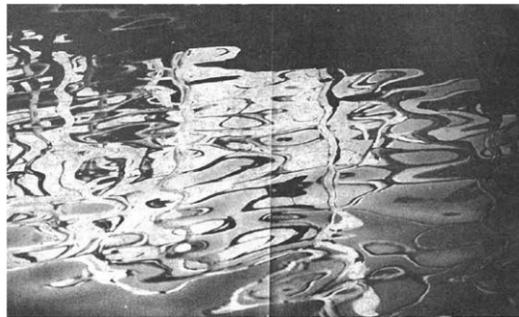
<누드> 이정강 [특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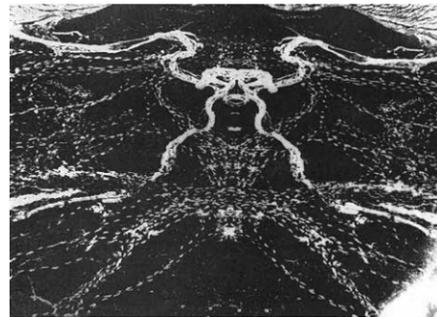
<누드> 임효도 특선



<가을비> 문선호 특선



<반영> 김갑연 특선



<작품 7> 조현두 특선

1964년 10월 18일, 『주간한국』(제4호) p.17
이해선, 임응식, 「사진부 심사위원 사퇴한 이유」



사진부 운영에 암운(暗雲)

사퇴와 수상거부 등

올해 첫 선을 보이게 된 《국전》 사진 부문의 심사 위촉을 받은 정희섭, 이진중, 이경모, 이해선, 임응식 씨 등 5씨 중 이해선, 임응식 양 씨가 공정성을 잃은 편파적 인선에 찬동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사퇴했다. 한편 대구 재주(在住)의 사진작가 김재수, 박달근, 정태영 씨 등 3명은 '프로'작가 심사위원에 끼였다는 것은 사진예술의 순수성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지적, 입선된 작품의 수상을 거부하면서 작품 철회를 서둘러 사진부 탄생에 냉수를 끼얹는 듯 심상치 않는 분위기가 사단의 주변을 감돌고 있다. 이 사진부의 심사위원 구성 문제는 앞으로 더욱 치열한 논쟁과 사단의 반목을 유발할 것으로 보인다.

이해선 ○…………극히 편파적인 인선…………○

사진이 금년부터 예술의 전당인 《국전》에 참여하게 되었으니 반평생을 사진예술의 길에서 살아 온 나로서는 그 무엇보다도 기쁘다. 그런데 국가가 모처럼 베푸는 호화로운 《국전》이란 이름의 잔치에서 그 주인이 처음으로 초대하는 손님에게 어떤 굴욕적인 차별대우를 했다든지 또는 그 권위를 무시하는 태도를 취했다면 누구나 불결히 여기고 대노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

번 《국전》에서 문교부 당국이 처음으로 참여하는 사진 부문의 심사위원을 선정 위촉하는데 있어서는 사단의 역사와 권위와 질서를 무시하는 극히 편파적이고 정실적인 결과를 초래케 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함으로써 대부분의 사진작가가 당국을 비난하고 격노함은 당연한 일이라고 하겠다. 나는 사진예술의 권위를 위해서라도 이번 심사위원 위촉에 응할 수 없었다. 그리고 나는 당국에서 《국전》 심사위원을 위촉한다는 정식적인 공문서를 받지도 못했고 다만 신문지상에 보도된 것만 으로 어찌 내가 자진해서 나갈 수 있겠는가! 아무리 독선적이고 무식한 당국이지만 실무자의 ‘메모’ 쪽지로 나는 움직일 수는 없다. 참으로 불결하기 한이 없다. <전 대한사진예술연구회장 上野 [우에노]미술학교⁷⁾ 출신>

임응식 ○…………조건부가입은 모욕…………○

《국전》에 사진부가 증설되었다는 일은 실로 사진예술의 장래를 위하여 다행한 일이라 하겠다. 더구나 이 문제를 10여 년간 추진해온 나로서는 그 기쁨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러나 심히 불 유쾌한 일이 있어 사진가의 한 사람으로서 그 치욕감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국전》 시상 중에서 유독 사진 부문만은 대통령 및 국무총리, 부국무총리상에서 제외한다는 등 몇몇 가지의 조건부로 이를 가입시켰다는 점에서이다.

거기다가 설상가상 격으로 당국이 선정한 심사위 구성을 본다면 아연실색할 정도로 현실을 무시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추천작가를 아직 두지 않은 사진부인 만큼 타 부문보다 더 신중을 기해줄 것을 지상(紙上)과 구두(口頭)로 누차 당국에 요청한 바 있고 또 당국자로부터도 이를 약속했던 것이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웠던[아름다웠던] 사단의 질서를 유린하고 혼란을 야기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으니 그 책임은 당국자가 당연 규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본다. <한국창작사진협회 대표위원장>

7) 우에노미술학교. 도쿄 우에노 지역에 위치했던 도쿄미술학교를 가리킨다. 1949년 도쿄음악학교와 합병해 현재의 동경 예술대학(東京藝術大學)이 되었다.

1964년 10월 20일, 『조선일보』 5면

「《국전》 총평, “현실은 있으나 작가의 눈은 없다”, 전문가들과 문화계 인사들의 의견」

<의견과 비평을 제시한 분들>

이상범·천경자(동양화), 이마동(서양화) 윤효중(조각) 손재형·김기승(서예) 박성삼(공예) 강명구(건축) 정희섭(사진)=(이상 심사위원) 김병기·최영립·조용익(양화) 김응현(서예) 최순우(미술사) 방근택(미술평론) 박용구(음악평론)

[지면 중 ‘사진 부문’ 발췌]

사진

최초의 《국전》 참가를 한 사진은 78점(심사위원 3). 작품 내용이 풍부했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기분 나쁠 정도로 통속성을 탈피 못 했다”는 통렬한 비판도 나왔다. 작가가 ‘카메라’에 매달려 질질 끌려다니며 현실을 보는 눈을 상실하고 있다는 것이다. 장관상의 <생존>은 좋은 ‘타이밍’을 포착했으나 너무나 방관적 자세다. 입선작으로 새로운 시도가 조작으로 치우친 김열수의 <비둘기의 죽음>, 구도나 ‘무드’가 어느 정도 무난한 김재우의 <장고(長鼓)의 환상> 등이 눈에 띈 정도다.

1964년 11월, 『신동아』(통권 3호), p.360

「(뉴스와 화제-미술) 옥먹는 예술원」

《제13회 국전》이 마감이 하루 지난 10월 8일까지 2천 166점(동양화 255, 서양화 823, 조각 253, 공예 229, 서예 278, 건축 21, 사진 449)의 작품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예술원의 추천을 받은 47명의 심사위원도 위촉되었다.

이번 《국전》이 예년보다 다른 점은 종래에 받아오던 출품료(1점당 3백 원)의 폐지와 사진부의 신설이다. 그러나 심사위원을 둘러싼 잡음은 올해도 역시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되고 있다. 심사위원을 각 부문별로 보면 동양화 7, 서양화 15, 서예 7, 조각 5, 공예 5, 건축 3, 사진 5명으로, 이 가운데서 표면적으로 가장 많을 부문이 사진과 서양화다.

지난 10여 년 동안 꾸준히 《국전》에 참가하려고 노력한 분야가 바로 판화작가와 사진작가들이었다. 그러나 외국의 경우 오히려 판화 부분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수적으로 미약하기 때문에 이번 《국전》에는 사진 부문만이 신설된 것이다. 이번 사진 부문을 둘러싼 잡음은 기왕에 있어왔던 상업적으로 성공한 기성 사진작가와 이를 거부하고 나선 사진작가들 사이의 반목(反目)이 《국전》을 계기로 해서 그대로 노출된 것이다. 《국전》의 사진작가의 참가가 결정되자 지난 8월 30일 전자(前者)의 집단인 예총(藝總) 산하의 ‘사협(寫協)’에 대항해서 ‘한국창작사진협회’가 구성되었다. 그리고 문교부는 이러한 추이를 ‘신중히 고려

한' 예술원의 추천대로 5명의 심사위원을 위촉했다. 그러나 이 5명 가운데 '창협(創協)' 측의 임응식 씨와 이해선 씨가 지난 10월 8일, 심사위원을 사퇴했다.

한편 회화 부문에서는 지난 10월 7일, 심사위원 인선에 불만을 품은 화가들이 '삼양그릴'에서 회합을 가졌으며 참가한 화가들 가운데는 류영국, 이일, 류경채, 이봉상 씨 등 심사위원들도 참석하였다. 이들 화가의 불만은 가지각색이지만 대체로 추천을 담당할 예술원 위원들이 자기네들만의 인선을 했다는 점과 매년 출품수의 70%가 추상화임에도 불구하고 실상 추상파의 심사위원은 단지 두세 명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으로 집약되고 있다.

이에 《국전》이라면 진절머리를 내는 화가들은 이런 사태에 대해서 "이주 《국전》을 없애버려든지 아니면 어떤 근본적인 협조와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한편 문교부 당국은 이번 심사위원 인선은 어느 때보다 신중했다고 말하면서 "작년에 화가들과 예술원 추천으로 합의를 보았는데 잡음이 있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사퇴한 사진 부문의 두 심사위원도 10월 10일 현재 아직 정식 사퇴를 하지 않았으며 심사에도 출석치 않는다고 밝혔다.

앞으로 11일까지는 심사가 끝나고 한 달 동안 전시되는 가운데 이 모든 문제의 귀추가 주목된다.

1964년 11월 10일, 공보부 발행 제3885호 관보
대통령령 제1,979호 《대한민국미술전람회》 전시작품 심사위원회 규정

대통령령 제1,979호

《대한민국미술전람회》 전시작품 심사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문교부 장관의 자문에 의하여 《대한민국미술전람회》(이하 "《국전》"이라 한다)에 전시할 작품을 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문교부에 《대한민국미술전람회》 전시작품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5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매년 《국전》을 개최할 때마다 추천작가 중 예술원이 추천한 자 중에서 문교부 장관이 위촉한다.

④전 항에 규정한 "추천작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문교부 장관이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1. 《국전》에서 계속 4회 이상 특선한 자
2. 《국전》에서 6회 이상 특선한 자.
3. 《국전》에서 15회 이상 입선한 자.

제3조 (위원장 등) ①위원장은 회무(會務)를 통리(統理)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위원회의 직능(職能))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각 분과위원회에서 제정한 입선 후보작품 중 입선작품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각 분과위원회에서 제정한 특선 후보작품 중 특선 후보작품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수상 후보작품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각 분과위원회별 작품의 전시장소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문교부 장관 또는 위원장이 부의(附議)하는 사항.

제5조 (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은 문교부 장관으로부터 위원회의 회의 소집 요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에는 다음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 동양화부분과위원회.
- 서양화부분과위원회.
- 조각부분과위원회.
- 공예부분과위원회.
- 서예부분과위원회.
- 건축부분과위원회.
- 사진부분과위원회.

②전 항의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회원으로 구성하며, 그 위원의 분과위원회별 배속 정원은 위원장이 정한다.

③각 분과위원회에 분과위원장 1인을 두되, 그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각 분과위원장의 직무에 관하여는 제3조제1항과 전(前)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準用)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분과위원장"으로, "위원회"는 "당해 분과위원회"로 하고, 전조제2항 중 "문교부 장관"은 "위원장"으로 한다.

⑤분과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분과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분과위원회의 직무) 각 분과위원회는 당해 분야에 속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선 후보작품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특선 후보작품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작품의 전시 배열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 (각 분과위원회의 회의) 각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5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정한 입선작품·특선후보작품 및 수상후보작품을 지체 없

이 문교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수당과 여비)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문교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직원) ①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을 둔다.

②간사와 서기는 문교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문교부 장관이 임명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와 각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령은 공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령은 시행 당시에 위원회의 회원으로 위촉된 자와 추천작가로 지정된 자는 이 령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 또는 지정된 추천작가로 본다.

③ (동전(同前)) 제6조제1항의 사진부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조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추천작가가 될 수 있는 자가 있을 때까지 예술원이 추천하는 자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개간촉진법시행령 중 개정의 건을 이에 공시한다.

대통령 박정희

1964년 11월 10일

국무총리 정일권

1964년 11월 26일, 『대학신문』 3면

「《제13회 국전》을 결산한다, 굴욕적 가입 ‘조건부’ 시정=사진부, 회화부=구상 비구상의 철저한 분리가 시급」

[지면 중 '사진부' 발췌]

사진부

임응식 (미대 강사 한국창작사진협회 대표위원장)

《국전》의 사진 부문 설치하는 사진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크게 반가워할 경사이다.

다만 《제13회 국전》에의 사진 부문 참가가 뿔뿔하지 못한 조건부의 것이었다는데 유감이 있는 것이다. 《국전》의 각 부문은 평등한 자격을 가지고 애기되어야 한다는 것이 상식이라고 할 때 최고상인 대통령 및 국무총리, 부총리상에서 아예[아예] 제외한다는 차별대우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서 심사 위촉을 받았던 5인 중에서 이해선 씨와 본인은 ‘굴욕적 가입’이라는 이유로서 심사위원을 사퇴하게 된 것이었다. 우선 《제14회 국전》에서 부터는 이러한 ‘조건부’의 시정은 바라는 것이다.

심사위원의 선정문제에 있어서도 선정 이전에 이미 논란의 대상이 되었었고 우려의 표명이 있었는데 결국 그 문제점을 노정(露呈)하고야 말았다.

사진 부문은 《국전》의 첫 참가이기 때문에 추천작가가 없는 상태에 있고 사단의 중진 중견작가나 신인이거나를 막론하고 심사과정을 거쳐야만 하는 입장에 있다. 그러므로 심사위원은 자타가 공인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진 작가로 선정되어야 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는 일이다.

많은 중견 기성 작가가 참가를 거부하고 또는 수상을 거부한 것도 이런 데에서 연유한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심사위원의 구성 역시 재고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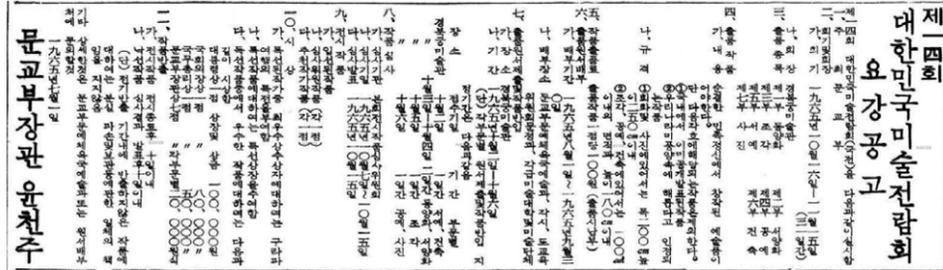
《국전》에 전시된 사진작품을 둘러보면 사실주의적인 경향의 것과 조형적인 작품의 둘로 대별(大別)할 수가 있겠는데 입상권 내의 작품은 조형적인 것이 중심이 되어 있는 인상이었다. 만일 심사의 기준이 조형적인 것에 치중되었었다고 한다면 사실주의를 본연의 영역으로 가지는 사진의 존재의의를 스스로 저버리는 결과가 되어서 앞으로 사단의 정상적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것이다. 조형 역량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기초적인 의미에서 불가결한 것이며 작품이 표현하고자 하는 그것이 내포하고 있는 정신문제가 평가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마디로 해서 섭섭하게도 금년 《국전》의 사진 부문은 현재까지 사단이 쌓아올린 수준에 미급(未及)하는 것이었다.

《국전》의 첫 참가이니만큼 그러한 혼란과 그것의 결과로 나타난 작품의 저조는 예상했던 바고, 또 용인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고도 하겠다. 앞으로의 《국전》 사진 부문과, 한국 사단의 발전을 위해서 위에 열거한 몇 가지 결함이 시정되어야 하겠고 아울러 추천작가를 선정하여 중견작가의 《국전》 적극 참여를 도모하는 것이 긴요한 일이 될 것으로 안다.

1965년 7월 3일, 『경향신문』 5면

문교부, 『제14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 요강 공고



《제14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국전)을 다음과 같이 실시함

1. 주최 문교부
2. 회기 및 회장
 - 가. 회기 1964년 10월 16일-11월 15일(31일간)
 - 나. 회장 경북공미술관
3. 출품 종목 제1부 동양화 제2부 서양화 제3부 조각 제4부 공예 제5부 서예 제6부 건축 제7부 사진
4. 출품 작품
 - 가. 내용 순결한 민족정신에서 창작된 예술품이어야 한다.
 - 단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작품은 제외한다.
 - ①국내에서 이미 공개 발표된 작품
 - ②우리나라 미풍양속에 해롭다고 인정되는 작품
 - 나. 규격 ①회화 및 사진에 있어서는 폭 200cm 높이 250cm 이내
 - ②조각, 공예, 건축에 있어서는 100cm² 이내의 면적과 높이 180cm 이내
5. 작품출품료 출품작품 1점당 100원(출품시 납부)
6. 출품원서 배부
 - 가. 배부기간 1965년 8월 1일~1965년 9월 30일
 - 나. 배부장소 문교부 문예체육예술과, 각 시,도 교육위원회 문정과, 각급 미술대학 및 미술단체
7. 출품원서 제출 및 작품반입
 - 가. 장소 경북공미술관
 - 나. 기간 1965년 10월 2일-10월 6일
 - (단) 각 부문별 원서제출 및 작품반입 지정기간은 다음과 같음

장소	접수기일	기간	부문별
경북공미술관	10월 2일	1일간	서예, 건축

”	10월 3일-10월 4일	2일간	동양화, 서양화
”	10월 5일	1일간	조각
”	10월 6일	1일간	공예, 사진

8. 작품심사

- 가. 심사기관 본회 전시작품 심사위원회
- 나. 심사기일 1965년 10월 7일~10월 15일
- 다. 심사발표 1965년 10월 15일

9. 전시작품

- 가. 입선된 작품
- 나. 심사위원 작품(각1점)
- 다. 추천작가 작품(각1점)

10. 시상

- 가. 특선된 작가 중 최우수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구라과 여행의 특전을 부여함
- 나. 특선작품에 대하여는 특선상장을 수여함
- 다. 특선작품 중에서 우수한 작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시상함

대통령상 1점	상장 및 상금	100,000원
국회의장상 1점	”	80,000 ”
국무총리상 1점	”	50,000 ”
문교부장관상 7점	”	각 부문별 20,000원식[씩]

11. 작품반출

- 가. 전시작품 전시종료 후 10일 이내
- 나. 낙선작품 심사결과 발표 후 10일 이내
 - (단) 전기 반출 기간 내에 반출하지 않은 작품에 대하여는 분실 파손 및 보관 등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기타 상세한 것은 문교부 문예체육예술과 또는 원서배부처에 문의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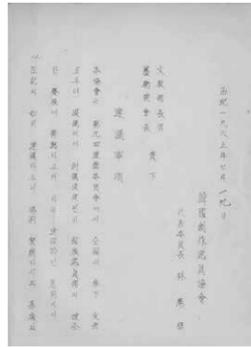
1965년 7월 1일

문교부장관 윤천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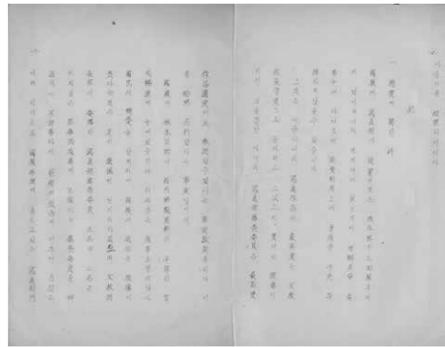
1965년 7월 19일, 임응식 스크랩북 자료
한국창작사진협회, 《국전》 사진부에 관한 건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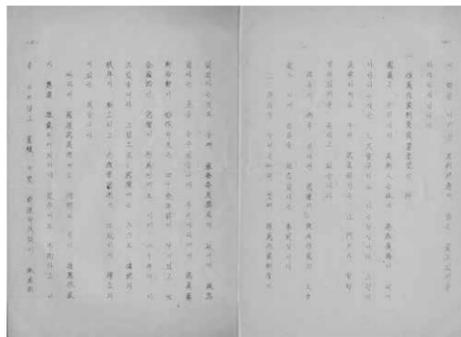
표지



p.1



pp.2-3



pp.4-5



pp.6-7

서기 1965년 7월 19일
한국창작사진협회
대표위원장 임응식

문교부 장관
예술원 회장 귀하

건의사항

본 협회는 제9회 운영위원회에서 전국의 산하 지부로부터 제의(提議)되어 토의 결정된바 《국전》 사진부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건설적인 의도에서 좌기(左記)와 여(如)히 건의하오니 각별(格別) 현찰(賢察)하시와 선처(善處) 있어주시기를 경망(敬望)하나이다.

기(記)

1. 시상에 관한 건

《국전》에 사진부가 설치된 것은 작년 제13회전부터의 일이거나 거기에서 몇몇 가지 이해 못할 처사 중의 하나로서 시상 제도상의 모순을 우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사진작품의 최고상은 문교부장관상으로 끝나치고 그 이상의 상에는 해당시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진부 심사위원은 최고상 작품 선정에도 참여할 수 없다는 사전 묵계(默契)를 하여 이를 시종(始終) 자행했다는 사실입니다.

《국전》의 근본 목적이 국내 제반 미술의 평등한 육성 발달에 놓여있을진데 위와 같은 처사로 말미암아 국민의 빈축을 받게 되어 《국전》의 위신을 손상시켰다는 것은 심히 유감된 일이라 하겠으며 문교부 장관이 위촉한 사진부 심사위원 5명 중 2명은 위와 같은 굴욕적 처우에 불복하여 심사위원을 사퇴하는 불상사까지 야기케 했음에 비추어 당국은 이제 바야흐로 《국전》 참여에 움트고 있는 사진 부문에 이러한 차별대우에 밝은 시정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2. 추천작가제도 설치 요망의 건

《국전》은 우리나라 미술인 전체의 발표 광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아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 사진부만은 그 문호가 활짝 열려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의 예를 본다면 사단의 기성작가의 대다수가 이에 출품을 거부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원인을 살펴본다면 첫째 추천작가제도가 없었다는 것과 둘째 심사위원 구성에 있어서 소홀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진예술 활동이 시작된 것은 사십여 년 전의 일 이었고 또 전국적인 사단이 형성된 지도 이미 이십 년에 이르렀습니다. 그럼으로[그러므로] 사단 에는 스스로 전통과 질서가 수립되고 선후배 관계가 뚜렷하게[뚜렷하게] 확립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전》 사진부에도 타 부와 같이 추천작가가 응당 추대되어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두지 않고 중진, 중견, 신진 할 것 없이 무차별 심사과정을 밟게 했[했던] 것입니다. 또한 문교부에서 위촉한 심사위원 구성이 사단의 작가적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진[동떨어진] 것이었기[것이었기] 때문에 중견 이상의 작가는 부득이 《국전》에 외면하지 않을 수 없게끔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으로 앞으로 사진부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는 추천작가제도의 실시가 절대적으로 필요 하며 이의 실시가 없는 한 《국전》 사진부의 작품적 저조는 당분간 이를 면치 못할 것이며, 따라서 매회 평온할 때가 없을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국전》 사진부가 명실공히 우리나라 사단의 총 역량을 과시할 수 있는 광장이 되도록 노력하는 뜻에서 기필코 추천작가제도를 금년부터 실시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 예거(例擧)한 제 문제의 해결에 필요한 구체적 방안에 관해서는 하시(何時)를 막론하고 상의에 응하겠음을 부언하는 바입니다.

이상

1965년 7월 21일, 『경향신문』 5면
《국전》 심사 차별 철폐, ‘창작사협’서 건의

예총의 ‘사협’ 밖에서 영향력을 갖고 있는 한국창작사진협회에서는 《국전》에서의 ‘사진부’ 심사 운영과 추천작가제도를 두라는 내용의 다음과 같은 건의서를 문교부 장관과 예술원 회장 앞으로 보냈다.

①《국전》 사진부 시상에 관한 건=사진작품이라고 최고 문교부장관상에서 그치고 최고상 작품 선정에선 사진부 심사위원이 참여할 것도 없다는 작년도 《국전》의 사진 목계는 시정되어야 한다. 작년에 그런 일로 해서 5명의 심사위원 중 2명이 사퇴를 했었다.

②추천작가제도 설치 요망의 건=작년도 《국전》에 많은 기성 사진작가가 출품을 거부했던 사실은 추천작가제도가 유독 사진부에 허용되지 않았고 문교부에서 위촉했던 심사위원 구성이 작가적인 현실과 거리가 먼 것이었던 때문이다. 금년부터라도 추천작가제도가 실시되어야 한다.

1965년 10월 16일-11월 15일, 경북공미술관
문교부 주최, 《제14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



《제14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

《제14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 임원명단

- 회 장 권오병 (문교부 장관)
- 부회장 성동준 (문교부 차관)
- 부회장 이철희 (문예체육국장)
- 간 사 진용철 (예술과장)

심사위원 명단

- 위 원 장 이종우
- 부위원장 도상봉
- 사진부 분과위원장 정희섭

이건중 이해선 임응식 이경모 현일영 김조현

전시작품 및 작가명단

제7부 사진

〈환상〉 하한규	〈험로를 넘어서〉 김재우	〈묘기〉 이현우
〈꼬마 찌리링〉 하한규	〈푸로필[프로필]〉 김영민	〈한발(旱魃)〉 이현우
〈수녀 되는 날〉 최민식 특선	〈천변(川邊)〉 최원오	〈만절(晩節)〉 백영기
〈추정(秋情)〉 서경숙	〈찰나와 영원〉 김동휘	〈근로〉 오재규
〈귀(歸)〉 이진권	〈호박제(祭)〉 이종화	〈동심〉 오재규
〈성안학교(고)〉 박조윤박상원	〈작품 "17"〉 조현두 특선	〈풍상(風霜)의 연륜〉 송재희
〈농촌 아낙네〉 송진화	〈사념(思念)〉 이장호	〈생과 사〉 조현식 특선

- | | | |
|------------------|---------------------|--------------------------|
| 〈농사 술레〉 송진화 | 〈투우〉 김종태 | 〈상처〉 박두열 |
| 〈주유(走遊)〉 장지영 특선 | 〈삼중주〉 김종태 | 〈반영〉 김 영 |
| 〈작품 "C"〉 장지영 | 〈반영〉 최성하 | 〈PASS〉 공길남 |
| 〈투영〉 장지영 | 〈흑발〉 성재경 특선 | 〈무(舞)의 환상〉 공길남 |
| 〈벽〉 강희옥 | 〈낙양(洛陽)의 목동〉 고석희 | 〈삶〉 공길남 |
| 〈비약〉 김상욱 | 〈맹호의 기백(氣泊)〉 박재찬 | 〈무아〉 강인숙 |
| 〈코리아의 손〉 이원진 | 〈누드〉 김한용 | 〈허공〉 박경희 |
| 〈건설〉 김용수 | 〈훈련〉 유정재 | 〈겨울〉 정규철 |
| 〈기둥〉 정규봉 | 〈야상곡〉 이종원 특선 | 〈마음의 길〉 조남기 |
| 〈관혁(貫革)〉 정규봉 | 〈오월〉 정동선 | 〈결투〉 문선호 특선 |
| 〈무산호경(霧散湖景)〉 허 철 | 〈추수〉 김종양 | 〈사양〉 문선호 |
| 〈울타리〉 권병준 | 〈구성〉 김치두 | 〈호반〉 문선호 |
| 〈협력〉 김용기 | 〈작업〉 김호용 | 〈벚(SUN)〉 김조현 심사위원 |
| 〈기다림〉 오승현 | 〈일터〉 장태원 | 〈정원지록(靜園之鹿)〉 이진중
심사위원 |
| 〈작업〉 오승현 | 〈꽃 피는 모녀〉 김갑연 | 〈안익태〉 임응식 심사위원 |
| 〈어등(魚燈)〉 허치권 | 〈구축〉 서선화 | 〈추억〉 현일영 심사위원 |
| 〈석별〉 허치권 | 〈귀의례(歸依禮)〉 김종현 | 〈자연의 추서(秋序)〉 정희섭
심사위원 |
| 〈누드〉 이창원 | 〈격정(激靑)〉 김종현 문교부장관상 | 〈추수절〉 이경모 심사위원 |
| 〈묘기〉 노익배 | 〈바닷가의 환상〉 마성수 | 〈한정(閒靜)〉 이해선 심사위원 |
| 〈눈길의 아베크〉 노익배 | 〈짧은 투지〉 한규성 | |
| 〈누드〉 이한용 | 〈내일을 위하여〉 한규성 | |



〈격정〉 김종현 문교부장관상



〈정원지록(靜園之鹿)〉 이진중 심사위원



〈자연의 추서(秋序)〉 정희섭 심사위원



〈한정(閒靜)〉 이해선 심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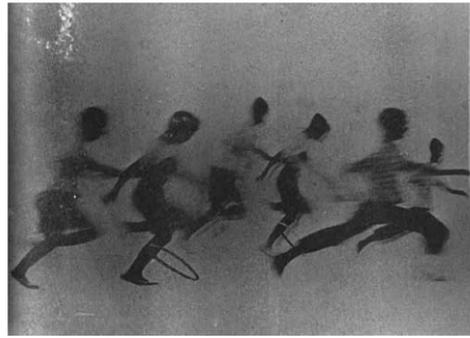
〈추수절〉 이경모 심사위원



〈안익태〉 임응식 심사위원



〈추억〉 현일영 심사위원



〈주유(走遊)〉 장지영 특선



〈별(SUN)〉 김조현 심사위원



〈생과 사〉 조현식 특선



〈흑발〉 성재경 특선



〈수녀 되는 날〉 최민식 특선



〈결투〉 문선호 특선



〈야상곡〉 이종원 특선



〈작품 "17"〉 조현두 특선

1966년 7월 9일, 『한국일보』 2면
문교부, 「《제15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 요강 공고」

제15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 요강공고

1966년도 제15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국전) 실시요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회기 1966.10.12-11.10 (30일간)
2. 회장 경북공미술관
3. 작품종목 제1부 동양화 제2부 서양화 제3부 조각 제4부 공예 제5부 서예 제6부 건축 제7부 사진

5. 출품제한 가. 작품내용 순수한 민족 정서에서 창작된 예술작품에 한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작품은 제외한다.
나. 작품규격 1) 회화, 사진, 폭 200cm* 높이 250cm 이내 (서예는 제한없음)
2) 조각, 공예, 건축 100cm² 이내의 면적과 높이 180cm 이내

6. 출품절차 가. 출품원서 배부기간 1966년 8월 1일~9월 20일
나. 출품원서 배부처 문교부, 각 시도 교육위원회, 각 미술대학, 각 예술단체

부	분	명	접수기간	접수장소
동양화	서양화	9월 24일	1경관주 미술관	미술관
조각	서예	9월 26일	11	11
조각	공예	9월 27일	11	11
11	11	9월 28일	11	11

7. 작품심사 가. 출품료 출품회비 1천원 100원 (출품시납부)
나. 심사기간 1966년 9월 30일~10월 8일
다. 심사결과보고 1966년 10월 8일

8. 전시작품 가. 입선작 1점씩, 심사위원작품 (각 1점)
나. 수선작가 작품 (각 1점)

9. 시상 가. 비룡회상 (최우수상) 1점 상장및부상 100,000원
나. 국공미술상 (1점) 80,000원
다. 최우수상 (1점) 50,000원
라. 최우수상 (7점) 20,000원
나. 입선작가상 (각 1점) 상장및부상
라. 최우수상상자와에대하여는 구라과여명의특전유부여함

10. 작품반출 가. 전시작품 전시종료후 10일 이내
나. 심사작품 심사결과발표후 10일 이내
단 전시반출기간내에작품을 찾아가지않는 경우에는 그작품에대하여 이하한 책임지지아니함.

11. 기타 상세한것을 문교부공예제작과 예술과나 원서 배부처에문
최알것
1966. 7. 6
문교부장관 권 오 병

1966년도 《제15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국전) 실시 요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주최 문교부
2. 회기 1966.10.12-11.10 (30일간)
3. 회장 경북공미술관
4. 작품 종목 제1부 동양화 제2부 서양화 제3부 조각 제4부 공예 제5부 서예 제6부 건축 제7부 사진
5. 출품 제한

가. 작품 내용 순수한 민족 정서에서 창작된 예술작품에 한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작품은 제외한다.

- 1) 국내에서 이미 공개 발표된 작품
- 2) 우리나라 공서양속을 저해하는 작품

나. 작품 규격 1) 회화, 사진, 폭 200cm 높이 250cm 이내 (서예는 제한 없음)
조각, 공예, 건축 100cm² 이내의 면적과 높이 180cm 이내

6. 출품 절차

가. 출품원서 배부기간 1966년 8월 1일~9월 20일

나. 출품원서 배부처 문교부, 각 시도 교육위원회, 각 미술대학, 각 예술단체

다, 출품원서 및 작품 접수

부 문 별	접수 기일	접수 장소
동양화 서양화	9월 24일	경북공미술관
“ ”	9월 25일	“ ”
사진, 서예	9월 26일	“ ”
조각, 공예, 건축	9월 27일	“ ”
“ ”	9월 28일	“ ”

라, 출품료 출품 작품 1점당 100원 (출품시 납부)

7. 작품 심사

가, 심사기관 국전심사위원회

나, 심사기일 1966년 9월 30일~10월 8일

다, 심사결과보고 1966년 10월 8일

8. 전시 작품

가, 입선된 작품 나, 심사위원 작품 (각 1점) 다, 추천작가 작품 (각 1점)

9. 시상

가, 대통령상(최우수상) 1점 상장 및 부상 100,000원

나, 국회의장상(1점) “ 80,000원

다, 국무총리상(1점) “ 50,000원

라, 문교부장관상(7점) “ 매 점당 20,000원

마, 입선 및 특선상 상장 및 메달

◎ 최우수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구라과 여행의 특전을 부여함

10. 작품 반출

가, 전시 작품 전시 종료 후 10일 이내

나, 낙선 작품 심사 결과 발표 후 10일 이내

단 전시 반출 기간 내에 작품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에는 그 작품에 대하여
여하한 책임도 지지 아니함.

11. 기타 상세한 것은 문교부 문예체육국 예술과나 원서 배부처에 문의할 것

1966. 7. 6

문교부장관 권오병

1966년 10월 8일, 『동아일보』 1면
「《제15회 국전》 입상작 발표」

[지면 중 사진 부문 소감만을 발췌]

그저 기쁨 뿐, 국무총리상 탄 김종현 씨 소감

사진 부문이 《국전》에 든 후 작품 〈자애〉로 처음 영예의 국무총리상을 탄 김종현(41=서대문구 안산동 274·중소기업은행 조사역) 씨는 은행가이자 아마추어사진계에선 쟁쟁한 이름을 날리고 있는 베테랑[베테랑], 작년 《국전》때도 작품 〈격정〉으로 문교부장관상을 받았고 공보부 주최 신인예술상에서 특상을 타기도 했다.

해방 이듬해인 1946년 은행에 들어가 20여 년을 금융계에 종사해온 김 씨는 당선소감에 대해 “그저 기쁨뿐이며 심사위원들에게 감사한다”고 짝막한 한마디.

1966년 10월 9일, 『조선일보』 6면

「평년작 《국전》, 각 분과별 심사위원들의 지상 개평(概評)」

[지면 중 사진 부문만을 발췌]

사진

이건중(분과위원장), 차츰 골라지는 수준

사진부에서는 작품 수준의 상한선이 두드러지게 높아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하한의 수준이 현저히 올라와 작품들의 질이 고르게 됐다고 할 것이다. 사진이 《국전》에 참가한 것은 이제 3회째에 지나지 않으므로, 아직 문젯점[문제점]이 많다고 생각되지만, 회를 거듭 할수록 기반이 다져져 간다고 할 것이다.

국무총리상의 〈자애〉는 소나무 위의 학을 찍은 것인데 건전하고 착실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1966년 10월 11일-11월 16일, 경북공미술관
문교부 주최, 《제15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



《제15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임원 명단

회 장 문홍주(문교부 장관)
부회장 성동준(문교부 차관)
부회장 조성옥(문예체육국장)

《제15회 국전》심사위원

위 원 장 이종우
부위원장 김인승
사진부 분과위원장 이진중

정희섭 이해선[사퇴] 임응식[사퇴] 이경모

수상자 명단

대통령상 [조각 부문]
국회의장상 [서양화 부문]
국무총리상 사진 <자애> 김종현
문교부장관상 [각 부문별 1점 수상] 사진 <기다림> 문선호

전시작품 및 작가 명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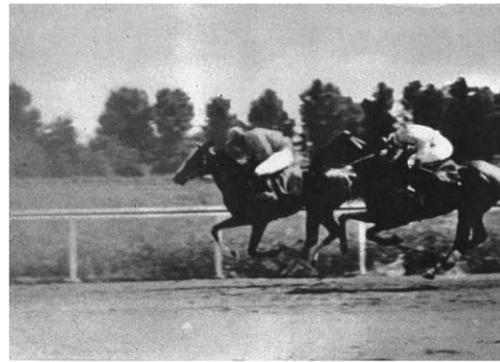
제7부 사진

<다리> 박해진	<펜듀럼> 이용권	<소년과 신문> 김혜신
<하동> 최민식	<황해의 기암> 유명근	<오수> 한석홍
<조선소> 최민식	<수상> 유명열	<혼적> 한석홍
<창세기의 하루> 김동휘 특선	<자애> 김종현 국무총리상	<건망(乾綱)> 김광일
<감미> 이기주	<남해의 환상> 김종현	<환상> 박수동

<겨울의 무드> 서경숙	<Composition> 한치규	<성역> 신동진
<귀향> 김형태	<아들은 돌이오> 김갑연	<저녁때의 로맨스> 김인태
<정(靜)> 이원진	<응시> 김갑연	<불멸> 조 중 특선
<해면의 무늬> 정규봉	<비(悲)> 강해용	<정물> 류동호
<하동> 장지영	<반성> 서선화	<추색> 류동호
<희노(喜怒哀)> 장지영 특선	<조국> 이정강	<누가누가 잘하나> 문선호
<장길> 김태식	<포이(捕餌)> 한일선 특선	<기다림> 문선호 문교부장관상
<약동> 김태식	<어항의 낙조> 김호용	<생존> 문선호
<모연(暮煙)> 김용기	<갈매기> 허봉기	<육망> 류후선
<작업> 김선규	<수산(水産)의 대망> 이두관	<망향(望鄉)> 윤정규
<작업> 임효도	<지붕공사> 김학수	<비(飛)> 박형득 특선
<침식> 윤의병	<삶> 강인숙	<일몰> 박형득
<상승> 차재선	<삶의 안까님> 권종천	<한가위> 양영훈
<낮선 땅에> 차재선	<봄의 리듬> 권종천	<암벽> 김진협
<고향 소식> 유재정	<The Bridse[Bride]> 김인숙	<승부> 함민부
<설봉> 조현두	<환상> 최종성	<비호> 황우중
<잔설> 조현두 특선	<여생> 김용수	<근면> 조현식 특선
<폐허의 봄> 조현두	<장난> 장원훈	<설일> 이상도
<망화(網花)> 이정강	<거리의 광상곡> 송재형	<하녀(夏女)> 백남식
<춘공만리> 노익배	<야(夜)의 맥진(鷲進)> 신동진	<역사는 흘러다> 현일영 추천작가
<절경> 김영민 특선	<생의 원천> 한정숙	<경쟁> 이진중 심사위원
<귀소(歸巢)> 김영민	<구성> 홍훈자	<보금자리> 정희섭 심사위원
<평화의 기구> 신현국 특선	<생의 종망(終忙)> 김종현	<삼매봉> 이경모 심사위원
<구성> 권태운	<탈출> 이종화	



〈자애〉 김종헌
국무총리상



〈경쟁〉 이건중 심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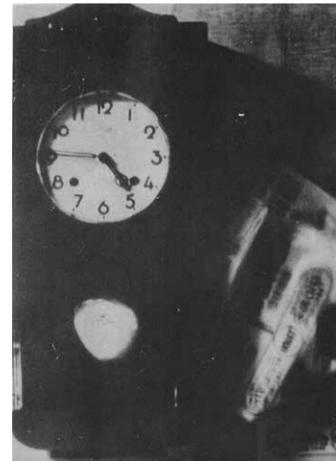
〈보금자리〉 정희섭 심사위원



〈삼매봉〉 이경모 심사위원



〈기다림〉 문선호 문교부장관상



〈역사는 흐른다〉 현일영
추천작가



〈희노〉 장지영 특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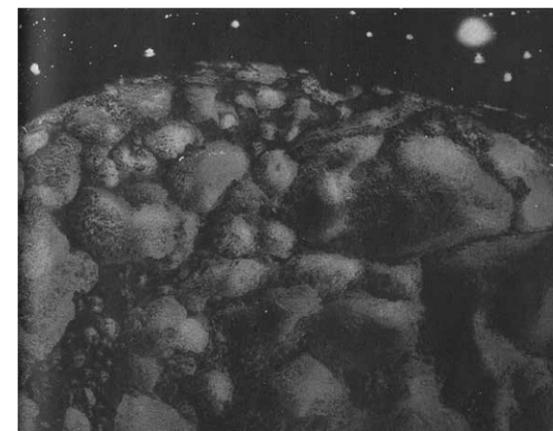
〈불멸〉 조 중 특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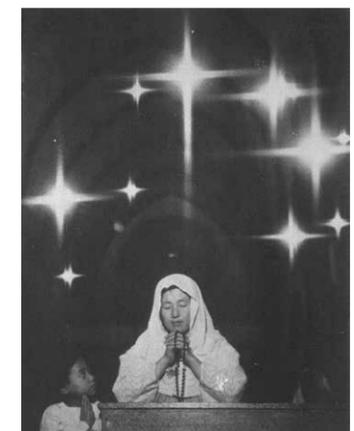
〈포이〉 한일선 특선



〈잔설〉 조현두 특선



〈창세기의 하루〉 김동휘 특선



〈평화의 기구〉 신현국 특선



〈근면〉 조현식 특선



〈절경〉 김영민 특선



〈비〉 박형득 특선

1966년 10월 18일, 『조선일보』 5면
「〈국전〉론」

오늘을 다듬고 내일을 쌓는
네 전문가의 지상 심포지움

한쪽에서의 '잔치기분'과 다른 한쪽에서의 무관심속에서 《제15회 국전》이 열리고 있다. (10월 12일~11월 10일, 경북공미술관). 한국 최대의 미술 행사인 《국전》은 개막과 함께 각 매스미디어의 뉴스면에서 대대적인 보도를 하고 그만큼 일반 시민의 관심과 주목을 끈다. 그러나 《국전》의 목적인 '한국의 미술발전과 향상'을 위한다는 구실을 오늘의 《국전》은 전혀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 견해가 특히 전문가들 사이에서 지배적으로 감돌고 있다. 이를 즈음해서 이일(홍대 전 임강사·미술평론가) 류영국(화가) 임영방(수도여사대 조교수·미술사) 구왕삼(사진평론가) 씨 등 4명의 전문가들의 《국전》에 대한 지상 종합토론을 마련해 보았다. 주제는 ① 현 《국전》의 위치(《15회 국전》을 어느 면에서 대표하는 최고상인 대통령상 수상작 강태성 작 〈해율(海律)〉에 대한 평을 곁해) ② 《국전》의 질적 저하의 원인 ③ 《국전》의 전망과 개혁안 ④ 이번 《국전》에서의 인상적인 작품.

무성격으로 전락
심사위원층의 목은 때 벗길 신평 기대
젊은 의욕 키울 재야전 필요
〈해율〉은 모방이전
가장 인상적인 작품은 의식 강렬한 〈실의(失意)〉

[지면 중 '구왕삼'의 답변만을 발췌]

○…………… 현 《국전》의 위치

특히 사진의 경우 지도성을 띠어야 할 심사위원의 작품 중에 흑백에 색칠을 해 컬러로 내놓은 작품이 있다. 이는 《국전》에 대한 모독이다. 국무총리상(더구나 사진부 최초의)의 〈자애〉는 소재나 표현 방법이나 하나도 새로운 창의성이라곤 없다. 〈해율(海律)〉은 석공의 작품 이상의 가치평가가 안된다. 〈구왕삼〉

○…………… 질저하의 원인은

주최측(행정 당국)의 예술발전에 대한 방향 감각의 어둠과 심사위원들의 안목부족. 〈구왕삼〉

○…………… 전망과 개선책

이대로 나가다간 한국은 조형예술의 후진국이 되고 말 것이다. 예술에 대한 새로운 안목을 가진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한다. 이번 《15회 국전》 사진부의 경우, 심사위원 5명 중에 2명(재야 작가)이 사퇴했고 사협 측 3명만이 심사를 했다. 적어도 사협 대 재야의 비율이 반반씩은 되어야 할 것이다. 〈구왕삼〉

○…………… 인상적인 작품

[답변 없음]

1966년 12월, 『포토그래피』(통권 4호), p.6

정희섭, 「1996년 사단 회고」

66년도의 한국 사단은 한말로 요약해서 비약을 거듭한 상승의 해라고 말할 수 있다. 연초에 한국사진협회가 주최한 《제1회 전국대학생사진콘테스트전》(1월 25일~31일 서울 예총회관)을 위시하여 3월에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제1회 국제사진촬영》(3월1일~7일 서울 신문회관 화랑)이 동아일보사 주최로 개전되었다. 지금까지는 해외출품에 급급했던 한국 사단이 국제무대를 국내로 이끌어온 주최국이 된 셈이며 이로써 우리 사단과 세계 사단과의 교량적인 터전이 마련되었다고 하겠다.

모든 사진인들은 동아일보사에서 개설한 《국제사진촬영전》에 대하여는 진심으로 심심한 사의(謝意)를 표하고 있으며 장기적인 사단 행사로서 그 성과를 찬양하는 바이다.

4월에는 자유중국 사단의 지도자이며 노대가인 郎靜山 선생의 작품초대전(4월 14일~17일 서울 예총화랑)이 한국사진협회 주최로 개전되었는데 이는 한중 양국의 사단 친선교류에 기여한바 컸음을 자인(自認)한다. 5월에는 금년에 5회째 맞은 공보부 주최의 《신인예술상사진전》(5월 28일~6월 5일 예총화랑)이 있었는데 이번에 입선된 작품들의 수준이 작년도 것 보다는 월등히 높은 수작들이 많이 출품되었다는 것은 다행한 일이다. 이 《신인예술상전》을 통하여 해마다 유능한 신인들이 발굴되어 사단에 진출, 꾸준한 활약을 하고 있다는 것은 명실공히 신인 양성의 등용문의 역할을 맡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6월에는 이경모 씨(한국사진협회 이사)의 도일(渡日)사진전(6월 13일~18일 주일공보관화랑)이 일본 동경에서 개최된바 있는데 이는 한국 사진작가로서 일본서 처음으로 가진 개인전이다. 전시된 작품내용은 우리나라 찬란한 예술문화재를 주제로 하여 소개된 것으로 호평을 받았다는 전언으로 미루어 보아 한일 간의 이해와 친선 증진에 좋은 계기가 된 것으로 안다. 다음 동아일보사에서 한국 사단의 이정표를 표방하고 창설한 《동아사진콘테스트》의 4회전(6월 20일~26일 신문회관)이 개전되었는데 이 전시회는 서울전을 마치고 대구, 부산 등지에서 순회전을 가진 국내 유일한 사진전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금년도 입선된 작품의 수준을 살펴 볼 때에 예년에 비해 저조였다는 것은 사단의 공론이어서 그 원인이 나변(奈邊)에 있었는지 그 이유를 구명하고 싶은 아쉬운 심정이다.

한국사진협회의 연례 중요행사 중에서 비중이 큰 《제6회 신록전국촬영대회》가 6월 19일에 비원서 전국 각지에서 3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었고 의욕적인 작품들이 많이 출품되어 큰 수확을 거둔바 있다. 또한 서울전(7월 17일~23일 예총화랑)과 지방 6개 도시에서 순회전을 가져 중앙과 지방과의 문화적인 유대강화와 작품의 질적인 격차[를] 단축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금년 중에 또 다른 전국적인 규모의 촬영대회를 살펴보면 한국사협 목포지부 주최 《제2회 홍도전국촬영대회》와 한국사협 경기도지부 주최 《제10회 임해전국촬영대회》를 들 수 있으니 지난 8월 14일, 15일에 걸쳐서 각각 촬영대회가 거행되었고, 그 입선작 전시회도 인천, 목포에서 각각 개최되어 호평과 성왕을 이루었다.

다음에 금년도 사단의 특기할 일은 무엇 무어니해도 《국전》을 중시하지 않을 수 없다. 사단

의 연중 큰 잔치가 바로 이 《국전》이다. 우리나라 사진예술이 1964년 《제13회 국전》에 비로소 편집된 이래 금년이 3회째의 참가이다. 그동안 출품작의 수준도 해마다 향상되었고, 작품경향도 정돈단계에 있는 만큼 앞으로의 전망은 낙관적인 견해가 사단의 지배적인 중론이 되어있는 것이다.

《국전》심사위원 구성은 작년도와 동일한 인수로 될 것을 예상하고 있었으나 실제 문교부에서 위촉한 인원은 5명으로 감원되어 기대에 어긋난 실망이 컸던 것이다. 그런데 사진부문 심사위원장 선출에 있어서 그 결과를 보고 모(某) 두 심사위원이 하등의 통고도 없이 심사 거부 태도를 취한 까닭에 문교부 제시에 따라 할 수 없이 세 심사위원(이건중, 정희섭, 이경모)이 심사를 담당했던 것이다. 일부 심사위원의 이 같은 탈선적인 행동으로 《국전》에 수치스러운 오점을 남겼으며 조용한 사단의 물의와 잡음을 이르는 등 불미스런 사태를 빚어낸 것은 실로 유감된 일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금년도 사단의 최고의 업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15회 국전》에 〈자애〉라는 작품(김중헌 작)이 국무총리리상을 획득하여 사진부에 개가(凱歌)를 올린 것이다. 이번 입상의 영광을 차지한 것은 사진작품의 우수성이 과시된 것이며 또한 긍지를 높혔고 앞으로의 전망을 준 점 등으로 보아 그 의의는 실로 큰 것이다. 그리고 권간(卷間)에서 잡음을 일으키던 “묵계” 운운의 조어(造語)는 이로서 분명히 해소된 것으로 보는 것이다. 전국 사진인들의 연래의 숙망이었던 『사진연감』이 조명원 씨의 노력으로(1966년판) 지난 6월에 출간되었음도 또한 사단에 특기할 경사로 그 출판을 축하하여 마지 않는다. 그리고 또 한국 사단의 희소식이라고 할 수 있는 대변지 격인 사진잡지가 두 가지나 동시에 창간(8월) 되었다는 사실이다. 하나는 조명원 씨 주간의 『사진예술』이고, 또 하나는 이형록 씨 주간의 『포토그래피』이다. 이 두 잡지가 건전히 평행선상에서 발전해 나갈 수 있게 우리 모든 사진인들은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될 줄로 안다.

그래야만 잡지의 생명이 지속될 것이며 또한 사단의 기관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까닭이다. 개인전과 클럽전이 서울을 비롯하여 전국 각지에서 많이 있었으나 지면 관계로 일일이 소개하지 못함을 섭섭히 생각한다.

《대한사진예술가협회 제14회 재건전》(5월 6일~11일 중앙공보관)과 《제2회 한국창작사진협회전》(7월 26일~8월 1일 중앙공보관)이 각각 개전되었으나 별로 신통한 진전을 보여주지 못했음은 실로 유감지사가 아닐 수 없다.

끝으로 '66년 사단을 회고하는데 있어서 특히 인상에 남은 것은 고 배상하 씨의 유작전이다. 고인은 일찌기 우리 사단에 많은 걸작들을 남긴 작가로서 사우들의 정성으로 고인의 1주기를 맞아 추억하는 뜻에서 마련되었고, 대구, 부산, 서울(6월 20일~26일 신문회관) 대전 등지에서 이동순회전으로 성황을 이루었음을 특기하여 둔다. <필자: 한국사진협회 이사장>

1966년 12월, 『포토그래피』 (통권4호), pp.8-9, p.30, p.34

「《제15회 국전》 심사평」

[부문별 심사평 중 사진 부문만을 발췌]

△사진(이건중 위원장)

《국전》에 사진 부문이 제7부로 가담하여 3회를 맞이하는 《제15회 국전》 사진작품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대체적으로 향상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특히 Color 부문에 있어 종전에 비하여 구상 면도 진전되었으며 인화의 색처리에도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재료의 구득난(求得難)에도 불구하고 출품자들의 질과 양이 현저한 발전을 보았다는 것은 다행한 일이다.

흑백부에 있어 특출한 작품은 보이지 아니하였으나 그런데로 상회하는 수준을 보였으며, 과거에 작품과는 달리 구상하는 태도에 있어서도 계획성있는 신중하고도 사색적인 표현을 하려고 노력한 것이 엿보인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모방적이거나 외형적인 면에서 이탈하려고 애쓰며, 창의적인 작품생산을 위한 몸부림치는 의욕들이 보이는 것이다. 이것은 참으로 사단 장래를 위하여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 반면에 중견층 작가들의 작품은 퇴보 또는 담보상태를 보이고 있고 또한 구태의연한 작품들도 눈에 띈다. Academic한 실험적인 작품이 그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약동적이고 real한 내용의 작품들이 있으나 빈곤함을 면하지 못하였다. 필자의 소견으로는 《국전》 가입이 일친한 관계로 너무 조심하는데 위축되어 실험적인 무수한 소재를 갖는 것이 공통된 심리가 아닌가 본다. 국무총리상인 작품 〈자애〉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백로의 작품이나, 평범한 소재를 능숙한 수법으로 “어미”와 “새끼” 사이의 애정을 그린 심리적인 감정표현에 이 적합한 것을 높히 평가할 수 있다. 문교부장관상의 〈기다림〉은 Color로서 반추상적인 작품으로, 특수 필터를 사용하여 Color balance의 조화된 어린이 세계의 일면을 묘사한 우수작이라고 보는 것이다. 〈창세기의 하루〉는 우리의 관심사인 월세계를 표상케 하는 듯, 아이디어와 표현의 묘(妙)를 기하기에 노력한 작품이라 하겠다. 그의 구상에 있어 재료를 무엇으로 표현하였든 간에 우리의 관상을 통하여 작자에 표현이 적중한 동감을 받는 차원 높은 작품이라 평가된다. Color의 〈절경〉 종교적인 광활하고 원대한 극락천국을 가는 은하수의 수로를 연상케 하며, 수다한 환희의 대소성좌들이 향로의 앞잡이인 듯 광의한 표현의도를 보여주었다. 〈불멸〉은 한국적인 맛을 풍기는 작품이다. 치밀한 계산으로 이루어진 첩성대의 표현은 주관이 강한 이미지로 능숙한 표현솜씨를 보여준 수작이다. 〈포이(捕鯽)〉, 강자가 약자를 포이하는 인간사회에 어느 일면을 묘사한 교훈적인 작품이라 하겠다. 〈잔설〉, 이 작가는 시종일관하여 추상작으로 3회 특선을 차지한 작가로서 물체에 대한 세밀한 관찰력과 빈틈없는 표현으로 잔설에서 본 문형의 image를 명확하게 표상하였다고 보는 것이다.

30Page에 계속

9 Page에서 계속 《국전》평

과거에는 작품을 장식하는 방법이 졸렬하였으나 《국전》이 해를 거듭하는 동안 타 분야의 영향을 받은 탓인지 장식미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함인지 작품장식(액자)에 대단한 신경을 써서 미화케 하였음을 특기할 만한 사실이라고 본다.

이번 《15회 국전》은 사단 행운의 해라하겠다. 《국전》 가입이 일친한 “세 살”배기로서 특상의 하나인 국무총리상을 획득한데 대하여 경하하여 마지않으며 초창기에 일부 사단에서 목계설을 운운하여 10년 내에는 특상은 꿈도 꾸지 말라는 등 구구한 역설도 자동적으로 해소되었다고 보며, 우수한 작품만 출품된다면 대통령상까지도 희망을 가질 수 있음이 선명하게 된 점이다. 바라건대 차기 《국전》 작품은 한국적이고 광의한 내용과 심도와 폭과 중량있고 박력이 넘치는 걸작의 풍성함을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국전》평(사진부) 김홍수⁸⁾

사진부가 《국전》에 창설된 지 불과 3년이 될가말가한[될까 말까 한] 금년도 《국전》에서 동양화부나 공예부를 제쳐놓고 국무총리상을 앗아왔다는 것은 수상작품의 질적수준이야 여하튼 사진 부문으로서는 일대경사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사진부가 이것으로서 득의만면(得意滿面)⁹⁾하여 안이에 빠진다면 그것은 곧 자살행위가 될 것이다.

《국전》 사진부가 아카데미한 것을 지향하는 그 의도는 이해가 가나 몇 작품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두 의욕이 결여되어 있으며, 창조성을 망각하고 있어 국무총리상 수상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저조하다는 감마저[감마저] 주는 것이다.

순간의 생생한 자세를 도려내고 또한 인생의 길목에서 호흡하는 인간들의 희노애락[희로에락]을 좀더 절박하고 예리하게 렌즈속에 담았어야 했을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보도사진전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그 정도의 생동미조차도 아카데미즘의 테두리속에서 여지없이 짓밟히고 있는 것이 아쉽다.

문제의 국무총리상 김종현 작 〈자애〉가 그 좋은 예일 것이다. 새 생명의 삶에 대한 본질적인 욕구나 절박감 같은 결정적인 순간의 감동이 느껴지지 않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정희섭(심사위원) 작 〈보금자리〉에서 느끼는 생명체의 호소는 ‘진자(眞字)’를 말하는 것이다.

34 Page에 계속

사진예술에 있어서의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렌즈를 통한 시각과 광선의 교착일 것이다. 장지영의 〈희노〉(특선)는 그러한 의미에서 모델의 아름다움을 충분히 살리지 못했을 뿐 아니라 구

8) 김홍수(金興洙, 1919~2014). 서양화가이다. 1944년 도쿄미술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강사를 역임했다. 1955년 파리로 건너가 아카데미 드 라 그랑드-쇼미에르(Academie de la Grande-Chaumiere)에서 수학했다. 대한민국의미술협회 심사위원, 대한민국미술대전 심사위원장 및 이중섭미술상 심사위원장 등을 지냈다.

9) 일이 뜻대로 이루어져 기쁜 표정이 얼굴에 가득함.

상에 있어서도 이미테이션에 불과하다. 사진예술가의 생명이란 '렌즈'의 성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작가 자신의 '눈'의 성능에 달려 있는 것이다.

한일선의 <포이>(특선), 기계의 묘미를 살린 작품이기는 하나 좀더 착이(錯利)한 구성미를 캐취했으면 하는 아쉬움을 느낀다.

문선호의 <기다림>(문교부장관상)은 구성에 있어서 약간의 난점이 있으나 부드러운 색조가 인상애 남는佳作(佳作)이었다.

끝으로 <국전>의 사진부가 참된 의미에서 더욱 크고 높게 발전되기를 비는 마음 간절하다.

(필자: <국전> 서양화 심사위원)

1966년 12월, 『사진예술』, [?]

임응식, 「<국전>에 대한 나의 소견」

1. 한 말로 말해서 심사원들의 작품 선정 기준이 엉뚱한 곳에 놓여 있었지나 않았던가 하는 의아를 느끼게 한다.

만약에 그러한 불순성(不純性)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는 분명히 무지가 비져낸[빛어낸] '넌센스'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사진예술의 본질을 무시하고 함부로 회화를 추종하는 수공적인 조작사진들을 상위에 올려놓았다는 사실은 무지의 소치라기보다는 오히려 커다란 과오를 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옳을 것 같다. 그리고 눈에 거슬리는 점을 굳이 든다면 두 심사원의 작품이 물감칠한 사이버 '칼라' 사진이었다는 것과 회화용 액자로서 화려하게 장식한 작품들이 많았는데 이는 분명히 사진 구도에 대한 무식에서 온 소행이라 하겠다.

2. 오늘의 <국전> 사진부는 사단의 외면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소행사(小行事)의 하나로 전락되고 있는 것이다. 본래의 목적인, 즉 사단의 실력이 총 집중되어야 할 광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무당국의 무성실한 처사로 인하여 출발 당초부터 비정상적인 방향으로 출발을 질 친 결과 오늘에 이르러서는 순전히 초심자들의 기술경쟁 장소로 화(化)해 버린 것이다. 이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서 적당 수의 추천작가를 선정하고 그중에서도 사단 일반(一般)이 수공할 수 있는 인격자로서 심사원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창협 대표위원)

1967년 3-4월, 『포토그래피』(통권6호) p.68

임응식, 「<국전> 심사 사퇴자의 변」



본인은 제 13, 14, 15회의 3차에 공(巨)¹⁰하여 <국전> 사진부 심사위원을 위촉받은 바 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말미암아 13회 및 15회 때는 심사원을 사퇴하였고, 14회 때에는 심사애 임한 바 있었는데 이러한 사소한 일을 문제 삼아 중상(中傷)에 이용하는 자가 있어 부득불(不得不) 귀중한 지면을 빌려서까지 그 경위를 밝히지 않으면 않[안] 되게끔 된 것을 슬프게 생각하는 바이다.

본인은 1953년으로부터 <국전>에 사진부를 신설할 것을 제창하여 10여 년간을 두고 사진인식의 계몽에 힘써 왔던 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64년에 비로소 <국전>에 사진부가 생겼을 때에는 그 누구보다 사단 앞날을 위해서 반가워했던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그 반가움을 표시하는 뜻에서 출품하여 평 출품(平出品)을 했으며 그 후 심사원까지 위촉받았을 때는 더없는 영광으로 감사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 어찌 된 일일까. 심사원총회 전일에 이르러 믿을 수 있는 소식통으로부터 해괴망측한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다. 그 이야기인즉 사진관계의 모모 인사가 <국전>에 사진부를 가입시키는 데 있어서 모종의 목계를 했다는 것이다. 그 목계 조건은 "사진부에 있어서의 최고상은 문교부장관상까지로 하고 그 이상의 상에는 해당시키지 않는다"는 것이었다[것이였다]. 이에 분개한 나머지 그 굴욕적인 차별 대우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면서 심사위원 사퇴를 지

10) 일정한 시간에 걸침.

상을 통하여 성명했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관계하고 있는 사진단체의 이름으로 관계 당국에 이의, 시정 있기를 정식으로 서면 진정했던 일이 있다.

그다음 해인 65년 14회 때는 전기의 진정서에 대하여 문교부로부터 시정의 뜻을 표한 회한도 왔고 해서 심사원총회에 참석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가 토의사항에 상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 본인이 긴급동의를 하여 이의 시정있기를 강요한바 있어 월가월부 끝에 다행히도 그 굴욕적인 목계조건이 철회되어 유쾌한 심정으로 심사에 종사해던[했다] 것이다.

또 그다음 해인 66년 15회 때는 심사원총회 전일에 이르러 또 이상한 소문이 떠돌았다. 그 소문인즉 "금년 사진부 최고 수상자는 모 인사로 정했으며 특선은 누구누구에게 주게 되었다는 것이었다[것이였다]. 그러나 그러한 일이야 있을소냐 하고 총회에 참석하여 무사히 투표행사가 끝나치고 산회(散會)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 일 또한 어찌 된 일일까. 그날 분과위원 5명 중 이 모 씨가 그의 스승 격인 이 모 씨를 감언이설로 농간하여 선배의 인격을 스스로 짓밟는 결과를 초래케 한 사실이 있었다는 것이다.

본인으로서 개인적으로 아무런 관계없는 일이지는 하나 그래도 사단의 질서를 올바로 잡아 보겠다고 평소에 힘써 왔던 만큼 이 일을 더 없는 추악사로 보았던 것이다. 아무리 감투욕이 강하기로 소니[서니] 선배를 감언으로 기만해서야 될 말인가 말이다. 소위 일국의 미술의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국전》의 심사원이라는 이름 하에서 말이다. 그러한 기만에 찬 인격의 소유자와 자리를 같이하여 신성한 타인의 예술작품에 대한 당락의 칼질을 어떻게 할 수 있었겠는가 말이다.

본인은,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일이지에 그 당사자들의 인격을 위해서 표면적인 아무런 성명도 하지 않고 심사에 불참했을 뿐이다. 그런데 이 또한 웬일일까.

적반하장격으로 이 모 씨는 본인을 모 지상을 통하여 힐난하고 있는 데에 이르러서는 참으로 어이가 없는 노릇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앞에서 말한 최고상 및 특선 배급설 또한 결과적으로 보아서 전혀 터무니없는 낭설만은 아니었다는 것도 수긍할 수 있었다.

또 그리고 15회 때 사진부에서 국무총리상을 받게 된 것을 정 모 씨나 이 모 씨는 각기 지상에서 자기들의 노력의 결과라고 크게 자랑하고 있으나 그 바탕을 따지고 본다면 썩스러운 이야기이지는 하나 본인이 13회 때에 심사원 자리까지 사퇴하면서 항의를 안 했던들 또 14회 때 총회에서 서투르나마 열변을 토하여 굴욕적인 차별조건을 철회시키지 안 했던들 과연 국무총리상이라는 상을 꿈에서인들 사진부에서 바랄 수 있었겠는가 말이다. 끝으로 독자 여러분들께 하찮은 이야기로서 지면을 더럽힌 것을 사과드리는 바다.

임응식

1967년 6월 24일, 『서울신문』 6면 문교부, 「《대한민국미술전람회》요강」



1967년도 《제16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국전) 실시 요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주최 문교부
2. 회기 1967년 10월 1일~10월 31일 (31일간)
3. 회장 경북공미술관
4. 작품종목
 - 제1부 동양화 · 제2부 서양화
 - 제3부 조각 · 제4부 공예
 - 제5부 서예 · 제6부 건축
 - 제7부 사진 ·
5. 작품 제한
 - 가, 작품 내용 순수한 민족정서에서 창작된 예술작품에 한하되 다음과 같은 각 호에 해당되는 작품은 제외한다
 - ① 국내에서 이미 공개 발표된 작품
 - ② 우리나라 공서양속을 저해하는 작품
 - 나, 작품 규격
 - ① 동양화 150호 이내(가로 181.8cm 세로 227.3cm)
 - ② 서양화 100호 이내(가로 130.3cm 세로 162.1cm)
 - ③ 조각 직경 90cm 높이 180cm 이내
 - ④ 공예 가로 180cm 세로 180cm
 - ⑤ 서예
 - (가)액자 가로 90cm 세로 240cm 이내
 - (나)병풍(4폭) 가로 180cm 세로 180cm 이내
 - (다)현판 가로 180cm 세로 60cm 이내

⑥ 건축 가로 180cm 세로 180cm 이내

⑦ 사진 가로 60cm 세로 90cm

6. 출품 절차

가. 출품원서 배부기간...8월 1일-8월 25일

나. 출품원서 배부처...문교부예술과, 각 시·도 교육위원회 서무과 또는 문정과

다. 출품원서 및 작품접수

동양화, 서양화 9월 1일-9월 3일

사진, 서예 9월 4일-9월 5일

조각, 건축 9월 6일

공예 9월 7일

라. 출품료...출품작품, 1점 당 200원(출품시 납부)

7. 작품심사

가. 심사기관...국전심사위원회

나. 심사기일...9월 12일-21일

다. 심사결과 발표...9월 22일

8. 전시작품

가. 입선된 작품

나. 심사위원 작품 (각 1점)

다. 추천작가 작품 (각 1점)

9. 시상

가. 대통령상(최우수상) 1점 상장 및 부상 100,000원

나. 국회의장상 1점 " 80,000원

다. 국무총리상 1점 " 50,000원

라. 문교부장관상 7점 " 매 점당 20,000원

마. 입선 및 특선 상장 및 메달

※ 최우수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구라과 여행의 특전을 부여함

10. 작품반출

가. 전시작품...전시 종료 후 10일 이내

나. 낙선작품...심사결과 발표 후 10일 이내

단 전기 반출 기간 내에 작품을 찾아가지 않을 시는 그 작품에 대하여 여하한 책임도 지지 아니함

11. 기타

상세한 것은 문교부 문예체육국 예술과나, 원서 배부처에 문의할 것

1967년 6월 24일

문교부 장관 문흥주

1967년 7-8월, 『포토그래피』 (통권8호), p.12

방근택(미술평론가), 「《국전》 사진부의 문제점-사진예술의 부재 현상」

《국전》에 사진부가 신설된 지 4년째인 오는 《16회 국전》은 사진부의 추천작가가 수명(數名) 확정되는 해이다.

이해를 맞이하여 사단에 일고 있는 말성[말쟁]은 다 이유가 있어 보인다.

재야 사단(《국전》이나 현재의 한국사협 아닌 측)에서는 수의 힘으로 사협을 차지한 1부 작가들이 공식적인 줄을 타고 횡포를 부린다는 것이요. 한편 사협 측에서는 매사는 어떤 편파 없이 공정히 전 사단을 대표해서 진행하고 있다 한다.

그러나 문제가 《국전》에 관한 한, 현재의 사협 측이 쥐고 있는 '헤게모니'로 인해서도 사협 측의 독단장이 될 것은 분명하다.

그래서 사협의 현 이사장인 정희섭 씨 외 고문인 이진중 씨 및 이사(얼마 전에 이사직을 사퇴했다)인 이경모 씨 등이 심사위원 연 3회 연속으로 자동적으로 추천작가에 들어갈 것이 예측된다.

그리고 응모작가 중에서 연 3회의 특선을 한 조현두(사협 측 전 이사) 씨와 문선호 이사가 불원간 추천작가로 될 것이 예상되는 것이고 보니 자연히 《국전》 사진부의 첫 추천작가 5명의 윤곽이 드러나 보이는 것이다.

이와 같은 추세를 앞에 놓고, 재야 측(주로 한국창작사진협회나 대한사진예술[가]협회 및 기타 무소속 작가들)에서는 상당한 반대를 표명하고 있다.

이유인즉, 사단의 전체 의사가 반영되어 있지도 아니한 현 사협이 다수의 힘만 믿고 일방적 독주를 한다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다. 형식상 재야에서 임응식 씨나 이해선 씨를 심사위원에 끼이도록 했었지만 양 씨의 거부로 (일회는 참가했었지만) 이젠 추천작가의 예비 선에서 탈락되고 말았다.

이와같이 한국의 사단이 어떤 종합전을 앞에 두고 으레히[의레히] 찬반의 말성이 나게 되는 근본 원인은,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사진예술이라는 것이 극히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창작되고 있는 데서 오는 작가부족에 있는 것이 아닌가 보아지며, 둘째로는 작가수준 이전의 상태에 있는 단순한 카메라맨들이 민주방식인 수의 결의에 의해서 공식적인 횡포를 부리고 있는 데에서 오는 "사진예술의 부재" 현상에 있다 할 것이다.

전 사진작가의 예술적인 수준 향상이 요망되는 동시에 현재의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예술작가들이 중심이 되는 예술적 진형(銓衡) 작업이 범사단적으로 요망되어진다.

1967년 8월 16일, 국가기록원-제16회국전철, pp.326-332

문화공보부 예술국 예술1과, 《국전》 사진부 정상화에 관한 건의 건

기안용지

문예국 문서번호	문예 1060-202	국문부령 문 21	문 21	문 21
제기기관	기안자	제기	제기	제기
제기일자	제기일자	제기일자	제기일자	제기일자
제기번호	제기번호	제기번호	제기번호	제기번호
제기명	제기명	제기명	제기명	제기명
제기내	제기내	제기내	제기내	제기내
제기처	제기처	제기처	제기처	제기처
제기일	제기일	제기일	제기일	제기일
제기인	제기인	제기인	제기인	제기인

1. 국전 사진부 심사위원 선정에 관한 귀 협회의 의견을 장차 본 업무 수행에 참고할 방침이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끝.

참고: 건의 내용은 국전 사진부에는 아직 추천작가가 없기에 심사위원을 사계의 중진들로 구성해달라는 것임.

(1-1) 3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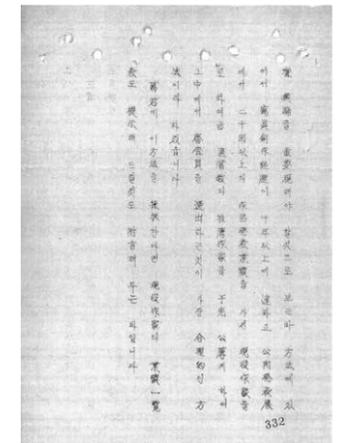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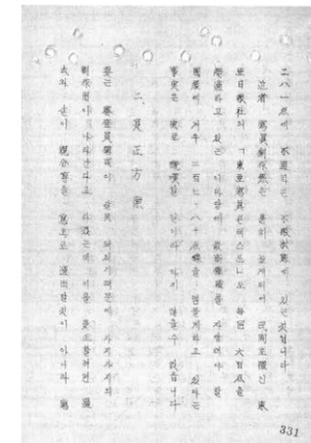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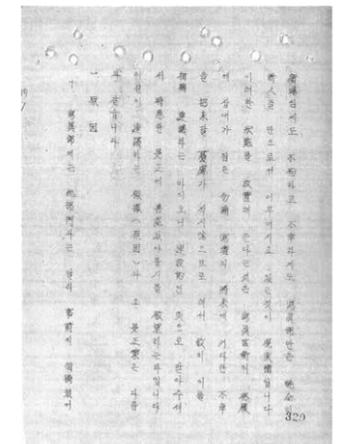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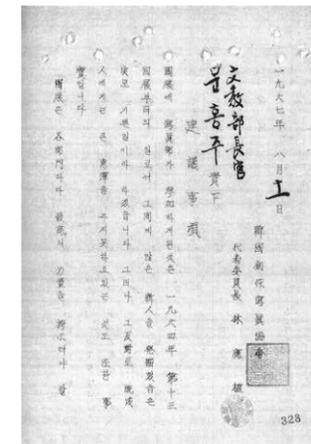
기안일 67.8.16

문서번호 문예 1060-202

제목 《국전》 사진부 정상화에 관한 건의 건

1. 《국전》 사진부 심사위원 선정에 관한 귀 협회의 의견을 장차 본 업무 수행에 참고할 방침이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끝.

참고: 건의 내용은 《국전》 사진부에는 아직 추천작가가 없기에 심사위원을 사계의 중진들로 구성해달라는 것임.



접수일자: 1967. 8. 14

《국전》 사진부 정상화에 관한 건의서
한국창작사진협회

1967년 8월 11일
한국창작사진협회
대표위원장 임응식
문교부 장관
문흥주 귀하

건의사항

《국전》에 사진부가 참가하게 된 것은 1964년 《제13회 국전》부터의 일로서 그간에 많은 신인들

발굴했음은 실로 기쁜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기성인에게는 큰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국전》은 각 부문마다 최고의 역량을 과시해야 할 광장임에도 불구하고 불행하게도 사진부만은 순전히 신인들만으로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태를 방치해 둔다는 것은 사진예술의 발전에 장애가 됨은 물론 사단의 장래에 커다란 불행을 초래할 우려가 적지 않으므로 해서 감히 이를 지적 건의하는 바이오니 건설적인 뜻으로 받아주셔서 시급한 시정에 선처 있어움을 경망하는 바입니다. 이같이 건의하는 근거(원인)와 그 시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인

- ㄱ. 사진부에는 타 부문과는 달리 사전에 지적했어야 할 추천작가를 두지 않았던 점
- ㄴ. 중견작가를 중심으로 심사원을 구성해 놓고 동료인 중견 신인은 물론 중진마저 일률적으로 그들에게 심사받게끔 한 모순된 점
- ㄷ. 과거 3차에 긍(巨)한 작품심사가 공정성을 결핍하였기 때문에 정실적이라는 불신을 받고 있는 점

위의 몇몇 이유로 인하여 중진은 물론이거니와 《14회 국전》부터는 중견작가마저 일절 이로부터 외면하게 되어 13회전 때 있었던 449점의 출품 수는 급격히 감소되어 14회전에 278점 15회전에 281점에 불과하는 부진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근자 사진창작열은 심히 높게 되어 민간주최인 동아일보사의 《동아사진콘테스트》도 매회 600점을 초과하고 있는 이 마당에 최고 권위를 자랑해야 할 《국전》에 겨우 2백7,8십 점 선을 맴 돌게 하고 있다는 사실은 실로 개탄할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 시정방안

요는 심사원 구성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가지가지의 부작용이 나타난다고 하겠는데 이를 시정하려면 과거와 같이 친분 등을 위주로 선출할 것이 아니라 사단 여론을 중요시해야 할 것으로 보는 바 방법에 있어서 사진창작 경력이 10년 이상에 달하고 공개 발표전에서 20회 이상의 작품 발표 업적을 가진 현역 작가들로 하여금 상당수의 추천작가를 우선 공천케 하여 그중에서 심사원을 선출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방법을 채택한다면 현역 작가의 업적 일람표도 제시해 드릴 것도 부언해 두는 바입니다.

1967년 8월 19일, 『경향신문』 5면

「문화계의 두 움직임」

추천작가 공천을

《국전》심사위원 선출에 창협 건의

사단

다시 《국전》 시즌을 맞으면서 일각에서 그 운영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움직임이 또 일었다. 4년 전의 제13회전부터 새로 참가하고 있는 사진부를 둘러싸고 일부 사진작가들이 비판적인 견해를 관계 당국에 호소하고 나선 것이다.

한국창작사진협회(대표위원장=임응식)는 예총 사협 세력과 대치하고 있는 사진작가들의 단체인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 《국전》 사진부는 예총 사협(이사장=정희섭)계에서 늘 심사위원 선출을 포함하는 실권을 행사함으로써 그때마다 심사원 사퇴 같은 석연찮은 잡음을 내왔었다.

그리고 창작협회 측의 출품 보이코트는 《국전》 사진부의 내용에 적잖은 영향을 주었다.

최근 창작사협은 과거의 여러 가지 모순점을 시정하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건의문을 문교부 장관과 예술원 회장 앞으로 전달했다.

“요는 심사원 구성이 잘못돼 있기 때문에 가지가지의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하겠는데 이를 시정하려면 과거와 같이 친분 등을 위주로 선출할 것이 아니라 사단 여론을 중요시해야 할 것으로 보는 바 방법에 있어서 사진 창작 경력이 10년 이상에 달하고 공개 발표전에서 20회 이상의 작품 발표 업적을 가진 현역 작가들로 하여금 적당수의 추천작가를 우선 공모케 하여 그 중에서 심사원을 선출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건의문은 또한 과거의 모순점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다.

①타 부문처럼 추천작가를 두지 않은 점 ②중견 작가로 심사원을 구성해 놓고 동료인 중견 신인은 물론 중진마저 일률적으로 그들에게 심사받게끔 한 점 ③과거의 작품심사가 공정성을 결핍하였기 때문에 정실적이라는 불신을 받고 있는 점.

그리고 그 현실적인 사태로 《국전》 13회전 때의 첫 사진부 출품 수 4백44점이 작년 15회 때엔 2백81점으로 줄어들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1967년 9월, 『포토그래피』 (통권9호), p.11

정희섭, 『제16회 국전』 사진 부문 심사위원 구성의 모순성을 지적」

금년도 《국전》 사진 부문의 심사위원 구성을 볼 때에 우선 예술원 미술분과위원회에서 사진부 심사위원 3명을 선출한 데 대하여 불만과 이견을 제시 아니 할 수 없다.

사단 실정에 밝지 못한 미술인들이 사단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실력자들을 대상으로 가장 적격자를 선출했다고 보는지 의아스럽기 짝이 없다.

과거 3회에 걸친 심사위원 선출이 이를 입증해주고 있지 않는다.

《국전》 규정상에 사진 부문은[은] 추천작가가 배출되지 않은 한 임시방편으로 부득이한 조치로서 예술원에서 수임 선출한다는 것 자체에 모순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사단에서는 과거 수년 동안 심사원 구성률[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물의와 본의 아닌 분규의 도화선이 되어왔음은 자타가 공인하는 바이다. 그런데 금년에는 또 무슨 이유에서인지 심사원 수를 예년 수보다 인원을 감축 식혀[시켜] 3명으로 제한하였으니 이 무슨 작희(作戱)인지 당무자에게 그(其) 진상 해명률[을] 요구한다. 예술원에서 왜 또 하나의 새로운 물의를 사단에 부식(扶植)시키고 있는지 그 생리가 가증 타 하지 않을 수 없다.

해마다 《국전》 때가 되면은[은] 심사위원 구성 때문에 사단의 이목이 《국전》에 총집중되고 있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사단 질서가 《국전》 심사위원 구성 여하로 좌우될 수 있는 만큼 전국 사진인들의 총의는 명망 있는 권위자들의 의하여 심사를 받고자 하는 기대가 금년에도 수포로 돌아갔다는 감을 주는 결과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개탄하여 마지않는다.

물론 독자적인 심사원 구성 권한이 사단에 부여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러나는[일어나는] 모순이라기에는 너무 가혹한 의성(譏性)의 강요가 아닌가 싶다.

해마다 적지 않은 잡음을 사단에 야기케 한 것의 책임이 예술원에서 편견적인 심사원 안배식 선출에 있었다고 지적해 둔다.

과거 3년간에 걸친 예술원 미술분과 위원회에서 선출한 심사위원 구성 내용을 살펴보면 제 13회 때는 5명(2명 불참) 제14회 때는 7명(전원 참여) 작년도 제15회 때는 5명(2명 불참)이 선출되었었다.

1966년 《제15회 국전》에 출품된 전체 부문의 작품 통계는 7개 부문에 1935점으로서 심사위원 전체수는 45명이었고 출품수 비율에 의한 심사 작품 수는 1인당 43점에 달하였다.

이러한 출품률에 의한 사진 부문의 심사원 수를 산출해낸 금년도 사진부 출품 부는[수는] 총 323점인데 심사원을 3명으로 제한하므로써[제한함으로써] 1인당 심사 담당 수는 107점에 달하는 결과가 된다.

이는 타 부분의 비율에 비추어 심사위원 수가 당연히 7명 이상 되어야 할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의 사실일진데 왜 하필이면 심사위원을 3명으로 제한했는가 말이다. 심사원들의 위신과 권위를 과소평가 받는 것밖에 무엇이 있는가.

어데까지[어디까지] 심사위원들의 명분을 고려해준 것이라면 이러한 결과는 초래하지 않았을[않았을] 것이다. 예술작품을 심사한다는 것은 수학풀이가 아니고 천편일률적인 공식 해답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아니고] 또 화학적인 실험처럼 그 반응을 관측하는 것과는 다르다. 잡음이 많은 예술 분야에서는 될 수 있는 한 심사원 수를 증원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진 부문의 심사위원을 3명으로 제한 선출한 책임은 예술원에서 당연히 저야[저야] 되고 또 이에 대한 자체 해명이 있어야 될 줄 안다. 사단 관례에 의하면 국내에서 개최되는 소소한 콘테스트나 촬영대회 작품들도 심사위원이 작품심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7명 내지 9명이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물며 대한민국의 최고의 권위 있는 《국전》의 사진부의 심사위원을 3명밖에 배정하지 않았다는[않았다는] 것은 전국 사진작가들을 무시하는 당국(예술원, 문교부) 처사에 범 사단적인 분노를 초래케 하고 있는 현하(現下) 실정을 직시해주시기를 바라며 《국전》에서의 차별대우의 분위기 조성의 이단자를 색출 규탄하고자 하는 작가들의 심리작용을 무엇으로 막을 건가.

정희섭<필자: 한국사진협회 이사장>

1967년 9월 24일, 『조선일보』 5면

「질·양적으로 향상 보여, 《국전》 심사분과위원장들의 종합보고」

을 《국전》의 출품작들은 양적으로 향상된 것처럼 질적으로도 부문에 따라 향상되었다고 심사위원들은 말했다. 예년에 비겨 학생보다 일반인의 출품이 많고, 질이 대체로 고른 것으로 봐 무분별한 출품이 준 점도 특색이고 건축 부문에서 생활주변의 소재가 많은 것, 사진 부문에서 컬러 사진이 많은 것도 특색이라고 도(都) 심사위 부위원장이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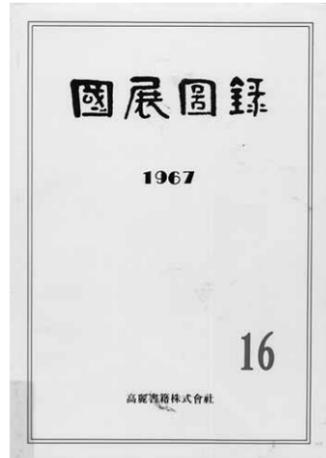
사진

이해선, 살롱이즘 추구

작년에 비해 질과 양이 높아졌다. 특히 컬러 사진에서 좋은 작품이 많이 나왔다. 금년 작품에서 두드러진 경향은 새로운 살롱이즘의 추구다.

특선작 〈반영〉은, 이와 비슷한 모노크롬의 작품은 있었으나, 컬러로 잡았을 때의 헬멧의 불림[불림]이나 색채감이 〈반영〉이라는 화제에 부합되는 재미있는 형상의 작품이다.

1967년 9월 30일-10월 31일, 경북공미술관
문교부 주최, 《제16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



심사위원

위원장 이종우

부위원장 도상봉

사진부 분과위원장 이해선

위원 이진중 이경모

수상자

대통령상 [서양화 부문]

국회의장상 [건축 부문]

국무총리상 [조각 부문]

문교부장관상 [각 부문별 1점 수상] 사진 <반영> 조현식

사진부

<즉흥> 이해선 심사위원

<반영> 조현식 문교부장관상

<독수리> 이진중 심사위원

<아침> 이경모 심사위원

<미지의세계>정희섭 전심사위원

<장죽(長竹)>현일영 전심사위원

<D시(市)의 인상> 김조현

전 심사위원

<출어> 김혜신 입선

<물싸움> 김인희 입선

<강변> 강인숙 입선

<원형의 시> 김인숙 입선

<마이불> 박규서 입선

<전시장에서> 홍태포 입선

<천고의 꿈> 백용석 입선

<노인경> 이원홍 입선

<대피> 정완섭 입선

<문> 조현두 입선

<여치의 대화> 이 환 입선

<점핑> 송치선 입선

<지하도 점경> 민병태 입선

<떠이한의 지랑> 이약우 입선

<구성> 서재남 입선

<생> 류후선 입선

<오색의 삼일로>박두열 특선

<신록> 조 중 특선

<발레리나> 문선호 특선

<육구> 김종현 특선

<M 주교의 기도>김영희 특선

<목련> 조현두 특선

<양떼> 강봉규 특선

<에너지원> 유정재 특선

<동유(同遊)> 이기주 특선

<동심> 강대환 입선

<건설공사> 김 일 입선

<초설> 김학수 입선

<환호> 왕상혁 입선

<강변> 이해중 입선

<농악> 허봉기 입선

<비취파라솔> 박형득 입선

<불꽃> 허 철 입선

<하역> 최민식 입선

<염전풍경> 손석현 입선

<목가> 노익배 입선

<노경> 육명심 입선

<초설> 박성강 입선

<조춘의 어린이들>최명숙입선

<백제교 공사장> 박해진 입선

<봄의 서곡> 이상규 입선

<빨래> 이상규 입선

<주물공> 이원진 입선

<뒷개어린이> 정규봉 입선

<휴식> 김상욱 입선

<흑말의 지미> 손영철 입선

<생의 원(源)> 김동휘 입선

<아마추어 diver> 김현실 입선

<도공의 손> 김정순 입선

<가을> 박두열 입선

<결승> 김종현 입선

<성하(盛夏)의 연인>김동훈입선

<세정(洗滌)> 김학용 입선

<동해의 아침> 김종현 입선

<기원> 김영배 입선

<애교> 홍훈자 입선

<회전그네> 김태윤 입선

<소녀와 말바리> 김창권 입선

<게거품> 변일용 입선

<해빙> 정인숙 입선

<작은 생명> 문선호 입선

<삶의 여운> 박혜경 입선

<물장난> 한명자 입선

<바다의 괴족(怪族)>금장난입선

<부름> 박형득 입선

<하동> 조성선 입선

<건설> 류후선 입선

<청죽> 류영열 입선

<자리다툼> 김영창 입선

<원점> 류후선 입선

<타조의 환상> 유만영 입선

<탈곡> 김광일 입선

<념(念)> 김계환 입선

<한적> 장원훈 입선

<은파> 신복진 입선

<궁도> 임용재 입선

<누우드> 류동호 입선

<파도> 김홍인 입선

<솔전> 박상운 입선

<집약의 미소> 이진권 입선

<모정> 박수동 입선

<생(生)과애(愛)>조현식 입선

<헌하(軒下)의 고룡(古龍)>

김원동 입선

<환상> 김인태 입선

<영점지대> 이종원 입선

<하나씩 줄게> 김명옥 입선



〈죽홍〉 이해선 심사위원



〈반영〉 조현식 문교부장관상 [컬러]



〈독수리〉 이건중 심사위원



〈아침〉 이경모 심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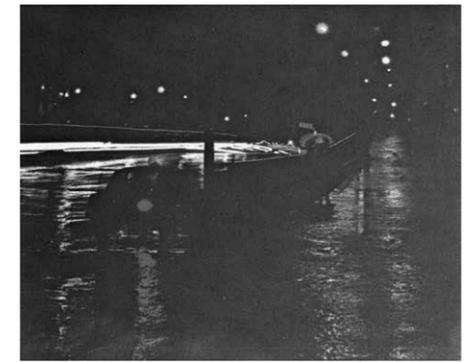
〈미지의 세계〉 정희섭 전 심사위원



〈장죽〉 현일영 전 심사위원



〈D시의 인상〉 김조현 전 심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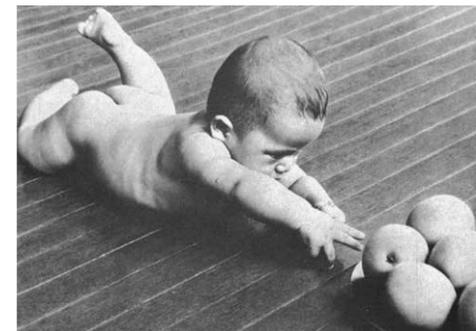
〈오색의 삼일로〉 박두열 특선 [컬러]



〈신록〉 조 중 특선



〈발레리나〉 문선호 특선 [컬러]



〈욕구〉 김중현 특선



〈M주교의 기도〉 김영희 특선



〈목련〉 조현두 특선



〈양떼〉 강봉규 특선



〈에너지원〉 유정재 특선



〈동유〉 이기주 특선

1967년 11월, 『카메라예술』, pp.51-52
「특집 좌담·한국 사진의 오늘과 내일」

숙제로 남겨진 기성들의 반성
《국전》의 권위 세워야 한다
신인들은 문제의식이 희박해

말하는 사람[사람] 김선홍(金善弘) <청록회 대표>, 김조현(金祖顯) <작가>, 서순삼(徐淳三) <C·F·C 대표>, 이해문(李海文) <신신회 대표>, 정희섭(丁熙燮) <사협 이사장>, 박필호(朴弼浩) <작가>
사회 서상덕(徐尙德) <평론가>
기록 임범택(林範澤) <본지 편집장>
곳 예총회의실
때 10월 11일 하오

[《국전》 관련 부분 발췌]

《국전》은 해마다 저조

중견급 작가의 참여가 시급

이해문=저는 《국전》에 참여하고 있지 않고 있는데요. 그런데 질적 수준은 너무나 낮다고 봅니다. 작년에는 평을 써서 잡지사에 주었더니 너무 신랄[신랄]하다고 실리지 않더군요. 금년은 작년보다 더 질이 떨어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김선홍=감상하는 사람에 따라서 평가가 다르겠지만 금년 《국전》의 사진은 《국전》에 사진이 가입한 후로 가장 떨어지지 않나 봅니다. 작가 이름은 안 밝힙니다마는 어떤 특선작품은 상식 밖의 것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입선 작품 중에 힘이 있고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이 더러 있습니다.

어쨌든 심사를 어떻게 했는지, 과연 공평하게, 또 엄정하게 심사했는지, 얼마만큼 깊은 통찰력과 높은 심미안으로 심사를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국전》이라면 적어도 중견 이상의 작가들이 많이 출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견작가의 작품이란 없고 맨 신인들의 작품인데다가 외국 사람들이 이것을 본다면 얼마만큼 감명을 받고, 얼마만큼 한국의 사진을 인식할 것이지 한심하더군요.

《국전》이 주로 대학생이나 신인들의 등용문으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낙선작품을 한자리에 전시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이해문=한마디로 말해서 흉작이군요.

김선홍=그런데 또 심사위원은 겨우 세 사람뿐 아닙니까. 10명이나 15명은 못되더라도 7명 정도는 심사위원이 있어야 하고 심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정희섭=상금이 50만원인 《신인예술상》은 심사위원이 다섯입니다.

이해문=사협에서 만든 심사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작품을 O·X 형식으로 점수를 매기는 겁니까?

정희섭=그렇지요. 그러나 이번 《국전》 심사는 합의제로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해문=그렇다면 어떤 개인감정이나 정실에 좌우되기 쉬운 심사를 하기가 쉽겠군요. 작품 심

사는 OX식으로 투표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을 텐데…….

말썽은 심사위원 수에

추천자가 없이 출발한게 탈

정희섭=전에도 세 사람이 심사한 적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분들을 선출한 것부터가 말이 많아서 옳다 그르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술작품이란 무슨 공식을 풀 듯이 다룰 수는 없고 또 그렇게 해서 당락을 결정 지을[지을] 수 없으니 작품의 우열을 결정하기란 힘듭니다.

《국전》에는, 작년에 1천9백여 점이 출품되어 심사위원 한사람이 평균 43점을 심사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2천점이 넘는 출품이 있었다고 하니 세 사람 심사위원으로서 여간 벅찬 일이 아니지요. 한 사람당 107점 정도나 심사를 했다고 합디다. 출품 점수로는 서양화 다음 가는 점수인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술원 미술분과위원들이 사진부 심사위원 문제를 등한시 생각하고 소홀히 다룬 때문이라고 봅니다.

《국전》(사진)이 늘 말썽이 되고 그 말썽은 늘 심사위원 때문에 생기지 않습니까. 내 생각으로는 중견작가들의 보다 많은 참여를 위해서는 심사위원을 적어도 7명으로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말썽이 가라앉을 겁니다.

《국전》 사진 부문은 처음 13회 때부터 말썽이 있었고, 14회 때에는 심사위원이 7명, 15회 때에는 5명으로 줄었다가 이번에는 3명으로 또 줄었으니 이래가지고는 일이 안됩니다. 다음 17회 《국전》에는 적어도 7명의 심사위원으로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박필호=《국전》의 말썽이란 심사위원 때문에 빚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선 무엇보다도 모든 사진가들이 단결하는 것이 제일입니다.

예술원에서 심사위원을 그렇게 선정한 잘못도 있지만 그러면 사진작가들이 얼마나 《국전》에 참여했는가? 나는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줄 압니다. 지금 거의 대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참여해야할 사진가들은 참여하지도 않고 예술원이나 문교부만을 비난한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김조현=심사위원의 수를 말하기보다는 얼마만큼의 작가들이 《국전》에 참여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까지의 경향을 보면 ‘《국전》이라는 현상모집’에 현상금을 타먹기 위해서 응모하는 것 같은 인상을 받습니다. 문제는 중견 이상의 작가들이 마음놓고 응모할 수 있도록 심사위원이 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국전》을 거쳐 나온 추천작가들이 이끌어 나가야하겠고, 초대작가급은 따로 권위 있는 전시회를 가지든가, 그렇지 않으면 자주 외국의 무대로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김선홍=그러니까 중견급 작가들이 많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의 대표적인 작가들이 많이 심사위원으로 위촉 구성되어야 합니다.

박필호=《국전》 사진부는 처음에 추천작가제도를 만들고 난 다음에 출발했어야 할 것인데 그렇지 않고 시작이 되었으니 말썽이 나게 돼 있습니다. 또 사진이 미술 분야의 한 예술기관으로 있는 한 지금과 같은 말썽은 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좋은 나쁜 간에 우선 《국전》에 참여한 다음에 가부를 논의하거나 발언을 해야 된다고 봐요. 참여는 하지않고 무책임하게 시시비비하는 것은 좋지 않아요.

1968년 6월 22일, 『경향신문』 1면

「문화공보부 설치, 정조법개정안 각의 의결 국회에」

국무회의는 22일 상오 문교부의 문화예술관계 기구를 공보부에 흡수시켜 공보부를 문화공보부로 개칭, 기능을 확대시킬 것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곧 국회에 제출될 개정안은 새로 발족하는 문화공보부의 기구를 문화국, 예술국, 공보국, 방송관리국, 문화재관리국 등 5개 국으로 정하고 종래 문교부의 문예체육국을 사회교육국으로 변경, 문공부 소관의 관보 업무는 총무처에 넘기도록 돼 있는데 학술원과 유네스코에 관한 업무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문교부가 계속 맡기로 돼 있다.

국정교과서, 검인정교과서를 제외한 그밖에 출판물의 저작권 관장업무와 박물관 예술원 관리업무도 아울러 문공부가 맡게 된다.

1968년 6월 25일, 『서울신문』 6면

문교부, 「공고」



1968년도 《제17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를 다음과 같이 실시할 것을 공고한다

- 1. 주최 문교부
- 2. 회기 1968년 10월 5일~11월 5일 (1개월간)
- 3. 회장 경북공미술관
- 4. 작품종목
 - 가, 제1부 동양화 나, 제2부 서양화

다, 제3부 조각 라, 제4부 공예

마, 제5부 서예 바, 제6부 건축

사, 제7부 사진

5. 출품 작품

가, 내용 순수한 민족정서에서 창작된 예술작품이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각 호에 해당되는 작품은 제외함

- ① 국내에서 이미 공개 발표된 작품
- ② 우리나라 공서양속에 어긋난다고 인정되는 작품

나, 규격

- ① 동양화 150[호](가로 181.8cm 세로 227.3cm) 이내
- ② 서양화 100호(가로 130.3cm 세로 162.1cm) 이내
- ③ 조각 직경 90cm 높이 180cm 이내
- ④ 공예 가로 180cm 세로 180cm 이내
- ⑤ 서예

가, 족자종액(簇子縱額) 가로 90cm 세로 303cm 이내

나, 횡액(현판) 가로 242.4cm 세로 90.9cm 이내

다, 병풍 가로 303cm 세로 212.1cm 이내

- ⑥ 건축 180cm×180cm 이내
- ⑦ 사진 90cm×120cm 이내

6. 출품 절차

가, 출품원서 배포기간...1968년 8월 1일~8월 24일

나, 출품원서 배포처

- ① 문교부예술과
- ② 각 시도 교육위원회 문정과 (또는 서무과)

다, 작품접수 기간

- ① 동양화 및 서양화 68년 9월 12일~9월 14일 (3일간)
- ② 사진 및 서예 68년 9월 15일~9월 16일(2일간)
- ③ 조각 및 건축 68년 9월 17일(1일간)
- ④ 공예 68년 9월 18일(1일간)

라, 출품료 작품 1점 당 200원

마, 출품수 각 부를 통하여 1인당 3점 이내

7. 작품심사

가, 심사기관 국전심사위원회

나, 심사기간 1968년 9월 21일~9월 27일

다, 심사결과 발표 1968년 9월 27일

8. 전시작품

가, 입선된 작품

나, 심사위원 작품 (각 1점씩)

다, 추천작가 작품 (각 1점씩)

9. 시상

가, 대통령상 1점 상장 및 부상 1,000,000원
(대통령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구라과 여행의 특전을 부여함)

나, 국회의장상 1점 상장 및 부상 800,000원

다, 국무총리상 1점 " 500,000원

라, 문교부장관상 7점 " 각 200,000원

10. 작품반출

가, 전시작품 전시 종료 후 10일 이내

나, 낙선작품 심사결과 발표 후 10일 이내

단, 전기 반출 기간 내에 작품을 찾아가지 않은 작품에 대하여는 분실, 파손 등 모든 책임을 지지 아니함

11. 관람료

가, 대인 30원 (단체 15원)

나, 소인 10원 (" 5원)

12. 기타

이 밖에 상세한 것은 문교부 예술과 또는 원서 배포처에 문의하시기 바람

1968년 6월 일

문교부 장관 권오병

1968년 9월 5일, 『조선일보』 5면

『《국전》 문공부의 제도변경을 계기로 본 그 문제점』

격년제는 대체로 반대

상설미술관 추천작가의 특전엔 찬성

심사위에 평론가 참여도

《제17회 국전》(10·5~11·5)을 앞두고 문화공보부는 대폭적인 《국전》 제도 변경 방침을 발표했다. ①《국전》 격년제 개회 및 국제비에날레[국제비엔날레] 개최 ②심사위원 선정 절차의 변경 ③추천작가에 대한 특전 조치 ④경북공미술관의 상설 현대미술관 겸용 등이 주요 골자다.

사실상 17회를 맞아오면서 《국전》은 관여자들의 잔치 기분, 적지 않은 식자들의 무관심, 관심 있는 평자들의 빈축 등을 수반하며 열려왔었다. 이와 같은 《국전》의 문젯점[문제점]을 새로 발족한 문공부는 사전의 밀조사를 함으로써 어느 만큼 가려내고 있다.

“①연속적으로 다년간 심사위원을 역임하는 인사가 많았다. ②심사위원 선정이 정실성, 친소(親疎) 관계 등에 좌우되어 편파적이라는 평을 면하기 어려웠다. ③상당수의 현역작가가 《국전》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국전》 권위의 상실 또는 감퇴’를 초래하는 이와 같은 문젯점[문제점]을 근거로 문공부는 이번 ‘개선책’을 입안해 냈다.

◇심사위원 구성 문제=지금까지 《국전》 심사위원은 예술원에서 선정, 추천으로 문교부가 결정했었다. 결과적으로 예술원 회원이 회원인 자기 자신을 선정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게 몇 년을 두고 중임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문공부가 지난 5년간의 《국전》을 토대로 조사한 데이터에 의하면 총 심사위원 약 40명(67년 《제16회 국전》의 경우 43명) 중 11명이 5회(매회)를 거듭 중임했고, 4회 중임이 17명, 3회가 15명이나 된다.

특히 서양화의 경우는 15명(16회) 중 5명이 5회, 4명이 4회를 중임했고, 공예는 5명(16회) 중 4명이 5회, 1명이 4회를 중임했다. 《국전》 심사위원 선정 과정에서 이와 같은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문공부(예술원 미술분과위원회의 합의사항)는 먼저 예술원으로 하여금 약 배수인 80명의 심사위원 후보를 추천하게 했다. 또 80명 선정의 유의사항으로 ①연속 수회 이상 연임을 피하고 ②현역작가라야 하며 ③동일유파, 사제관계, 개인적 친소 관계, 서클 및 학교 관계 등을 참작, 균형 있게 안배한다는 단서를 붙였다.

그리고 추천된 80명의 후보를 가지고 문공부-예술원 연석회의에서 소정의 심사위원을 정한다는 것이다.

16회를 거쳐 오며 《국전》의 ‘권위의 상실 또는 감퇴’를 가져온 요인은 그러한 《국전》의 질적인 내용을 형성하는 데 가장 직접적이며 결정적인 영향력을 가져온 심사위원 구성에 있었다고 보인다. 그러므로 심사위원 구성은 《국전》 체질개선에 가장 큰 문제가 된다.

그런 점에서 80명의 후보 선정과 연임 회피는 “예술원의 독주를 막고 더 의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약속함으로써 그만한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이라고 유근준 교수(서울대·미학·미술평론)는 말한다. “중임을 피하게 된 것은 반가운 일인데 심사위원 선정 등 운용 면에서 특히 개

선 제 1회를 잘해야 한다”고 화가 천경자(홍대) 씨는 말한다. 그러나 화가 김성우(서울대 미대) 씨는 “연임 회피, 배수 추천 등으로 심사위원 선출 대상 범위가 좀 넓어졌다는 정도로 개선 가능성은 충분히 보인다.

그러나 이론적으로 현재의 추천작가들의 탄생 배경이 과거 《국전》의 성격을 형성해 온 심사위원들이므로 개선에 대한 너무 큰 기대는 갖기 힘들 것 같다”고 말한다. 그리고 심사위원을 현역작가로 명시하고 있는데 외국의 유명한 전람회에는 “심사위원이나 초대작가 선정위원회 미술관장, 미술사가, 평론가들이 많이 관여한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지난 8월 18일 도블 14년 만에 돌아온 화가 남관 씨도 국제전 참가 코미셔너[커미셔너]에는 “평론가를 보내는 것이 상례”라는 발언을 강력히 한 적이 있다. 한편 심사위원 수도 너무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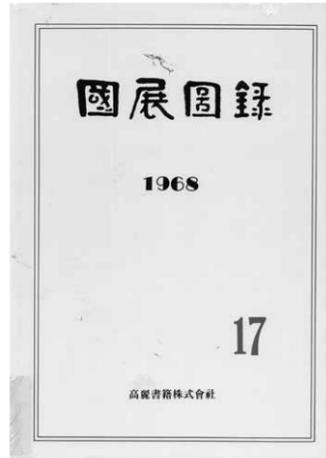
◇《국전》 운영상 개선 문제=①경북공미술관을 개수해 《국전》이 끝난 후에 현대미술관으로 발족시켜 69년도부터 수상작, 우수작 등을 구입 보존(문젯점[문제점]은 실질적인 예산의 뒷받침) ②우수작을 낸 추천작가에게도 대통령상 수상자와 같은 유럽여행 특전을 준다(문젯점[문제점]은 선정 기준과 절차) ③특선을 엄선하고 부상을 준다는 것 등에는 대개의 미술계 인사들이 찬성을 한다.

그러나 출품 낙선작가에 대한 초대권 발행은 지나친 지엽적 친절이라고 지적된다.

그리고 《국전》 격년제와 국제비에날레[국제비엔날레] 개최는 동일시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다. 격년제로 할 경우 또 다른 《국전》의 퇴색 현상이 일어날 우려가 많다. 《국전》은 해마다 하고, 국제전은 4년에 한 번씩이라도 따로 여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물론 그만한 예산의 충분한 뒷받침, 전시 효과적인 선전성이 아닌 자신이 따라야 한다.

〈雨〉

1968년 10월 4일-11월 5일, 경북공미술관
문화공보부 주최, 《제17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



심사위원

위원장 도상봉

부위원장 손재형

사진부 분과위원장 이해선

위원 임응식 이경모 정희섭 김조현

수상자

대통령상 [서예 부문]

국회의장상 [조각 부문]

국무총리상 [동양화 부문]

문화공보부장관상 [각 부문별 1점 수상] 사진 <매미잡이> 한일선

사진부

심사위원 <추모> 이해선, <산나리꽃> 이경모, <목조> 임응식, <갈망> 정희섭, <속리산정> 김조현

추천작가 <빛이 없는 꽃> 현일영, <회상> 문선호, <C'est bien> 조현두, 꽃사슴 <이건중>

특선 <좁은 문> 이정강, <고목> 장원훈, <영압(嬰鴨)> 홍순태, <죽림> 김종현,
<향토의 맛> 이수홍, <어항> 박현수, <페인팅> 허 철, <괴상> 손석현, <출어> 강봉규,
<이른 아침> 이진권

입선

<원의 대화> 한용수

<구원의 순간> 왕상혁

<고통> 송성호

<목동들> 강대환

<가는 사람 오는 사람> 김영창

<무학(舞鶴)> 장지영

<돌격> 류후선

<한(閑)> 김한수

<고물상> 김용수

<석양> 이세훈

<난무(亂舞)> 설찬수

<아침> 최병오

<전남 68년> 김상육

<유원지 점경> 김석현

<옹기전> 김석현

<운반작업> 최인진

<고유미의 구성> 김지후

<콤포지션> 김용기

<순종> 김형태

<잔설> 이석기

<집념> 김동휘

<코스모스의 연(戀)> 하전건

<백파(白波)> 김종현

<선경(仙境)> 유동호

<누우드> 성재경

<환상> 구창모

<아빠와 함께> 박상운

<삶> 유효선

<바다의 소년들> 이중현

<울동> 정인숙

<들샘B> 이진권

<노정(路程)> 조 중

<구경> 이종두

<정담> 이수홍

<기원> 김정순

<도공(陶工)의 손> 김정순

<강변> 박현수

<옛이야기> 김형승

<두엣> 민병태

<정(靜)> 민병태

<겨울 강변> 이영달

<갈매기> 이준무

<어망> 이준무

<성하(盛夏)> 한명자

<깍연> 한명자

<한담> 박병호

<근(鈞)[조(鈞)의 오기]> 박병호

<죽마지우> 황치효

<굴미> 신복진

<호기심> 김혜신

<쇠전길> 지일선

<신록의 무(舞)> 정중수

<마지막 가는 길> 김생수

<작업> 신철균

<춤> 유재정

<야담> 이성범

<유정(流靜)> 장지영

<순교자> 최원오

<꽃벌> 김태식

<고독한 작업> 임용재

<무로(霧露)의 미명> 임효도

<협력> 손승욱

<하동> 손승욱

<Rolling> 육명심

<건설> 김한묵

<여름의 해변> 이해종

<지전(持殿)> 신세규

<정물> 김광선

<보수작업> 김영만

<해변> 김홍인

<휴식> 강봉규

<귀로> 이민우

<천변점경> 김창권

<해녀> 이일구

<정(靜)> 박옥수

<협력> 박수동

<순간> 한대수

<마을> 김호용

<저녁종> 조진숙

<억울한 사연> 유만영

<삶> 서정유



심사위원 <추모> 이해선



문화공보부장관상
<매미잡이> 한일선 [컬러]



심사위원 <산나리꽃> 이경모
[컬러]



심사위원
<갈망> 정희섭



심사위원 <목조> 임응식



심사위원 <속리산정> 김조현



추천작가 <빛이 없는 꽃> 현일영



추천작가 <회상> 문선호 [컬러]



추천작가 <C'est bien> 조현두 [컬러]



추천작가 <꽃사슴>
이건중



특선 <좁은 문> 이정강
[컬러]



특선 <고목> 장원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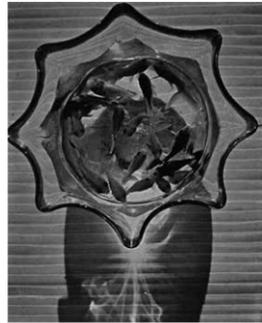
특선 <영압> 홍순태



특선 <죽림> 김종현 [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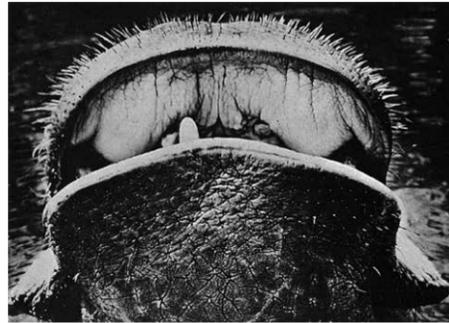
특선 <향토의 맛> 이순홍



특선 <어항> 박현수 [컬러]



특선 <페인팅> 허철 [컬러]



특선 <괴상> 손석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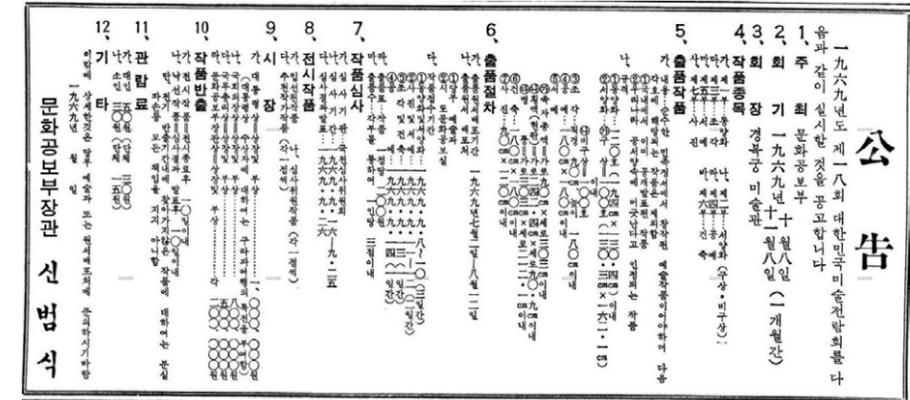


특선 <출어> 강봉규



특선 <이른 아침> 이진련

1969년 6월 9일, 『동아일보』 4면
문화공보부, 「공고」



1969년도 《제18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를 다음과 같이 실시할 것을 공고합니다

1. 주최 문화공보부

2. 회기 1969년 10월 8일

11월 8일 (1개월간)

3. 회장 경북공미술관

4. 작품종목

가. 제1부...동양화

나. 제2부...서양화(구상·비구상)

다. 제3부...조각

라. 제4부...공예

마. 제5부...서예

바. 제6부...건축

사. 제7부...사진

5. 출품 작품

가. 내용...순수한 민족정서에서 창작된 예술작품이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각 호에 해당되는 작품은 제외함

① 국내에서 이미 공개 발표된 작품

② 우리나라 공서양속에 어긋난다고 인정되는 작품

나. 규격

① 동양화...120호(194cm×130.4cm) 이내

② 서양화...구상=100호(130.3cm×162.1cm) 이내

비구상=100호

③ 조각...직경 90cm, 높이 180cm 이내

④ 공예...180cm×180cm 이내

- ⑤ 서예
 족자종액=가로 90cm × 세로 303cm 이내
 횡액(현판)=가로 242.4cm × 세로 90.9cm 이내
 병풍=가로 303cm × 세로 212.1cm 이내
- ⑥ 건축...180cm×180cm 이내
- ⑦ 사진...90cm×120cm 이내

6. 출품 절차

- 가, 출품원서 배포기간 1969년 7월 2일~8월 12일
- 나, 출품원서 배포처
 - ① 당부 예술과
 - ② 시도 문화공보실
- 다, 작품접수 기간
 - ① 동양화 및 서양화...1969.9.8~10(3일간)
 - ② 사진 및 서예...1969.9.11-12(2일간)
 - ③ 조각 및 건축...1969.9.13(1일간)
 - ④ 공예...1969.9.14(1일간)
- 라, 출품료...작품 1점 당 200원
- 마, 출품수...각 부를 통하여 1인당 3점 이내

7. 작품심사

- 가, 심사기관...국전심사위원회
- 나, 심사기간...1969.9.16-9.25
- 다, 심사결과 발표...1969.9.26

8. 전시작품

- 가, 입선된 작품
- 나, 심사위원 작품 (각 1점씩)
- 다, 추천작가 작품 (각 1점씩)

9. 시상

- 가, 대통령상=상장 및 부상.....1,000,000원
 (대통령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구라과 여행의 특전을 부여함)
- 나, 국회의장상=상장 및 부상.....800,000원
- 다, 국무총리상=상장 및 부상.....500,000원
- 라, 문화공보부장관상=상장 및 부상.....각 200,000원

10. 작품반출

- 가, 전시작품 전시 종료 후 10일 이내
- 나, 낙선작품 심사결과 발표 후 10일 이내

단, 전기 반출 기간 내에 작품을 찾아가지 않은 작품에 대하여는 분실, 파손 등 모든 책임을 지지 아니함

11. 관람료

- 가, 대인 50원 (단체 30원)
- 나, 소인 30원 (단체 15원)

12. 기타

이 밖에 상세한 것은 당부 예술과 또는 원서 배포처에 문의하시기 바람
 1969년 월 일
 문화공보부 장관 신범식

1969년 8월 29일, 『동아일보』 3면

「《국전》 심위구성 개혁, 문공부지명인위원회(文公部指名人委員會)서 추천」

문화공보부는 해마다 말쑥이 되고 있는 《국전》 심사위원 선정 방법을 개혁하기 위해 '현대미술 전운영위원회규정안'을 마련, 법제처에 넘겼다.

이 규정안에 의하면 종래 추천작가 중에서 예술원의 추천으로 문공부 장관이 《국전》 심사위원을 위촉하던 것을 변경, 문공부 장관이 지명한 위원으로 현대미술관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운영위원회에서 《국전》 심사위원을 추천하도록 돼 있다. 문공부는 이 운영위원회를 10~20 명으로 구성하고 운영위원은 심사위원을 겸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서양화 부문은 구상과 비구상으로 나누어 따로 전시할 방침이다.

1969년 10월, 『공간』, p.94-95

임응식, 「《국전》 사진부를 바로 잡아야 한다-문공부예의 제언」

《국전》은 심사위원 선출방법 문제로 옥신각신하던 끝에 드디어 수주일이나 개전을 연기하고야 말았다. 매년 있는 일이라 별로 놀라울 것까지는 없으며 올해는 현대미술관 문제까지 곁들여 있어서 더욱 복잡한 것 같다. 그러나 조만간 여론을 종합해서 가장 이상적이고 타당성 있는 방법이 채택될 것으로 믿는 바다. 그러나 유독 사진부만은 그러한 지엽적(枝葉的)인 해결만으로서는 해소되지 않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가로 놓여 있는 것이다. 그것은 다름 아닌 추천작가 지정에 관한 건인데 사진부에는 타 부와 달리 이것이 실시되어 있지 않은 채 5년을 겪어왔다. 이 문제를 타 부에서 그 예를 살펴본다면 《국전》이 52년에 처음으로 시작될 때¹¹⁾에 각 부마다 해당 부문의 원로작가 중에서 적당 수의 추천작가를 사전에 지정하였고, 56년에 건축부¹²⁾가 추가 신설될 때만 해도 수 명의 추천작가가 지정된 사실이 있다. 필자는 64년에 사진부 신설이 가결되었을 무렵 신문지상을 통해서나, 서면(書面)으로서 관계 당국에 추천작가를 사전에 지정할 것과 심사위원 선정에는 격별히 신중을 기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이들 건의사항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심사위원만을 엉뚱한 인선으로서 5명을 위촉하였던 것이다. 이 심사위원이라는 것도 타 부와 같은 자격으로서가 아니고 임시로 그해 그해 적당히 위촉하되 한번 심사에 종사하면 그것을 일반 출판자의 특선 한 번으로 간주한다는 것이었다. 또 문제는 그것 뿐이었으랴 해괴망측하게도 사진부의 최고상은 문교부장관상까지로 하고, 그 이상인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상에는 해당시키지 않는다는 묵계(默契)마저 이루어졌던 것이었다. 이들 굴욕적인 처우에 항의하여 이 모 씨와 필자는 심사위원을 사퇴하게 되고, 남은 3명만이 심사에 임하였는데 이들 3명은 사단적으로 보아 중견층에 속하는 작가들이었기 때문에 이들과 동등, 또는 그 이상의 기성작가는 그 뒤로부터는 일제히 《국전》을 외면하게 되고야 말았다. 말하자면 추천지정 문제와 심사위원 선정문제로 말미암아 《국전》과 기성 사단은 완전히 유리(遊離)되고 말았던 것이다. 돌이켜 보건데 우리나라에서 사진창작이 시작된 것은 그리 옛일이 아니라 할 지라도 1920년 후반부터의 일이었고 보면 거기에는 스스로의 역사도 있고 전통과 질서도 그 나름으로 세워져 있었던 것이다.

그것을 하루아침에 문란케 해버린 것이 있다면 그것은 《국전》 사진부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필자가 53년부터 사진부를 《국전》에 가입시킬려고 가진 애를 써가며 10여 년을 노력해 온 결과가 그 보람도 없이 이렇게 되어 버리리라고는 일찌기 상상조차 해보지 못했던 것이다. 사진의 지위향상이 첫째의 목적이려니와 전통과 질서를 공고히 할려던 뜻이 오히려 반대로 유린당한 결과를 빚어내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통탄할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가입운동을 시작한 후 거기에는 가지가지의 우여곡절도 많았다. 당시의 미술인의 거의는 사진에 대하여 몰이해 또는 혐오 멸시하는 풍조가 있었던 때였던 만큼 무엇보다도 이들에 대한 계몽이 필요했다. 그래서 사진인 자신들의 예술교양의 양양(昂揚)과 권익옹호를 목적으로 전국적인 기성인 단체로 한국사진작가협회를 조직하여 활발한 국내발표전 개최는 물론 국제적인 진출을 적극 추진하여 일찌기 타 분야에서는 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작가들이 국제행사에 참여하고 또 세계적인 대 사진전인 《인간가족》(THE FAMILY OF MAN)¹³⁾을 미국 국무성에 교섭하여 25일간 경복궁미술관 전체를 사용, 유치 개전(開展)케 하여 미술인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사진 인식에도 커다란 도움을 주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당시의 미술계에 두 단체가 있어서 이들은 극심한 대립적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 여파는 예술원 내에까지 미치게 되어 《국전》 사진부 신설문제가 상정되더라도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격으로 항상 그의 제물이 되어 수년을 두고 부결되어 왔던 것이다. 그 무렵에 반대론자 측의 모 예술원 회원은 사진은 “찰각하는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술이 될 수 없다”라는 명언(?)을 토하여 일반의 조소 꺼리가 된 일도 있었다. 그러나 그랬던 저랬던 사진부가 신설된 것만은 다행한 일이었고, 또 해괴한 시상에 관한 목계도 그 익년(翌年)에 《국전》 심사위 총회에서 필자의 긴급동의로 시정을 보게 되어 굴욕감만은 덜게 되었으나 추천작가 문제는 해결을 보지 못한 채 수성적(隲性的)으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지난 5년간의 사진부의 출품 작가를 살펴본다면 심사 관계 작가를 제외하고는 거의 신인일색으로 메워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성작가가 없는 《국전》이란 무의미한 것이다. 《국전》의 본래의 목적이 결코 신인 발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는 오히려 기성작가의 발표 광장으로서의 비중이 보다 클 것이다. 타 부의 경우를 보더라도 알 것이로되 어느 부를 막론하고 중견, 중견, 신인이 두루 이에 참가하고 있는 것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사진부는 어떠냐 하면 일부 중진들과 대다수의 중견이 이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 명단을 참고삼아 여기에 적어 본다면 첫째 우리 사단의 대원로인 서순삼 선생을 위시해서 정인성, 임석재, 정도신, 지부원, 안월산, 이형록, 김원영, 김종순, 김선홍, 김한용, 한영수, 방대훈, 정범태, 남상준, 이축길, 류호석, 안종철, 손규문, 등등을 우선 들 수 있다. 이들이 《국전》에 불참하고 있는 이유는 한마디로 말해서 심사위원 선정에 불만이 있어서였으리라고 본다. 말하자면 후배에게, 혹은 동료 내지는 작가적인 역량으로 보아 심사를 도저히 받을 수 없다는 데에 기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첫째 추천작가 지정을 당초부터 시행했어야 했고 그렇지 못할 바에는 원로급 중에서 심사위원을 위촉했어야 사리에 맞았을 것이고 또 그렇게 함으로 해서 중견층도 큰 불평없이 두루 참가했을 것이다. 당초의 무정견(無定見)한 처사는 후유증을 크게 남겨 놓고 있는 것이다. 사진부가 가입된 첫째에는 선배가 후배에게, 중견이 동료에게 수모의 심사를 받지 않아서는 안[안] 되게끔 되어버렸던 것이다. 심사위원을 중견층에서 정수의 과반을 뽑은 것까지는 좋다 치더라도 그렇

11) 《제1회 국전》은 1949년에 개최되었고 제2회는 한국전쟁이 종식된 1953년에 개최되었다.

12) 《국전》 건축부는 1955년에 신설되었다.

13) 에드워드 스타이켄(Edward Steichen)이 기획한 전시로 1955년 1월 24일부터 5월 8일까지 미국 뉴욕현대미술관(MoMA)에서 열렸다. 이후 8년 간 37개국을 순회하며 전시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957년 4월 3일부터 5월 5일까지 경복궁미술관에서 전시되었으며, 30만 명이 관람하는 기록을 세웠다.

게 할려면 적어도 증견층을 모조리 추천작가로 지정해 놓고 했다면 모르되 아무런 그에 대한 사전 처사도 없이 불쑥 한밤에 흉두께 격으로 증견층을 중심으로 하여 심사원을 뽑았으니 말썽이 나지 않을 수 없었고, 또 그 꼬리는 길게 길게 한없이 뻗어지게 된 것이다. 심지어는 신인들마저도 《국전》 당국의 무질서한 처사에 환멸을 느껴 오늘날까지 이에 참가하지 않은 수는 부지기수로 많다.

그러나저러나 그 후 세월은 흘러서 이제는 신인들 중에서 3명의 추천작가¹⁴⁾를 보게 되었고, 또 기성인 중에서도 심사에 4회 이상 연속 종사한 작가가 있어서 2, 3명의 추천작가가 생겨 도합 5, 6명의 수를 헤아리게 되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수일 전에 문공부가 신문지상을 통하여 발표한 각 부별 추천작가 수를 본다면 사진부는 3명으로밖에 되어있지 않다. 물론 사무적인 착오로 보고 싶지마는 모순은 크다. 오랫동안 그들을 육성하고 그들의 작품을 심사해온 선배들은 망각한 채로 두고 심사를 받아 온 신인들만을 추천작가로 지정했어야 말이 되겠는가 말이다. 참고로 《국전》 추천작가 지정 기준의 조항을 들춰 보면 단 한 번이라도 《국전》 심사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는 물론이러니와 비록 위의 경험이 없는 자라 할지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를 추천작가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물론 당연한 이치다. 이러한 조문(條文)이 설혹(設或) 없다면 치더라도 하나의 상식으로서도 당연히 지켜야 할 질서가 아니겠는가. 그런데 과거의 《국전》을 참관할 때 우리는 사진부에서 기이한 현상을 발견했다. 그것은 무엇이고 하니 “전(前) 심사원”이라는 딱지가 작품 밑에 붙어있는 사실이다. 이것은 말할 것도 없이 글자 그대로 전에 심사를 맡아본 작가라는 뜻인 것이다. 이러한 냉대는 《국전》의 그 어느 부문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이 얼마나 모욕적인 처우일까. 《국전》 규정의 그 어느 조항을 보아도 이러한 괴이한 딱지는 붙이게 되어 있지 않다. 독유(獨唯)[유독(惟獨)] 사진부에만 인색하지 않아서는 않될 이유라도 따로 있던 말인가. 우리들 국민의 세금으로서 이루어지는 《국전》이 부문에 따라 차별대우를 한다 해서야 말이 되겠는가 말이다. 당국자는 왜 떳떳하게 각 부를 평등하게 대우하지를 못하는가 말이다. 근자 문공부가 문교부로부터 《국전》 운영을 이어받은 후는 적극적으로 이의 개선에 힘쓰고 있는 것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때에 즈음하여 특히 부탁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선 상기 열거한 사진작가들의 《국전》 참여의 길을 터주기를 바라고자 하는 것인데 이들 한국 사단의 굴지 작가들이 불참하는 한은 사진부가 정상적인 것으로는 못 되는 것인 만큼 이들이 혼연(欣然)히 참가할 수 있는 분위기와 여건 조성에 각별한 배려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

14) 1969년 《국전》 사진부 추천작가는 문선호, 조현두, 김종현이다.

1969년 10월 16일, 『조선일보』 7면
「‘잡음 《국전》’...말썽부린 심사」

화단 현실 무시...시상 안배

대상 바꿔쳐 한때 언쟁도

예술원선 이 문공차관 해임 건의까지

14일 입선작을 뽑은 《제18회 국전》은 준비 단계에서부터 심사를 끝낼 때까지 시종 말썽을 부렸다. 올 《국전》이 어느 해보다 훨씬 더 심한 잡음을 일으킨 까닭은 주무관청인 문교공보부에서 화단의 현실을 무시하고 새로운 심사위원 선출제도를 채택한 데 있었다. 그 때문에 예술원은 전례 없이 이춘성(李春成) 문화공보부 차관의 해임 건의서까지 내놓았다. 이어 그치지 않고 ①심사의 공개 여부 ②추천작가상 제도 등의 창설 시비에 이어 심사과정에선 예술국의 영성한 관리로 술한 말썽이 빚어져 ‘시상의 안배’란 의혹마저 사고 말았다.

우선 심사 뒷면에 깔린 추문이 많았다. 한 심사위원은 “부문별 심사는 작품 위주로 석차를 정하지 않고 대통령상을 안배하기 위한 편의 수단으로 작품 순위를 정했는가 하면 자기와 작품을 당선시키기 위해 최우수작으로 평가되던 작품을 아예 낙선시키는 등 심사 방법이 종전의 안배 원칙을 넘어 보다 고차적, 지능적으로 발전했다”고 비난했었다.

대통령상을 차지한 서양화 비구상 부문의 경우, 13일 오후 이승조(李承祚) 씨의 <핵G-99>가 최우수작으로 내정됐으나 ‘작년도에도 비슷한 작품이 나왔는데, 또 대통령상을 차지한다면 말썽이 따를 것’으로 판단, 2위로 정해진 박길웅(朴吉雄) 씨의 <혼적白-F75>를 최우수작으로 바꿔 비구상 부문 대표작으로 내놓았다는 것이다.

박 씨의 작품이 대통령상으로 당선되자 <핵G-99>의 이 씨는 박 씨와 같은 흥익대 출신이라는 이유 때문에 3석으로 떨어졌다.

또 투표 도중 수상 후보작의 바꿔치기를 하다가 탄로되는가 하면 낙선작을 꺼내다 특선작으로 올려 심사하는 등 “웃지도 울지도 못할 일이 벌어졌었다”고 한 심사위원은 전하면서 “문공부가 공개 비공개로 4번이나 심사 원칙을 바꾸는 등 갈팡질팡 한 것이 이번 《국전》 추태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했다.

정치나 장사의 뒷거래 같은 이런 현상은 회의 도중 각개격파 전략으로 조각부가 서양화 구상과 공예의 표를 얻을 것으로 목계됐었으나 도중에 공예가 이탈, 동양화와 결합함에 따라 비구상도 건축 및 사진을 끌어들이며 도리어 비구상이 우세하게 된 것이었다고 한 심사위원은 분석했다.

구상 부문은 최우수작으로 평가되던 것을 낙선시켰기 때문에 내세울 대표작이 다른 부문과 대적할 수 없어 수상권 외로 탈락됐고 대통령상 후보 1차 투표에서 비구상 4점, 동양화 4점으로 맞서자 구상 부문에선 같은 서양화란 이유로 그리고 한 심사위원은 이번 《국전》이 문공부 당국의 압력으로 표면엔 말썽은 없는듯하지만 정치 사회에서도 보기 드문 원교근공법(遠交近攻法) 마타도어[matador] 등 갖은 권모술수가 난무했었다고 개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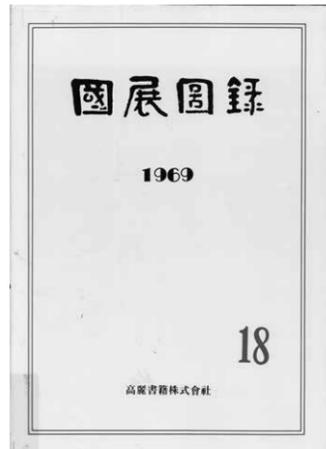
그는 이제까지 심사위원을 예술원에서 추천하던 것을 문공부 장관이 마음대로 임명한 현대 미술관운영자문위원이 《국전》 심사위원을 선출케 하여 《국전》을 완전 관제화시켰으며, 이런 제도나 관리 하에선 공정한 《국전》 심사를 기대한다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 피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다”고 말했다.

14일 오후 《국전》 심사위원회는 각 부문별 특선작(53점)을 발표해 놓고 사진 부문 등 수개 작품에 대해 작자를 바꾸는 등 혼선을 빚었고, 입선작 수도 4백81점, 4백87점 등 여러 번 번복했다가 15일 오전에야 4백88점이라고 정정 발표하는 등 관리 면에 엉성한 추태를 보였다.

예술원(회장 박종화)은 문공부의 이런 독선적인 처사에 분개, 지난달 말 “이춘성(李春成) 문공부 차관이 《국전》 등 중요한 국가의 예술 행정을 망쳐놓고 있다”고 지적, “이차관 등 예술담당 관리를 해임시켜 달라”고 진정한 일까지 있었던 것이다.

해마다 말썽이 없진 않았지만, 《18회 국전》만큼 말썽과 비난의 소리가 컸던 적은 없었으며 그 책임이 관(문공부)에 보다 많았던 일도 없었다는 것이 미술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1969년 10월 20일-11월 20일, 국립현대미술관
문화공보부 주최, 국립현대미술관 주관, 《제18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



국립현대미술관운영자문위원

- 동양화부 이상범 김은호 장우성
- 서양화부(구상) 도상봉 김인승 박고석
- 서양화부(비구상) 이 준 박서보 김영주
- 조각부 김경승 김세중
- 공예부 이순석
- 서예부 손재형
- 건축부 배기형
- 사진부 이경모

심사위원(무순)

- 위원장 이마동
- 부위원장 김기창
- 사진부 분과위원장 현일영
- 위 원 이해선 이건중 임응식 정희섭

초대작가(무순)

- 사진 이건중 이해선 이경모 정희섭 임응식 현일영 김조현

추천작가(무순)

- 사진 문선호 조현두 김종현[김종현]

수상자

- 대통령상 [서양화(비구상) 부문]
- 국회의장상 [조각 부문]
- 국무총리상 [공예 부문]
- 문화공보부장관상 [각 부문별 1점 수상] 사진 <에너지> 장원훈

사진부

- 심사위원 <홀러간 날> 현일영, <산성> 이해선, <황새들의 서식처> 정의섭[정희섭], <김진옥 옹의 춤> 임응식, <정호> 이건중

- 초대작가 <H화백> 이경모, <평행선> 김조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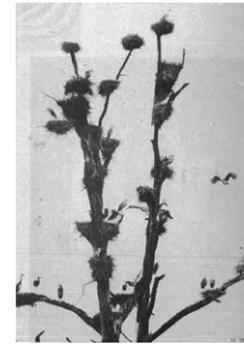
- 추천작가 <계룡산록> 김종현, <사물> 조현두, <참회> 문선호

- 특선 <녹색의 정> 박상윤, <창> 김석현, <장고의 리듬> 이정강, <육날미투리> 홍순태, <영의 대화> 전오남, <산가> 박종한

입선

- <부흥의 불꽃> 김광일 <일손> 이완섭 <군마> 장원훈
- <야경> 이순홍 <5월의 양광> 이정강 <해변> 정 익
- <미래를 엮어가는 아끼씨> 김광덕 <비상> 백용석 <돌집 할머니> 전민조
- <계절의 맛> 이순홍 <폭풍운> 강대환 <담소> 엄규평

- | | | |
|-----------------|---------------|------------------|
| 〈노인회석〉 강완기[김완기] | 〈세발〉 손승욱 | 〈백조의 꿈〉 송기엽 |
| 〈불경기〉 김학도 | 〈목장 정경〉 김석만 | 〈패리숫〉 김용섭 |
| 〈초설〉 정규봉 | 〈비루지〉 김학도 | 〈사투〉 채원석 |
| 〈질주〉 유만영 | 〈작업〉 양승호 | 〈도약〉 최인진 |
| 〈불만〉 하은희 | 〈거품놀이〉 손석현 | 〈목동〉 양창렬 |
| 〈선녀의 의장실〉 김영구 | 〈녹원〉 강경섭 | 〈겨울 강변〉 김석만 |
| 〈춘로〉 김원태 | 〈비상〉 최인진 | 〈원점〉 유후선 |
| 〈비상〉 임효도 | 〈어부들의 귀로〉 최병오 | 〈대기〉 박낙규 |
| 〈묘기〉 박병호 | 〈백로의 포오즈〉 장종기 | 〈즐거운 한 때〉 전민조 |
| 〈개구장이〉 이기주 | 〈조춘〉 손용석 | 〈비말〉 김석현 |
| 〈꼭꼭 숨어라〉 한정식 | 〈야경〉 정규천 | 〈항구〉 김광선 |
| 〈석중 영상〉 박종한 | 〈응시〉 권용호 | 〈호반〉 이기주 |
| 〈아침 바다〉 이준무 | 〈환상〉 정규천 | 〈인간문화재 제10호〉 김명욱 |
| 〈귀소〉 백용석 | 〈계단〉 박상윤 | |



심사위원
〈황새들의 서식처〉 정희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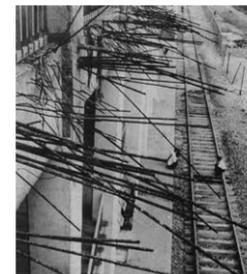
심사위원
〈김진옥 옹의 춤〉 임응식



심사위원 〈정호〉 이건중



초대작가
〈H화백〉 이경모 [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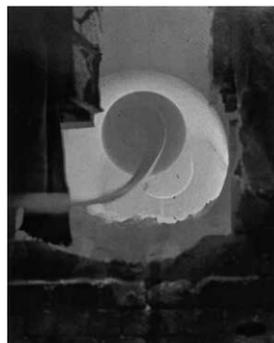
초대작가
〈평행선〉 김조현



추천작가 〈계룡산록〉 김종현 [컬러]



심사위원
〈홀러간 날〉 현일영 [컬러]



문화공보부장관상
〈에너지〉 장원훈 [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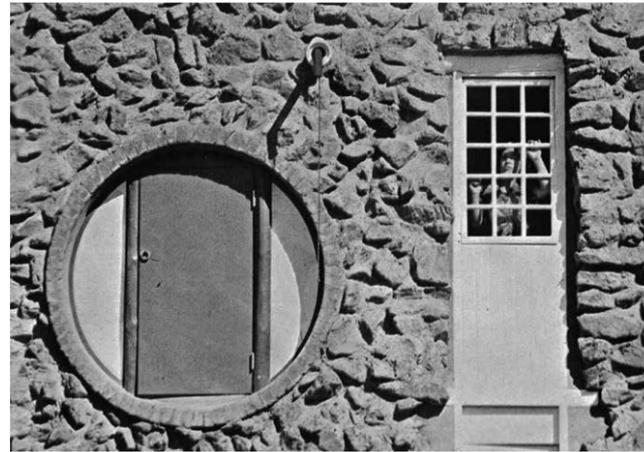
심사위원 〈산성〉 이해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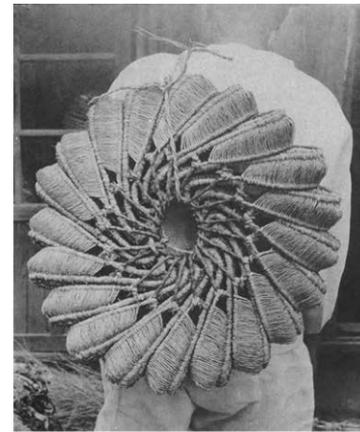
추천작가 〈사물〉 조현두



추천작가 〈참회〉 문선호



특선 <녹색의 정> 박상윤 [컬러] 특선 <창> 김석현 [컬러]



특선 <장고의 리듬> 이정강

특선 <육날미투리> 홍순태



특선 <영의 대화> 전오남

특선 <산가> 박종환

1969년 10월, 『공간』(4권10호), pp.15-16, pp.19-26

「특집: 현대미술관과 《국전》-자료, 설문, 좌담」

[아래는 '설문' 부분 중 사진 관련 인사의 답변만을 발췌]

설문

- ① 현대미술관에서 《국전》을 관장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② 현대미술관운영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야 이상적이라고 보십니까? (구체적으로)
- ③ 현대미술관을 단순한 현금 화단 혼란을 타개하는 길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임응식(사진작가)

- ① 어떠한 기관에서 관장하던 간 타당하게만 한다면 두말할 것 없다고 생각하나 금년과 같은 방법으로는 예술원에서 하던 때와 별로 달라질 수는 없을 것으로 본다.
- ② 운영위원 수는 각 부마다 다 같은 수로 해야 하되 3명씩[씩]으로 하고 작가보다는 평론가 위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본다.
- ③ 문공부가 사단 사정에 어둡기 때문에 한마디로 알기 쉽게 말하기란 곤란하나 사진에 관한 한은 범 사단적으로 광범하게 알아서 인선을 해야 할 것이다. 왜냐면 예총 산하의 사진협회가 명실공히 사단을 대표하고 있지를 못하기 때문이다.

김행오(사진작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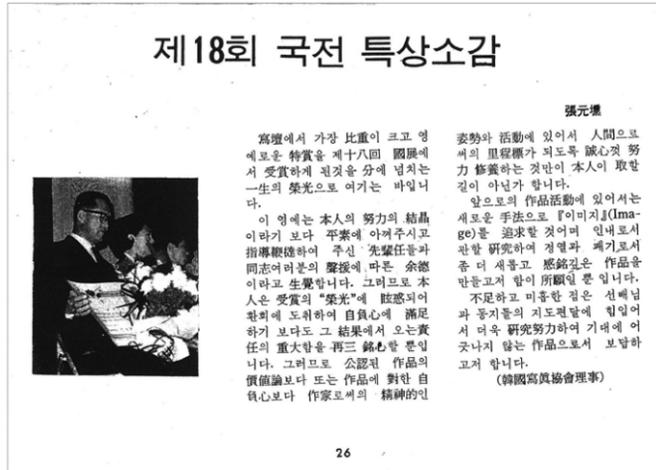
- ① 현대미술관이란 신발족 기구로 체질개선을 해서 공평했으면 하는데 관에서 하는 만큼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는 두고 볼 일이다.
- ② 사진 입장에서는 1인이라는 것이 못마땅한 처사이다. 최소한 3인은 있어야 정족수라 생각하는데 이번의 결과는 사진을 모르는 처사라고 하겠다.
- ③ 어디까지나 사단과 사협의 중도적 입장에서 혼란과 잡음의 꼬리를 해소시킬 수 있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이명동(사진작가)

- ① 종전의 횡포가 이번에 신설된 기구로 인하여 가셔진다면 찬성이다.
- ② 사진 분야에 있어 운영위원이 2~3명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③ 현대미술관에 사진이 진열되지 않는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사실이라면 언어도단이다.

1969년 12월, 『포토그래피』 (통권31호), p.26

장원훈, 「《제18회 국전》 특상 소감」



사단에서 가장 비중이 크고 영예로운 특상을 《제18회 국전》에서 수상하게 된 것을 분에 넘치는 일생의 영광으로 여기는 바입니다.

이 영에는 본인의 노력의 결정(結晶)이라기보다 평소에 아껴주시고 지도편달하여 주신 선배 임(先輩任)들과 동지 여러분의 성원에 따른 여덕(余德)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본인은 수상의 “영광”에 현혹되어 환회에 도취하여 자부심에 만족하기보다도 그 결과에서 오는 책임의 중대함을 재삼 명심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공인된 작품의 가치론보다 또는 작품에 대한 자부심보다 작가로서의 정신적인 자세와 활동에 있어서 인간으로써의 이정표가 되도록 성심껏 노력 수양하는 것만이 본인이 취할 길이 아닌가 합니다.

앞으로의 작품활동에 있어서는 새로운 수법으로 ‘이미지’(Image)를 추구할 것이며[것이며] 인내로서 관찰 연구하여 정열과 패기로서 좀 더 새롭고 감명 깊은 작품을 만들고자 함이 소원일 뿐입니다.

부족하고 미흡한 점은 선배님과 동지들의 지도편달에 힘입어서 더욱 연구 노력하여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작품으로서 보답하고자 합니다. (한국사진협회 이사)

1969년 12월, 『신동아』(통권64호), p.401

이명동, 「(뉴스와 화제-사진) 《국전》에 나타난 사진」

《국전》에 사진 부문이 신설된 뒤 올해로 여섯 번째 전람회를 맞이했다.

그동안 사진도 《국전》이라는 풍토에서 예외일 수는 없다는 듯이 온갖 잡음을 빚었고 그 권위는 사실상 땅에 떨어지고 말았다. 그러나 사진인들의 관심은 국민 각자의 혈세로 운영되는 국가 최고의 예술전당이라는 데에 있었고 그 관심에서 비롯되어 올해는 예년에 비해 응모작품 접수도 가장 많았음을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하겠다.

어쨌든 우리의 《국전》이고 보면 지난날의 잘못을 탓하기보다 앞으로 보다 훌륭한 것으로 육성하는 데 힘을 써야만 되리라고 믿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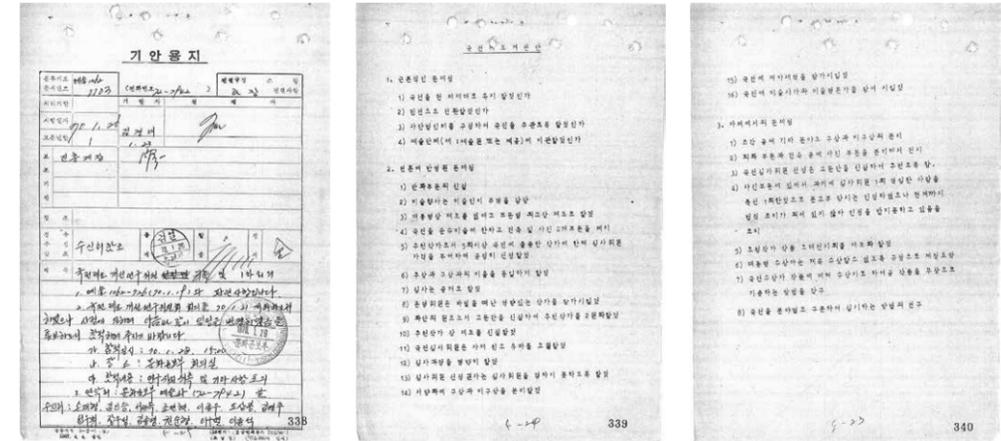
올해 여섯 번째가 되는 《국전》 사진은 한마디로 평을 한다면 구태의연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도 이미 30여 년 전의 낡은 회화양식의 작품들이 많은 점수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하겠다. 미술속의 사진이라 미술을 닮으려고 하는지는 몰라도 사진은 회화도 아니고 조각도 아닌, 바로 사진이어야만 되지 않겠는가. 전체 작품을 통해서 ‘백로’를 소재로 한 작품이 모두 6점이나 되어 마치 ‘백로’ 사진전 같은 인상을 주었고 또 회화도 따르지 못하는 이중 액자로 된 작품표구 등은 참으로 넉센스가 아닐 수 없다.

내용도 없는 그림엽서 같은 사진을 이렇게 이중 액자로 장식을 한다는 것은 예술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하겠다. 극단적으로 말한다면 무식한 소치가 아닐 수 없으며 이러한 작품들을 입선작으로 뽑은 심사위원들의 양식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작품을 담은 액자의 공간은 그 작품이 지닌 내용과 형식과 연관되어 조형을 이루는 것이므로 엄격히 다루어져야만 되는 것이다.

1970년대

1970년 1월 23일, 국가기록원-제19회국전철(1), pp.338-340

문화공보부 예술국 예술1과, 《국전》제도 개선 연구위원 위촉 및 1차 회의



기안일 1970.1.23.

문서번호 예술 1062-7703

제목 《국전》제도 개선 연구위원 위촉 및 1차 회의

- 1. 예술 1062-726(70.1.19)와 관련 사항입니다.
- 2. 《국전》제도 개선 연구위원회 회의를 70.1.21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사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일정을 변경하였음을 통보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참석일시: 70.1.28. 15:00

나. 장소: 문화공보부 회의실

다. 참석내용: 연구위원 위촉 및 기타 사항 토의

3. 연락처: 문화공보부 예술과(72-7942) 끝.

수신처: 손재형, 김인승, 서세욱, 조연현, 이종우, 도상봉, 김영주, 선우회, 장우성, 김종영, 권순형, 이구열, 이종석¹⁾

1) 손재형(孫在馨, 1902~1981), 대표적인 서예가로 조선서도전, 조선서화협회전, 《국전》심사위원을 역임하고 예술원, 한국미술가협회, 예술인총연합회 등에서 활동했다.
 김인승(金仁承, 1910~2001), 대표적인 서양화가이다. 도쿄미술학교에서 유화를 전공했고 이화여자대학교 미술대학에서 학장을 지냈다. 예술원 회원으로 《국전》의 추천작가 및 심사위원을 역임했다.
 서세욱(徐世錡, 1929~), 대표적인 동양화가로,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을 졸업하고 《국전》에서 다수의 상을 받으며 동양화 부문에서 여러 해 심사위원을 역임했다. 각종 비엔날레와 국제미술전에 출품해 한국 대표 화가로 주목받았다.

《국전》제도 개선안

1. 근본적인 문제점

- 1) 《국전》을 현 체제대로 유지할 것인가
- 2) 민전으로 전환할 것인가
- 3) 사단법인체를 구성하여 《국전》을 주관토록 할 것인가
- 4) 예술단체(예: 예술원 또는 예총)에 이관할 것인가

2. 언론에 반영된 문제점

- 1) 판화 부문의 신설
- 2) 미술 행사는 미술인이 주역을 담당
- 3) 대통령상 제도를 없애고 부문별 최고상 제도로 할 것
- 4) 《국전》을 순수미술에 한하고 건축 및 사진 2개 부문을 폐지
- 5) 추천작가로서 5회 이상 《국전》에 출품한 작가에 한해 심사위원 자격을 부여하며 공정히 선정할 것
- 6) 추상과 구상과의 비율을 동일하게 할 것
- 7) 심사는 공개로 할 것
- 8) 운영위원은 파벌을 떠난 역량 있는 작가를 참가시킬 것
- 9) 화단의 원로로서 고문단을 신설하여 추천작가를 2원화 할 것
- 10) 추천작가상 제도를 신설할 것
- 11) 《국전》 심사위원은 사제 친소 유파를 초월할 것
- 12) 심사 과정을 명백히 할 것

- 13) 심사위원 선정권자는 심사위원을 겸하지 못하도록 할 것
- 14) 서양화에 구상과 비구상을 분리할 것
- 15) 《국전》에 재야 세력을 참가시킬 것
- 16) 《국전》에 미술사와 미술평론가를 참여시킬 것

3. 자체에서의 문제점

- 1) 조각 공예 기타 분야도 구상과 비구상의 분리
- 2) 회화 부문과 건축 공예 사진 부문을 분리해서 전시
- 3) 《국전》 심사위원 선정은 고문단을 신설하여 추천토록 함.
- 4) 사진 부문에 있어서 과거에 심사위원 1회 역임한 사람을 특선 1회한 것으로 문교부 당시는 인정하였으나 현재까지 법적 조치가 되어 있지 않아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조치
- 5) 초청작가 작품 초대 전시회를 제도화 할 것
- 6) 대통령 수상자는 계속 수상할 수 없도록 규정으로 제정 요망
- 7) 《국전》 수상자 작품에 대해 수상자로 하여금 작품을 무상으로 기증하는 방법을 강구
- 8) 《국전》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방법의 연구

1970년 7월 22일, 『동아일보』 5면

「‘3권’ 쥐고 독주 우려, 파문 안은 문공부의 《국전》 운영 초안...미술계에 들어본다」

졸렬한 세 부문 제외, 신인 발굴 부문별 최고상 줘야

앙케트

- ① 현 제도위에 의해 탄생될 국전운영위원이 심사위원을 겸한다고(5명) 또 정부심사위원장은 운영위에서 뽑기로 한 조처에 대한 소견은?
- ② 말쑥의 큰 원인인 대통령상을 1개 부문에 주고 신인 수상 범위를 제한하려는 조처에 대한 의견은
- ③ 건축, 사진, 공예의 제외에 대한 소견은?
- ④ 그밖에 올바른 《국전》 운영을 위해 하고 싶은 말.

‘순수’ 중심당연 도상봉 <화가, 제도위 위원>

- ① 운영위를 주축으로 《국전》이 운영되는 것은 많은 반대가 있는 모양이지만 나로선 오히려 합리적이란 생각이 든다. 문제는 얼마나 공정하게 운영위원을 뽑는가 하는 것인데 확실히 단언할 수는 없으나 잘 될 것으로 본다. 운영의 묘가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 ② 대상은 외국의 예를 봐도 기성작가의 작품에 주는 경우가 많다. 과거 기성작가를 너무 푸대접

이중우(李鍾禹, 1899~1981). 서양화가이자 교육자로 일본미술학교를 졸업하고 프랑스 슈하이에프 미술연구소에서 수학했다. 《국전》 서양화 부문 심사위원. 홍익대학교 학장을 역임했다.
 김영주(金永周, 1920~1995). 서양화가로 일본 도쿄다이헤이요미술학교를 졸업하고 국제 비엔날레와 다수 전시에 참여했다. 《국전》 심사위원 및 운영위원을 여러 해 역임한 바 있고 미술평론가협회 대표를 역임했다.
 선우휘(鮮于輝, 1922~1986). 언론인이자 문학가이다. 『조선일보』 사회부 기자로 언론활동을 시작하여 『서울신문』과 『한국일보』를 거쳐 『조선일보』에서 편집국장, 논설고문 등으로 활동했다.
 장우성(張遇聖, 1912~2005). 김은호 문하에서 한국화에 입문하였다. 광복 후 서울대학교와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교수로 재직했고 예술원 회원을 역임했다.
 권순형(權純亨, 1926~). 도예가로, 한국미술가협회 회원과 예술원 미술분과위원을 지냈다. 1969년부터 1981년까지 《국전》 추천작가, 초대작가 및 심사위원으로 활동했다.
 이구열(李龜烈, 1932~). 미술평론가로, 홍익대학교 미술학부를 졸업하고 다수 일간지 문화부장을 거쳐 국립현대미술관 전문위원, 문화공보부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전문위원, 문화재위원회 박물관분과 위원 등을 지냈다. 《국전》 동양화 부문에서 심사위원을 역임했고 현재 한국근대미술연구소 소장이다.
 이종석(李宗碩, 1933~1991). 고려대학교 국문과를 졸업하고, 단국대 대학원에서 사학을 전공했다. 『신태양』, 『새벽』, 『대한일보』, 『중앙일보』의 문화부 기자와 논설위원, 『계간미술』 주간, 호암갤러리 관장, 문화공보부 문화재 전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한 것 같다.

- ③ 서구적 미술 개념을 봐도 《국전》은 순수미술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게 마땅하다. 잡다한 항목이 《국전》에 많이 들어간 것은 과거 선전(鮮展) 때의 유물이다.
- ④ 시상은 쌀 배급이 아니다. 당국의 뒷받침보다 《국전》 운영을 명랑히 하려면 이제까지의 타성을 버려야 할 것이다.

신인에 최고상 남관²⁾ <화가>

- ① 제도위에서 운영위원을 뽑고 운영위에서 심사위원을 뽑는 등의 조치는 전적으로 반대한다. 다만 훌륭한 미술가가 그리 많은 것이 아니니 3자를 완전 분리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난점이 있겠지만 원칙적인 면에서 3자를 분리할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 ② 가급적 최고상을 비롯한 주요 상은 신인에게 주는 게 좋다. 신인에게 창작 의욕을 북돋아주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 ③ 빼는 이유가 불투명하다. 만약 빼다면 그에 대한 훌륭한 대안이 있어야겠다.
- ④ 최고상의 안배 문제가 《국전》을 어지럽힌 주요 원인임을 생각할 때 각 부문별로 최고상을 다 주도록 건의하고 싶다.

식자(識者) 참여 시급 이순석³⁾ <공예가, 전 서울미대 응미(應美)과장>

- ① 운영위의 권한 비대로 문제가 되겠지만 훌륭한 인격과 올바른 예술 감각을 가진 식자가 어느 정도 운영위에 참여할 수 있는가가 성패를 가름할 것이다.
- ② 대상이건 무엇이건간 기성 신인 구별 없이 주도록 하는 게 좋겠다. 결국 훌륭한 작품을 낸 사람이 큰 상을 받을 수 있도록.
- ③ 건축은 전시장에 걸어놓고 질적인 또는 예술적인 가치를 판단하기는 다소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공예와 사진을 제외함은 천만부당이다. 공예가 순수미술이 아니니 따지는 것은 넌센스다. 문명과 예술 발달의 척도는 공예품으로 가장 잘 나타난다고 생각한다. 미술계를 인해전술로 좌우하려는가.
- ④ 이제까지의 《국전》이 소란을 피운 것은 모두 자만심 때문이다. 우리나라를 예술 있는 나라로 키우기 위해서도 자기 작품만 최고라는 생각을 버리라.

2) 남관(南寬, 1913~1990). 서양화가로 도쿄 다이헤이요미술학교(東京太平洋美術學校)를 졸업 후 1954년 프랑스로 건너가 파리의 아카데미 드 라 그랑드 쇼미엘에서 수학했다. 국제적으로 명성을 얻으며 파리에서 활동하다 귀국해 홍익대학교 교수로 재직했다. 《국전》 추천작가, 심사위원을 역임했다.

3) 이순석(李順石, 1905~1986). 도쿄미술학교 도안과 출신의 공예가이다. 해방 후 대한민국의 문교부 예술과 고문직을 역임했다.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했다. 한국미술가협회 부회장과 《국전》 심사위원을 역임했다.

부패가증될 뿐 오승우⁴⁾ <화가, 목우회 사무장>

- ① 현 위(委)의 규정은 모든 권한을 한 손에 거머쥐려는 최악의 규정이다. 《국전》의 부패가 가증될 우려가 있다.
- ② 기성작가에 대상을 줄 경우 나눠 먹기 식이 되기 쉽다. 화단의 신진대사를 위해서도 신인에게 주는 게 옳다.
- ③ 고속도로가 뚫리고 고층 건물이 뻗질나게 들어서는데 좁은 소견으로 건축 등을 빼는 것은 졸렬한 것이다. 구태여 제외하고 싶다면 순수미술 응용미술로 나눠 따로따로 《국전》을 개최하면 좋을 것이다.
- ④ 제도위가 아닌 문공부에서 각계 의견을 종합, 운영위원을 뽑고 심사위원은 《국전》 초대작가나 평론가 중에서 뽑는 게 좋을 것이며 심사위원은 1, 2년 마다 교대함이 좋다. 장기 연임이 부정의 싹이다. 대통령상을 여러 개 줄 수 없다면 없애는 한이 있어도 각 부문별로 최고상을 똑같이 주도록 함이 좋다.

작품따라 시상 박래경⁵⁾ <미술사가, 수도여사대 교수>

- ① 운영위의 기능이 너무 비대하다. 운영과 심사를 분리할 수 있는 직관적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 ② 신인이고 기성인이고 따질 것 없이 작품 기준으로 시상함이 마땅하다.
- ③ 이제까지의 《국전》이 순수미술 중심도 아니었는데 이제 와서 세 부문을 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대안을 제시하라.
- ④ 이제까지의 《국전》 운영을 생각할 때 아무쪼록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객관성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공정한 운영을 나상진⁶⁾ <건축가협회 부회장>

- ① 현안은 일부 인사의 독주를 가져올 수 있다. 과거에도 그랬듯이 권한과 기능이 한곳에 집중되면 부작용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 좀 더 참신한 제도가 아쉽다.
- ② 우리나라 미술계에서 신인 등의 등용문이라는 게 있다면 《국전》일 것이다. 좀 더 우수하고 새로운 감각을 가진 신인 발굴을 위해서도 신인 수상 제한은 부당하다.
- ③ 우수한 작가를 수다히 길러낸 건축 등 세 분야가 빠지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대안을 제시하라.

4) 오승우(鳴承雨, 1930~). 서양화가로 조선대학교 예술과에서 수학했다. 《국전》에서 다년간 특선에 선정되었고, 추천작가, 초대작가 및 심사위원을 역임했다. 목우회 회장, 대한민국예술원 회장, 대한민국미술대전 심사위원장을 지냈다. 서양화가 오지호(鳴之湖)의 장남이며, 오승윤(鳴承潤)과 형제지간이다.

5) 박래경(朴來卿, 1935~). 미술평론가로, 서울대학교 사학과를 거쳐 독일 뮌헨 루트비히막시밀리안대학교 미술사학을 수학한 후 한양대에서 석·박사를 취득했다. 수도여자사범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했고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실장과 《국전》 심사위원을 역임했다.

6) 나상진(羅相晉, 1923~1973). 김계 출신의 한국 1세대 건축가이다. 전주공립공업보습학교를 졸업하고 일본 건설회사 가시마구미(鹿島組)에서 경력을 쌓았다. 한국건축가협회 창립회원으로 활동했다.

④ 제도 자체도 객관성 있게 마련돼야 하지만 운영을 공정히 하는 게 중요하다.

대안 제시해야 정회섭 <사진협회 이사장>

- ① 이번 안의 골자는 예컨대 3권 분립이 아니라 3권을 한 손에 쥐자는 것 같다. 부당한 처사니 시정돼야 할 것이다.
- ② 이제까지의 《국전》이 신인의 발돋움 위한 것이었다. 《국전》은 역시 기성작가들보다 신인에게 문호를 열어주도록 상 제도가 마련됨이 타당하다.
- ③ 상의 안배 문제 등 현실적 이유만으로 아무런 대안 없이 건축 사진 공예를 제외함은 만부당하다. 문화계의 일반적 의견에 따라 《국전》에 들어간 세 분야가 관계 인사의 참여도 없이 빼 버린다는 것은 엄청난 횡포다.
- ④ 어느 특정 부문에 최고상을 주려니 말썽과 소란이 생긴다. 각 부문별로 최고상을 주면 잡음이 줄어들 것이다.

1970년 7월 22일, 『조선일보』 5면

「문공부 절충안 제시로 드러난 《국전》 제도개혁안과 그 문제점」

오늘 합동회의서 최종 결정

회화-조각-서예의 7부문

동-서양화, 조각을 구상-비구상으로

운영-심사위원 겸임 말썽

문화공보부는 21일 국전제도연구위원회가 마련한 《국전》 개혁안을 토대로 독자적인 개혁안을 마련, 제도연구위 측과 마지막 절충을 하기로 했다. 이 문공부 안은 공청회에 나타난 여론과 원로작가 신인작가 및 사회 저명인사들의 의견을 압축, 이제까지 《국전》을 전단(專斷)해 온 일부 기성작가들을 견제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문공부 개정안 골자를 보면 제도연구위 안에서는 회화, 조각, 서예, 공예 등 4개 분야로 한 것을 공예를 떼어 상공미전으로 흡수시키고, 회화의 동양화, 서양화를 각각 구상과 비구상, 또 조각을 구상과 비구상으로 나눠 서예까지 모두 7개 부문으로 했으며 건축, 사진은 따로 떼어 독립전을 갖게 하고 있다.

이유는 “《국전》은 곧 미전(美展)이며 미전은 회화, 조각전”이라는 전통적인 풍조 때문이라는 것이다.

상 제도에 있어서는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문공부장관상 등은 종전처럼 신인상으로 존속시키며, 예술원회장상을 신설, 초대작가 1명과 추천작가 1명에게 준다.

단 신인의 대통령상은 상금 1백만 원만 주기로 하고 유럽 여행권은 예술원장상 수상자 2명(각 70만 원 정도)에게 준다. 제도연구위 안의 대통령상은 초대작가에게, 국회의장상은 추천작가에게 주고, 국무총리상과 문공부장관상만 신인에게 주며 기성작가와 원로작가를 위해 예술원장상과 원로작가제를 신설하기로 한 것 등이 수정된 것이다.

대통령상 수상자의 유럽 여행을 예술원장상 수상자인 기성작가에게 주게 한 것은 이제까지 대통령상을 받은 신인이 국가를 대표해서 외국에 가서 작가들과 만나 한국예술의 이미지를 제대로 부각시키지 못하고 이론 면에서 기성작가에 뒤지기 때문에 많은 마이너스를 가져온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한다.

운영위원 수는 15명으로 하고 원로작가와 예술원회원 초대작가 중에서 선출하되 평론가와 사회 저명인사 가운데서 그 3분의 1 이내의 인원을 선정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운영위원의 최대 임기는 당초 안에는 3년으로 한 것을 제도연구위 측에서 다시 2년으로 하고, 심사위원 최대 임기를 3년으로 했으나 문공부에서는 반대로 운영위원 임기를 3년으로 하고 심사위원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있다.

임기와 중임의 이와 같은 조정 이유는 운영위원회 체통상 임기 2년보다 3년이 무난하며 심사위원을 3년 연임할 수 있을 경우엔 자파(自派) 작가를 3회까지 특선시킬 수 있으므로 1년만 더 특선을 시키면 4회 특선을 가능케 하여 추천작가를 낼 수 있는 가능성을 낳게 되는 폐단이 있다는 것이다. 또 가장 말썽이 되고 있는 운영위원과 심사위원 겸임 문제는 운영위원 중에서 특수 부문(조각, 동양화, 서예) 3명에 한해 겸임할 수 있게 하고 심사위의 요청이 있으면 자문에 응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문공부 측에서 운영위원 중 특수 부문 3명에 한해 심사위원을 겸임할 수 있게 한 것은 조각, 동양화, 서예 등 부문에는 운영위원과 심사위원 겸임을 불허할 경우 원로급 작가 수가 모자라 권위 없는 쫓내기 작가가 운영위원이나 심사위원에 선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운영위와 심사위 겸임안은 과거의 예술원 회원이 스스로 심사위원을 추천하던 전철과 별로 다름이 없는 불합리한 요소를 내포하고 있어 상당한 반발을 살 것으로 내다보인다.

제도연구위는 이에 대해 원래의 개혁안을 수정, 문공부가 허락한 3명의 겸직 외에 심사위원-부위원장 2명을 운영위에서 선출케 하여 운영위원과 심사위원의 겸직을 실제적으로 5명으로 하자고 맞서고 있는 것이다. 문공부는 운영위원 115명을 전임 운영위에서 배수 추천케 하고 문공부 장관이 위촉토록 했다.

또 초대(《19회 국전》) 운영위원은 제도위 안을 고려, 제도연구위에서 배수를 추천토록 했는데 현재의 제도연구위원은 예술원, 미협 등 각계의 대표급 인사로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김동석 문공부 예술1과장은 “이 문공부 안은 제도연구위 안을 토대로 문공부의 의견을 첨가한 것이기 때문에 제도연구위 측에서도 대부분 찬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도연구위는 15일 제10차 회의를 열고 지난번 공청회에 올렸던 국전개혁안을 수정하여 사진, 건축과 함께 공예도 제외하며 원로작가제를 삭제하는 등 수정안을 문공부에 알려왔다. 그러나 그것은 지난번 공청회 때 논란이 돼왔던 신인상 수상 제한과 비대한 운영위의 권한 등에 대해서는 거의 수정도 가하지 않아 문공부 안과의 상충점이 주목되고 있다.

문공부는 22일 제도연구위와 합동 회의를 열고, 국전개혁안을 마지막으로 확정시키기로 결정, 이 합동 회의 결과가 매우 주목되고 있다.

이 문공부 안에 대해 미술계 인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이일(미술평론가·홍대 전임강사) 씨⁷⁾ = 공예, 건축과 사진 부문을 《국전》서 독립시킨 것은 회화, 조각 등 순수미술만의 성격을 뚜렷이 하는 의미에서나, 또 건축, 공예, 사진의 경우 각각 그 분야가 갖는 특색을 따로 살린다는 의미에서나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그 대신 건설적인 대안으로서 사진, 공예, 건축전을 따로 하는 데는 거기 상응할 만한 충분한 조치가 당연히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외국의 경우 회화 부문에서 독립된 판화가, 구상 비구상화 등으로 구분된 이번에도 한 부문으로 독립 안 된 것은 불합리하다.

다음 15명의 운영위원 중 일부가 심사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는 규정은 '그 옛날의 원상복귀'(예술원 회원의 심사위원 겸임과도 같은)다. 심사위원을 할 만한 적당한 작가 수가 적다는 것은 매우 독단성을 띤 생각일뿐더러 부분적인 그런 공색한 특례를 굳이 둔다는 것은 '규정' 자체로서도 하자가 있다고 생각한다.

더 근본적인 면에서 볼 때 나는 그런 지엽적 규정을 변경하는 것으로 《국전》의 1백% 원만한 운용이 이루어지리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차제(此際)에 《국전》의 근본적인 이념을 다시 한 번 총결산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예술원(원로작가라도 좋다)을 중심으로 《국전》이 갖는 보수성을 명백히 내세움으로써 《국전》을 한국미술의 보수세력(아카데미즘)의 총 집결체가 되게 하는 것이다. 진취적인 현대미술이 《국전》 같은 관전을 토대로 발전할 가능성은 희박한 것이다.

▲남관(서양화가) 씨 = 《국전》에서 공예, 건축, 사진 등 3개 분야를 떼어 순수미술 부문과 나눈 것은 잘되었다고 본다. 심사 때는 언제나 순수미술 부문이 아닌 심사위원이 순수미술을 평가한 데서 말썽이 생겼으며 아직도 서예 부문에 약간의 문제성이 있다. 대통령상 등 최고상을 신인에게 준 것은 신인의 의욕을 북돋우기 때문에 좋고, 기성작가에게 예술원장상을 마련한 것도 잘된 것 같다. 다만 운영위원이 심사에 자문하는 등 운영위원의 권한이 비대한 점이 좀 달갑지 않다.

▲백태호(공예가) 씨⁸⁾ = 《국전》 1회 때부터 존속해 온 공예를 제거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예술 공예를 어떻게 생산 공예와 합칠 수 있겠는가. 공예를 《국전》과 동등하게 따로 독립시키면 모르되, 관전 아닌 상공미전에는 들어갈 수 없다. 일본 등 세계 각국에도 유례가 없는 일이다. 재고

7) 이일(李逸, 1932~1997). 대표적인 미술평론가이다. 1957년 서울대학교 불문과를 중퇴하고 1965년 프랑스 국립소르본느 대학 고고학과 미술사를 수학했다. 1967년 계간 『미술평단』을 발행했고 홍익대학교 교수, 한국미술평론가협회장, 《국전》 심사위원 등을 역임했다.

8) 백태호(白泰昊, 1925~2009).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응용미술학을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미술대학의 교수로 재직했다. 《국전》 초대작가 및 심사위원, 한국공예가협회 고문 등을 역임했다.

가 있기 바란다.

▲엄덕문(건축가) 씨⁹⁾ = 같은 시각예술인데 기왕이면 한자리에서 같이하면 좋겠다. 회화를 보러 와서 건축도 보는 것이 우리의 실정에 맞는다고 본다. 건축을 《국전》에서 제거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다.

▲임응식(사진가) 씨 = 근본적으로 《국전》에 순수미술만 육성한다는 규정이 없는 터에 생활이 관계된다는 이유로 《국전》에서 쫓는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사진이 미약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도 있으나 미약할수록 《국전》 테두리 안에서 육성해야 할 것이다. 사진이 《국전》에 계속 남든 독립전을 갖든 사진 부문이 갖고 있는 부조리는 제거돼야 할 것이다.

1970년 8월, 『포토그래피』(통권39호), pp.9-10

정희섭, 「《국전》 개혁 초안을 보고」

《제19회 국전》의 개최공고를 목전에 두고 그간 국전제도연구위원회의 전체 회의에서 9차에 걸쳐[결쳐] 연구 검토된 시안을 내놓고 지난 7월 9일 기독교관에서 공청회가 개최되었다.

이 시안에 의하면 과거의 모순된 《국전》 제도를 대폭적으로 개혁하려던 근본취지는와는 판이한 느낌이 있을 뿐 아니라 특출하게 대의명분을 내세울 만한 개혁이 엿보이지[엿보이지] 않으며 일부 특정 분야의 권익만을 위한 감이 없지 않다.

동 제도연구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서 사진과 건축을 처음부터 제외한 채 구성한 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일임을 지적치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이 회의에서 사진과 건축을 제거키로 결의하였다는 것은 그 안이 비록 시안이라 할지라도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일반 상식으로는 제도연구위원회의 권능(權能)이 《국전》 제도의 모순성을 검토하여 이를 개혁할 수 있는 전문적인 문제를 문공부가 백지로 위임한 것으로 생각되며 동 위원회의 최후 안을

9) 엄덕문(嚴德紋, 1919~2012). 일본 와세다대학(早稻田大學) 부속 고등공업학교 건축과를 졸업하고 해방 후 귀국해 한양대학교·홍익대학교에서 교편을 잡았다. 1957년 한국건축가협회 창립회원, 《국전》 운영위원 및 건축 부문 심사위원을 역임했다.

무수정으로 받아드리겠다는 주무당국의 언약이 있었다고 하니 중대한 책임을 위임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국전》 개혁의 근본 원인을 분석하여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 문제는 기(其) 근원이 여론에서 출발하였고 여론의 근원은 《국전》의 운영과 제도상의 모순성을 지적하는 미술인들에 의하여 이루어졌던 것이다.

저명한 미술평론가인 K 씨는 《국전》에 대하여 혹평하기를 “낡은 《국전》이다. 독존유파(獨尊流派) 의식이니 섹트주의¹⁰⁾에 얽히고설킨 명든 《국전》이니 운운이라 지적하면서 《국전》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인 만큼 각양 각파의 미술인들이 고르게 참여하는 등용문이 되어야만 할 것이다”라고 강조한 바 있었다.

이와 같은 여론이 금반 《국전》을 전면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제도연구위원회가 발족된 것으로 안다.

이 논조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다. 첫째는 미술 영역의 확대요 둘째는 제도상의 모순성을 시정하자는 건설적인 안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주무당국이 제도연구위원회에 《국전》 제도 개혁을 백지로 위임하였다는 것은 지성적인 판단의 집약된 안을 받아드리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선 《국전》이라함은 《대한민국미술전람회》로서 동양화, 서양화의 구상, 비구상, 조각, 공예, 서예, 건축, 사진 등 기(既)히 8개 분야로 되어있으며 이는 곧 미술의 영역으로서 이미 그 정의가 내려져 있는 것이다.

그리고 보면 제도연구위원회는 사실상 그 권능이 기정사실화된 《국전》의 제도를 연구 검토하여 그 제도를 개혁할 안의 작성과 영역 외의 확대 가부를 검토함이 본연의 자세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반 공개된 시안을 보면 동양화, 조각 부문은 비구상으로 두 분과가 확대되었는데 이것은 동 위원회로서 마땅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 보겠으나 사진과 건축의 예외문제만은 확실히 말하여 권능 외의 일일진대 이는 기득권에 대한 침해요 직권의 남용이라는 인상이 짙어 지탄받을 만한 일일 것으로 안다.

마치 과거 《국전》 제도의 모순과 운영의 결함의 책임이 사진, 건축 분야에만 있었던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을뿐더러 그러기에 제거하는 것으로 되고 있는 것이다. 과거에 있어서 가장 말성[말썽]의 근본 원인은 심사위원의 구성과[구성과] 시상제도에 있었던 것이지 어찌하여 사진과 건축에 그 책임이 있었던단 말인가. 그나마 발언권조차 봉쇄된 채 그 오명을 뒤집어쓰는 격이 되고 말았으니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사진 분야의 제거 원인을 동 위원회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첫째, 사진은 역사가 짧다.

둘째, 순수예술이 아니다.

셋째, 수준이 아직도 낮다.

넷째, 메카니즘을 이용하기 때문에 운운

다섯째, 대통령상을 선출하는데 곤란한 점이 있다 등의 일관성 없는 어색한 변명을 하고 있었다. 첫째, 문제에 대하여 사진의 역사는 130여 년으로 《제13회 국전》에서 사진이 편입되었으니 짧다면 짧을넌지[짧을는지] 모르나 이제 와서 그것을 이유가 될 수 있다.

둘째, 사진 전체가 예술은 아니며 예술적 가치 있는 것에 한함은 물론이요, 외국에도 현대 미술의 영역에 드러[들어] 있을뿐더러 이 점에 대하여서는 사진 외의 타 분야에도 마찬가지로의 이유가 될 것으로 안다.

셋째, 수준문제는 다소 긍정할 수 있는 문제이나 이 점도 유독 사진 분야만을 지적하면서 타 분야는 전부 높았었다고 크게 주장할 수 있을 것인지 묻고 싶은 문제이다.

넷째, 메카니즘 운운에 대하여 이것은 선진국가에서 기히 1920년대에 그렇기 때문에 더욱 근대적인 예술이라고 그 정의를 내린 바 있다. 이 문제를 50년이 경과한 현시점에서 재론한다는 것은 50년이 뒤떨어진 후진국임을 자인하는 행위로서 매우 수치스러운 문제이다.

다섯째, 대통령상을 선출하는데 무엇을 안다고 참여하느냐! 하는 문제는 냉정히 따져서 그러면 사진의 전문가 아닌 타 분야에서 사진 부문에는 어떻게 참여하여 귀중한 한 포식을 던졌는지 묻고 싶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에 대하여서는 이미 예술계의 가장 권위있는 원로작가들의 전담인 예술원의 미술분과위원회가 1960년에 사진의 《국전》 참여 타당성을 인정하여 통과된 바 있었고 1964년도에는 예술원 본 총회에서도 그 타당성이 인정 통과되어 사진은 예술계의 새로운 영역으로 그 정의가 내려져[내려져] 있다는 사실을 상기치 않을 수 없다.

금반 공청회에서 남관 화백은 말하기를 선진 각국에는 서예와 공예 부문은 없어도 사진과 건축 분야는 현대미술의 영역에 드러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여 양 분야의 제외란 부당하다고 역설하였고 그 외에도 미술계의 저명한 여러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부당함을 지적하였음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개혁안의 중요 골자를 보면 제도위원회가 운영위원을 선출하고 운영위원이 심사위원을 선출하도록 되어있어 이는 과거에도 말썽의 실마리가 되든 유파 의식의 연장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서 과거보다도 더 큰 혼란을 비저널[빛어널] 가능성도 있다.

다음은 수상 문제인데 대상을 과거에는 신인들에게 주던 것을 대통령상은 초대작가에게 국회의장상은 추천작가에게 주도록 되어 있어 이는 신인들의 의욕을 저해할 우려도 있는 것이다.

사진과 건축의 제외 문제는 이 문제가 강력히 작용될 경우에는 공예와 서예도 제거될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소홀히 다룰 수 없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가급적이면 관전을 민전으로 이양하려는 현시점에서 현대미술의 영역으로서 전 세계가 공인하는 사진과 건축 분야가 유독 한국에서만 제외된다는 문제는 문명 한국의 국가적인 수치라 하겠으며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문제라 생각한다.

법이란 만민에게 평등을 원칙으로 다루어야하며[다뤄져야하며] 《국전》의 제도 개혁은 전 미술계와 예술계가 공인될 수 있는 원칙하에서 편견과 유파 의식이 초월 된 초연한 자세에서 다루어져야만 될 것이다.

10) 섹트주의(sect主義). 조직 내의 한 분과가 자기들의 주장만을 내세우고 남을 배척하는 태도.

1970년 8월 6일, 『경향신문』 7면

「사진·건축은 분리, 국전운영위 결정 공예는 포함」

국전운영위는 5일 하오 3시 문공부 회의실에서 회합을 갖고 《국전》에 공예는 포함, 사진, 건축은 분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4시간에 걸친 열띤 논쟁을 벌인 이 날 회의에서 국전운영위는 국가 정책적인 요청에 따라 공예는 포함시키기로 했으며 사진 건축은 별다른 대안 마련 없이 분리하기로 했다. 따라서 10월에 개막될 《제19회 국전》은 회화, 조각, 서예, 공예 4개 부문이다.

1970년 9월, 『신동아』 (통권73호), p.437

이명동, 「(뉴스와 화제-사진) 사진, 《국전》에서 제외」

문공부가 위촉한 국전제도연구위원회에서는 《국전》의 운영을 쇄신하는 방안의 하나로 건축, 공예, 사진 등 3개 부문을 제외하고 순수미술만으로 《국전》을 개최한다는 것을 확정 짓고 공청회까지 열어 문공부에 건의한 바 있다.

물론 사진이 《국전》에서 제외된다는 이야기는 사진계로서는 충격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반응도 자못 큰 바가 있다.

일부 사진인들은 사진문화의 급격한 위축을 초래하는 처사라고 강력히 반대하는가 하면 또 이와는 달리 미술 속에 끼여 푸대접을 받을 바에야 차라리 《국전》에서 사진이 제외되는 것이 사진의 독자성과 권위를 위해서는 다행한 일이라고 찬성을 하는 사진인들도 있다.

이와 같이 사진계 자체 내에서도 의견의 통일성을 보지 못한 이유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먼저 지난날 《국전》 사진 부문의 운영이 전체 사진인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는 데 그 원인이 있다고 하겠다. 몰지각하고 무자격한 일부 심사위원들이 정실적인 심사를 자행해서 사단의 질서를 문란케 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들의 모범 작품 작품은 사진의 본질을 무시하고 문명에 역행하는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흑백사진에 붉고 푸른 물감으로 채색을 해서 칼라사진을 모방하는 따위의 추태를 노정하

는가 하면 이중 삼중의 액자로 표구를 한 풍경 사진을 입선작으로 뽑아 조소 거리가 되기도 했고, 심지어는 박제를 한 독수리에다 닭을 매어달아 찍은 조작된 사진을 특선작으로 뽑는다는가 하는 예가 있고 보면 《국전》 사진부의 무용론도 나올 만 하다고 하겠다.

어쨌든 사진이 국가 최고 예술 전당 참여의 길이 막히게 된다고 하는 데는 사진인으로서의 무척 섭섭하지만 종전과 같은 그러한 《국전》 사진부라면 차라리 제외되었으면 하는 심정의 사진인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밝혀두고 싶다. 그리고 다행히도 금년에 사진이 《국전》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종전의 심사위원은 전원 교체되어야만 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1970년 9월 9일, 『조선일보』 5면

「문화계 산책 ④ (사단) 《국전》서의 제외로 큰 충격」

개인전 대신 캘린더 관심

커머셜포토계 외엔 침체 상태

《19회 국전》에서 사진 부문이 제외된 가운데 가을을 맞은 사진작단은 산업 발달에 따른 커머셜 포토계의 약간의 성황을 빼고는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을 정도로 침체에 있다. 9월 초순인데도 개인전을 열고 있거나 준비하고 있는 작가도 몇 되지 않고 사진계의 커다란 관심은 예술과는 거리가 먼 캘린더 제작에 쏠려있는 형편이다.

가을에 개인전을 여는 사람은 10월 중순의 김테레사(14~18일) 정도이고 그밖에는 대부분이 아마튜어 그룹전.

대중과 링크하는 가장 중요한 발표 수단인 개인전을 '흑자를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기피하고 있는 사단은 《국전》에서도 제외되어 충격을 받고 있다.

우선 《국전》에서 사진이 빠진 데 대해 한국사진협회 이사장 정희섭 씨는 "국전제도연구위원회의 구성 자체에 모순이 있다"고 하면서 사진 부문이 《국전》에서 제외된 것은 사진예술에 대한 당무자와 일반의 이해 부족으로 돌렸다.

마치 여태까지의 《국전》 운영이 사진 때문에 지장이 있었던 것 같은 인상까지 줄 우려가 있어 난처하다는 정 씨는 “《국전》에서의 제거가 아니라고 주무 당국은 말하고 있으나 결국 사진계의 주장은 확실한 대안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사진협회 임원이며 66년도 사진 부문으로 최초로 국무총리상을 탄 김종현 씨 같은 이는 규모에 있어 《국전》의 사진 부문문만한[부문만한] 《대한민국사진전》이 성공적으로 실현된다면 사진계를 위해서는 하나의 발전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의견을 내세우고 있다. 내년 3월쯤 가능시 되는 《한국사진전》 실현은 낙관적이라고 사협은 보고 있다. 서면에 의한 정식 통고는 아직 받지 못했으나 구두로선 얘기가 꽤 있고 사단 육성을 위해 《한국사진전》은 꼭 실현돼야 할 것이라고 사협의 정 이사장은 거듭 주장하고 있다.

현재 사진만으로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프로급은 약 4~50명. 노작가들은 상업사진에 발 벗고 나서는 바람에 예술사진은 아마튜어의 분야가 되고 말았을 정도다. 현재 신경들을 쏟고 있는 캘린더 제작에도 상업-예술사진 두 가지가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상품선전에 밀착된 채 제작돼 온 게 캘린더 사진이다.

여기에 대중의 권태가 오면 다음 단계는 예술작품의 등장일 것이나 작품과 작가의 결핍이 결국 문제가 될 것이라는 것이 몇몇 소장 사진작가의 견해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70만대에 달하는 각종 사진기가 있다. 이중 대개는 가정에 퇴장되어 있고 사진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겠다는 사람은 사협 전체 회원 수의 약 배에 해당하는 1천 명쯤 될 것이라고 한다.

수출 증대에 수반한 상품 카탈로그, 공장 시설 소개 등 상업사진의 응용도가 점차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40여 명의 상업사진가(스튜디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10 군데)들의 작업량이 늘어가고 있다.

현재 전시회를 열고 있는 클럽은 서울공대사진부. 세운상가 새한컬러 전용 전시실에서 열고 있다. 숙대 사진부가 예총화랑에서 이달 말께 전시회를 열 예정. YWCA어머니사진클럽이 10월 말로 전시 일정을 잡고 있고 뉴포토사진클럽전이 12월 말에 있을 예정으로 있다.

사진계가 이렇게 부진한 것은 ①스튜디오 설치에 드는 비용 ②사진 재료의 저질(인화지, 마가진 등) 등의 이유도 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사진이 문화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높아지고 있음에도 우리의 사진계가 침체해 있는 것은 사진예술이 발전할 여건 조성이 되어 있지 않은 것도 문제겠지만 사진작가들의 열의와 자기 분야의 예술에 대한 깊은 이해와 성실한 접근이 없다는 데에도 이유가 있을 것 같다. <박한식 기자>

1970년 10월, 『예술계』(통권 제4호), pp.250-251

최인진, 「《국전》에서 제외된 사진」

금년으로 《국전》이 19회를 맞게 된다. 그러니까 《국전》이 처음 시작해서 13년 만에 사진이 제7부로 참가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하겠는데 사실 사진부가 《국전》에 참가하게 된 것은 한국 사진 예술의 획기적인 발전이었으며 침체되어 있던 사진예술을 크게 성장시켰다고 하겠다. 회를 거듭할 때마다 작품 수도 늘어났고 수준도 계속적인 향상을 보여 주었다. 그래서 어느 의미로는 아카데미한 사진의 한 유포를 낳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가능성까지도 보여 주었다. 그러나 문화공보부는 《국전》의 제도 또는 운영을 개혁하기 위하여 국전제도연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진과 건축을 《국전》에서 제외하기로 결의했고 그렇게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국전》 제도를 개혁한다는 것은 과거의 모순과 시행과정에 있어서의 운영의 잘못을 시정하자는데 근본적인 취지가 있었는데 결국은 사진과 건축을 엉뚱하고 불분명한 이유로 《국전》에서 제외하고 말았다.

《국전》 시즌이 되면 심사위원 구성에서부터 심사결과에 걸쳐 자격문제나 심사의 뒷배기로 불미스러운 비난이 오가는 홍역을 치르는 것이 사단의 한 병폐였지만 그러한 현상에도 불구하고 《국전》 사진은 계속 성장해 왔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사단 내부의 비난이나 권위 의식도 중요한 얘기지만 이런 얘기에 앞서 우리 사진의 가치성 내지 예술성에 대해서 의심받고 있다는 사실과 그것이 《국전》에서 사진을 제외하는 이유로 삼고 있다는 말은 우리의 사진이 사단 내부의 말썸이나 《국전》을 전후한 잡음보다 더 중요한 사실로 볼 수 있다. 이것은 사진에 대한 예술성을 의심하므로 야기될 존립문제까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순수성의 결여란 즉 사진이 실리적이고 상업적인 면이 강한 점이라고 해서 사진을 《국전》에서 제외하는 이유로 들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사진이 그 순수성을 지닌 작품에 한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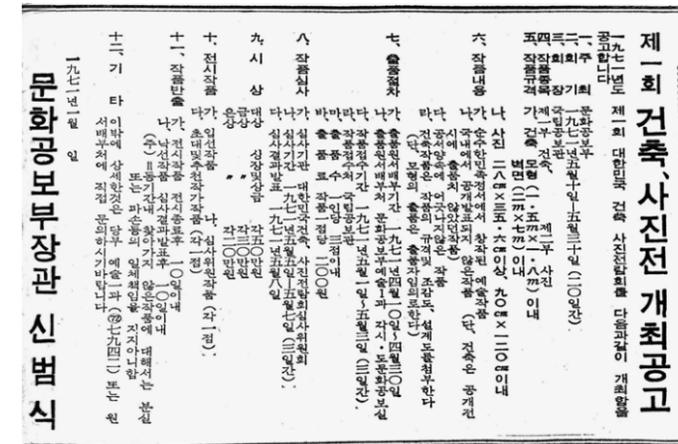
다시 말해서 오늘날 현대 문명 속에서 각 계층에 이용되고 있는 사진은 실로 그 분야가 광대한 것이라 하겠으며, 또 일요일이나 휴일에 산이나 들에서 하루의 즐거움을 남기고 추억하기 위한 기념사진으로부터 상품을 팔기 위한 광고 사진까지는 사진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하루의 즐거움을 기념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사진 자기 상품을 많이 팔고 선전하기 위하여 광고에 이용하는 사진 등은 비록 그것이 미적인 가치를 지니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아름답다고 하더라도 작가의 의도가 창작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술작품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다. 그러므로 작가가 창작적인 의도에서 카메라를 가지고 외계의 사물을 구현했을 때 우리가 말하는 예술작품이 탄생된다고 한다면 실리적이고 상업적인 면이 강하여 순수성이 결여되었다고 하는 얘기는 사진예술을 너무 모르는 어설픈 얘기에 불과한 것이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몇 회의 《국전》을 통해서 사진예술이 향상되는 현상을 봐왔고 앞으로도 계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국전》 속에서 계속 존재되는 것을 바라고 싶지만 제외된 이상 원하기는 별도의 전시를 통하여 《국전》과 같은 권위를 가지고 《국전》의 전통을 계승토록 했으면 사단 발전을 위해서 또는 사진인들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행사라고 생각한다. 어차피 회화가 중추

를 이루는 행사 속에 사진이 끼어 석연치 못한 대우를 받는 것보다 차라리 이번 이 기회를 통하여 별도의 사진만의 전시가 열리길 바란다. 그래서 사단에 있어서는 새로운 풍토 조성과의 사진인들이 참가하는 권위 있는 행사가 되어 사진 예술의 중흥을 이루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국전 제도연구위원회가 비친 별도 사진 전시를 기대한다.

1971년 1월 21일, 『서울신문』 2면

문화공보부, 「《제1회 건축, 사진전》 개최 공고」



1971년도 《제1회 대한민국 건축 사진 전람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함을 공고합니다.

1. 주최 문화공보부
2. 회기 1971년 5월 10일-5월 30일(20일간)
3. 회장 국립공보관
4. 작품종목
제1부 건축, 제2부 사진
5. 작품 규격
가. 건축 모형(1.5m×1.8m) 이내
 벽면(2m×7m) 이내
나. 사진 28cm×35.6cm 이상, 90cm×120cm 이내
6. 작품 내용
가. 순수한 민족정서에서 창작된 예술작품
나. 국내에서 공개 발표되지 않은 작품 (단, 건축은 공개전시에 출품치 않았던 작품)
다. 공서양속에 어긋나지 않은 작품
라. 건축 작품은 작품의 규격 및 조감도, 설계도를 첨부한다
 (단, 모형의 출품은 출품자의 임의로 한다)
7. 출품 절차
가. 출품원서 배부기간 1971년 4월 10일~4월 30일
나. 출품원서 배포처 문화공보부 예술1과 각 시·도 문화공보실
다. 작품접수 기간 1971년 5월 1일~5월 3일 (3일간)

- 라, 작품 접수처 국립공보관
- 마, 출품수 1인당 3점 이내
- 바, 출품료 작품 1점당 200원
- 8, 작품심사
 - 가, 심사기관 대한민국 건축, 사진 전람회 심사위원회
 - 나, 심사기간 1971년 5월 5일-5월 7일 (3일간)
 - 다, 심사결과 발표 1971년 5월 8일

- 9, 시상
 - 대상 상장 및 상금 각 50만 원
 - 금상 " 각 30만 원
 - 은상 " 각 20만 원

- 10, 전시 작품
 - 가, 입선작품
 - 나, 심사위원 작품 (각 1점)
 - 다, 초대 및 추천작가 작품 (각 1점)

- 11, 작품 반출
 - 가, 전시작품 전시 종료 후 10일 이내
 - 나, 낙선작품 심사결과 발표 후 10일 이내
 - (주)=동기간 내 찾아가지 않은 작품에 대하여는 분실 또는 파손 등의 일체 책임을 지지 아니함

- 12, 기타
 - 이 밖에 상세한 것은 당부 예술1과(7942) 또는 원서배부처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971년 1월 일
 - 문화공보부 장관 신범식

1971년 3월 20일, 서울신문 3면
문화공보부, 「제1회 건축 및 사진전」 개최일 변경 공고

제1회 건축및 사진전 개최일 변경 공고

1. 제1회 대한민국 건축및, 사진 전람회를 다음과같이 변경개최함을 공고합니다

회기	당초일자	변경일자
출품원서배부기간	1971. 5. 10~5. 30	1971. 9. 1~9. 20
작품 접수 기간	1971. 4. 10~4. 30	1971. 8. 1~8. 20
심사 기간	1971. 5. 1~5. 3	1971. 8. 23~8. 25
심사 결과 발표	1971. 5. 5~5. 7	1971. 8. 27~8. 29
	1971. 5. 8	1971. 8. 30

2. 기타사항은 지난 1월21일자 동아, 서울및 1월22일자 한국일보에 공고한내용과 동일함

3. 이밖에 상세한것은 당부예술1과 (☎7942) 또는 원서배부처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971년 3월20일

문화공보부장관 신범식

1971년 8월 21일, 『한국일보』 5면
「(미술이 여는 가을) 《국전》 10월 11일 개막. 래(來) 1일 《건축·사진전》 ‘스타트’ 로, 대구서 첫 지방전도」

미술 ‘시즌’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 20년 《국전》 사상 처음으로 건축과 사진 전람회가 회화 부문과 별도로 작품전을 갖는 《제1회 대한민국 건축 및 사진 전람회》가 오는 9월 1일부터 20일까지 20일간 서울 국립공보관에서 열린다.

오는 10월 11일부터 열리는 《제20회 국전》보다 한 달 앞서 열리는 이 건축 사진전은 하한(夏閑)을 넘긴 화단(畵壇)의 풍성한 미술의 가을을 위한 ‘위명업’이기도 하다.

지난해 《제19회 국전》에서 제외되었던 건축과 사진 부문에 대해서는 한국건축가협회와 한국 사진협회의 강력한 반발과 항의를 받고 정부가 금년 5월에 성대한 (상금과 규모에서) 별도전을 약속했었던 것. 하지만 이번에 열리는 별도전은 처음 약속보다는 4개월이 늦은 연수표(延手票)가 되고 말았다.

문공부는 올 1월에 《제1회 건축·사진전》은 예산 4백만 원(상금 2백만 원 포함)을 책정하고 총선거 전에 《국전》에 버금갈 만큼 성대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었다.

그러나 5월 10일부터 열렸던 전람회는 선거 뒤로 미뤄지게 되고 여름 더위가 막 끝나는 9월에 갖게 돼 출품 작가들의 창작활동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다는 것이 일부 작가들의 의견 검 불평이었다. 상금은 대상(2명) 각 50만 원, 금상(2명) 각 30만 원, 은상(2명) 각 20만 원씩으로

되어 있고, 특선과 입선엔 상장과 ‘메달’만 주기로 했다.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국립공보관에서 작품을 접수하게 되며 3일간 심사를 끝내고 심사 결과 발표는 8월 30일에 있을 예정이다.

작품규격은 건축 부문이 모형의 경우엔 1.5×1.8미터 이내, 벽면은 2×7미터 이내며 사진은 28×35.6센티 이상 90×120센티 이내로 되어 있으며 건축 작품은 작품의 규격, 조감도, 설계도를 첨부하도록 했다.

출품은 1인당 3점 이내로 하며 출품료는 1점당 2백 원이다.

작품전시는 입선작과 심사위원 작품 및 초대, 추천작가의 작품으로 한다.

그런데 이번 《제1회 건축·사진전》에 건축 부문 30여 점, 사진 부문에 5백여 점의 작품이 출품될 것으로 예상하는 문공부(주최)와 건협(建協), 사협(寫協)은 ‘포스터’를 만드는 등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한편 건축·사진 부문을 제외한 《제20회 국전》은 예정대로 10월 1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서울 경복궁 안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리며 《국전》 사상 처음으로 시행될 지방순회전시는 올해 첫 ‘스타트’로 경북 대구시 계명대학 강당에서 11월 20일부터 12월 3일까지 2주일간 열린다.

그러나 이 지방순회전시회는 작품의 운반과 지방 전시장의 협소 등의 이유로 조각과 공예미술 부문의 작품을 제외한 회화, 서예 부문의 특선작품, 심사위원 작품, 초대 및 추천작가 작품만이 전시된다.

이 지방에서 전시되는 축소판 《국전》은 전시 기간과 전시 장소 사정으로 1년에 1개 지역에 한하게 되어 지역 안배라는 점에서 약간 미묘한 점이 있다. 이번에 대구가 제1번이 된 것은 지난해 대구의 모 일간 신문사에서 첫 번째로 지방순회전시를 요청했기 때문이라고 관계자는 밝히고 있다.

전시작품의 분실 또는 파손에 대해서는 주최측(이번엔 대구시문화공보실과 예총 대구지부 공동 주최)에서 보상하기로 되어있어 지방문화 향상이란 점에서는 환영할 만하지만 만약의 경우 지방에서 부담할 재정적인 위험부담은 결코 적지 않은 것이 될 것이다.

이번 《국전》의 특징은 공예미술 부문으로 말썽 많던 대리 작품의 출품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재료, 전개도, 제작과정, 조성도, 가마, 합성도, 염직 종류, 용도 등을 밝힌 제작명세서를 첨부하게 한 점이다.

1971년 8월 25일, 『한국일보』 5면

「추천작가 인선 반발, 작가들 사협 천거에 “자격 없다”」

《국전》 사진 부문

《국전》에서 떨어져 나와 처음 열릴 《제1회 대한민국 건축 및 사진 전람회》의 사진 부문 심사위원단이 사진협회와 사진작가들의 불협화음으로 난산(難産)의 상태.

이 전람회는 지난해 《제19회 국전》에서 제외되어 20년 《국전》 사상 처음으로 따로 9월 1일부터 20일간 서울 국립공보관에서 열릴 예정. 말썽이 된 것은 심사위원 선출에 참여하게 되는 추천작가의 인선으로 사협(이사장 김종양 새한컬러 사장)은 지난 20일 문공부의 의뢰를 받아 김종양 씨 등 5명의 추천작가를 추대했었다. 그러나 재야 사진작가들은 이들 거의가 별로 작품활동도 없었으며 진정한 사진작가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까지 《국전》을 통한 초대 및 추천작가는 겨우 10명으로 사진전람회의 심사위원 선출은 이상 10명에 사협이 추대한 5명의 추천작가가 담당하게 된다.

이러한 사태에 대해 사단의 원로인 이해선 씨(대한사진예술가협회 회장)은 “진정한 작가도 아닌 사람이 어찌 작가를 뽑는 심사위원이 될 수 있는가. 《국전》의 심사위원이라면 작가적인 역량은 물론 후진이 따를 만한 인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한편 사단의 중진 이명동 씨와 임응식 씨는 지난 21일 문공부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항의를 했다. 문공부는 24일 곧 각계의 의견을 참작, 사협이 추대한 7명(24일 2명 추가)의 추천작가 중 4~5명의 추천작가를 지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971년 9월, 『포토그래피』(통권52호), p.63
「사단법인 한국사진협회」



《제1회 사진국전》심사위원선출전형위원회 광경(1971년 8월 25일)

《제1회 사진국전》심사위원선출전형위원회 구성

문화공보부에서 개최하는 《제1회 건축 및 사진 전람회》의 사진부 심사위원 7명 추천에 있어서 본 협회 이사회에서는 심사위원선출전형위원을 다음과 같이 범 사단적으로 구성하여 이를 위촉 하였다.

전형위원 명단 : (17명)

(1) 전 《국전》 심사위원

현일영, 이해선, 임응식, 정희섭, 이진중, 김조현, 이경모

(2) 초대작가 : (7명)

서순삼, 박필호, 안월산, 정인성, 이형록, 이명동, 김종양

(3) 추천작가 : (3명)

조현두, 문선호, 김종현

《국전》심사위원 전형위원회 개최

지난 8월 25일 하오 5시에 예총회강의실에서 전형위원회 개최하고 《제1회 사진국전》심사위원 7명을 선출하였다.

본 협회에서는 즉시 문공부 장관에게 심사위원 추천명단을 제출하였다.

명단: 임응식, 이해선, 이진중, 정인성, 이명동, 정희섭, 안월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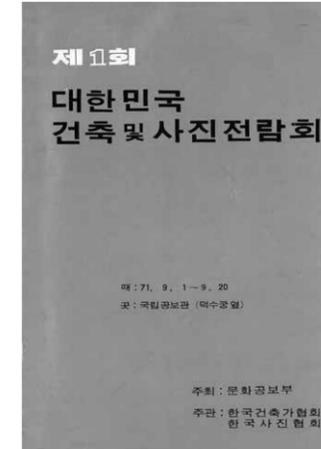
《사진국전》의 초대작가 추천 (7명)

본 협회에서는 《제1회 건축 및 사진 국전》이 개최됨에 즈음하여 사단 육성 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사진계 인사 중에서 초대작가 7명을 문공부 장관에게 추천한바 전원 지명을 받았다.

서순삼, 박필호, 안월산, 정인성, 이형록, 이명동, 김종양¹¹⁾

11) 그러나 도록에는 초대작가와 추천작가 명단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확인할 수 없다.

1971년 9월 1일-9월 20일, 국립공보관
문화공보부 주최, 《제1회 대한민국 건축 및 사진 전람회》



심사위원(무순)

위원장 김희춘

부위원장 이해선

사진부 분과위원장 임응식

위 원 이진중 이해선 안월산 정인성 이명동 정희섭

수상작 [건축, 사진 각 1점씩]

대상 <복악설경> 강상규

금상 <갈치> 홍순태

은상 <물놀이> 장진필

특선작 <속리산 문장대> 설찬수, <열연> 송우석, <공간> 이정강, <도강> 김용수, <유동> 유정재

입선작

<인생> 최원오

<길은 멀어도> 박홍두

<정심> 박홍두

<신록의 향연> 김석현

<국립공원 한려수도> 김기순

<역광> 신복진

<구성> 최병오

<승리의 순간> 왕상혁

<공존> 왕상혁

<파종> 박순길

<열연> 조진숙

<갈대> 신복진

<봄의 서곡> 권진희

<어부> 조동제

<한> 설찬수

<어머이의 정> 한경선

<세포> 이순홍

<불심> 이동우

<질주> 박현식

<동맥> 이중한

<속죄> 장원훈

<만삭> 서윤석

<꼬리> 손석현

<젊은이들> 안장현

<벽화> 박중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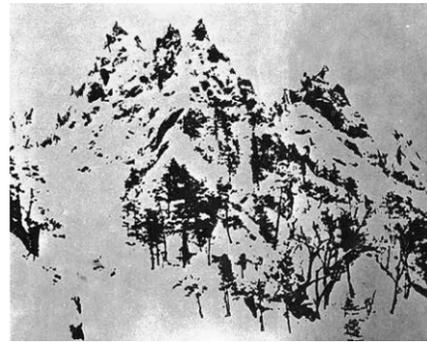
<어디서 팔까> 진대룡

<유회> 정중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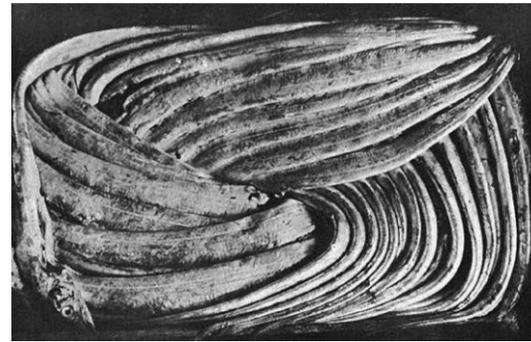
〈부활〉 육명심
 〈문고리〉 최 준
 〈작품 C〉 김광석
 〈직〉 김광석
 〈설총〉 이정훈
 〈나니〉 김기찬
 〈돌담〉 김생수
 〈촌〉 김생수
 〈평화의 메아리〉 허치권

〈페인팅〉 김일창
 〈비〉 정정희
 〈도장〉 배동준
 〈엄마와 모자〉 박상운
 〈7월〉 천세욱
 〈우중보도〉 유재정
 〈열중〉 노익배
 〈컴포지션〉 이정강
 〈비조〉곽수돈

〈건어장의 소년〉 김양보
 〈일터〉 장태원
 〈산마루〉 김용수
 〈수난〉 박충모
 〈세월〉 정규철
 〈원의 선율〉 이기철
 〈기구〉 이기철
 〈미역 따는 노파〉 유정재



대상 〈복악설경〉 강상규



금상 〈갈치〉 홍순태



은상 〈물놀이〉 장진필



특선 〈열연〉 송우석 [컬러]



특선 〈도강〉 김용수 [컬러]



특선 〈유동〉 유정재 [컬러]



특선 〈공간〉 이정강 [컬러]



특선 〈속리산 문장대〉 설찬수 [컬러]

1971년 9월 6일, 『중앙일보』 4면

「(문화산책) 제1회《사진·건축 합동전》, 주최한 문공부, 성의 없이 시늉만 낸 듯」

사진과 건축이 《국전》에서 분리되어 독자적인 전람회를 마련하였다. (1일~20일·국립공보관) 이 두 부문이 정부가 개최하는 미술전에서 제외된 것은 회화나 조각 같은 것과 전혀 이질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예총 산하 단체로서도 별개인 듯이.

문공부는 이 두 분야의 전람회를 지난해는 쉬고 이번에 비로소 제1회를 베풀었다. 당초 약속에 대한 이행이다. 그러나 두 분야만의 합동전이고 보니 더 이질적인 것의 억지 편법이 되고 말았다. 기왕에 분리할 바에는 사진 따로 건축 따로가 오히려 각기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것이겠다.

주최 측의 성의도 《국전》에 비해 반감된 느낌이다. 예산이 이중 삼중으로 들게 됨에 따라 여기에 소홀할 밖에 없는지 모른다. 우선 전시회장을 국립공보관으로 택한 것부터가 약점이다. 그 시설과 분위기로는 작품이 빛을 낼 수가 없다. 심지어 목록조차 5백부만 찍어 이들 동안 뿌리고 말았다. 주최자의 성의는커녕 마지못해 시늉만 낸 제2의 《국전》 꼴이다.

신인 응모도 마찬가지로이다. 《국전》 속에 있을 때와는 너무도 판이하다. 양적으로 질면에서도 비교가 안 된다.

많은 사람들이 결과를 예상하고 의욕을 상실했거나 출품을 거부했을 것으로 해석된다. 이런 상태라면 문공부는 아예 전람회를 포기하는 편이 국가의 위신상 낫다. 또 사단이나 건축계에서도 그런 위축되고 타락된 것에 응낙했다는 게 아무래도 이상하다.

1971년 9월 15일, 『대한일보』 [?]

임응식, 「(사진) 《제1회 건축 사진전》을 보고」

못 벗어난 회화적 작법

액자 등 장식사용은 오히려 역효과

〈북악설경〉 흑·판화 흡사〈물놀이〉 진부

임응식〈서울미대 교수, 사진작가〉

사진부가 《국전》에서 제외된 이후 2년 만에 《국전》 제2부 격으로 그 첫 선을 보이고 있다.

출품 수를 본다면 2년 전의 그것보다 60여 점이 준 3백 87점이고 질에 있어서도 별다른 진전이 엿보이지 않았다. 다만 한 가지 달라진 일이 있다면 기구상의 일로서 초대작가 수가 몇몇 늘었다는 사실인데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비정상적인 상태가 올바로 잡히고 명실공히 권위 있는 국가행사가 되기에는 이 정도의 개선으로서는 도저히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없다. 보다 초대작가 수를 늘릴 것은 물론, 추천작가 수를 대폭 확대 지정해야 할 것이다. 종래의 형편을 살펴본다면 심사에 중사한 극소수의 중진 및 중견을 제외하고는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신인 작가 일색이었다. 《국전》의 본래 목적은 결코 신인발굴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기성작가를 뒷받침하는 데에 그 주목적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진통을 겪는 한이 있더라도 중견작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과 분위기는 조성돼야 할 것이다.

이번 사진전에서 첫째 액자 사용문제를 지적하고 싶다. 출품된 작품의 거의가 서양화 또는 동양화의 액자 표구로서 감각적으로도 어울리지 않을 뿐 아니라 본질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장식성을 하고 있다.

액자의 덕택으로 작품이 생기를 나타냈다면 모르되 예외 없이 그 화려한 액자에 억눌려서 시각적으로 많은 손해를 보고 있다.

사진의 특질상 회화와는 달리 무액자가 이상적인 것이며 회화에 있어서도 현대회화는 무액자의 경우가 많은 것을 흔히 볼 때 사진에 화려한 액자를 쓴다는 것은 시대 역행도 이만저만 아니다. 둘째로 작화경향인데 이것 역시 회화적인 분위기에서 탈피 못 하고 있다. 사진은 사진으로서 갈 길이 따로 있는 것이다.

함부로 회화적인 사상에서 그의 입내를 낸다는 것은 사진예술의 발전을 저해하는 행동은 될망정 이롭지는 않다. 세째는 인화작업의 타인의존 문제인데 도대체가 작가를 자처하는 입장에서 최종적 작화를 탄 사람에게 의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흑백사진의 경우에도 그러한 사례가 있다고는 하나 ‘칼러’의 경우는 거의 ‘래버러터리’[래버러토리(laboratory)]의 힘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다. 시설이 없어서 그렇다고들 변명한다. 어쨌든 사진작가라고 한다면 ‘아마추어’나 ‘프로’를 막론하고 작화상의 기술과정을 모조리 스스로의 손으로서 이룩해야 한다.

끝으로 입상작에 한해서 말한다면 대상의 <복악설경>은 묵화(墨畵)나 판화에 보다 가깝고 은상의 <물놀이>는 흔히 취급된 소재로서 진부했고 금상의 <갈치>는 '디자인'적인 요소가 강하나 그래도 질감에 있어서는 호감이 간다.

1971년 10월, 『포토그래피』(통권53호), p.79

「《국전》 입상 특선 소감」

강상규

이토록 영예로운 대상을 미숙한 제가 차지하게 된 기쁨이란 작품 생활 10여 년을 통하여 처음 느껴본 보람이라 하겠습니다. 저의 작품(<복악설경>)이 예술적인 높은 수준에 의해서 뽑힌 것 이라기 보단 제가 좋아하는 작품이 심사위원의 마음과 일치된 결과라 생각하면서 먼저 이러한 기쁨의 영예를 저에게 돌려주신 심사위원 여러분과 지금까지 저를 아끼고 지도해주신 사단의 여러 선배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직장을 갖인[갖은] 몸으로 시간 생활에 쫓기면서 작품 활동을 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며 사진예술이란 깊이 들어갈수록 어렵다는 것 그러나 노력하면 된다는 것을 새삼 피부로 느꼈습니다. 다만 사진예술을 통하여 인생을 알게 되고 삶의 진리가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 이로서 또한 생활의 보람을 느끼면서 만족할 뿐입니다. 특히 제가 좋아하는 <복악설경> 작품이 대상한 데 대하여 더욱 기쁨을 느끼면서 앞으로도 계속 하여 여러 선배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보다 알찬 창작 활동에 전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감사드립니다. (대구 Y광화회 회장)

홍순태(서울)

Hasselblad 500C, Planar 80mm F2.8, F4, 1/15

선배님들의 알뜰한 지도와 편달로 명예로운 금상을 받게 되어 기쁜 마음 금할 길이 없으며 감사를 드립니다. 사진으로서 초년병인 저에게 주어진 무거운 짐을 벗기 위해서 앞으로 더욱 분발하

여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작품 생활을 계속하겠습니다.

갈수록 점차 힘든 이 생활에 어두운 구름이 벗겨지고 서광이 비칠 때까지 여러분의 아낌없는 격려와 꾸짖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장진필

벽찬 감격의 순간이었습니다.

퇴색하고 응고된 바스를 낚은 붓과 함께 밀어 젖혀두고 과감히 카메라와 벗한 지 수년!

갖가지의 고생과 노력, 인내와 연구 등 분망한 시련 끝에 영그러진 보람과 결실인가 봅니다.

광활한 대지 위에 외로히 선 나는 방향을 감각마저 의식치 못하고 내일을 기다리며 고난을 견디렵니다. 절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구요?

이제부터 출발이니까요. 어쩌면 너무나 멀고 험준한 여로일런지 모르지만 계속 가보렵니다. 가다간 다정한 벗도 만나고 어진 스승도 뵈게 되겠지요.

나에게 주어진 오늘의 이 영광은 나를 더욱 채찍질하게 되었군요.

이젠 일어서야 될 시간입니다. 그리고 떠나야겠습니다. 광막한 대지의 무대를 향하여……

작품제작 데이터.

젠자 브로니카 S2 니콜 75mm 렌즈, Kodak-120 필름, 대구 영신당 현상, f11, 역광을 이용하고 배경은 맞은편 산을 넣었음.

특선 <속리산 문장대> 설찬수(부산)

Nikkormat, 55mm, f11, 1/60, Tri-x

도시 생활, 종일 사무실에 억맨 메마른 나날을 벗어나 휴일마다 야외로 산책 겸 운동길의 악세사리로 카메라를 갖고 다니게 된 것이 사진을 시작한 동기가 되었다. 사진 동호인과 선배들의 지도와 권유를 받아 여러 사진전에 출품했으며 입선도 여러 번 하였지만 이번처럼 《국전》에서 특선을 받아 한없이 즐겁기만 합니다.

특선 소감 <유동> 칼라, 유정재(서울)

데이터: 핫셀브라드 C500[500C], 프라나[Planar] 2.8, 80mm f11, 40초

사진이 건축과 같이 《국전》에서 분리되어 처음으로 열린다는데 큰 뜻을 가지고 나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였다. 사진을 일컬어 발견의 예술, 구상의 예술 등으로 표현하는데 나 같이 항상 분주히 돌아다니지 못하는 입장에서는 구상이 유일한 작품의 대상이 된다. 작품 <유동>은 어느 날 저녁 태평로 3층 다방에서 자동차의 물결을 내려 보고 있노라니 백라이트의 점이 선으로 연결되고 그 선은 무한한 내일을 연상케 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어떤 충동을 받아 비 오는 날을 기다려 구상한 데로 재현해 보았으나 실패를 거듭해 3번째로 성공을 시킨 작품이다. 나 나름대로 큰 기대를 걸고 출품하였으나 유독 칼라는 한 점도 입상하지 못한 점이 못내 석연치 않다. 내 노력이 부족한 탓이려니 하고 더 한층 정진하련다.

1971년 10월, 『포토그래피』(통권53호), pp.81-82

서상덕¹²⁾, 「《제1회 사진 국전》의 언저리, 전근대적인 심미안으로는 새로운 사진 영상을 심사하지 못한다.」

카메라는, 마치 펜과도 같이,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

그것은, 곧 인간의 이성과 감정에 직결되어 있다. 로버트 캡파[Robert Capa]의 사진은 그의 정신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며, 카메라는 단지, 그것을 완성시켰을 뿐이다.

-존 스타인벡[John Steinbeck]-

《제1회 대한민국 건축 및 사진 전람회》(흔히 이것을 《사진 국전》이라고 한다)가 9월 20일로써 막을 내렸다.

해마다 수준급 이하의 작품들이 판을 친 것과 같이 이번에도 대작이나 문제작은 없고, 앞날이 촉망되는 신인 몇 사람을 발견하는 데 그치고 말았다.

우리나라 사진작가(프로나 아마추어를 막론하고)의 사진술이 기껏 이 정도 밖에는 안 되느냐는 질문을 스스로 물어볼 만큼 질적으로 보잘것없기는 하지만, 그러나, 필자가 아는 한 우리 사진계는 높은 수준에 올라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다만 그것은 각 개인의 역량에 속하는 데다가 《사진 국전》이 《국전》답지 않게 운영되므로써 파생되는 현상에 불과하다.

우선 전시된 작품부터 보기로 하자.

흑백 부문에서는 김생수 <촌>, 노익배 <열중>, 왕상혁 <승리의 순간>, 박홍두 <길은 멀어도>, 유정재 <미역 따는 노파>, 최원오 <인생>이 각각 개성을 지녀 인상적이었다.

세련되고 노련한 솜씨의 일단을 엿보여주는 이 작품들은 그들의 날카로운 카메라 아이가 수준급 이상이라는 것을 증명해 준다.

대상적인 강상규의 <복악설경>은 작화상의 기법이 훌륭한 것 외에는 아무 내용이 없다. 내용이 없는 작품이란 생명이 없고, 따라서 감동을 주지 못한다.

사진이 예술로서의 의의를 지니는 것은 거기 담긴 내용이 풍부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 작가의 사상은 좀 더 높은 차원에서 모티브를 캣팅했어야 할 것이었다.

금상의 <갈치>를 다룬 홍순태 씨는 질감의 묘사가 부족한 것 같고 거기서 더 나아가 독자적인 턴에 이끌어 올리지 못한 아쉬움이 앞선다.

이 작가의 사진 역량은 신인답지 않게 무게가 있으나 대담한 트리밍과 샤프네스가 더했다면 훌륭한 작품이 되었을 것이다.

장진필의 <물놀이>가 은상작이라는 데에는 이의가 없지 않다. 몇 해 전 경북에서 이런 유형의 작품으로 상을 탄 신인이 있었고 그때 사단의 화젯거리가 된 적도 있었다. 장 씨는 그것을 물

랐다고 하더라도 심사위원들은 잘 알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시상은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이 작품은 화면의 처리나 기법이 흠잡을 곳이 없긴 하지만 작품으로서는 너무나 같은 류의 모방이기 때문에 수상작으로는 부적당하다.

바꾸어 말하면, 눈먼 심사위원들이 선량한 작가에게 상을 줌으로써 오히려 욕을 먹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심사위원들의 사진 영상에 대한 식견이나 교양이 어느 만큼이냐는 것을 실감 나게 해 주는 좋은 본보기로서 나는 이 <물놀이>를 알 들 수 없다.

참고로 그들이 내놓은 초대작가 작품들을 보기로 하자.

임응식의 <일우(一隅)>나 이해선의 <삼매경(三昧境)>을 보고 이것을 리얼리즘 사진이나 또는 살롱사진이라고 우길 사람은 없을 것으로 안다. 그것도 '작품'인가고 반문할 것이 뻔하다.

임 씨는 자타가 공인하는 리얼리즘 작가요, 이 씨는 살롱사진의 원로급 대 선배다.

그러나 <일우>가 리얼리즘 사진인지 또는 주관주의 사진인지 불행하게도 나는 알지 못한다.

심사위원의 초대작품이 이 정도인데 반해서 모든 입선작은 그보다 훨씬 사진다운 사진이었다는 것을 발견한다면 《사진 국전》의 한 단면을 짐작하고 남을 것으로 나는 생각한다.

무릇 작품 심사란 쉬운 일이 아니다. 사람이 사람을 심판하는 지난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심판에 앞서서 고매한 식견과 인격이 갖추어져야 할 것이며, 그리고 내일의 사진 영상이 어떻다는 것을 알으므로써 비로소 가능할 것이다.

해마다 되풀이되어 온 <국전>에서의 잡음-모략, 중상, 특정 개인에 대한 욕설, 편파적인 정실, 심사 파벌 싸움이 올해에도 예외 없이 일어났다는 것은 이와 같이 심사위원들의 마음 자세나 식견이 의심스럽기 때문이라는 것을 나는 지적하고 싶다.

그 예로서 한 가지 더 설명해 보자.

이번 <국전>에서 두드러진 현상의 하나는 칼라 사진의 풍작이다. 그러나 이 부문에 대해 심사위원들은 몹씨[몹시] 인색했다. 겨우 4점의 작품만이 특선했을 뿐 입상작은 하나도 없다.

그러나 심사위원이나 초대작가의 '작품'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의 사진이 많은 것을 나는 볼 수 있었다.

문제점은 바로 여기에 있다.

어떤 심사위원은 칼라 작품들이 스스로 현상, 인화 작업을 하지 않고 라보[현상소(laboratory)]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입선이나 입상을 공공연히 반대하고 나섰다고 전해진다.

그렇다면 흑백에 있어서는 과연 몇 사람의 아마추어가 자기 스스로 현상하고 인화했을 것인가? 모르긴 하지만 겨우 몇 손가락을 꼽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심사위원이나 초대작가 가운데서도 타인의 손을 빌어 작업한 인사가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프로도 아닌 아마추어 작가에게 (프로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그렇게 값비싼 칼라 사진 현상과 인화 시설을 강요하는 것이 과연 심사위원으로서의 가져야 할 태도요 자세일까?

세상이 돌아가는 형편, 국제 사진계가 흘러가는 흐름을 직시한다면 이런 망언은 감히 입 밖

12) 서상덕(徐尙德, 1926). 신문기자이자 사진평론가. 『경향신문』 편집위원 역임.

에 내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모름지기 낭설이기를 바랄 뿐이다.

다 알다시피 칼라 사진은 30년 남짓한 짧다면 짧은 역사밖에는 없지만 세계의 거의 모든 사진가들은 사진 미학의 새로운 돌파구를 여기에다 뚫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이다.

지금은 칼라의 '재현'이 아닌, 자기의 색채, 그 작가만의 독특한 '색 표현'을 위해서 모든 사진가들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사진 영상의 미학은 심사위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소박한 '초창기의 회화적인 흑백 사진'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해 주었으면 좋겠다.

사진은 선택의 예술이라고도 한다. 셔터를 누를 때 사진가는 벌써 선택하고 만 것이다. 과거와 미래 사이의, 현재의 어느 순간이라는 시점을 선택한 행위로서 그는 벌써 작가로서의 일차적인 역할을 다 한 셈이 된다. 사진가 아닌 스타이백조차도 명언을 남기지 않았는가!

다시 입선작들을 보자.

김생수의 <산마루>, 박상윤의 <엄마와 모자>, 이순홍의 <세포(洗布)>, 박충모의 <수난>, 김석현의 <신록의 향연>, 장태원의 <일터>는 입선만으로 대접하기에는 섭섭한 느낌이다.

김용수의 <한강>은 스냅이긴 하지만 특선으로 뽑힌 데에 이의가 없으나, 유정재의 <유동>이나 송우석의 <얼연>은 앞에 지적한 바와 같이 너무나 유형이 많은 작품이기 때문에 특선감이 못 되는 것이다.

특정한 개인을 예로 들어 미안하지만 김종양 씨의 초대작 <영원한 불꽃>은 칼라 사진만이 새로운 사진 미학의 바탕이라는 것과 김 씨의 작가적 역량의 저력을 과시해 주었으며 초대작품의 면목을 세웠다고 말할 수 있다. 그는 심사위원을 사퇴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이는 현명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엄마와 모자>의 콤포지션이나 <일터>나 <산마루>가 훨씬 사진적인 사진이며, <신록의 향연>이 오히려 더 흥미 있는 앵글이라는 것을 심사원들은 몰랐단 말인가? 아니면 칼라 사진에는 색맹이란 말인가?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전근대적인 심미안으로서는, 그리고 넓고 소박한 관념만으로는 사진 영상의 새로운 비약을 기약할 수 없다는 것이다.

거의 대다수가 인정하지 않는 권위 의식에서 사로잡혀 사단의 오늘과 내일의 발전을 저해하는 이분들의 자중을 나는 간곡히 희망한다.

새로운 시각언어의 세계는 새롭고 의욕적인 작가와, 그들을 뒤쫓는 전국의 아마츄어에게 맡겨져야 한다는 것을 기대하지 않을 수 없다.

<사진평론가>

1971년 10월, 『포토그래피』(통권53호), pp.83-85

장원훈, 「(독자의 투고) 《제1회 사진 국전》을 보고서」

종전의 <국전>에서 분리된 후 처음으로 건축과 같이 개최된 <국전> 사진을 보고서 그간의 경위를 설명하고 중책을 담당했던 심사위원 제씨에게 소감을 밝히면서 한국사진협회의 무궁한 발전에 이바지 하고져 한다.

재론할 것은 못 되지만 사진과 건축이 일부 미술계 인사의 배타적인 책동으로 말미암아 형식적으로는 분리라고 하지만 사실상 축출 당한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굴욕적인 결과에 대해서는 그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니라 지도적인 사진인 전체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처를 어루만지면서 사진의 독자성을 부르짖고 분발을 다짐한 것이 순수작가들이 아니었는가 한다.

그러니 만큼 <제1회 사진 국전>은 전체 사진인뿐만 아니라 동호인들의 지대한 관심 속에 준비되었으며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여망 속에서 <사진 국전>을 빛나게 하기 위하여 주무 당국에서도 특별한 배려와 성의를 가지고 제약된 조건 하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본다. 그러므로 주무국과 한국사협에서는 운영위원을 선출하여 과거의 <국전>에 미비한 규정을 보완했고 특히 사진협회 권위를 위해서 초대작가와 추천작가 및 <국전> 심사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화 하였다.

규정은 설혹 사협에 그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운영 면에 있어서 잘못이 있으면 사단 발전에 큰 방해가 된다고 고려되었으며 또 사협 이사들의 대다수가 <국전> 출품작가라는 입장을 재고해서 원만과 공정을 기약하는 마음으로 심사위원 추천을 초대작가와 추천작가 17명에게 위촉했던 것이다.

이러한 처무 방안은 범사단적인 견지에서 질서와 도의 확립을 위한 순수한 마음에서 집행된 것이다. 그리하여 지난 8월 24일 18시 예총 회의실에서 초대작가와 추천작가로 구성된 전형위원(초대작가. 현일영. 임응식. 이건중. 김조현. 이경모. 정희섭. 이해선 씨 외 새로 추천된 김종양. 박필호(불참). 정인성. 서순삼. 안월산. 이명동. 이형록 씨.

추천작가. 문선호. 조현두(불참) 김종현 제씨. 15명이 참석해서 <국전> 규정에 따라서 심사위원 7명을 초대작가 중에서 선출했다. 선출 방법으로는 정원인 7명을 꼭 연기명하고 무기명 비밀 투표하여 중[총]다수표로 당선되도록 했으며, 당선자가 동점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우선적으로 택하고 다음은 종전의 <국전>에서 심사를 적게 담당할 인사를 택하기로 했다. 이러한 일련[련]의 절차는 공정과 화목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심사포토를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던 것이다. 투표 결과 임응식. 이건중. 이해선. 이명동. 정인성. 정희섭. 안월산 제씨가 선출되어 이번 <국전> 심사를 담당하게 되었다. 회의는 김종양의 지성적인 사회로써 사단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화해 무드 속에서 원만히 진행되고 종결을 본 것은 자랑할 만한 일이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사 결과에 잡음이 불등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이러한 일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초대작가 추천 결과에 대해서도 왈가왈부 비난이 있었던 것인데 초대작가를 추천한 사

협 이사님들에게는 값진 교훈이 되었다고 본다. 물론 발전도상에 있는 모든 사물에는 진통이 따르게 마련이라고 생각도 되지만 이번 심사 결과는 기대를 너무나 어긋난 상태가 벌어진 것이 되었다. 수상 작품을 비롯하여 특선 작품과 입선작에 이르기까지 물의가 계속적으로 불등[비등]하고 있다. 극단적인 출품자들은 낙선작품 전시회를 주장하는가 하면 내년도에는 출품을 포기하겠다고도 한다. 더욱이 심사위원 일부 인사에 대해서[대해서] 그의 인격과 심사 능력을 불신하고 있다. 이러한 사태는 모처럼 기대했던 예술제전을 망치는 결과가 되었을 뿐이어서 《국전》이 조금도 개선되지 않았다는 슬픈 기록만을 남기고 말았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잡음이 전부 옳다고는 생각되지 않으나 그들의 정당한 주장에 더욱 공감이 간다. 두말할 것도 없이 심사위원은 전체 사진인이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회귀하는가를 똑바로 알아야 할 때가 왔다고 하겠다. 심사위원 중에는 아직도 구태의연하고 아무런 연구와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퇴보적인 사고방식 속에서 정실과 감정이 작용하여 출품자들의 정성어린 작품을 무책임하게 다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심사위원이라면 작품만을 놓고서 사진의 본질을 존중하며 예술적 차원이 높은 창작품을 선택한다는 것은 상식적인 것으로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수상작을 비롯해서 특선 또는 입선작 중에는 사진의 본질에서 변질했거나 동양화 흉내를 낸 작품. 초점이 맞지 않은 작품. 내용과 구도가 너무도 빈약해서 창작 예술사진인지 기념사진인지 알쏭달쏭한 작품 아닌 사진이 많다는 사실은 필자의 독선적인 견해라고만 할 수 없을 것이다.

낙선작 중에도 좋은 작품이 많다는 사실은 무엇을 뜻하는가? 물의에[물의의] 원인 중 필자가 항간에서 들은 몇 가지를 간추려서 앞날에 참고자료가 되었으면 한다. 첫째 일부 심사위원 중에는 자신의 주관성보다 경험이 많은 다른 심사위원의 발언에 추종했다는 것. 둘째 자유스럽고 엄숙해야 할 심사장에서 상식 이하의 무식론을 맹발[망발]하여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특정 작품의 당박[당락]에 막대한 영향력을 주었다는 것. 그리고 신체상의 노쇠현상에서 오는 시력 장애로 말미암아 사진의 생명이라고도 할 초점과 카메라 '진동'에서 오는 촬영 실패를 분별치 못한 점. 네째로 20년 전에 작품 풍조에서 탈피 못 한 견해를 가지고서 사진의 본질을 저버린 작품을 수상작 또는 특선작으로 선정한 점. 사적 감정이 작용해서 정상적인 판정을 못 했다고 여겨지는 점. 등등은 일부 심사위원의 인격과 덕망을 흐리게 한 최대의 원인이 아닌가 한다.

또 하나의 불신 이유으로써는 과거의 《국전》에서 낙선된 작품을 사감정에서 특선작으로 고집하여 여타의 입선작에서 1, 2점 특선작으로 승격시켰다는 등의 웃지 못 할 과오를 범한 사람이 이번 심사진에 있었다는 항간의 말이 자자하고 보면 그럴듯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불의의 대상 인물이 우리들 사단을 자[좌]지우지 한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며 허용되어서도 안 된다.

이상의 유포된 말이 사실이건 낭설이건 오늘의 젊은 세대의 사단에서는 용납되거나 타협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러한 인사는 자기 스스로가 반성하여 사단의 앞날을 위해서 물러날 것이며 후배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어야 마땅할 것이다. 오늘의 사단은 젊어졌으며 비록 젊은 사진인들이 경험 면에서나 기교 면에서는 미숙할지 몰라도 썩어빠진 비양심적인 선배보다는 깨

끗하고 순수한 감각 속에서 창작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선배들이 이룩하지 못했던 국제무대에서 눈부신 업적을 쌓아가면서 내일에 살고 있다는 것을 똑똑히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오늘의 사단은 노쇠한 썩어빠진 선배님들의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전진하고 있으며 담보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존경 칭찬도 하지 않는 자기 혼자만의 권위 의식에 사로잡혀서 후배들에게 호통과 호령만을 일삼으며 자기의 작품 차원조차 인식 못 하는 위인도 있다는 것은 사단을 위해선 비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사람은 자성하지 않으면 멀지 않아 망신살이 뻗치고도 콧대가 부러질 때가 올 것이다.

필자가 너무 과격하다고 하겠지만 이번에 전시된 모 위원 of 작품을 보아도 그러하다.

(이번만이 아니다)

수상작품만이 이러한 조건을 가지고 만들어진 우수한 작품으로 생각하십니까? 물 끓듯이 비난하는 사진인들의 비판을 들어보십시오! 이외에도 납득이 잘 가지 않는 것이 있다.

'칼라-작품'은 작가 스스로가 하지 않고서 현상소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자신이 손대지 않는 것이므로 수상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한다. 만일 이러한 말이 사실이라면 또 하나의 모순성이 생긴다. 왜냐하면 심사위원이란 전술한 바와 같이 작품만을 놓고서 구도와 색조 내용과 화면에서 풍기는 '이미지' 만으로 판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흑백사진은 작가가 하는 것이고 칼라는 타작이다? 라는 판정은 좀 경솔하지 않은가 한다. 물론 작가라면 스스로가 촬영해서 작품 완성까지 손질하는 것이 원칙임을 모르는 필자는 아니다. 다만 작품만을 보고 흑백사진은 작가가 하고 '칼라'는 타작이다. 하는 견해가 잘못이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심사위원이 작화 과정을 직접 보기 전에 어떻게 자작과 타작을 단정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이다. '칼라'도 자신이 하는 사람이 있고 흑백도 현상소에서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만일 현상소에서 작화 할 경우 개인의 사정상 타인의 시설을 빌려서 자기 자신이 작화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단순한 역측에서 타작이라고 채점에 영향을 준다면 작품 원판까지도 타인의 물건이라고 판정하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론도 설법하다. 이러한 문제를 꼬치꼬치 캐게 된다면, 다음 《국전》에서는 사전에 작화 과정을 증명받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 좋겠다. 권위 있는 국제전에서도 칼라사진을 본인이 꼭 작화했다는 말을 듣지도 못하고 들었다는 작가도 만나본 적이 없다. 필자가 무식한 탓인지도 모르겠지만?

이와 같은 문제점이 사실이건 낭설이건 좋은 교훈으로 명심하고 전체 사진인들은 단결하여 또다시 《국전》 심사위원이라면 인격과 덕망이 겸비하여 작품 차원과 성실성에 있어서도 전체 사진인들의 사표가 아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소에는 가장 유식하고 작품 차원을 과시하면서 안하무인격으로 후배 동료들을 호령하고 야유하든 위대한? 그분의 작품은 전체 심사위원에게 먹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작품은 작품이라기보다 기념사진으로써 자기 안방에나 걸어들 것이지 예술사진의 전당이라고도 할 수 있는 《국전》에 버젓이[버젓이] 전시한다는 것은 전체 사진인들을 무시하거나 출품자 전원을 모독하는 횡포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무책임한 행동은 광기 있는 노인이나 지각없는 무식한 아이들의 장난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라 하겠다. 지금이라도 늦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한 치의 양심이 남아있다면 자신을 위하여 사단을 위하여 말없이 물러나는 것이 최상의 길임을 권고한다. 이 길만이 자신의 반생을 빛내는 것이요! 사단을 육성하는 길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끝으로 수상 작품과 특선 작품에 대하여 언급하기로 하자.

평소에는 존경하는 심사위원 선생님 특히 지각없고 신념 없는 위원님들에게 묻고져[묻고자] 합니다. 《국전》 작품 심사란 작품의 구상과 형성, 색조의 적부 내용의 충실성 그리고 작가의 주관이 소재에 내포된 '이미지'를 어떻게 다루었으며 재현된 화면이 심사위원에게 어느 정도 '어필'됐는가에 달렸다고 본다. 과연 이번 흑백사진이 점유한 수상작이 칼라 사진의 특선작 〈도하〉(김용수 씨 작), 〈공간〉(이정강 씨 작), 〈유동〉(유정재 씨 작) 보다도 월등하게 좋다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는지? 평소에 있어서 사진의 본질과 구상, 그리고 창작의 예술성 '샷타-찬스'에서 포착한 귀중한 소재의 감정 등등을 강조해 온 여러분이 아니었든가요.

잡음이 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우수한 작품을 다음 《국전》에 전시하여 다른 미술 부문에 앞서서 전시회를 가질 것을 절실히 바라면서 부탁할 뿐이다.

1971년 10월, 『포토그래피』(10권 4호), pp.86

강대환, 「《건축 및 사진 독립전》 심사 발표를 보고」

69년도 《제18회 국전》을 (사진부가 참가된 지 6회째) 마지막으로 건축과 사진부가 《국전》에서 제외되었었다. 건축과 사진은 순수예술이 아니라는 논란 끝에 밀려나게 되었던 것이다. 그때 모든 사진인들은 후진성을 탈피 못 한 우리네 사회의 예술인과 일반들의 사진에 대한 인식 부족을 개탄했었다. 그러나 건축과 사진 부문에서는 굴욕을 참고 견디며, 문공부 당국에 꾸준히 건의를 거듭한 결과 7년도부터 독립전의 개최가 허락되었다. 이리하여 모든 사진인은 활기를 되찾고 큰 관심과 기대를 걸고 사진은 예술이 아니라고 외면했든[외면했던] 예술인들에게 사진예술을 재인식시킬 기회라고 저마다 창작에 열을 올리고 독립전에 참가한 것은 재언할 필요도 없다. 《국전》이 가지는 의의는 창작예술작품의 전시에 있다고 하겠다. 이 본래의 규정을 도외시하고 심사위원이란 대장들의 이기적이고 무분별한 심사로 말미암아 《국전》의 권위를 추락시키고 전 사진인들의 기대를 여지없이 뒤엎고 실망과 조소의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본인이 아는 사진예술이란 사진이 지니고 있는 사진 본래의 특수성을 살린 것이라야 하는 것으로 안다. 이 특수성이란 회화와 달리 메카니즘에 의한 작가의 의사 표현 즉 창의성이 내포된 것이라야 비로소 예술이라는 범주에 속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아무런 예술적인 요소를 찾아볼 수 없는 내용 없는 사진은 예술사진이라고 규정지을 수가 없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의의 깊고 선구적인 사명감의 비중이 컸어야 할 제1회 독립전 사진부의 심사결과는 사진예술을 모독하고 정부와 사진인들을 우롱한 후안무치의 무책임한 심사라 할 수 있고 심사위원들의 횡포와 수준 이하의 의견과 몰지각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는 곧 초대작가 선출과 심사위원 선정에서부터가 잘못 저지러진 처사라 할 수 있다. 한 두 분을 제외하고는 심사위원이 되었다는 자체부터가 의아스러운 사람들이다. 웬 초대작가가 7명이나 선출되었으며 그 선출의 요건과 기준을 도대체 어디에 두었던 것인지 문제점이라 할 수 있겠고 이런 무의견 하고도 무모한 처사가 사협 이사진에 의해서 결정되었다는 것 자체부터가 틀려먹은 요인의 하나라 할 수 있고 사진이론에 밝고 공적이 있는 것 만이로서[만으로서] 대가가 될 수 없는 것일 것이며 표현 묘사의 우열은 이론만으로써 좌우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런 견지에서 볼 때 심사위원 선정은 심중[신중]을 기했어야 할 것이었다. 이런 결과가 과거 어느 콘테스트에서도 볼 수 없었던 또 하나의 전례를 남겨놓았으며 이번 독립전을 여지없이 망쳐놓아야 말았다. 입선작들을 재쳐두고서라도 대상을 위시한 입상작들이 거의가 예술사진이라기보다 동양화의 묵화나 판화 같고 상업사진조의 풍경 사진에다 모방 사진까지도 한 몫 끼어 있어 창의성 없고 내용 없는 수준 이하의 초보적인 저속한 복사형식의 단순성을 면치 못한 유치의 미학성을 보이는 정도의 것이라 할 수 있고 예술의 범주에 속할 수 없는 졸작들이라 할 수 있다. 이런 등속(等屬)의 저질적인 사진이 입상 입선의 영예를 차지하게 된 것은 심사위원들의 무의견의 소치라 할 수 있다.

이런 양상이고 보니 유명 작가의 창작품은 탈락되고만 형편이 되고 말았다고 볼 수 있다. 이리하고 보니 유명 작가들은 마치 출품하지 않았던 것 같은 인상마저 주고 있다. 지난 9월 7일 자 『중앙일보』 문화산책란에 “이런 상태라면 문공부는 아예[아예] 전람회는 포기하는 편이 국가의 위신상 낫다”라는 기사는 정부와 사진인의 무성의를 탓하는 소리라고도 할 수 있으나 사진하는 사람으로서 무안하고 수치스러운 마음 금할 수가 없다. 사진예술을 곁핳기로 알고 있는 이런 따위의 추락된 심사가 가져온 부작용은 의외로 큰 파문(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리다가는 앞으로의 사진예술의 기대는 영영 이 사회의 조롱과 천대를 받을 것을 기우하는바 이번 독립전에서의 사진예술을 서로가 모독한 장본인인 심사위원들은 저지른 죄과를 자책하고 책임감을 통감하는 뜻에서 사단에서 물러나가야 말당[마땅]할 것이다. 끝으로 《국전》은 한 개 단체가 가지는 콘테스트나 회원전이 아니라는 것을 깊이[깊이] 명심해 주기 바란다.

1972년 4월, 『포토그래피』(통권59호) p.86

「《제2회 건축 및 사진전》 개최 공고」

제 1972년도 《제2회 대한민국 건축 및 사진 전람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한다.

1. 주최: 문화공보부
2. 회기(전시): 1972년 9월 11일-9월 30일(20일간)
3. 전시장소: 국립공보관
4. 작품종목: 건축 부문(일반건축부, 새마을주택부) 사진 부문
5. 작품 규격 및 조건
 - 가. 건축작품:(1.8메타×3.6메타) 이내 건축 작품은 작품의 규격 및 조감도와 설계도를 첨부한다.(단, 모형의 출력은 출력자의 임의로 한다)
 - 나. 사진작품: (90cm×120cm)
6. 작품내용:
 - 가. 순수한 민족 정서에 창작된 작품.
 - 나. 민족 총화의 새 가치관을 고취시키는 작품.
 - 다. 국내외에서 공개 발표되지 않은 작품.
 - 라. 새마을 운동에 따른 농어촌 주택 개량에 활용할 수 있는 작품.
7. 출품절차:
 - 가. 출품원서 배부기간: 1972년 7월 1일~8월 23일.
 - 나. 출품원서 배부처: 문화공보부 예술1과, 한국사진협회(㉟9216), 한국건축가협회(㉟4613), 각 시도 문화공보실, 각 시도 예총 지방 지부.
 - 다. 작품 접수기간: 1972년 8월 24일~8월 26일(국립공보관)
 - 라. 출품료 및 출품 수 제한: 1점당 200원(1인당 3점 이내)
8. 시상:
 - 가. 공모상:
 - 대통령상 1명 상장 및 상금 800,000원
 - 국무총리상 2명 상장 및 상금 각 500,000원
 - 문화공보부장관상 3명 상장 및 상금 각 200,000원
 - 나. 초대추천작가상:
 - 초대작가상 1명 상장 및 상금 500,000원
 - 추천작가상 1명 상장 및 상금 300,000원
9.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당부 예술1과(㉟3820)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972년 6월, 『신동아』(통권 94호), p.352

이명동, 「(뉴스와 화제-사진) 추천작가 증원 문제」

다가오는 9월에 열릴 《제2회 대한민국 건축 및 사진 전람회》를 앞두고 사진계는 초대작가와 추천작가의 증원 문제를 둘러싸고 찬반양론으로 의견이 엇갈린 채 자못 시끄러워지고 있다.

이 초대작가와 추천작가 증원 문제는 지난해 제1회전 때 완전히 매듭을 짓고 넘어갔어야 할 것을 초대작가 7명만을 증원하고 추천작가의 증원을 손을 대지 못한 채 한해 뒤로 미루었기 때문에 올해 그 불씨가 되살아난 것이다.

지난해 문공부가 《건축 및 사진전》의 운영을 보다 원만히 하기 위해서 전람회 운영 요강을 새로 보완하고 이를 사진협회에 시달한 바 있었다. 이 운영 요강에는 종전(《국전》에 포함된 당시)의 불합리하고 폐쇄적인 초대작가 및 추천작가의 자격 규정을 대폭 완화하는 한편 실력 있는 중견작가들이 빠짐없이 모두 《사진 국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문호를 개방하는 예외 조항을 신설, 삽입했다.

문공부의 이러한 조치는 당연하다고 하겠으며 사단 일부에서는 쌍수를 들고 환영했고 사진협회 이사회에서도 즉각 초대작가와 추천작가의 증원 문제를 토의한 바 있었으나 불행하게도 7명의 초대작가만을 증원하는 데 동의를 했을 뿐 끝내 추천작가의 증원은 결정짓지 못했다. 즉 전람회의 핵심이 되는 가장 중요한 추천작가의 증원 문제는 세 사람의 기존 추천작가(김종현 문선호 조두현)들의 맹렬한 반발로 사진협회에서 그 추천을 포기한 바 있었다. 사진협회에서는 문공부의 뜻을 받들어 올해 제2회전에는 기어코 추천작가의 증원 문제를 결정짓는 한편 지난해 사협 이사들의 감정대립으로 누락된 2, 3명의 초대작가의 증원도 해결 지을 것을 결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지난해처럼 사진협회 단독으로는 결정지을 수 없게 되었고 주무당국인 문공부의 의견은 잡음을 피하고 또한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기존 초대작가 13명의 동의를 얻어 결정짓도록 지시한 바 있어 사진협회에서는 지난 4월 23일 초대작가 회의를 소집, 의견을 물었다.

이 회의에서는 증원을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으로 갈려 장시간 옥신각신하던 끝에 초대작가 3명 이내와 추천작가 10명 이내로 해당자를 각자 추천하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는 것을 결의했다.

그 후 4월 29일 2차 초대작가 회의에서는 13명의 초대작가 전원이 제출한 추천서를 개봉한 결과 과반수인 7표를 얻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

초대작가 후보로는 정도선 씨가 6표, 임석제 씨가 5표, 김원영 씨가 4표였고 추천작가 후보로는 장원훈, 김광덕 양 씨가 6표, 서선화, 최민식, 김한용의 3명이 각각 5표를 얻어 모두 과반수를 얻지 못했다.

결론적으로 단 한 사람의 초대작가나 추천작가의 증원도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 초대작가들의 태도라고 하겠다.

그러나 사협 이사회에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초대작가나 추천작가의 증원을 관철하겠다고 팽팽히 맞서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命〉

1972년 8월, 『공간』(통권67호), p.2

임응식, 「《건축 사진전》 심사후감, 사진부의 문제점」

건축과 사진이 《국전》으로부터 분리되어 올해 제2회전을 갖게 되었다. 사진부의 출품 수는 작년보다 10점이 줄은 377점이었으나 질에 있어서는 오히려 훨씬 나아졌고 또 대작들이 많았다. 그리고 칼라사진이 급격히 많아진 것도 눈에 뜨인다. 이와 같이 질이 좋아지고 대작이 많아졌고 또 칼라 사진이 급증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은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문제 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걱적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대한 일은 출품작 특히 칼라사진의 대다수가 자작이 아닌 타작이라는 점이다. 이는 실로 한국사진의 앞날을 어둡게 하는 최악의 현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못 예술이 그렇듯이 예술가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 사상을 표현할 수 있는 기술의 수련일 것이다. 이 기술의 습득 없이는 절대로 예술가가 될 수 없다는 것 정도는 삼척동자라도 알 수 있는 일이다. 그런데 기이하게도 우리나라 사진계에서는 소위 작가를 자처하면서 촬영 이후의 제작과정인 현상 인화 작업을 깡그리 타인의 힘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서 카메라와 돈만 있다면 하루아침에도 예술가(사진가)가 될 수 있는 분야가 사진계라는 것이다.

물론 사진창작에 있어서는 촬영까지의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암실작업을 경시할 수 있느냐 하면 결코 그렇지 않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와 좋은 앵글이었다 할지라도 현상이나 인화 과정에 있어서 잘못이 있을 때는 실패로 돌아가고야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오히려 촬영기술에 못지않는 중요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 암실작업이라 하겠는데 어찌 이 중요한 제작과정을 남의 손에 맡겨야[맡겨야] 하겠는가 말이다. 음악가가 타인에게 연주해 해 듣고 화가가 타인에게 그려 듣고 문필가가 타인에게 창작해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얼마나 편리한 예술가들일까 말이다. 암실작업이 쉬우면 쉬운대로 또 어려우면 어려운대로 스스로의 기술로서 이룩하는 것이 작가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겠는가. 혹자는 암실시설 문제를 이 유 삼는다마는 기업화할 것이 아닐 바에는 재래(在來)의 암실시설에 약간의 추가만 한다면 개인용 작품제작에는 충분할 것이다. 자작 문제에 관해서 비근(卑近)한 예를 들어본다면 이웃 일본에서는 사진 잡지의 아마추어들을 위한 월레콘테스트 마저도 흑백 칼라 할 것 없이 자작에 한해서 모집하고 있다. 그런데 하물며 아카데미를 지향하고 스스로 최고권위를 자랑하고 있는 국가행사인 여기에 작가를 지망해서 과거(科擧)를 보는 분들이 타인의 힘을 빌려서 출품하고 있다고 해서야 말이 되겠는가 말이다. 만약 부득이한 경우라고 한다면 건축부의 예를 따서 공동제작 명의로 출품하는 것이 작가의 양심적 태도가 아니겠는가.

임응식

1972년 9월 6일, 『경향신문』 5면

「막 올린 《2회 건축 사진전》, 모두 4백 10점 출품」

새마을 주택 부문 신설로, 전람회 성격에 새 문제점
건축 부문은 질양(質量) 모두 높아져

건축 사진 분야의 《국전》인 《대한민국 건축 및 사진 전람회》는 문공부가 '건축 및 사진 부문의 특수성을 살리고 획기적인 발전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본래의 《국전》에서 분리, 독립전을 열게 된 후 올해가 두 번째다(11일부터 20일간 국립공보관에서).

우선 금년의 출품 현황을 보면 작년의 총 3백 98점에 비해 약간 늘어난 4백 10점으로 사진 분야가 3백 77점으로 작년보다 10점이 줄어든 반면 건축 분야는 33점으로 작년의 11점보다 3배로 늘었다.

이러한 건축 분야의 출품 증가는 건축 인구가 늘어났다는 현상을 반영하는 것이며 또한 이 전람회가 신진 건축가로서 인정받는 관문의 역할도 한다는 측면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금년의 특징은 새마을 주택 부문을 건축 분야에 신설 병행한 것으로 이는 정책적으로 정부 시책을 반영한 것으로 순수한 창작 진흥을 위한 전람회 성격상 문제를 남겨놓고 있다. 오히려 새마을 주택부를 병설할 것이 아니라 건축 부문의 작품 내용에 새마을 주택을 첨가하는 것으로 충분했을 것이라는 의견들이다.

왜냐하면 최근의 건축 개념이 옛날의 단독 건물 위주에서 전체적인 인간 환경 개선으로서의 건축의 예술성과 타당성을 추구하는 것(건축가 김수근)으로 변화되고 있으니 구태여 구별할 필요가 없을 듯하다는 것. 금년에는 작년의 대상(2명 각 50만 원) 금상(30만 원) 은상(20만 원) 등 시상 제도를 《국전》과 같이 대통령상(80만 원) 국무총리상(50만 원) 문공부장관상(20만 원)으로 바꾸고 초대작가상(50만 원) 추천작가상(30만 원)을 신설한 것은 《국전》에 비해 푸대접이라는 건축, 사진계의 불만을 완화시켜 줄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대통령상이 1명이라 건축, 사진 2개 분야뿐인 이 전람회의 대통령 수상작품 결정이 두 부문에서 둘러가며 타는 식이 될 가능성을 극복, 작품 위주로 심사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더욱 강조된다.

금년도 작품 수준은 건축 분야가 질양 면에서 향상된 데 비해 사진 분야는 작년과 비등하다는 것.

사진 부문 심사위원이며 전체 심사위원장인 이해선 씨는 "사진 부문에서 작년보다 대작이 많았고 칼라 작품이 늘었으나 특출난 작품이 별로 눈에 띄지 않았고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말한다.

한편 김수근 씨(건축분과 심사위원장)는 "건축 분야에서 많이 향상되었고 신진들이 많이 출품한 것은 반가운 현상"이라고 전제하고 새마을 건축부 신설에 대한 문제는 "건축 개념의 변화가 단독 건물에서 집단 공공적인 인간 환경 개선의 방향으로 가는 데 따라 별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히고 오히려 이 두 분야를 《국전》과 분리한 의도를 지금까지 이해할 수 없으며 앞으로는 한 자리에서 열려야 한다는 소신을 밝히고 있다.

금년에는 제도적으로 개선된 점이 있었지만 앞으로 전시장이거나 《국전》과의 관계 등 이제껏 논란이 되어왔던 문제점들이 제도나 운영 면에서 어떻게 더 보완되느냐는 과제는 남아있다고 하겠다.

1972년 9월 11일-9월 30일, 국립공보관

문화공보부 주최, 《제2회 대한민국 건축 및 사진 전람회》



심사위원(무순)

위원장 이해선

부위원장 정인국

사진 분과위원장 안월산

위원 이건중 이경모 임응식 김조현 이형록

초대작가(무순)

김조현 김종양 박필호 서순삼 안월산 이건중 이경모 이명동 이해선 이형록

임응식 정인성 현일영

추천작가(무순)

김중현 문선호 조현두

수상작

구분	부문	명제	성명
〈일반공모상〉			
대통령상	건축(새마을주택)	〈공예공장이 있는 마을계획안〉	윤우석 이병호 정혁진
국무총리상	건축(일반건축)	〈민속문화원계획안〉	양영일 이수문 홍인선 신기철 김대기
〃	사진(칼라)	〈셋날〉	배동준
문화공보부장관상	건축(새마을주택)	〈단위성장주택〉	김 훈
〃	건축(일반건축)	〈국민학교 계획안〉	이형주 송재승 전은배
〃	사진(칼라)	〈석양〉	이정강

〈초대추천작가상〉

초대작가상 건축 〈통일교회본부〉 엄덕문

추천작가상 사진 〈석양〉 문선호

특선작

사진(흑백) 〈새마을의 구성〉 이순홍, 〈건설보〉 이수중, 〈조기청소〉 김석만

사진(칼라) 〈영상〉 홍순태, 〈합심〉 조동제, 〈평화의 기도〉 김영민, 〈군중〉 유정재

입선작

〈오리떼〉 신복진 〈하동〉 한보녀 〈통일기원〉 김영민

〈안개〉 김석현 〈설견〉 권중수 〈벽〉 홍순태

〈대결〉 허승언 〈산촌의 새아침〉 김인식 〈오징어 배〉 김지후

〈작업〉 이영우 〈귀로〉 〃 〈작업〉 이준무

〈길〉 윤무창 〈조국을 위한 당부〉 〃 〈마늘〉 손석현

〈청과시장〉 허 철 〈취우〉 김광석 〈4·8일〉 이명복

〈환상〉 장원훈 〈귀로〉 한기수 〈문고리〉 이정강

〈석양의 강변〉 박기동 〈느티나무 밑〉 설제수 〈월척부대〉 노익배

〈수향〉 박하원 〈승리의 순간까지〉 〃 〈맥〉 김인태

〈회유〉 김성숙 〈아침〉 오복근 〈설원〉 유정재

〈지붕〉 박해진 〈남해의 아침〉 염규평 〈금수강산〉 박봉희

〈구성〉 이대원 〈환희〉 광수돈 〈구회의 여체〉 이기철

〈작업〉 조동제 〈관동〉 이순홍 〈자애〉 이중한

〈장독대 있는 풍경〉 허우성 〈개구쟁이〉 최인석 〈잔조〉 이병나

〈수선〉 김석만 〈어촌점경〉 박상윤 〈설경〉 박충모

〈모정〉 정영모 〈해〉 심영보

〈점의 대화〉 정정희 〈활동의 계절〉 이기철

심사위원·초대·추천작가 작품

심사위원 〈설령〉 이건중, 〈섭리〉 안월산, 〈빨래터〉 임응식, 〈석상〉 이경모, 〈절규〉 이형록,

〈앞뜰〉 김조현, 〈납량〉 이해선

초대작가 〈사진의 진리〉 현일영, 〈고찰의 오후〉 정인성, 〈굴 따는 여인〉 이명동, 〈무상〉 김종양

추천작가 〈고궁춘경〉 김중현, 〈오브제〉 조현두, 〈석양〉 문선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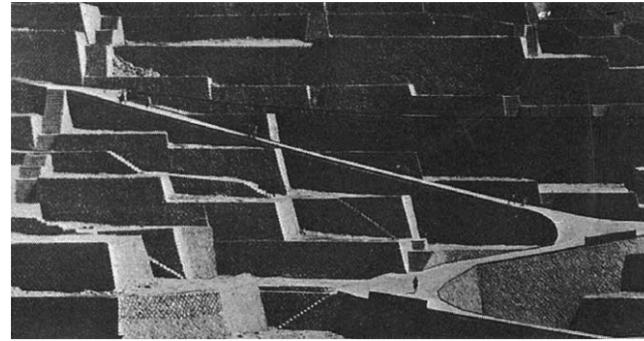
국무총리상 사진(칼라)
〈셋날〉 배동준



문화공보부장관상 사진(칼라) 〈석양〉 이정강



추천작가상 사진 〈석양〉 [컬러] 문선호



특선 사진(흑백) 〈새마을의 구성〉 이순홍



특선 사진(흑백) 〈건설보〉 이수중



특선 사진(칼라) 〈영상〉 홍순태



특선 사진(흑백) 〈조기청소〉 김석만



특선 사진(칼라) 〈평화의 기도〉 김영민



특선 사진(칼라) 〈합심〉 조동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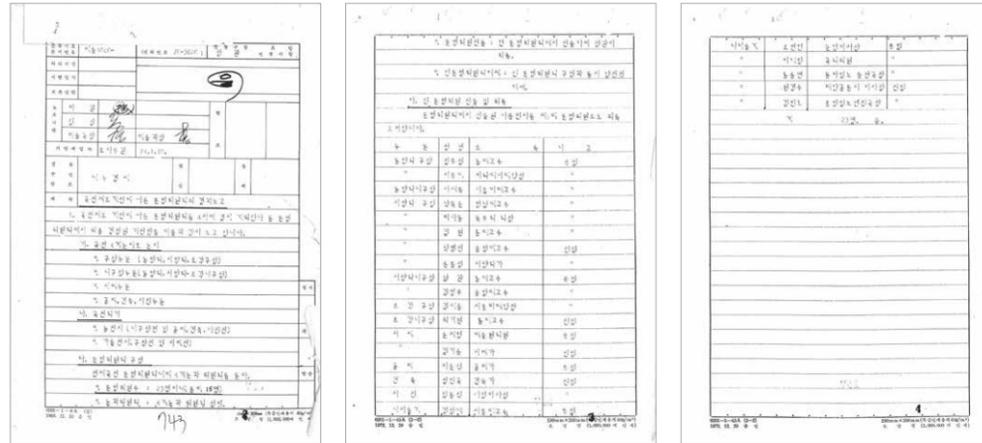


특선 사진(칼라) 〈군중〉 유정재

[1971년 1972년 출품 및 입선현황과 상금현황' 부문은 1973년 도록의 내용과 중복되므로 생략]

1973년 1월 10일, 국가기록원-제22회국전철, pp.741-743

문화공보부 예술국 예술1과, 《국전》 제도 개선에 따른 운영위원회 결과보고



기안일 1973.1.10.

문서번호 예술 1060-

제목 《국전》 제도 개선에 따른 운영위원회 결과보고

1. 《국전》 제도 개선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4차에 걸쳐 개최한 바 동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 개선안을 다음과 같이 보고 합니다.

가. 《국전》 4개 분야로 분리

- . 구상 부문(동양화, 서양화, 조각 구상)
- . 비구상 부문(동양화, 서양화, 조각 비구상)
- . 서예 부문
- . 공예, 건축, 사진 부문

나. 《국전》 회기

- . 봄 전시(비구상전 및 공예, 건축, 사진전)
- . 가을 전시(구상전 및 서예전)

다. 운영위원회 구성

- . 전체 《국전》 운영위원회 내에 4개 분과 위원회를 둔다.
- . 운영위원수: 23명 이내(종래 15명)
- . 분과위원회: 4개 분과 위원회 설치.
- . 운영위원 선출: 현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여 장관이 위촉.
- . 현운영위원회 해체: 신 운영위원회 구성과 동시 발전적 해체.

라. 신 운영위원 선출 및 위촉

운영위원회에서 선출된 다음 인사를 제3대 운영위원으로 위촉코져 합니다.

부문	성명	소속	비고
동양화 구상	장우성	홍대 교수	유임
"	이유태	이화대미대 학장	"
동양화 비구상	서세옥	서울미대 교수	"
서양화 구상	박득순	영남대 교수	"
"	이마동	목우회 회장	"
"	김 원	홍대 교수	"
"	박영선	중앙대 교수	신임
"	손응성	서양화가	"
서양화 비구상	남 관	홍대 교수	유임
"	김영주	중앙대 교수	"
조각 구상	김세중	서울미대 학장	"
조각 비구상	최기원	홍대 교수	신임
서예	손재형	예술원 회원	유임
"	김기승	서예가	신임
공예	이순석	공예가	유임
건축	정인국	건축가	신임
사진	임응식	사협 이사장	"
비미술계	김성태	서울대 교수	유임
비미술계	조연현	문협 이사장	유임
"	이해량	국회위원	"
"	홍승면	동아일보 출판국장	"
"	원경수	대한공론사 이사장	신임
"	김인호	중앙일보 편집국장	"

계 23명. 끝.

1973년 6월 4일, 『신아일보』 5면

「(낙서) 뒤늦게 들어난 정실 심사로 진통...사협」

○...권위 있는 전람회가 생기기까지는 수없는 진통을 겪어야 한다. 그러나 그 전람회가 올바른 기능을 발휘하고 전통이 제대로 서기까지에는 더욱더 많은 고난을 겪고 그것을 이겨서 비로소 되는 것. 《대한민국 건축 사진전》이 《국전》에서 떨어져 나와 독립된 전람회로 발족된 지 3년, 올해 제3회 전람회를 가지게 된다. 제1회전이 끝나고 난 뒤 초대작가를 대량 임명해서 한동안 말썽이 일어난 일이 있었다. 제2회전 때에는 별 말썽이 있는 것 같지 않더니 제3회전을 앞둔 요즘 다시 사단에서는 제2회전 심사의 비위(非違)를 둘러싸고 말썽이 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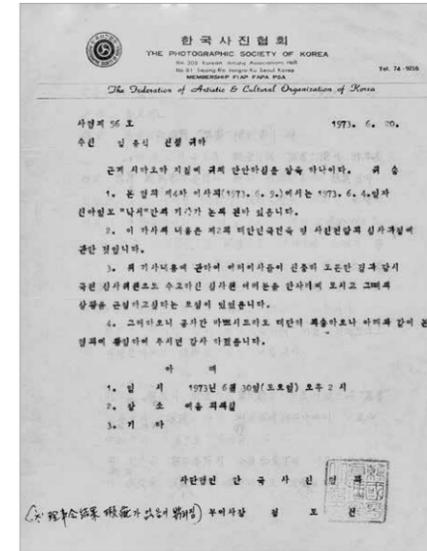
○...당시 심사위원 임 모 씨가 특선 작품의 심사를 끝낸 뒤 느닷없이 낙선된 H 씨의 작품을 특선시켜달라는 데서 일이 발단되었다. 같이 심사에 참가했던 심사위원의 입을 통해 사단에 알려지게 된 사건의 진상을 보면 이미 특선 작품은 7점으로 규정돼 있었고 거기에 따라 작품 7점이 특선에 뽑혔으니 그 속에서 한 점을 낙선시킬 수도 없는 일이어서 분과위원장이던 안월산 씨는 이에 반대했으나 임 모 씨의 끈질긴 요구로 결국 1점을 더 추가해서 H 씨의 작품이 특선 대열에 끼게 된 것이라고 한다.

○...문제는 이때 억지로 특선의 영광을 차지한 H 씨는 연속 4회 특선이 됐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초청작가[추천작가]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생긴 데 있다. 《제3회 국전》 공고를 앞두고 문공부에서는 사협의 추천을 받아 곧 추천작가를 위촉하게 된다. 이미 이러한 사실이 사단에 알려지게 된 이상 만일 H 씨가 추천작가로 위촉될 경우 행정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는 움직임마저 일고 있어 어수선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

○...가장 공정해야 할 《국전》 심사 과정에서 개인적인 친소(親疎) 관계에 얽매어 심사 규정을 무시하고 그러한 비위를 저질렀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며 “더욱 그 장본인이 거기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자숙을 한다고 해도 또 모를 일인데 그 뒤 사단을 대표하는 자리에 앉아 추호도 반성하는 기색도 없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이것이 시정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사협의 존재 의의는 없는 것이며 《국전》도 그러한 사람들의 독단 장이 되고 말 것이니 사협이 없어지는 한이 있어도 그냥 가만히 두고 보지는 않겠다”고 분개하는 회원들이 많아 주목이 된다. 아물든[아무튼] 사진 부문의 정상적인 발전을 위해 이 전람회의 정상화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할 일.

1973년 6월 20일, 임응식 스크랩북 자료

「한국사진협회, 《제2회 건축 및 사진 전람회》 심사과정 관련 이사회 소집 공문」



사협 제56호 1973. 6. 20.
수신 임응식 선생 귀하

근계 시하초하 지절에 귀체 만안하심을 양축 하나이다. 취송

1. 본 협회 제4차 이사회(1973. 6. 9.)에서는 1973. 6. 4.일자 『신아일보』 「낙서」란의 기사가 논의된바 있습니다.
2. 이 기사[기사]의 내용은 《제2회 대한민국 건축 및 사진 전람회》 심사과정에 관한 것입니다.
3. 위 기사 내용에 관하여 여러 이사들이 신중히 토론한 결과 당시 《국전》 심사위원으로 수고하신 심사원 여러분을 한자리에 모시고 그때의 상황을 근청하고 싶다는 요청이 있었읍니다.
4. 그러하오니 공사간 바쁘시드라도 대단히 죄송하오나 아래와 같이 본 협회에 왕립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

1. 일시 1973년 6월 30일(토요일) 오후 2시
2. 장소 예총 회의실
3. 기타

사단법인 한국사진협회

부이사장 정도선

1973년 7월 27일, 『서울신문』 6면

문화공보부, 「제3회 건축 및 사진전」 개최 공고

제 3 회 건축 및 사진전 개최공고
 1973년도 제 3회 대한민국 건축 및 사진전람회 다음과 같이 개최함을 공고합니다

1. 주 최: 문화공보부
 2. 회 기(전시): 1973년 9월 1일~9월 20일(20일간)
 3. 전 시 장 소: 국립현대미술관
 4. 작 품 종 목: 건축부문(일반건축부, 새마을주택부) 사진부문

5. 작품규격 및 조건:
 가. 건축작품: (1.8메타×3.6메타) 이내 건축작품은 작품설명서를 첨부하여 부시도 및 설계도를 제출한다. (단, 모형의 출품은 출품자의 임의로 한다)
 나. 새마을 주택설계에 있어서는 농촌 소득 및 생활 조건에 부합한 주택 구조 및 위생 연료통의 개량을 고려하고 건축비를 최소화함으로써 들일 수 있는 저렴하고 경제적인 건축자재를 제시한다
 다. 사진작품: (90센치×120센치) 이내 흑백 및 칼라 작품

6. 작 품 내 용:
 가. 순수한 민족정서에서 창작된 작품
 나. 유신 이념의 새 가치관을 고취시키는 작품
 다. 우리나라 공서양속에 어긋나지 않는 작품
 라. 새마을 주택은 농어촌 주택 개량에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작품
 마. 국내외서 공개 발표되지 않은 작품(단 새마을주택 작품은 예외로 함)

7. 출 품 절 차:
 가. 출품원서 배부기간: 1973년 8월 1일~8월 16일

8. 시 상:
 가. 대통령상 1명 상장 및 상금 800,000원
 나. 국무총리상 2명 상장 및 상금 각 500,000원
 다. 문화공보부장관상 3명 상장 및 상금 각 200,000원
 라. 초대작가상 1명 상장 및 상금 500,000원
 마. 추천작가상 1명 상장 및 상금 300,000원

9.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국립현대미술관(22-7206) 한국건축가협회(72-4613) 한국사진협회(74-9216)에 직접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973년 7월 일 문화공보부장관 윤주영

1973년도 《제3회 대한민국 건축 사진 전람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함을 공고합니다

1. 주최: 문화공보부
2. 회기(전시): 1973년 9월 1일~9월 20일 (20일간)
3. 전시 장소: 국립현대미술관
4. 작품 종목: 건축 부문(일반건축부, 새마을주택부) 사진 부문
5. 작품 규격 및 조건:
 - 가. 건축작품: (1.8메타×3.6메타) 이내
건축작품은 작품 설명서를 첨부하여 부시도 및 설계도를 제출한다. (단, 모형의 출품은 출품자의 임의로 한다)
 - ※ 새마을 주택설계에 있어서는 농촌 소득 및 생활 조건에 부합한 주택 구조 및 위생 연료통의 개량을 고려하고 건축비를 최소한으로 들일 수 있는 저렴하고 경제적인 건축자재를 제시할 것
 - 나. 사진작품: (90센치×120센치) 이내 흑백 및 칼라 작품
6. 작품 내용:
 - 가. 순수한 민족정서에서 창작된 작품
 - 나. 유신 이념의 새 가치관을 고취시키는 작품
 - 다. 우리나라 공서양속에 어긋나지 않는 작품
 - 라. 새마을 주택은 농어촌 주택 개량에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작품
 - 마. 국내외서 공개 발표되지 않은 작품(단 새마을주택 작품은 예외로 함)
7. 출품 절차:
 - 가. 출품원서 배부기간: 1973년 8월 1일~8월 16일

나. 출품원서 배부처: 국립현대미술관, 각 시도 문화공보실, 각 시도 예총 지방 지부, 한국건축가협회, 한국사진협회

다. 작품접수: 1973년 8월 22일~8월 23일(국립현대미술관)

라. 출품료 및 출품수 제한: 1점당 200원 (1인당 3점 이내)

8. 시상

가. 공모상

대통령상 1명 상장 및 상금 800,000원

국무총리상 2명 상장 및 상금 각 500,000원

문화공보부장관상 3명 상장 및 상금 각 200,000원

나. 초대, 추천작가상

초대작가상 1명 상장 및 상금 500,000원

추천작가상 1명 상장 및 상금 300,000원

9.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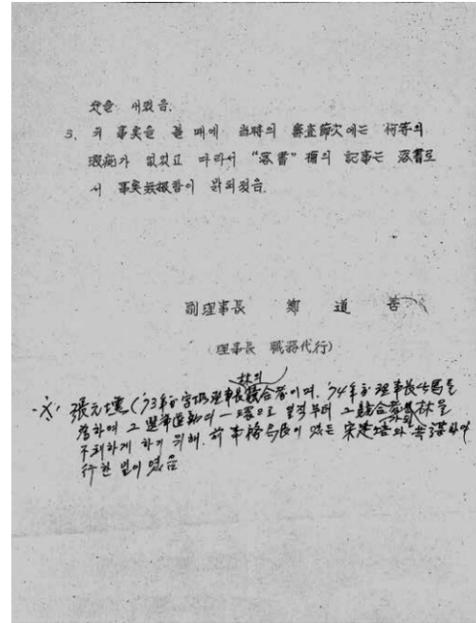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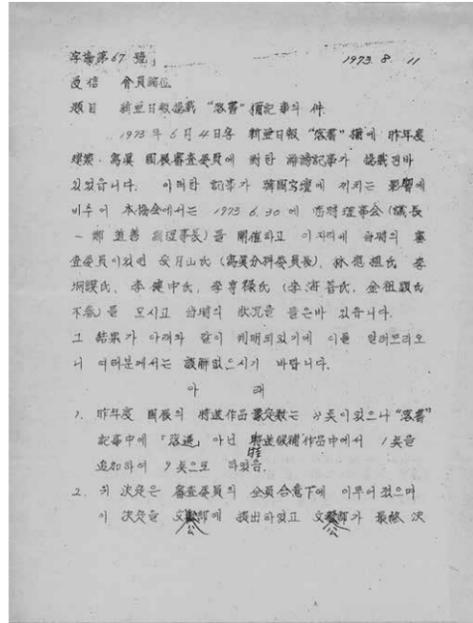
자세한 내용은 국립현대미술관(22-7206) 한국건축가협회(72-4613) 한국사진협회(74-9216)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973년 7월 일

문화공보부 장관 윤주영

1973년 8월 11일, 임응식 스크랩북 자료

[한국사진협회, 《제2회 건축 및 사진 전람회》 심사과정 관련 이사회 결과]



사협 제67호 1973. 8. 11

수신 회원제위

제목 『신아일보』 게재 「낙서」란 기사의 건

1973년 6월 4일 자 『신아일보』 「낙서」란에 작년도 《건축 사진 국전》 심사위원회에 대한 비방 기사가 게재된 바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사가 한국 사단에 끼치는 영향에 비추어 본 협회에서는 1973. 6. 30에 임시이사회(의장-정도선 부이사장)를 개최하고 이 자리에 당시의 심사위원이었던 안월산 씨(사진분과 위원장), 임응식 씨, 이경모 씨, 이견중 씨, 이형록 씨 (이해선 씨, 김조현 씨 불참)를 모시고 당시의 상황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 결과가 아래와 같이 판명되었기에 이를 알려드리오니 여러분께서는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아래

1. 작년도 《국전》의 특선작품 예정 수는 8점이었으나 「낙서」 기사 중에 ‘낙선’ 아닌 특선 후보작품 중에서 1점을 추가하여 9점으로 하였음.
2. 위 결정은 심사위원의 전원 합의하에 이루어졌으며 이 결정을 문공부에 제출하였고 문공부가 최종 결정을 내렸음.

3. 위 사실을 볼 때에 당시의 심사 절차에는 하등의 하자가 없었고 따라서 「낙서」란의 기사는 낙서로서 사실무근함이 밝혀졌음.

부이사장 정도선

(이사장 직무대행)

1973년 9월, 『신동아』(통권109호), p.423

이명동, 「(뉴스와 화제-사진) 《국전》의 정실 심사 파동」

지난 6월 초순부터 사진계는 소위 ‘정실 심사 파동’이라고 할 수 있는 지저분한 사건으로 한동안 시끄러웠다.

이 사건은 지난 6월 4일 자 S일보 고십란[가십란] 「낙서」에 「뒤늦게 드러난 정실 심사로 진통…」 운운하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기사가 보도됨으로써 발단되었다.

“전략…《대한민국 건축 및 사진전》이 《국전》에서 떨어져 나와 독립된 전람회로 발족된 지 3년, 올해 제3회 전람회를 가지게 된다. 제1회전이 끝나고 난 뒤 초대작가를 대량 임명해서 한동안 말썽이 일어난 일이 있었다. 제2회전 때에는 별 말썽이 있는 것 같지 않더니 제3회 전람회를 앞둔 요즘 다시 사단에서는 제2회전 심사의 비위(非違)를 둘러싸고 말썽이 일고 있다.

당시 심사위원 임 모 씨가 특선 작품의 심사를 끝낸 뒤 느닷없이 낙선된 H 씨의 작품을 특선으로 시켜달라는 데서 일이 발단되었다. 같이 심사에 참가했던 심사위원의 입을 통해 사단에 알려지게 된 사건의 진상을 보면, 특선 작품은 7점으로 규정돼 있고 이 규정에 따라 작품 7점을 이미 뽑아놓았으니 그 속에서 한 점을 낙선시킬 수도 없는 일이어서 분과위원장이던 안 모 씨는 이에 반대했으나 임 모 씨의 끈질긴 요구로 결국 한 점을 더 추가해서 H 씨의 작품이 특선 대열에 끼게 된 것이라고 한다.

문제는 이때 억지로 특선의 영광을 차지한 H 씨는 연속 4회 특선이 됐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초청작가[추천작가]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생긴 데 있다. 《제3회 국전》 공고를 앞두고 문공부에서는 사협의 추천을 받아 곧 추천작가를 위촉하게 된다. 이미 이러한 사실이 사단에 알려지게 된 이상 만일 H 씨가 추천작가로 위촉될 경우 행정처분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는 움직임마저 일고 있어 어수선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

가장 공정해야 할 《국전》 심사 과정에서 개인적인 친소 관계에 얽매어 심사 규정을 무시하고 그러한 비위를 저질렀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며 '더욱 그 장본인이 거기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자숙을 한다고 해도 또 모를 일인데 그 뒤 사단을 대표하는 자리에 앉아 추호도 반성하는 기색도 없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이것이 시정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사협의 존재 의의는 없는 것이며 《국전》도 그러한 사람들의 독천장이 되고 말 것이니 사협이 없어지는 한이 있어도 그냥 가만히 두고 보지는 않겠다'고 분개하는 회원들이 많아 주목이 된다...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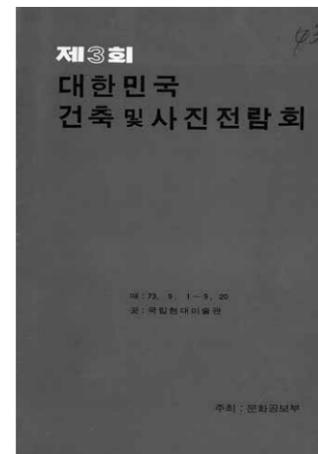
이 기사를 한마디로 간추려 보면 현 사협 이사장인 임 모 씨를 공박하는 내용이었다. 사실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를 근 일 년이 지난 요즘에 와서 느닷없이 신문지상에까지 보도를 하고 또 그 신문지를 대량으로 구입, 전국의 사협 회원들에게 발신인도 밝히지 않고 우송을 하는 등, 의도적으로 임 모 씨를 모함한 이유와 배후 인물이 대체로 드러났다.

《대한민국 사진 국전》의 작품 심사는 임 씨 혼자서 해치울 수 없다는 것은 상식적인 이야기다. 7명의 심사위원들이 진지하게 토의를 하고 또 모든 것을 표결로 결정할 뿐만 아니라 심사 현장에는 문공부의 관계관들이 입회를 하는 엄중하고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진다.

이들이 문제 삼은 H 씨의 경우, 연속으로 세 번 특선을 하고 네 번째 작품이 특선권 내에서 경합을 하다가 아깝게도 한 점 차로 입선으로 떨어졌다. 이런 경우는 그 작품을 특선으로 뽑아 대접을 한다는 것은 《국전》의 오랜 실례로 돼 있을 뿐만 아니라 중전에는 사진 작품이 입선권에 들지 못해도 특선으로 끌어올려 대접을 한 실례도 있다. 7명의 심사위원들이 투표해서 4대 3으로 확정된 것을 정실이고 부정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더구나 당시의 심사위원 전원이 입상 작품을 확인 사인하고 전람회를 거쳐 수상까지도 끝냈는데 뒤늦게 이런 것을 들고 나와 사단을 분열하고 욱되게 하는 경솔한 처사는 없어져야 할 것이다.

〈命〉

1973년 9월 1일-9월 20일, 국립현대미술관
문화공보부 주최, 《제3회 대한민국 건축 및 사진 전람회》



심사위원(무순)

- 위원장 강명구
- 부위원장 정인성
- 사진 분과위원장 김조현
- 위 원 현일영 이명동 이경모

초대작가(무순)

- 김조현 김종양 현일영 박필호 안월산 이진중 이경모 이명동
- 이해선 이형록 임응식 정인성

추천작가(무순)

- 김중헌 문선호 조현두 이정강 홍순태

수상작

〈일반공모상〉

- 대통령상 건축 〈경주문화예술센터〉 송명규 이종호
- 국무총리상 사진 〈절규〉 김영민
- 문공부장관상 건축 〈묘지 공원화 계획안〉 이상연 장연철 임장렬
- ” 사진 〈역마(役馬)〉 유정재

〈초대·추천작가상〉

- 초대작가상 건축 〈불국사호텔〉 김수근
- 추천작가상 [없음]

특선작 <귀로(歸路)> 배동준, <만추(晩秋)> 김기순, <갯가의 어린이> 김치역,

<성직자의 소명일> 강상규, <소득중대작업> 손재석, <힘 모아 사는 가족> 한기수

입선작

<도강> 이영달	<하오의 작업장> "	<동심> "
<근무시간> 손필근	<로우프> "	<극락 가는 길> 김수열
<근면> 한명선	<미래의 현상> 이정순	<구성> 장기봉
<호반의 울> "	<합장> 이동우	<유선> 김규민
<등행> 강상규	<설산기암> 송우석	<트레이닝> 박제훈
<질주의 이변> 장진필	<전재민> 박상운	<진홍의 멧> 한기수
<일출> 김용수	<7월의 강변> "	<만하> 오복근
<휴식> 김응태	<해변> 정정희	<산촌> "
<강변> 이용광	<초하> "	<등불> 이현우
<작업> 장승구	<부부> 배동준	<페인팅> 진성근
<부광> 설찬수	<새벽> 조동제	<가족> 이정식
<물레방아> "	<아궁이> 서윤석	<정미> "
<대춘> 김광석	<숲> 박훈서	<해변길> 김생수
<절정> 유후선	<강변풍경> 김홍서	<귀로> "
<개구장이들> 정영모	<계단> 이순홍	<환상> "
<선창> 김석만	<반영> 이순홍	<불배> 유정재

초대·추천작가 작품

초대작가 <실은 바늘 따라 간다> 현일영, <반영> 이명동, <고적> 정인성, <법문과 사과> 안월산,

<만추> 이해선, <학수고대> 이형록, <형상> 김조현, <사자탑> 이경모, <추적> 김종양,

<설일> 이진중

추천작가 <비에> 이정강, <격> 문선호, <탐라촌경> 김종현, <가로> 홍순태, <여명> 조현두



국무총리상 <절규> 김영민 [컬러]



문화공보부장관상 <역마(役馬)> 유정재 [컬러]



특선 <귀로> 배동준 [컬러]



특선 <갯가의 어린이> 김치역 [컬러]



특선 <만추> 김기순 [컬러]



특선 <성직자의 소명일> 강상규



특선 <소득증대작업>
손재석

특선 <힘 모아 사는 가족> 한기수 [컬러]

제1회(1971년) 출품 및 입선현황

구분	출품 수	부문별	대상	금상	은상	특선	입선	낙선
일반공모	398	건축 11	1	1	1	1	3	4
		사진 387	1	1	1	5	53	326
계	398		2	2	2	6	56	330

상금 : 대상 : 2명 각 500,000원 금상: 2명 각 300,000원 은상 : 2명 각 200,000원

제2회(1972년) 출품 및 입선현황

구분	출품 수	부문별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장관상	특선	입선	낙선
일반공모	410	건축 33	1	1	2	3	12	14
		사진 377		1	1	7	49	319
	계	410	1	2	3	10	61	333
초 대 추천작가	19	건축 5	초대작가 4 추천작가 1		대통령상 1명 800,000원 국무총리상 2명 각 500,000원 문공부장관상 3명 각 200,000원 초대작가상 1명 500,000원 추천작가상 1명 300,000원			
		사진 14	초대작가 11 추천작가 3					

제3회(1973년) 출품 및 입선현황

구분	출품 수	부문별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장관상	특선	입선	낙선
일반공모	343	건축 25	1		1	3	6	14
		사진 318		1	1	6	48	262
	계	343	1	1	2	9	54	276
초 대 추천작가	17	건축 2	초대작가 2 추천작가		대통령상 1명 800,000원 국무총리상 2명 각 500,000원 문공부장관상 3명 각 200,000원 초대작가상 1명 500,000원 추천작가상 1명 300,000원			
		사진 15	초대작가 10 추천작가 5					

1973년 9월 12일, 『중앙일보』 4면

김행오(사진평론가)¹³⁾, 「사단의 양심과 사명감」

《제3회 대한민국 사진전》에 제언한다

기술보다 창조적 영상 추구해야, 무의미하고 빈축만 사는 추천·초대작가계 전 사단 참여는 공모제 개혁에서

고언은 듣는 사람만큼이나 하는 사람도 괴로운 일이다. 그러나 고언을 해야 될 때 하지 못하는 만큼 서로가 더 슬픈 일도 없다. 이것은 서로의 파국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전》의 향상과 나아가 한국 사단을 위해서 몇 마디 고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사진 부문의 《국전》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진예술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우리가 낸 세금의 보조를 받아가며 매해 개최되고 있다.

해마다 개최된다는 것은 해를 더 할수록 발전과 향상을 의미하는 것이지 담보 내지 후퇴를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우선 올해만 해도 입상작·입선작을 합하여 48점이나 전시되었는데 몇 점을 제외하고는 대형화되고 ‘칼라’가 늘었을 뿐 내용에 있어서는 보는 사람에게 아무런 감명을 주지 못하는 쓸쓸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다시 말해 《국전》이 보는 사람에게 과거의 무의미한 대다수의 군소 전람회와 조금도 다름이 없다는 것을 자인한 전시회가 되고 만 것이다.

이 슬픈 현상에 더욱 부채질한 것은 근 20점에 달하는 소위 초대작가·추천작가, 그리고 심사위원 자신들의 출품작들이다. 이분들의 작품이 일반 공모 작품보다도 못하다는 것은 그 작품을 보는 국민이면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적어도 그 이름이 보여주듯 초대작가·추천작가 심사위원이라면 한국 사단을 끌고 간다는 최소한의 양심과 사명감은 그의 분신인 작품을 통하여 엿볼 수 있어야겠다는 점이다.

일반 국민들은 그 작품에서 한국 사진의 모범을 보고 있다고 오해할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널만한 작품이 없었을 경우 아예 출품하지 말았어야 하지 않았겠는가? 두말할 것도 없이 기교나 ‘테크닉’은 주제표현을 위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것이며, 치밀한 계산과 검토 끝에 사용되는 것이 그 자체가 앞설 수는 없는 것이다. 고도로 발달된 ‘렌즈’의 ‘메커니즘’에 의존하는 나머지 소재로서의 대상의 사실에만 얽매어 버렸다. 따라서 그 소재에서 별개의 영상을 만들어 내고 개성화된 자기 ‘이미지’ 창조 및 승화 과정에서의 노력이 결여되어 있다. 객관적인 사실 만에 집착하고 작가의 의도보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데 급급하고 영상에의 주관도입을 오히려 사도시(邪道視)하는 객관주의가 꽤 오래도록 한국 사단에 고착되어 있다.

작가의 주체성을 등한시하고 그 사고의 자세보다는 주로 객관적 사실의 기술적 재현의 완성에

13) 김행오(金行伍). 동양방송(TBC)의 초대 편성부장을 지냈으며 호영회 및 씨롱아루스 회원이었다. 1974년 도미하여 『미주중앙일보』 사장을 역임했다.

만 목표를 둔다는 것은 너무도 전진을 모르는 슬픈 현상이라 아니할 수 없다. 오늘의 사진은 말할 것도 없이 기술이 아니고 그 창조성에 달려있다. 사진이 예술일 수 있는 소이(所以)¹⁴⁾가 바로 여기에 있다.

어떻게 하여 주관(작가의 주체성)과 객관(소재로서의 현실)을 통일하여 파악하는가? 어떻게 영상 속에 작가의 사고 내용을 반영시킬 것인가? 어떻게 하여 외적인 현실과 내적인 현실을 결합시키는가를 생각해야 한다. 이러한 창조적 견지에서 사진을 생각하고 그 방법론에 의욕을 불태워야 할 것이다. 이는 기술을 무시하고 내용만으로 사진은 선택하라는 뜻은 결코 아니며, 작가의 주체성과 창조성을 스스로 존중하자는 뜻이다.

다시 말해 절대 비연출의 절대 '스냅'이라는 '리얼리즘'의 방식과 빛과 구도와 감정이 일치한 순간이라는 '카르티에·부레송'[앙리 카르티에 브레송(Henri Cartier Bresson)]의 미학이 언제까지 절대시 되어야 하는가? 발전을 위해서는 껌질을 벗을 줄 알아야 하고 그 껌질을 벗는 아픔이 크면 클수록 발전의 진폭은 더 클 것이다.

이러한 구성 방식과 미학을 주축으로 하는 사진의 표현형식을 타파하고 현실과 직접적으로 대결하여 그 충격 속에서 자기 자신의 '이미지'를 재창조하고 거기에 현실을 재구성하여 새로운 영상을 만들어내야 할 것이다. '윌리엄·클라인'[William Klein]이 그랬었고 '부르스·데이비슨'[Bruce Davidson]이 그랬었고 奈良原—高[이코 나라하라]가 그랬었다. 사진의 표현이란 항상 유동적인 것이다. 유동적인 현실에 우리는 언제까지나 고정된 관념에 얽매 사진의 표현을 생각해야 될 것인가?

인간과 사회의 복잡한 문제를 한 장의 사진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이 시점에서 복수사진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필연적인 추이라면 《국전》에 복수사진을 참여시켜서 안 될 것도 없지않은가? 한 장 사진을 만든다는 의식 속에는 회화적인 미학 사상이 뿌리 박혀 있으며, 잘못하면 소위 '살롱' 사진이나, 피상적인 '리얼리즘'의 사진을 만들기 쉽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지금 《국전》에는 젊고 실력있는 사진작가들이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솔직히 말해서 《국전》은 그 의의에 있어서나 밀도에 있어서 C 씨의 가족사진전이나 J 씨의 내용 짙은 개인전보다도 못할 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열렸던 서라벌예대의 사진전인 《도시》만도 못하다. 응모출품작의 수준이 낮다는 구실은 이른바 초대작가·추천작가 및 심사위원의 사진으로 보아서는 말할 수 없게 되었다.

진정한 의미에서 한국의 사단을 아끼고 한국의 사진이 세계적인 조류에서 영영 뒤떨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다음과 같이 제언을 하고 싶다.

지금까지 무의미하고 빈축만 사는 추천작가와 초대작가 제도를 없애고, 심사기준을 달리하여 공모제도를 개혁함으로써 실력 있는 사진작가들이 적극 참여하는 명실공히 한국의 사단을 전진시키는 《국전》을 만들어내야 할 것이다.

14) 일이 생기게 된 원인이나 조건.

1973년 10월, 『신동아』(통권110호), p.370

이명동, 「(뉴스와 화제-사진) 실속 없는 화려한 《사진 국전》」

《미술 국전》에서 분리된 사진은 건축과 함께 올해 세 번째의 단독 전람회를 맞이했다. 따지고 보면 이 전람회는 《사진 국전》이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규모나 권위는 우리나라에서는 최고의 행사이다.

이 전람회의 시상은 건축 부문과 함께 적용되지만 최고상은 대통령상(상금 80만 원)이고 국무총리상(상금 50만 원) 그리고 문공부장관상(20만 원)이 있고 초대작가상(50만 원) 추천작가상(30만 원) 등이 있어 제법 푸짐한 느낌이다.

이와 같이 정부에서 사진예술의 발전 향상을 위해서 마련해준 《사진 국전》이 과연 오늘날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가"라는 질문은 많은 의문점을 내포하면서 부정되고 있다.

본래 사진이라는 것은 매카니즘의 확실성에 의존하면서 그 매카니즘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표현이 성립되기 때문에 어떤 일정 된 시대를 기준으로 그 양식의 변천이나 작가의 작품이나 그 정신적인 내용의 진보과정 같은 것을 살펴본다는 것은 회화처럼 용이할 수는 없다. 그래서 해방 후 30년의 세월이 지난 오늘날 우리나라의 사진계의 풍조가 어떻게 달라지고 어떻게 발전했는가 라는 문제는 간단히 설명할 수 없다. 더구나 사진은 서로 관계가 밀접한 장르만을 들어봐도 보도사진, 사진예술, 상업사진의 세 부문이 있고 더구나 명확히 구별할 수 없는 관계에 놓여 있다.

그러나 해방 후 30년 동안 한 가지 달라진 것이 있다면 칼라 작품의 화려한 등장이라 하겠다. 과학의 발달로 하여 사진은 흑백에서 칼라로 급진적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다. 그러나 외관상으로는 찬란한 원색으로 물들었지만 그 작품의 내용들은 전근대적인 살롱픽처의 범주 내에 있고 30년 전의 흑백 작품보다 오히려 뒤지고 있는 느낌이다.

해를 거듭할수록 칼라 사진의 붐은 일고 급기야는 《사진 국전》의 공모 작품이 칼라 일색으로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이번 《제3회 사진 국전》에서 볼 수 있다. 입상 작품 8점 가운데 칼라가 6점이나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는 칼라 작품이 많으면 그만큼 사진예술이 발전 향상되는 양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따지고 본다면 오늘날 우리나라에서의 칼라 작품은 작가 의식을 반감케 할 뿐만 아니라 사진예술의 발전 향상을 가로막는 중대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어떤 작품이든 창작 과정은 그 작가 자신의 손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의 칼라 작품의 경우는 작가가 촬영 이후의 과정을 칼라 라보에다 맡겨서 만드는 것이 대부분이다. 마치 화가가 데상은 자기가 하고 채색은 딴 사람에게 맡겨서 그림을 완성시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아무리 어렵고 까다로운 칼라의 암실 작업이지만 자기 스스로의 손으로 작업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전》에 출품을 할 때는 칼라 라보의 기술자와 공동명의로 하는 것이 예술을 하는 양심이 아니겠는가! 심지어는 작가가 필름을 칼라 라보에다 맡겨 그 작품의 중요한 부문인 트래밍마저도 일임하는가 하면 작품의 장정까지도 부탁해버리는 무책임한 작가가 있다면 이것

이 어찌 자신의 작품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앞으로 《사진 국전》은 칼라 작품 일색이 되고 또 우리나라 몇몇 칼라 라보의 기술 경쟁 장으로 변할 것 같다.

지난해에도 그러했지만 어떤 칼라 라보에서 심사위원이 나오고 자기 칼라 라보에서 제작한 작품들에다 유리한 채점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대한민국 《사진 국전》은 마치 그 칼라 라보를 위해서 존속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된다.

주무당국은 이런 허점을 시정하기 위해서 이들을 초대작가로는 대접을 할 망정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국가의 예술 전당이 상권에 짓밟히지 않고 보다 순수하고 권위 있는 것으로 만드는 데는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命〉

1973년 10월, 『포토그래피』(통권77호), pp.10-13

서상덕, 「《국전》과 개인전의 차이-《제3회 건축 사진 국전》의 문제점」

《제3회 대한민국 사진전》이 지난 9월 20일로서 끝났다.

전시 첫날인 9월 1일에 이를 보고 느낀 필자의 소감은 복잡하고 실망을 안은 채 돌아섰다.

필자뿐만 아니라, 이를 관람한 모든 인사들이 같은 심정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사진의 예술성을 운위하기 전에 사진은 이래야 되는가. 《사진 국전》은 이대로 나가서 좋을 것인가 하고 회의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사진 국전》은 해마다 어김없이 열리고 있다. 그러나, 해마다 관람자들의 빈축을 샀고, 불미스런 뒷공론을 남기어 왔었다. 혹은, 심사가 불공평하다느니 혹은, 질적 수준이 말이 아니라느니 하여 사진에 관심이 있거나 이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비판과 건의를 겸한 한 마디씩을 가했으나 그런 것은 해마다 되풀이될 뿐, 《사진 국전》은 여전히 말쑥과 저질의 구작을 벗어나지 못한 채 새로운 말쑥[말썩]의 씨를 뿌리곤 했다.

올해에는 그런 것이 개선되려니 하고 한 가닥 희망을 안고 전시장에 들어서건만 구태의연하게 '열리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을 느끼게 할 뿐, 작품다운 작품 하나 구경을 못 하고 전시장을 나서게 된다.

《사진 국전》은 이래도 좋은가. 다시 한 번 반문하지 않을 수 없음을 우리는 슬퍼할 따름이다.

《사진 국전》에 입상하거나 입선한 작품들이 보잘것없다는 것은 공인된 사실의 하나다.

입상, 입선자들이 어디까지나 신인이며 사단에 진출하는 발판인 까닭에 대작·거작·문제작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은 무리가 아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럴수록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하였거나 상상조차 못 했던 새로운 영상이 나타나서 모든 사람을 놀라게 하기도 하는 것이 “《국전》”이기도 하다.

작자는 하루아침에 작가라는 스타덤에 올라앉게 되고 그의 새로운 영상은 사진인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놀라움과 기쁨과 용기와 또 예술의 향기를 맛보게 해준다.

이 같은 일이 《사진 국전》에서 일찌기 있었던가?

불행하게도 우리는 아직 그런 감격스러움에 젖어 본 적이 없었다.

그것은 무슨 까닭일까?

이에 대하여 사진인들은 거의 같은 생각들을 하고 있다. 즉,

《사진 국전》의 공모 제도를 개혁하라, 심사위원들을 바꿔 치워라, 파벌 의식으로 심사하지 말고 공정 무사하고 높은 식견으로 심사하라, 추천작가나 초대작가 제도가 틀렸다. 권위를 세워라(이것은 심사위원에 대한 말), 제 손으로 현상, 인화하라,

초대작품·추천작품·심사위원의 작품이 엉망이다 낙선작들이 오히려 낫다….

이러한 생각이나 의견은 한결같이 정당성을 지니고 있다. 또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하고 그 래야만 《사진 국전》이 옹바로[올바로] 발전할 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진 국전》은 해마다 그 입상·입선작들이 내용 면에서 보잘것없다는 것은 웬 말인가?

이와 같은 현상과 사실에 대하여 얼마 전에 좋은 의견이 발표되었다.

김행오 씨가 「사단의 양심과 사명감」(『중앙일보』 9월 12일 자 참조)¹⁵⁾에서 창조적인 영상을 추구할 것과 전 사단적 참여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공모제를 개혁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 씨는 이 글에서 현실과 대결하고 거기서 제 나름대로의 이미지를 재창조하며 여기다가 현실을 재구성하여 새로운 영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땅에서는 이와 같은 노력이나 《사진 국전》에서 입상하거나 입선하는 일이라곤 없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문제가 될 만한 새로운 작품이 나타날 수가 없을 것이 아닌가. 비꾸어 말하면 심사자들이 그런 새로움을 발견 발굴할 줄 모르는 데다가 편파적·개인적·친소 관계에 바탕을 둔 '상 나누어 타기'와 같은 비문화적, 비신사적인 심사를 하기 때문에 비쳐지는 현상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응모자들이 심사자의 연고를 좇아 개인적인 비지니스를 일삼거나, 아니면 보이코트 하는 편이 낫다고들 생각하게 되고 그 때문에 하나하나의 작품에 대하여 전력투구할 정열이나 의욕을 갖지 않거나, 아니면 심사원들의 개인 취향에 영합할 수 있는 작품의 사진들을 제작, 응모하는 경향이 짙은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15) 본 자료집 197쪽 수록.

이것은 실로 중대한 문제요, 한심한 풍조건만 쉽게 고쳐질 그런 성질이 못 된다.

허기야 심사원끼리 헐뜯기 일쑤인 풍토에서는 새싹들이 그런 투로 자라지 않을 수도 없을 것이다.

또 한 가지 간과할 수 없는 뼈아픈 현실은 이른바 지도적, 선도적 역할을 하는 심사위원, 초대, 추천작가들의 수준 이하의 사진 제작이다.

이들이 《사진 국전》 전시장을 장식하거나 새로운 영상을 제시하는 작품을 보여준 일이란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입선작보다 못한 초대작품’이라는 빈축을 해마다 들어오는 《사진 국전》이라 그 질적 수준이 형편없이 낮다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 그러나, 해마다 버젓이 전시되어 온 이들의 사진에서 우리가 기억해 둘 만한 사진은 별로 없었다. 가름[가뭇]에 콩나물 나듯 겨우 한두 점이 있었을까 말까 한 《사진 국전》 전시장을 겨우 지탱해주고 있는 작품이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한 점밖에 없었다고 필자는 믿고 있다.

〈계속〉

1973년 10월, 『포토그래피』(통권77호), pp.14-19

장원훈, 「《제3회 대한민국 건축 및 사진 전람회》를 보고서」

지난 9월 1일 11시 국립현대미술관(덕수궁)에서 윤주영 문화공보부장관 임석 하에 《제3회 건축 및 사진 국전》이 열렸다. 주무당국의 배려로 유서 깊은 고궁에 자리 잡은 전시장은 아늑하고 깨끗하게 단장되어 있었다. 다듬어진 배열과 밝은 조명의 조화는 예년보다 작품들을 훨씬 돋보이게 하였다. 그러나, 작품 관계에 있어서 필자 나름대로 이를 평할 때 여러 가지로 불만함과 불쾌로움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것은 72년도에 제정을 본 ‘대통령상’과 ‘초대작가상’ 그리고 ‘추천작가상’ 등 그 어느 것 하나도 사진부에는 주어지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싶다.

72년도 건축 및 사진 공동 심사위원회에 참석했던 사진부 심사위원들의 말에 따르면 “대통령상과 초대작가상은 우선 초년도에는 건축 부문에 주되 다음 73년에는 사진 부문에 주기로” 목계가 이루어졌다고 하였다. 이러한 방침은 우리 사진작가들에게 무릇 큰 희망과 의욕을 안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새삼 독립적인 전람회 제도의 보람을 느끼게 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말과 실천이 왜 이토록 달라졌는가? 그리고, 왜 제정된 ‘추천작가상’은 건축 부문이나 사진 부문에는 주어지지 않았는가. 모름지기 이유가 따로 있기는 하겠지만 차별 대우나 경시를 당한 느낌을 금할 수가 없다. 물론 주무부로서는 그럴 리가 없겠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일단 관계자들의 처사에 불만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일은 다시 없도록 관계 요로에 건의하고 촉구하는 반면 작

가들로서도 자아 반성 아래 권익과 권익 옹호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극히 외람된 말이지만 초대작가와 사진협회 집행부 인사들은 사진인의 지위 향상을 위해 애쓴 보람이 별로 반영 않 된 것이 아쉽다. 이번 작품 심사에 있어서 어떤 차질이 허용된 것이 아니었다면 어찌 건축 부문에만 대상이 주어졌을 것인가?? 이것은 필자의 부질없는 노파심이 지나친 미련만이 아닐 것이다.

새삼 말할 것도 없이 예술이란 분야에 따라서 그 개성과 특색이 있는바 이러한 것을 무시하고 일괄적인 평가를 내렸다면 그야말로 언어도단인 것이다. 정당한 주장을 해도 사진계는 말이 많다고들 하는데 여타 부문이라고 해서 말이 없겠는가. 특히, 《국전》이 열리기 전후에는 더욱 그러하다. 금년에도 모, 모 씨는 ○○지역 출신이라 보나 마나 같은 지역 인사가 대상을 탈 것이 분명하다는 말이 파다하게 떠돌았었다. 그 결과야 여하간에 추문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추문을 흥미롭게 화제로 삼으며 인신공격과 모략을 서슴치 않는 그런 정신 풍토부터 정화해야 할 것이다. 또, 항간에는 낙선작이 입선작보다 낫다는 평도 없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낙선작 262점 모두가 좋다고 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필자의 견해로는 현재 전시 중인 입선 작품 중 5~6점은 낙선시켰더라면 하는 작품이 있다. 보는 눈에 따라서 다소의 이견은 있겠지만 그리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번 전시 작품 일부에 대한 비평의 일단을 피력하여 보고저 한다. 총 출품 수 318점 중에 입선작이 48점(그 중 칼라 32점) 특선작이 6점(그 중 칼라 4점) 문화공보부장관상 수상작이 1점(칼라) 국무총리상 수상작이 1점(칼라)으로 도합 56점이다.

이번 작품에 나타난 특징은 칼라 작품이 전체 작품의 3분의 2선을 상회함으로써 칼라 시대를 실감케 하였다. 국무총리상 수상작인 〈절규〉(김영민 작)는 항간에 잡음도 많았지만 화면이 드라마틱하고 비현실적이며 화제도 비약적이어서 실감을 느끼지 못하겠으나 색감 처리에 있어서 특선작 중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당연한 수상작이라 하겠다. 장관상 〈역마〉(유정재 작) 역시 특선 작품 중에서는 우수한 작품으로서 색의 중량감이나 구도의 형성 등 당연히 수상 될 작품이라고 본다. 구태여 결함을 지적한다면 마부들의 자세 상의(上衣)의 색조가 우연한 일치인지는 몰라도 연출의 냄새가 짙다. 물론 작품에 있어서 연출을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주제를 살리기 위해서 자연스러운 효과를 지녀야 할 줄 안다.

그밖에 6점의 특선작은 자기 수준에 미달한 작품으로서 보잘것없는 작품이라 하겠다. 그런데로 작품 〈소득증대사업〉은 ‘몽타아즈’를 자연스럽게 못 하였으나 구도 면에서 좋았으며 〈사공〉은 사실적인 데다가 동일인이라는 것이 노출되었고 수면은 비현실적인 자가당착을 면치 못했음이 아쉽다. 나머지 작품에 대해서는 개관 당시 문공부 장관에게 작품 설명을 하던 심사위원 K 씨의 말을 간추려서 인용하여 보겠다. 왜냐하면 필자의 견해와 같기 때문이다.

“특선작 〈만추〉는 단풍의 색조가 좋지만 내용이 거의 없다. 있다면 단풍 몇 잎이 떨어지는 부분 정도일 것이다.” “〈성직자의 소명일〉은 흑백의 톤을 살렸을 뿐 구도나 내용이나 모두가 빈약하다.” “〈해변가의 아이〉는 구도 형성에도 무리가 있었고 내용도 빈약하다. 칼라이니만큼 색조가 좋았다.”

“〈힘 모아 일하는 가족〉은 주제보다 부제인 많은 아이들이 화면의 절반을 차지하고 놀면서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어서 구도 형성에 있어서나 작품 내용의 구상에 있어서나 모순이 많다. 세 사람의 일하는 모습을 좋게 보았던 모양이다.”

K 씨는 이상과 같은 말로써 못마땅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리고, 특선작 〈귀로〉는 배동준 씨 작품인데 입선작 〈부부〉도 동 씨의 작품으로 필자가 보기에는 〈부부〉가 더 좋았다.

입선작 중에서는 〈일출〉 김용수 작 〈하오의 작업장〉 김석만 작, 〈계단〉 이순홍 등은 재의 특선작보다 오히려 낫다고 본다.

다음 초대작가와 추천작가의 작품은 어떠하였던가. 당돌한 말이지만 극히 소수의 작품을 제외하고서는 작품에 있어서 입선작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개중에는 성의조차 결여된 작품을 볼 수가 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금년도의 《사진 국전》은 출품 수에 있어서나 수준에 있어서 조금도 향상된 자취가 없다.

끝으로 우리는 시상의 오류를 타하기 위해 앞서 오히려 사진인들이 의욕적인 분발과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이며 특히, 사단의 지도적 위치에 있는 초대작가는 자신의 명예를 더럽히지 말고 자성 있기를 바라 마지않는다.

그리고, 추천작가들도 마찬가지다. 지난날의 정열을 되살려서 자신의 명예는 물론 사단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더욱 분발해 주기를 바란다.

끝

1973년 11월, 『포토그래피』 (통권78호), pp.8-9

서상덕, 「《국전》과 개인전의 차이-《제3회 건축 사진전》의 문제점」

(승전)

언필칭[言必稱]¹⁶⁾ 작가라고 자칭하는 심사위원과 추천, 초대작가들의 대부분이 보잘것없는 사진을 전시하여 《국전》 본래의 목적인 유능한 신인 발굴을 등한시하는 결과를 빚는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이들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

《국전》은 해마다 조금씩 나아져 가고 있지만 사진 부문에서만 별다른 발전이 없었다. 그것은 작가를 앞세우는 지도층 인사들의 사진이 시원찮고, 거기다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은 오류를 해마다 되풀이하여 왔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해마다 《사진 국전》이 열리는 것을 계기로 ‘낙선된 사진들을 한자리에 모아 전시해보는’ 낙선작 전시론이 고개를 드는 것만 보아도 짐작할 수가 있다.

낙선된 사진과 당선된 사진들을 비교해보면 어느 쪽이 더 나을 것인가? 흥미롭고 관심 끄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와 같은 현상은 유능한 신인 발굴과 역행하는 일일 뿐 아니라, 사진의 앞날에 먹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진인이 진지하게 논의하고 혹은 반대하며, 혹은 찬성하는 등 토론을 거듭하는 근본 이유이다.

그러므로 지도적 선도적 위치에 있는 사진가들은 항상 작가의 역량을 배양하기에 힘쓸 뿐 아니라, 신인 발굴과 후진 양성에 비상한 관심과 노력을 아울러 갖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국전》이 어느 개인전이나 그룹의 전시장과 다르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런데도 때로는 역량 있는 사진가의 개인전만도 못하였고, 때로는 어떤 그룹의 동인전만도 못하였음을 우리는 안타깝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오래된 병폐를 고쳐 《국전》으로 하여금 건전하고 아카데미틱한 본래의 자리로 올려 얹혀 권위를 정립시켜야 할 것이다.

연공(年功)에 대한 전리품 분배와 같은 심사위원 배정이나 파벌에 치우치는 듯한 심사위원 안배는 지양되지 않으면 안 된다. 새로운 영상을 이해할 줄 알며, 새로운 시각이 무엇인가를 감각할 줄 아는 인사여야만 사진을 심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출품작은 미리 아무에게 보여주고 보증을 받지 않는 한 입상하지 못한다는 풍토가 불식되지 않는다면 《국전》의 의의는 전혀 없어지고 말 것이다.

오늘날 사진인 중에는 진실로 《국전》의 권위를 인정하는 인사는 별로 없을 것이다. 대부분의 인사는 《국전》을 외면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참여하는 것조차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리하여, 《국전》에 대한 불신은 해를 거듭할수록 심화되고 《국전》의 권위는 반비례로 떨어져 가고 있다. 그리고 더 두려운 것은 그럼으로써 우리 사진계의 앞날은 더욱 어두워지며, 신인들은 갈 길을 잃어 방황하거나 의욕을 상실하고 만다는 사실이다.

어떤 심사위원은 공개적으로 다른 심사위원을 비난하는가 하면, 어떤 추천작가는 장난과 같은 소품을 내놓아 이번 《국전》을 모독했었다. 그는 새로운 이론이나 기술을 개발하거나 전개한

16) 말을 할 때마다 이르기를.

일이라도 [있]었는가?

《제3회 사진 국전》을 관람한 인사라면 한결같이 보고 느꼈을 이러한 현실을 그들은 자기비판하거나, 반성하기는커녕 아집과 종파적인 행동을 고수하고 있을 뿐이다. 그들에게 대한 비판이 이제는 매우 고조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국전》은 그 운영 방법에서부터 지정되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긴요한 것은 거의 모든 사진인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국전》을 그릇 인도한 인사들로 하여금 심사라는 중책을 맡겨서는 아니 될 것이다.

작가임을 앞세우는 양심이 있다면 심사위원을 사퇴하거나 중고등 학생들의 그룹전에서나 볼 수 있을 소품을 작품이라 칭하고 출품하는 파렴치한 행동은 없어야 하겠으나 그 행적으로 미루어 보아 이것은 기대하기가 어려운 노릇이다. 그래서 《국전》은 해마다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거듭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제 《국전》에 대한 흥미나 관심은 거의 없다시피 되어 있다.

이와 같은 슬픈 현실을 타개하고 《국전》의 권위를 되찾기 위해서는 모든 사진인들이 토론이나 비판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거기 입선·입상한 이상의 작품을 부지런히 제작하고 발표하는 길밖에는 없다고 하겠다.

《국전》보다 훨씬 낫다든가, 《국전》보다 못하다든가 두 가지 중 한 가지의 판정이 내려지는 《국전》에 입선한 사진보다 못할 리야 없을 것이 아닌가) 작품 활동을 계속한다면 그는 신인 아닌 신인, 중견 아닌 중견작가로서의 존경과 응분의 대우를 받을 것이다.

그러다 보면 《국전》을 관장하는 당국자들도 현실을 외면하거나 잘 모르고 있던 사실에 눈을 뜨게 될 것이고, 끝내는 《국전》으로 하여금 참신하며 유능한 인사로써 심사케 할 것이요, 《국전》의 앞날도 밝아질 것이다.

지금까지의 《국전》에서 배출된 사진가는 많지가 않다. 그중에는 용케도 입상하는 영광을 가지기는 했으나 정당치 못한, 아니면 불미스런 후문을 남긴 사진가도 적지가 않다. 그러므로, 실력의 대결장이 아닌 《국전》에 구태여 연연할 것이 아니라 《국전》 아닌 마당에서 스스로의 역량을 발휘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예술에의 길은 자고로 험난하고 길고 또 지겨운 길이었다. 외국에는 그러한 등용문을 거치지 않은 사진가-지금은 별처럼 빛나는 자리에 앉아 사진을 제작하는 작가들이 얼마든지 있다.

《국전》을 거쳤다고 해서 작가로서의 명예와 긍지를 누리는 사진가란 아직은 없다. 그리고, 당분간은 그런 행운아가 탄생하리라고는 보여지지 않는다.

기회는 언제 어디서 찾아 올른지 모른다. 그 기회가 찾아올 때 잡고 놓치지 않을 역량을 쌓는 수련과 시련을 이겨나갈 실력을 갖추기란 참으로 어렵지만, 경이적인 시각, 새로운 영상을 창조해 내는 머리를 기르고 테크닉을 익힌다면 작가로서의 영광은 반드시 그에게 안겨질 것이다.

구태여 《국전》에 미련을 갖지 말고 좀 더 넓고 큰 시야에서 대세의 흐름을 파악한다면 《사진 국전》쯤이야 있거나 없거나 사진가로서의 등용 길은 얼마든지 있다.

나는 이 기회에 전국의 모든 사진가들이 《국전》에 대한 진실로 정당한 평가를 내리어 저마다 훌륭한 사진 작품을 꾸준히 제작하고 꾸준히 발표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1974년 1월 21일, 임응식 스크랩북 자료

국전운영위원회 위원(23명)

국전 운영위원회 위원 (23명) (1974. 1. - 21)

성명	주	소견공수문	연	연락처	
				사무실	주택
김기승		서예	서예가		73-1728
김성택		음악	서울음대교수	52-2737	75-0486
김세중		조각(구상)	서울미대학장	97-3316	42-0271
김영주		서양화(니구상)	중앙대교수		93-0977
김원		서양화(구상)	홍익대교수	26-2693	69-4206
김인호		언론	중앙일보편집국장	28-1056	
남관		서양화(니구상)	홍대교수	32-0151	73-9678
박득순		"(구상)	영남대예술학부장	23-5487	38-7065
박영선		"(구상)	중앙대교수	28-9762	43-2434
서세옥		동양화(니구상)	서울미대교수		93-7651
손응성		서양화(구상)	화가	92-7358	92-0014
손재형		서예	서예가		73-3355
원경수		언론	대한공통사이사장	75-7858	72-4930
이바동		서양화(구상)	복우회 회장		69-3019
이순석		공예			44-1491
이유택		동양화(구상)	이대미대학장	53-0151 73-6035	32-3117
이해량		연극	예술원직원		69-9410
임응식		사진	사협이사장	74-9216	34-0141 (교)5742
장우성		동양화(구상)	홍대교수	72-3777	33-0376
정인국		건축	홍대건축도시 연구소장	32-0151	32-7725
조연현		문탁	문협이사장	74-8166	93-7179
최기원		조각(니구상)	홍대교수	33-8222	32-2411
홍승현		언론	동아일보출판국장	73-5221	

[상단에 수기: 구상 위원장-이바동, 위원장-손재형, 추상 위원장-김영주, 부위원장-이해량, 서예 위원장-김기승, 공.진.사 위원장-이순석]

1974년 1월 31일, 『동아일보』 5면
「《국전》…4개 독립전으로 개최」

문공부는 8개 부문으로 나뉘었던 《국전》을 통합하는 한편 《국전》에서 분리되어 개최돼 온 《건축 사진전》을 흡수, 4개의 독립된 《국전》을 5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열기로 결정했다.

①구상 ②서예 ③비구상 ④건축 사진 공예 등 네 부문으로 나뉜 《국전》은 회화와 조각에서 동양화, 서양화 등의 구분을 없애고 구상과 비구상으로 분리한 데 가장 큰 특징이 있는데 비구상(동양화, 서양화, 조각)과 건축, 사진, 공예 부문은 5월에 전시회를 갖고 구상(동양화, 서양화, 조각)과 서예를 한데 묶어 10월에 각각 전시회를 열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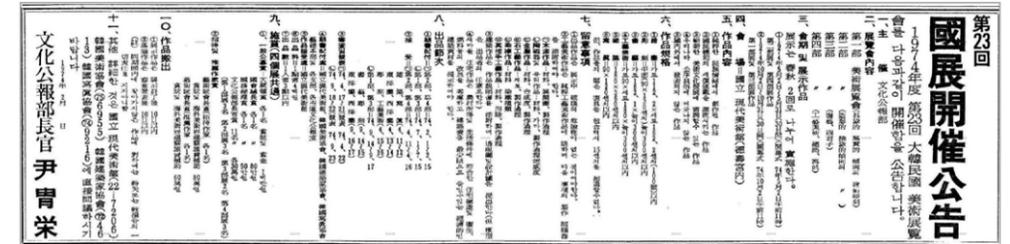
이 네 개의 전시회는 전부 《국전(대한민국미술전람회)》이란 명칭이 붙게 되는데 이 개편으로 3년 전부터 일반 《국전》과 《건축사진전》 두 부문에 수여되던 대통령상과 국회의장상, 국무총리상, 문공부장관상을 네 부문에 걸쳐 똑같이 주게 된다.

문공부는 상금을 대통령상은 100만 원 국회의장상은 80만 원 국무총리상은 50만 원 등 종전대로 수여키로 했으나 문공부장관상은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렸는데 부문이 늘어나는 바람에 결국 수상자가 4배로 늘어나게 됐다.

초대작가와 추천작가에게 주어지는 초대작가상(상금 80만 원)과 추천작가상(상금 60만 원)도 네 분야에 똑같이 배정돼 도합 8명이 이 상을 받게 된다.

문공부는 이 같은 《국전》의 개편에 따라 15명으로 구성됐던 《국전》 운영위원회를 해체하고 서예가 손재형 씨를 위원장으로 하는 25명의 운영위원을 새로 위촉했다.

1974년 2월 1일, 『경향신문』 2면
문화공보부, 「《제23회 국전》 개최 공고」



1974년도 《제23회 대한민국 미술전람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함을 공고합니다.

1. 주최 문화공보부

2. 전람회 내용

- 제1부 미술전람회(구상적 사실적 경향의 회화, 조각)
- 제2부 " (조형적 추상적 경향의 회화, 조각)
- 제3부 " (서예, 사군자)
- 제4부 " (공예미술, 건축, 사진)

3. 회기 및 전시작품

전시는 춘추 2회로 나누어 실시한다.

①1974년 5월 2일~5월 31일(30일간)(개막식 74년 5월 2일 오전 11시)

제2부전 및 제4부전 작품

②1974년 10월 2일~10월 31일(30일간)(개막식 74년 10월 2일 오전 11시)

제1부전 및 제3부전 작품

4. 회장: 국립현대미술관(덕수궁 내)

5. 작품내용

- ①순수한 민족정서에서 창작된 작품
- ②국민총화의 새 가치관을 고취하는 작품
- ③참신한 미술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작품
- ④우리나라 공서양속(公序良俗)에 어긋나지 않는 작품
- ⑤국내외에서 발표되지 않은 작품

6. 작품규격

- ①회화=가로112.2×세로162.2센치(100호) 이내
- ②조각=평면(90×130센치) 높이300센치 이내
- ③서예=가로162.1×높이300센치 이내

- ④공예미술=가로90×세로180×높이300센치 이내
 - ⑤건축=180×360센치 이내
 - ⑥사진=90×120센치 이내
- 단, 작품들의 폭은 표구를 포함해서 15센치를 초과할 수 없다.

7. 유의사항

- ①출품작품은 전시 중 파손의 위험성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 ②공예미술 작품은 순수 공예미술 작품에 한하며 다음 사항의 제작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목칠 작품: 재료, 전개도, 제작 과정
 - ㉡도자기 및 유리작품: 재료, 가마, 제작 과정 소성도(燒成度)
 - ㉢금속작품: 재료, 합성도, 제작 과정
 - ㉣석공예 작품: 재료, 제작 과정
 - ㉤염직 작품: 재료, 염직 종류
 - ㉥기타 수공예 작품: 재료, 용제, 제작 과정
- ③건축 작품은 작품 설명서를 첨부하여 투시도 및 설계도를 제출한다
(단 모형은 출품자의 임의로 한다)
- ④새마을 주택 작품은 농촌 소득 및 생활 조건에 부합한 주택 구조 및 위생, 연료 등의 개량을 고려하고 건축비를 최소한으로 들일 수 있는 경제적인 건축 재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8. 출품절차

- ①원서배부=㉠제2부, 제4부=74.2.1~2.15
㉡제1부, 제3부=74.7.1~7.15
- ②접 수=㉠제2부, 제4부=74.4.11~4.16
건축, 사진(4.11~12)
동양화, 서양화(4.13~14)
조각, 공예미술(4.15~16)
㉡제1부, 제3부=74.9.14~9.17
서예, 조각(9.14~15)
동양화, 서양화(9.16~17)
- ③심사 및 발표=㉠74.4.17~21(발표 74.4.22)
㉡74.9.18~22(발표 74.9.23)
- ④원서 배부처=국립현대미술관, 한국미술협회, 한국건축가협회, 한국사진협회, 예총 본부 및 각 지부, 각 시도 문화공보실
- ⑤작품접수처=국립현대미술관
- ⑥출품료=1점당 4백 원
- ⑦출품수=1인당 3점 이내

9. 시상(4개전 공통)

①일반공모상

대통령상	각1명	상장 및 상금	1백만 원
국회의장상	각1명	〃	80만 원
국무총리상	각1명	〃	50만 원
문화공보부장관상	11명	〃	각 30만원

(제1부전 3명, 제2부전 3명, 제3부전 2명, 제4부전 3명)

②초대 및 추천작가상

예술원회장상(초대작가 각1명) 상장 및 해외 미술계 시찰 여비 보조 80만원
예술원회장상(추천작가 각1명) 상장 및 해외 미술계 시찰 여비 보조 60만원

10. 작품반출

- ①전시작품은 전시종료 후 10일 이내
- ②낙선작품은 심사발표 후 10일 이내

(주) 동기간 내에 찾아가지 않은 작품에 대하여는 분실 또는 파손 등의 일절 책임을 지지 아니함

11. 기타 상세한 것은 국립현대미술관(22-7206) 한국미술협회(75-6955) 한국건축가협회(72-4613) 한국사진협회(74-9216)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974년 2월 일

문화공보부 장관 윤주영

1974년 4월 22일, 『경향신문』 7면

「《국전》 2·4부 영예의 2인」

“자연의 신비·발전 상징”, 사진으로 첫 대통령상... 유정재 씨

“《국전》역사상 사진으로는 최초의 대통령상을 타게 되어 개인의 영광은 물론 전 사진작가의 영예입니다” 작품 〈새아침〉으로 《국전》 제4부의 대통령상을 차지한 유정재 씨(39·대한무역진흥공사 사진실장)는 이번 수상을 전 사진작가의 영광이라고 감격해 한다. 천연기념물 고니가 새아침에 비상하는 것을 천연색으로 잡은 작가 유정재 씨는 “자연에 대한 신비를 추구하고 발전하는 힘을 상징한 것”이라고 작품의 주제를 설명했다. 1남 2녀의 아버지인 유 씨는 지난해 문공부장관상 수상을 비롯해 4번 특선한 경력의 소유자로 이번 대통령상 수상으로 추천작가가 되었다. 수상의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유 씨는 작품 제작을 위해 지난 겨울 낙동강에서 4일간 추위에 떨기도 했었다고 말한다.

1974년 5월, 『포토그래피』(통권84호), p.60

서상덕, 「유정재의 영광과 사단, 〈새아침〉의 대통령상 수상을 더욱 의의 깊게 하는 일」

《제32회 봄 국전》(74년부터는 《국전》 제도가 바뀌어 봄, 가을 두 번에 나뉘어 연다)에서 사진 작품이 대통령상을 타므로써[탐으로써] 사단은 온통 축제 기분에 들떠 있다.

대통령상을 타게 된 행운의 주인공은 유정재 씨(39)로 그는 이미 사진 부문에서 세 번이나 연거푸 특선한 경력을 가진 저명한 중견작가다. 그는 이 〈새아침〉의 수상뿐 아니라 추천작가의 영예도 아울러 차지하였으므로 가위(可謂) 생애 최고의 해를 맞이한 셈이며, 이와 같은 경사가 그 한사람만의 것이 아니고 전 사진계의 기쁨과 경사로 평가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이다. 그것은

첫째 사진이 《제13회 국전》에서부터 참여한 지 11년 만에 차지한 영광인 것과

둘째 최고상을 항상 건축 부문에만 빼앗겼던 쓰라림이 컸었고

셋째 뛰어난 사진 작품이 없었는데다가 사진계는 항상 분렬 대립 중상의 풍토를 조성하여

전체 사진인의 참여가 결여되어 있었고

네째 이와 같은 원인으로 심사위원 선정이나 작품 선정에 불미스런 잡음이 항상 꼬리를 물고

따라다녔으며

다섯째 따라서 문화예술계에서조차 사진이나 사진가를 웃음게[우습게] 인식하는 형편이었다.

그러하여 양심적이고 창작에 전념하는 사진가들은 사진계의 혁신과 내실을 기하는 자기비판을 꾸준히 주장하고 전개해왔던 것이다.

그러므로 74년도 《봄 국전》에서의 유정재 씨의 대통령상 수상으로 사진계가 술렁이는 것은 이와 같은 지금까지의 종파적 반문화적 자학적인 구습과 사원(思怨)을 초월하여 전체 사진인들은 쌍수를 들어 이를 경하하며 동시에 이제까지의 타기할 습성들을 반성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에 더 큰 의의가 있는 것이다.

작가란 자기의 창조 능력을 다하여 작품을 제작하는 길만이 그에게 영예를 안겨다 주며, 사진계와 문화계에 푸러스를 가져다준다는 소박한 진리를 깨닫지 않으면 안 된다.

필자는 유정재 씨가 사진계에 투신하기 전서부터 그와 교분을 맺어온 터라 인격이나 사생활, 그리고 평소의 창작 태도에 이르기까지 소상하게 알고 있다.

그로서는 대통령상 수상이 너무나 당연한 결과요 오히려 시기가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직무에 충실하고 가정에 알뜰한 것만으로 나는 그의 품성이나 인격을 대변할 밖에 없거니와 끊임없이 창작하고 또 항상 정열을 쏟아 그것을 완성하고야 마는 그의 끈기는 ‘작가의 영광’을 차지하고도 남는 바 있다고 할 것이다.

이번 수상이 그 개인의 것만이 아니라 전체 사진계의 것으로 돌리고 싶다는 당선 소감의 참 뜻을 우리는 다 같이 마음속에 새겨 볼 필요가 있다.

수상 작품은 아직 감상하지 못했고 인쇄된 것만 보았으므로 논평할 처지가 못 된다. 그러나 오소독스한 수법으로 자연의 신비성과 장엄한 희망감을 공감케 하는 역작인 것을 짐작하게 한다.

한 사람의 훌륭한 작가를 축복함과 동시에 그가 차지한 영광이 헛되지 않도록 사진계를 흐려 놓고 그르쳤던 지도급 인사들의 대오 반성을 바라는 바다.

〈평론가〉

1974년 5월 2일-5월 31일, 국립현대미술관[《봄 국전》]
문화공보부 주최, 《제23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



국전운영위원(무순)

위원장 손재형

부위원장 이해랑

위원 이마동 김세중 김 원 박득순 박영선 손응성 이유태 장우성 김성태 김영주

남 관 서세옥 최기원 김인호 김기승 원경수 조연현 이순석 정인국 임응식

홍승면

심사위원(무순)

〈제4부〉 위원장 김재철

부위원장 이해선

사진 분과위원장 정인성

위원 이해선 이명동 문선호

초대작가(무순)

〈제4부〉

사진 김조현 이건중 이경모 이해선 임응식 현일영 김종양 박필호 안월산

이명동 이형록 정인성 문선호

추천작가(무순)

〈제4부〉

사진 조현두 김종현 이정강 홍순태 이종화 임석제 정도선

수상작

□ 일반공모상 □ [각 부별 1점 수상]

대통령상 제4부 사진 〈새아침〉 유정재

국회의장상 [제4부 건축 수상]

국무총리상 [제4부 공예 수상]

문화공보부장관상[각 부문 별 1점 수상] 제4부 사진 〈나들이〉 김석만

□ 초대추천작가상 □ [각 부별 1인 수상]

초대작가상(예술원회장상) [제4부 공예 수상]

추천작가상(예술원회장상) [제4부 건축 수상]

사진(제4부)

운영위원 〈월탄 박종화〉(엽음사진) 임응식

심사위원 〈회춘〉 이해선, 〈추모〉 이명동, 〈증산의 아침〉 정인성, 〈환희〉 문선호

초대작가 〈상 타는 날〉 김조현, 〈산〉 이건중, 〈군어〉 이형록, 〈산정무한〉 김종양, 〈장승〉 이경모

추천작가 〈풍상〉 조현두, 〈석축지대〉 김종현, 〈농부〉 이정강, 〈토왕성 폭포〉 임석제[임석제],

〈해변〉 홍순태, 〈숲〉 정도선, 〈2등부인〉 이종화

특선 〈구도〉 이순홍, 〈건설의 영상〉 배동준, 〈함성〉 김영민, 〈기구〉 강상규, 〈러쉬아워〉 이창남

입선

〈흔적〉 김호선

〈힘〉 김수열

〈협동〉 신태래

〈귀로〉 김형승

〈강변의 정경〉 이동우

〈한촌〉 김규민

〈협동〉 이창진

〈노승〉 강봉규

〈역〉 장기창

〈산업전사〉 이수중

〈심야 어로〉 오진태

〈도전〉 이기철

〈열연〉 고명진

〈만도〉 김용수

〈살림살이〉 한기수

〈질주〉 김기순

〈환율〉 김복만

〈백합채취〉 문창식

〈눈 오는 날〉 김성숙

〈폭양〉 박용권

〈갯〉 김우태

〈운반〉 심재욱

〈호반〉 김지후

〈돛자리전〉 이상우

〈죽세공〉 이경식

〈누구요?〉 한정식

〈환상〉 한명선

〈노점〉 정영모

〈잠깐실례〉 장진필

〈얼굴〉 민현성

〈마중길〉 설찬수

〈잔설〉 송봉운

〈바다의 사자〉 박충모

〈고독〉 손 석

〈농악〉 이현호

〈줄말〉 육명심

〈길〉 조동제

〈무회〉 김생수

〈백양〉 장기철

〈결실〉 성두경

〈풍년놀이〉 이정훈

〈삼형제〉 박종인

〈흥취〉 김용휘

〈설인〉 변길선

〈연화작업〉 오복근

〈하학길〉 김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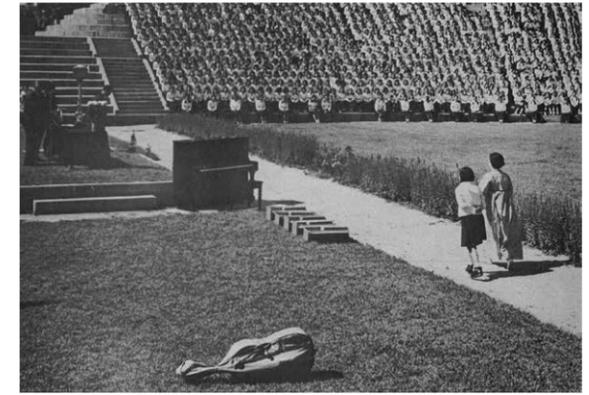
제4부 대통령상 사진 <새아침> 유정재 [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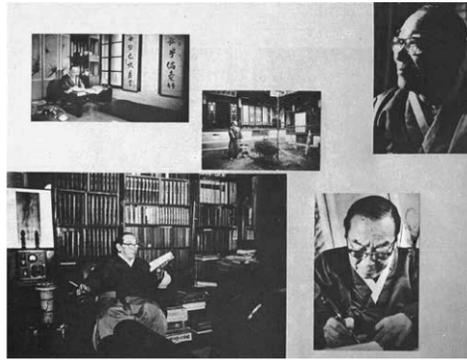
문화공보부장관상 <나들이> 김석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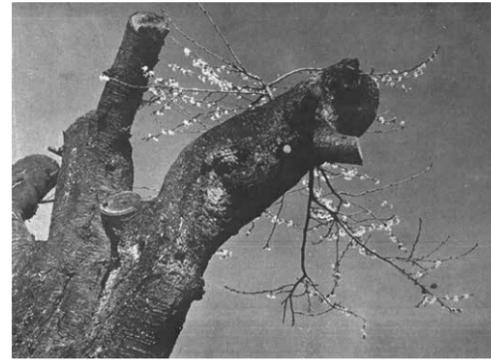
심사위원 <환희> 문선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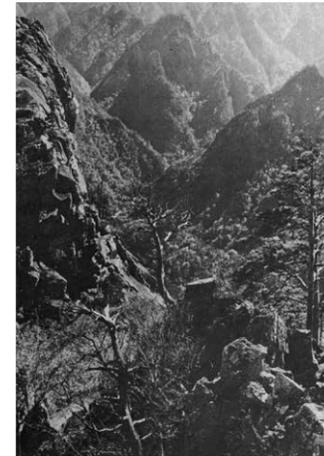
초대작가 <상 타는 날> 김조현



운영위원 <월탄 박종화>(연습사진) 임응식



심사위원 <회춘> 이해선



초대작가 <산> 이진중



초대작가 <군어> 이형록



심사위원 <추모> 이명동



심사위원 <증산의 아침> 정인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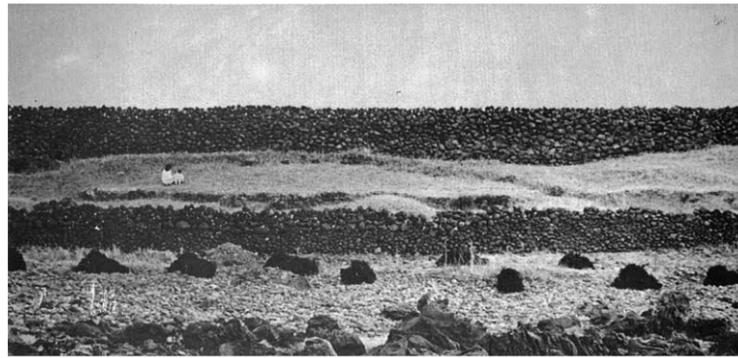
초대작가 <산정무한> 김종양 [컬러]



초대작가 <장승> 이경모 [컬러]



추천작가 <풍상>
조현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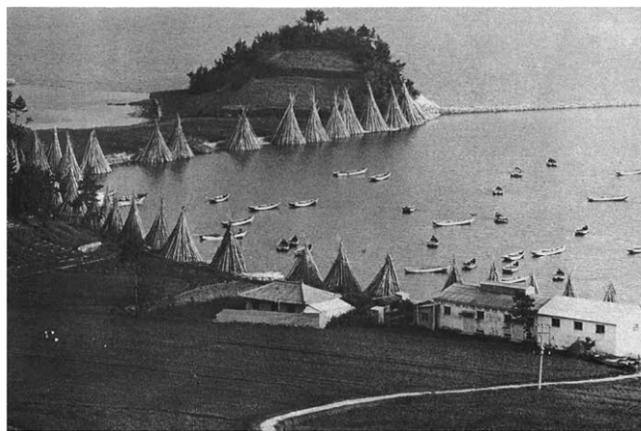
추천작가 <석축 지대> 김종현



추천작가 <농부> 이정강 [컬러]



추천작가 <토왕성 폭포> 임석재
[임석재] [컬러]



추천작가 <해변> 홍순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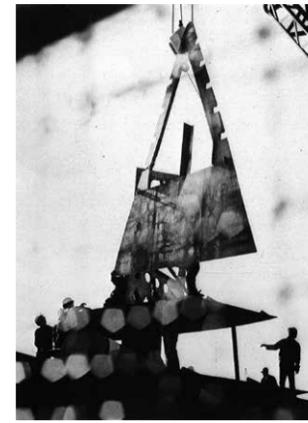
추천작가 <숲> 정도선



추천작가 <2등부인> 이종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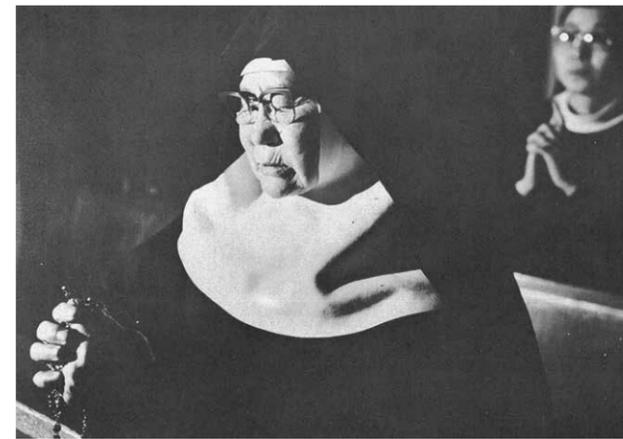
특선 <구도> 이순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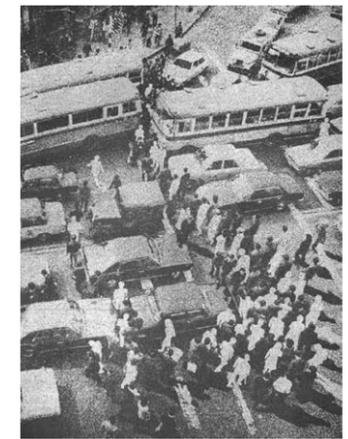
특선 <건설의 영상> 배동준
[컬러]



특선 <함성> 김영민 [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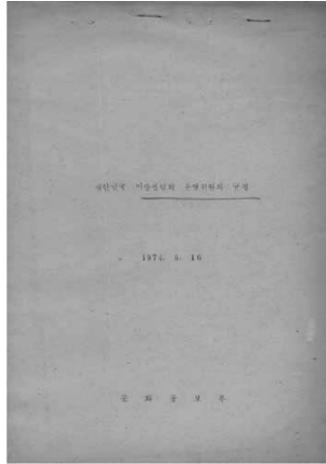
특선 <기구> 강상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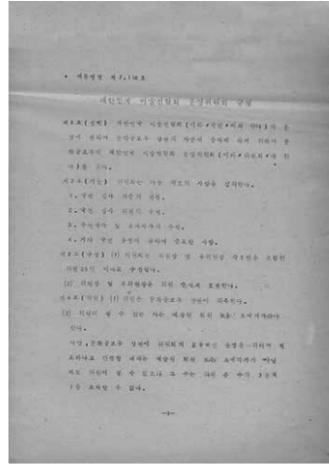
특선 <러시아워> 이창남

1974년 5월 16일, 임응식 스크랩북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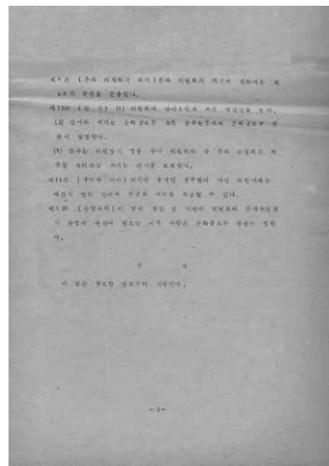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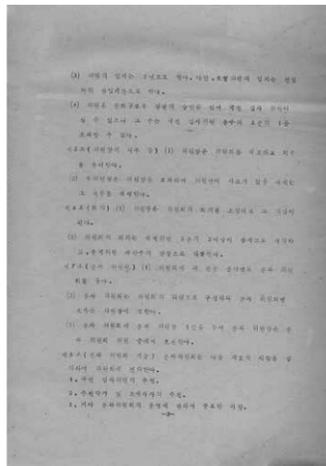
문화공보부, 《대한민국미술전람회》 운영위원회 규정



표지



내지 1-3



* 대통령령 제7,156호

《대한민국미술전람회》 운영위원회 규정

제1조. (설치) 《대한민국미술전람회》(이하 《국전》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문화공보부 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공보부에 《대한민국미술전람회》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국전》 심사 기준의 제정.
- 2. 《국전》 심사위원의 추천.

3. 추천작가 및 초대작가의 추천.

4. 기타 《국전》 운영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

제3조(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23인 이내로 구성한다.

(2)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위원) (1) 위원은 문화공보부 장관이 위촉한다.

(2) 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예술원 회원 또는 초대작가라야 한다.

다만, 문화공보부 장관이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술원 회원 또는 초대작가가 아닌 자도 위원이 될 수 있으나 그 수는 위원 총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3)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4) 위원은 문화공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전》 심사위원이 될 수 있으나 그 수는 《국전》 심사위원 총 수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리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분과 위원회) (1) 위원회에 각 전문 분야별로 분과 위원회를 둔다.

(2) 분과 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분과 위원회 별 소속은 위원장이 정한다.

(3) 분과 위원회에 분과 위원장 1인을 두며 분과 위원장은 분과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8조(분과 위원회 기능) 분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위원회에 건의한다.

- 1. 《국전》 심사위원의 추천.
- 2. 추천작가 및 초대작가의 추천.
- 3. 기타 분과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

제9조(분과 위원회의 회의) 분과 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간사) (1)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약간 인]을 둔다.

(2) 간사와 서기는 문화공보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문화공보부 장관이 임명한다.

(3)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와 각 분과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1조(수당과 여비)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영에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와 분과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문화공보부 장관이 정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1974년 6월, 『신동아』(통권118호), p.311

이명동, 「(뉴스와 화제-사진) 단일사진의 탈피」

《제23회 봄의 국전》 제4부전(공예·건축·사진)에서 사진작품이 영예의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사진이 《국전》에 참여하고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대통령상을 받았다. 우리 사단으로서의 역사적인 의의를 지닌 것이라고 하겠으며 따라서 전체 사진인들의 기쁨과 사기는 절정에 달하고 있다.

15년 전만 하더라도 사진이 무슨 예술이 될 수 있느냐고 사진작품의 예술성을 극구 부정하고 사진의 《국전》 참여를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선 미술인들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그 후 전체 사진인들의 《국전》 참여의 여망은 미술인들의 이해와 정부 당국의 결단성 있는 시책으로 사진은 당당히 《국전》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러나 사진이 《국전》에 참여하고 또 《국전》 최고상인 대통령상까지 수상을 했다고 해서 갑자기 사진예술이 높은 수준으로 발전 향상되고 완숙해졌다고는 할 수 없다.

솔직히 말해서 이번 《국전》 제4부전에서 대통령상을 받은 유정재 씨의 〈새아침〉이라는 칼라 작품이 결코 새로운 형식의 작품은 아니었다. 평범한 회화 양식의 작품으로는 극치의 것이었다고 할까. 어쨌든 단 한 장의 공간에다 내용을 담아야 하는 단일사진으로서의 최선을 다한 완벽한 것이었지만 사진의 본질성을 따진다면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서 《국전》에서 규정한 응모 작품의 제작 형식이 단일사진만으로 일관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이다. 본래 사진은 영상언어로서의 의의가 크다. 단일사진의 제작형식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니고 오늘날까지 전래되어 왔다. 그러나 오늘날 세계적인 사진예술의 사조는 단일사진의 제작 형식이 아니고 보다 테마의 이야기를 구체적이고 날카롭게 엮어서 표현할 수 있는 '연습사진' 형식으로 흐르고 있다.

단 한 장이라는 엄격히 한정된 화면 공간에다 테마의 내용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전달해서 작가의 주장을 강렬히 내세우기는 무척 어렵다. 가령 이것이 가능하다고 해도 그 가능성은 아주 희박한 편이라고 하겠다. 단 한 장이라는 제작 조건을 꼭 지켜야 한다면 기술적으로만 표현을 시도하고 그것에 만족하는 경향이 흐르기 쉽다. 즉 작품의 내용보다도 테크닉의 우열을 더욱 중요시하고 한 장의 걸작을 만드는 데만 급급하는 것이 단일사진의 성격이라 하겠다. 또한 단 한 장이라는 틀 때문에 무의식중에 회화적인 작화 방법을 취하게 되고 표현을 그림처럼 만드려는 과오를 범하기 쉽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와 같은 단일사진 일변도의 의식은 절대적인 것으로 되고 있다. 이러한 단일사진의 병폐는 진정한 사진예술의 길을 가로막고 있다.

현대사진의 미학을 자각하고 살로니스트와 같은 자연 관조가 아닌, 현실을 직시하고 리얼한 표현을 시도하는 작가 중에도 이러한 단일사진의 형식을 버리지 못하고 애용한 나머지 표현이 제약되는 예를 많이 보고 있다.

그 대표적인 작가가 바로 '앙리 가르디 브래송[앙리 까르띠에 브래송]'이다. 이 '브래송'의 작품은 진실성과 독특한 콤포지션의 설정 등 사진의 특징을 유감없이 구사하고 있어 여기에는 다

른 작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매력이 있지만 그의 작품에는 무엇인가 또 하나 모자라는 소극성을 느낀다. 그것은 단일사진이라는 형식에 사로잡힌 통속적인 틀에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결국은 결작주의가 되어 표현에 있어서 내용의 날카로움을 잃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열린 《봄의 국전》은 현대미술의 다양한 사조에 적응하여 한국 미술의 주체적 성장을 촉진하는 한편 각 분야의 독자적이고 균형 있는 발전을 뒷받침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앞으로의 《국전》 사진은 회화의 영역을 벗어난 사진작품의 독자적인 성격을 살리는 방향으로 정부 당국도 종전과 같은 단일사진이 아닌 연습사진도 참여토록 배려를 해주어야 하겠고 더욱 전체 사진인들도 새로운 사진 미학의 인식이 있어야만 되겠다.

〈命〉

1975년 1월, 임응식 스크랩북 자료
문화공보부, 《제24회 국전》 개최 요강



금년은 광복 30주년으로 모든 분야의 성숙을 다짐하는 해입니다.

우리는 이미 문예중흥의 횃불을 높이 들어 5개년 계획의 거보를 힘차게 내딛고 순조롭게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모름지기 겨레의 융성발전에는 예술적, 문화적 창조가 수반되어야 하며 그것은 국가발전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예술문화의 향상은 우리의 당면 과제이며 오늘을 사는 인간의 보람과 내일의 꿈을 실현하는 승화작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올해 《국전》은 실로 우리 민족의 무한한 의욕과 밝은 미래상이 담긴 향기 높은 겨레의 정서를 되새기고 이룩하는 창조미의 일대향연이 되어야겠습니다.

이에 《제24회 국전》 개최를 널리 알리면서 다음과 같이 작품을 공모합니다.

1. 회기 및 전시 작품

회기는 봄과 가을 두 번에 걸쳐서 실시

○ 1975년 5월 2일 ~ 5월 31일 (30일간)

(개막식 75년 5월 2일 오전 11시)

제2부 및 제4부전

○ 1975년 10월 2일 ~ 10월 31일 (30일간)

(개막식 75년 10월 2일 오전 11시)

제1부 및 제3부전

2. 전시내용

제1부전 : 구상적, 사실적 표현의 회화, 조각

제2부전 : 조형적, 추상적 표현의 회화, 조각

제3부전 : 서예(사군자 포함)

제4부전 : 공예미술, 건축, 사진

3. 전시회장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 내)

4. 작품규격

○ 회화 : 112×162센치 이내 (가로 세로 구별 없이 100호 이내)

○ 조각 : 평면 (90×130센치) 높이 300센치 이내

○ 서예 : 가로152×높이250센치 이내

○ 공예미술 : 가로90×세로180×높이250센치 이내

○ 건축 : 180×360센치 이내

○ 사진 : 90×120센치 이내

단 “틀”의 폭은 표구를 포함해서 15센치 이내

5. 유의사항

○ 국내외에서 발표되지 않은 작품

○ 출품작품은 전시 중 파손될 위험성이 없는 것

○ 공예미술작품은 창작품에 한하며, 다음 제작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함

① 목칠공예: 재료, 전개도 제작과정

② 도자기 및 유리공예: 재료, 가마, 제작과정 소성도

③ 금속공예: 재료, 합성도, 제작과정

④ 석공예: 재료, 제작과정

⑤ 염직공예: 재료, 염직 종류

⑥ 기타 수공예: 재료, 용도, 제작과정

○ 건축작품은 작품설명서를 첨부하고 투시도 및 설계도 제출 (단, 모형은 출품자의 임의)

○ 새마을주택작품은 국민의 생활수준을 높이고, 밝고 부지런하고 자랑스러운 생활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경제적인 건축공간의 창조를 목적으로 하는 것.

6. 출품절차

○ 원서매부 : ① 제2부, 제4부: 75. 1. 23 부터

② 제1부, 제3부: 75. 7. 1 부터

○ 접수 : ① 제2부, 제4부: 75. 4. 11~4. 16

건축, 사진(4. 11~12)

회화(4. 13~14)

조각, 공예미술 (4. 15~16)

② 제1부. 제3부: 75. 9. 14~9. 17

서화, 조각(9. 14~15)

회화(9. 16~17)

○ 심사 및 발표 : ① 75. 4. 17~21(발표75. 4. 22)

② 75. 9. 18~22(발표 75. 9. 23)

○ 원서 배부처 : 국립현대미술관, 한국미술협회, 한국건축가협회, 한국사진협회, 예총본부
및 각 지부 각 시도 문화공보실

○ 작품 접수처 : 국립현대미술관

○ 출품료 : 1점 당 500원

○ 출품수 : 1인 당 3점 이내

7. 관람료

○ 대인 : 50원 (단체 30원)

○ 소인 : 30원 (단체 20원)

8. 시상

○ 일반공모상 (4개전 공통)

대통령상 각1명 상장 및 상금 150만 원

국무총리상 " " 100 "

문화공보부장관상 10명 " 각 50만 원

○ 초대 및 추천작가상 (예술원회장상)

초대작가상(봄, 가을전시 각1명) 상장 및 상금 100만 원

추천작가상(") " 80 "

9. 작품반출

○ 전시작품은 전시종료 후 10일 이내.

○ 낙선작품은 심사종료 후 10일 이내.

단. 동기간 내에 찾아가지 않는 작품에 대하여는 분실 또는 파손 등의 일절 책임을 지지
아니함.

10. 참고사항

기타 상세한 것은 국립현대미술관 (22-7206)

한국미술협회(75-6955) 한국건축가협회 (72-4613)

한국사진협회(74-921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975년 1월 일

문화공보부 장관

대한민국미술전람회 회장

1. 출품자 유의사항

1. 원서기재

가. 심사위원, 초대 및 추천작가, 일반, 란에는 해당 부분에 ○으로 표시한다.

나. 작품가격 란에는 매도가격을 필히 기입하고 매매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비매품으로
기입한다.

다. 고인의 작품을 출품할 경우에는 작가경력 란에 고인의 이력을 상세히 기재한다.

라. 작가경력 란에는 출신교 또는 재적학교 작가경력 소속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마. 출품원서는 1점에 대하여 1부씩 제출하며 그 기재는 정확하여야 한다.

2. 출원 및 반입절차

가. 출품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소정 기일 내에 출품원서와 작품을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된 출품 기일이 경과한 후에는 접수하지 않는다.

나. 출품작품에는 배부된 출품표에 명제, 제작자 성명, 작품 취급상의 유의사항 등을 기재
하고 이를 매점마다 첨부하여야 한다.

다. 동일인이 작품 3점까지 출품할 수 있다.

라. 작품 반입 시에는 인장을 지참하고 담당직원의 확인을 받은 다음 접수증을 교부 받고
접수증은 반출시까지 보관한다.

3. 반출절차

가. 작품 반출 시에는 접수증을 제시하고 본인이 날인한 영수증을 제출한 후 작품을 반출
한다.

나. 소정 기일 내에 반출치 않은 작품에 대하여는 분실 파손 및 보관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 일단 접수된작품은 소정 기일 외에는 반출을 불허한다.

4. 기타

가. 출품원서와 함께 배부된 접수증은 본인이 소정란에 기재하고 작품반입 및 반출 시에 이
를 지참하여야 한다.

나. 원서용지가 부족되어 배부를 못 받을 경우에는 동일한 양식과 규격에 의한 용지를
별도로 작성 사용하여도 무방하다.

2. 새마을주택설계 유의사항

[생략]

1975년 4월 23일, 『경향신문』 5면
「두드러진 개성표현, 《봄 국전》 부문별 작품 경향」

아류적 모방·심사위원 구미노린 것도 많아
 동양화 막연한 구별 줄어, 서양화 안이한 출품 탈피

종합전에서 4개부로 분리된 지 두 번째 맞은 75년도 《봄 국전》의 부문별 심사결과가 밝혀졌다.

올해 《국전》의 2부와 4부의 특징은 일반 응모의 출품수가 작년과 비교(작년8백61점, 금년1천74점) 2백13점이 늘어난데 비해 입상 및 입선 폭은 국회의장상이 없어지고 일정한 전시장 면적에 따라 입선수를 작년수준(작년2백39점, 올해 2백38점)으로 제한하여 그만큼 등롱문[등용문]이 좁아진 것.

금년도의 입선작은 수년전의 특선작 수준에 해당한다는 심사위원(서세옥 씨)의 평이 나오고 있는데 전체적인 작품들이 “방향이 뚜렷하고 개성적인 표현에 노력한 작품들이 많았다”(남관 2부 심사위원장).

그러나 아직도 아류적 모방작 내지 심사위원이나 운영위원들의 작품 경향을 모방, 입선이나 입상을 노리는 경향도 많았다는 것이 대부분 심사위원들의 심사평에서 반영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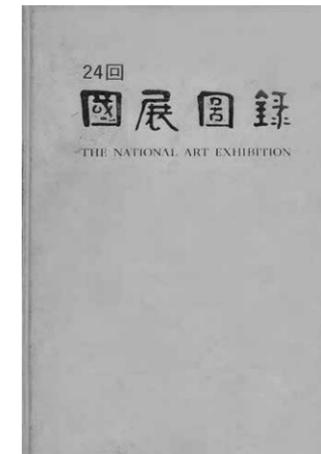
4부(공예·건축·사진) [2부 생략, 4부만 발췌]

▲공예미술 분야는 뚜렷한 변화는 못 느꼈지만 칠기 도자기 목공예 등 다양한 공예 부문이 고르게 평균화했고 작품이 안정된 것이 눈에 띄었고 63년 이래 두 번째로 대통령 수상작품이 나온 것이 반가운 현상(권순형 심사위원장)

▲건축 분야는 탄 부문이 전체적으로 증가한데 대해 유일하게 출품수가 줄어들어(작년 28점에서 21점으로) 저조한 느낌.

▲사진 부문은 소재선택과 처리방법이 상당히 정리되고 조형적 감각을 벗어나 명암의 처리 등에서 세련된 기술을 보여준 작품들이 많아 많이 향상되었다(이해선 심사위원장).

1975년 5월 2일-5월 31일, 국립현대미술관[《봄 국전》]
문화공보부 주최, 《제24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



국전운영위원(무순)

위원장 손재형

부위원장 이해랑

위원 이마동 김세중 김 원 박득순 박영선 손응성 이유태 장우성 김성태 김영주
 남 관 서세옥 최기원 김인호 김기승 원경수 조연현 이순석 정인국 임응식

심사위원(무순)

〈제4부〉 위원장 이해선

부위원장 백태원

사진 분과위원장 이진중

위원 문선호 박필호 이해선 이형록

초대작가(무순)

〈제4부〉

사진 김조현 이진중 이경모 이해선 임응식 김종양 박필호 안월산 이명동
 이형록 정인성 문선호

추천작가(무순)

〈제4부〉

사진 조현두 김종현 이정강 홍순태 이종화 임석제 정도선 이종하 유정재 지부원

수상작

□ 일반공모상 □

대통령상[각 부별 1점 수상] [4부 공예 수상]
 국무총리상[각 부별 1점 수상] 제4부 사진 <정담> 이창남
 문화공보부장관상[각 부문별 1점 수상] 제4부 사진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장진필
 □초대·추천작가상 □
 [봄, 가을전시 각 1점 수상] [사진 부문 수상 없음]

사진(제4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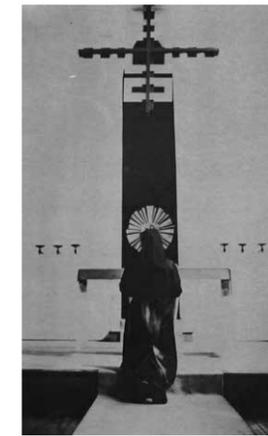
운영위원 <부감> 임응식
 심사위원 <옹기전> 이해선, <격랑> 문선호, <산장의 창> 이진중, <회구> 이형록
 초대작가 <수변정경> 정인성, <용상> 김종양, <장승> 이정모, <인생찬미> 이명동
 추천작가 <장날> 홍순태, <신진> 조현두, <도르래> 이정강, <사원점묘> 김종현, <삶> 지부원,
 <다도해의 아침> 임석재, <정> 유정재, <허상> 정도선
 특선 <환상> 김봉경, <생업> 조진한, <새살림> 이진식, <조양> 이순홍

입선

<귀로> 송일학	<남과 여> 오규환	<토기> 김우태
<내일의 역군들> 백태현	<부채춤> 김영민	<생명력> 손재석
<리듬> 이도윤	<물방울의 리듬> 김인태	<눈길> 노익배
<초야> 남상준	<추구> 이정순	<농부> 배동준
<버림받은 노선> 김동욱	<어느순교자의 무덤에서> 강상규	<농악> 김복식
<암벽> 정운봉	<조광> 장준식	<바다와 갈매기> 박옥수
<폭설> 박병오	<꽃과 나비> 조형치	<강변> 정정희
<새마을 작업> 김형승	<출어작업> 이기철	<형제> 한정식
<구성> 김수경	<석조나루> 박용권	<창공> 허형구
<무관> 유재정	<산상법회> 이봉재	<풍작> 김석만
<죽물시장> 김생수	<노련공> 이진수	<하오의 T골목> 권진희
<조선건국> 김기순	<협동> 김호선	<비말> 박종담
<형질> 오진태	<작업> 육명심	<투계> 이봉하
<해빙> 이석규	<석양의 갯가> 오복근	<포말> 이준무
<대화> 김용수	<해변점경> 이정훈	<염전작업> 이현하
<야상곡> 이용권	<개척지> 김치억	<산책> 심재욱



제4부 국무총리상 사진 <정담> 이창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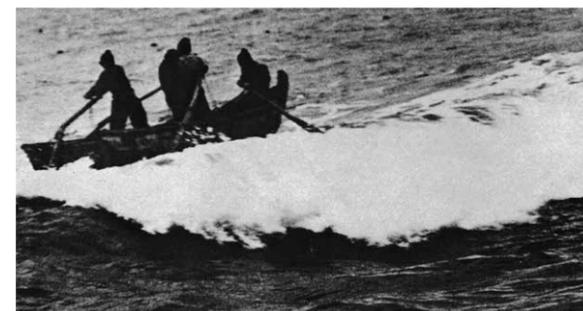
문화공보부장관상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장진필



운영위원 <부감> 임응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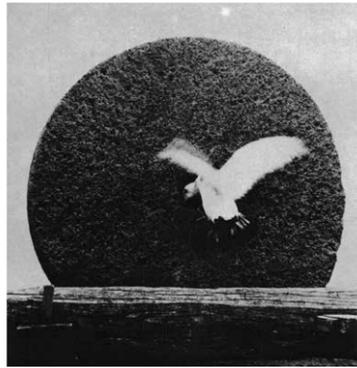
심사위원 <옹기전> 이해선



심사위원 <격랑> 문선호



심사위원 <산장의 창> 이진중 [컬러]



심사위원 <회구> 이형록



초대작가 <수변정경> 정인성



추천작가 <도르래> 이정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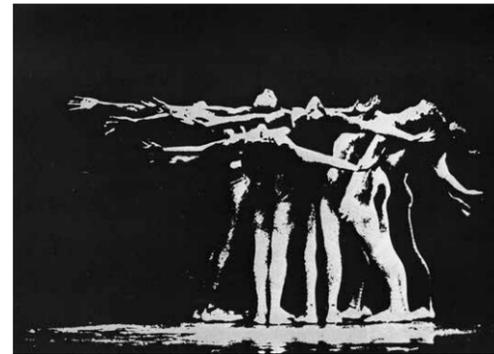
추천작가 <사원 점묘> 김종현 [컬러]



초대작가 <장승>
이경모 [컬러]



초대작가 <용상>
김종양 [컬러]



초대작가 <인생찬미> 이명동



추천작가 <삶> 지부원



추천작가 <다도해의 아침> 임석제 [컬러]



추천작가 <장날> 홍순태 [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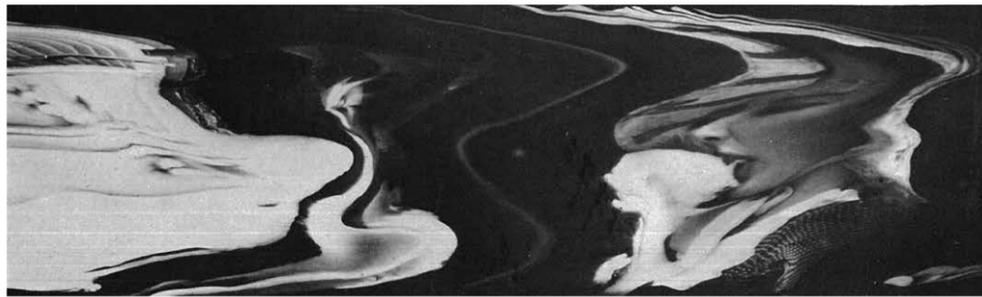
추천작가 <신진> 조현두 [컬러]



추천작가 <정> 유정재 [컬러]



추천작가 <허상> 정도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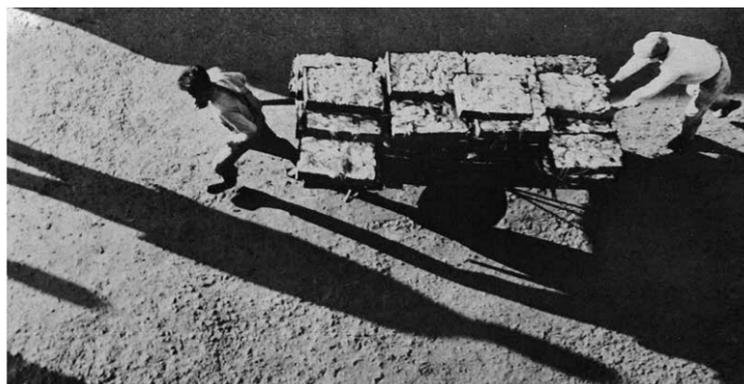
특선 <환상> 김봉경



특선 <생업> 조진한 [컬러]



특선 <새살림> 이진식 [컬러]



특선 <조양> 이순홍

1975년 6월, 『포토그래피』 (통권97호), p.49

김태한, 「《24회 국전》 사진을 보고-다양한 소재 훌륭한 인화 처리」

사진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작품을 감상하는 척도도 높아져 가고 있다. 특히 《국전》에 오시는 분들은 타 분야와 비교하여 가며 감상하기 때문에 역사가 얇은 사진은 더 많은 노력과 연구가 있어야 하는 장소이다. 그런데 전시된 작품은 항상 불만족스럽다. 이와 같은 현상은 작가의 역량 부족 탓인지 심사원의 역부족인지 분간하기 힘든 것이다. 어떤 전시라도 심사원의 뒷이야기가 나온다는 사실은 명에스럽지 못하다. 이제까지의 《국전》 사진부는 매년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말들이 오고 가고 있었다는 것은 사단 발전에 암이 되어왔다. 이것을 시정하지 않고는 역량 있는 작가의 발전은 환상에 불과하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금년 《24회 국전》은 조금 양상이 달라졌다. 전시된 작품이 거의 평균작 이상이라는 점과 또 인화 처리가 예년에 비해 월등한 아름다운 계조(階調)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 내용도 다양화되었다는 점이다. 이런 호(好) 현상은 작가의 역량도 역량이지만 선발도 잘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된다. 1년 동안 정성껏 마련한 작품이 어떤 그룹[그룹] 의식 때문에 빛을 보지 못하고 버려진다면 얼마나 억울한 것인가를 생각해 보았는지 물어보고 싶다. 이와 같은 상태가 이제까지의 《국전》 사진부의 현실이었다. 반성해야 될 줄 안다. 그러면 전시장으로 발을 돌려 보자. 초대작가와 추천작가는 1년에 1점 출품하는 작품은 비중이 크고 신인 및 후배들에게 모범이 되는 작품을 출품해주면 좋겠다. 고생하지 않고 역작이 생산되는 것은 아니다. 신인들의 노고의 몇 분의 일만 하여도 오늘과 같은 전시는 되지 않았을 것이다. 몇 작품은 부끄러울 정도이다. 사람이란 자기 위치와 체면을 지킬 줄 알아야 하는 법이다. 선배로서 성의 있는 작품이 여실히 요구된다.

국무총리상인 '이창남' 작 <정담>은 소재의 생활 상태를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으며 수수한 인정과 환희에 넘치는 표정 그리고 특수기법을 사용하여 누구든 발을 멈추게 하는 작품이며 최고상으로서 무난한 작품이라고 본다. 문화공보부장관상인 '장진필' 작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은 성당의 엄숙한 분위기를 가지면서 누구든지 마음 놓고 찾을 수 있는 분위기를 잘 나타내고 있다. 특히 훌륭한 인화 처리로 화면이 너무나 아름다우며 티 없는 깨끗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으나 구도가 마음에 거슬린다. 특선 작품인 '이순홍' 작 <조양>은 그림자의 처리는 무난하나 표정이 없는 평범한 작품이다. '조진한' 작 <생업> 바닷가에 가면 얼마든지 볼 수 있고 누구든 찍어보는 사진이다. 동작, 표정이 없는 무미건조한 사진이다. 위 두 작품의 특선은 생각해야 될 줄 안다. 이에 반해서 수작들을 추려보면 '이석규' 작 <해빙> 칼라만이 재현할 수 있는 '모티브'이며 진한 녹색의 기초 색을 가지고 알맞은 계조와 최후의 흰색으로 마무리된 것은 작가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한 추상작품이다. '오진태' 작 <형질>은 알맞은 색채효과를 가졌으며 많은 피사체를 원으로 통일시킨 수법은 역량을 말하고 있다. '김수경' 작 <구성> 방사선으로 힘차게 뻗어 나가는 기백과 원형의 연자방아의 박진력을 찾아볼 수 있는 작품이다.

‘김동우’ 작 <버림받은 노선(老船)> 고요하게 누구를 기다리는 것도 없이 세월의 흐름에 따라 썩어가는 노선 어딘가 슬픈 감을 가지게 하지만 타원형의 힘과 그 속 그림자의 세밀한 표현이 눈을 끌고 있다.

위 작품과 특선작을 몇 점 교체하였으면 더 전시가 빛나지 않았나 생각된다.

입선작 중 <하오의 T 골목> 라인톤 프로세스¹⁷⁾ 기법을 사용한 작품이나 너무 선이 굵어 복잡한 감이 난다. <협동>은 인화 처리가 지저분하며 실루엣도 아니고 정상도 아닌 사진이다. 목적이 분명치 않으며 내용 없는 스펀에 불과하다. 좀 더 많은 작품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으나 지면 관계로 끝을 맺는다. 입선한 여러분에게 앞으로의 영광 있기를 빌며 계속 노력하여 다음에는 반드시 대상을 찾아낼[차지할] 수 있기를 비는 바이다.

(한성여대 사진과장)

17) 라인 톤 프로세스(line-tone process). 최종 화상을 윤곽선만으로 표현하는 극단적인 하이콘트라스트 기법.

1976년 2월 2일, 『서울신문』 6면
문화공보부, 「《제25회 국전》 개최 공고」



1976년도 《대한민국미술전람회》 개최계획을 공고합니다.

올해 《국전》은 날로 발전하고 있는 위대한 변화 속에서 다양하게 소재를 찾아 창작된 수준 높은 작품들이 많이 출품되어 우리민족의 무한한 발전 의지가 예술로 승화되는 계기가 되도록 미술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1. 회기 및 전시내용

- 봄 전시: 1976년 5월 3일-5월 31일
 - 제2부전: 조형적, 추상적 표현의 회화, 조각
 - 제4부전: 공예, 건축, 사진
- 가을 전시: 1976년 10월 2일-10월 31일
 - 제1부전: 구상적, 사실적 표현의 회화, 조각
 - 제3부전: 서예(사군자 포함)

2. 전시장소: 국립현대미술관

3. 작품규격

- 회화...12[112]×162센치 이내(가로 세로 구별 없이 100호 이내)
- 조각...평면(90×130센치) 높이(300센치 이내)
- 서예...가로152×높이250센치 이내
- 공예...가로90×세로180×높이250센치 이내
- 건축...180×360센치 이내
- 사진...90×120센치 이내

단 '틀'의 폭은 표구를 포함해서 15센치 이내

4. 유의사항

- 출품작품은 국내외에서 발표되지 않은 작품으로써 전시 중 파손될 위험성이 없는 것
- 공예작품은 창작품에 한하며 다음 제작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함

- ① 목칠공예··재료, 전개도, 제작과정 ② 도자기 및 유리공예··재료, 가마, 제작과정, 소성도
- ③ 금속공예··재료, 합성도, 제작과정 ④ 석공예··재료, 제작과정
- ⑤ 염직공예··재료, 염직종류 ⑥ 기타 수공예··재료, 용도, 제작과정
- 건축작품은 작품 설명서를 첨부하고 투시도 및 설계도 제출(단, 모형은 출품자의 임의)

5. 출품절차

- 원서배부··① 제2부, 제4부··1976년 2월 5일부터
② 제1부, 제3부··1976년 7월 1일부터
- 원서배부처··국립현대미술관, 한국미술협회, 한국건축가협회, 한국사진협회, 예총본부 및 각 지부, 각 시·도 문화공보실
- 작품접수··① 제2부, 제4부··건축, 사진(1976년 4월 14일~4월 15일)
회화(1976년 4월 16일~4월 17일)
조각, 공예(1976년 4월18일~4월 19일)
② 제1부, 제3부··1976년 9월 14일~9월 17일
※ 일요일에도 접수함
- 작품접수처··국립현대미술관
- 심사 결과 발표(봄 전시)··1976년 4월 24일
- 출품료··1점당 500원
- 출품수··1인당 3점 이내

6. 시상

- 일반공모상(4개 전)
대통령상··1, 2, 3, 4부 각 1명(상장 및 상금 150만 원)
국무총리상··1, 2, 3, 4부 각 1명(상장 및 상금 100만 원)
문화공보부장관상··1, 2, 4부 각 3명, 3부 1명(상장 및 상금 50만 원)
- 초대 및 추천작가상(예술원회장상)
초대작가상(봄, 가을 전시 각 1명)(상장 및 상금 100만 원)
추천작가상(봄, 가을 전시 각 1명)(상장 및 상금 80만 원)

7. 작품반출

- 낙선작품은 심사 결과 발표 후 10일 이내
- 전시작품은 전시 종료 후 10일 이내
단, 동 기간 내에 찾아가지 않는 작품에 대하여는 당부에서 임의 처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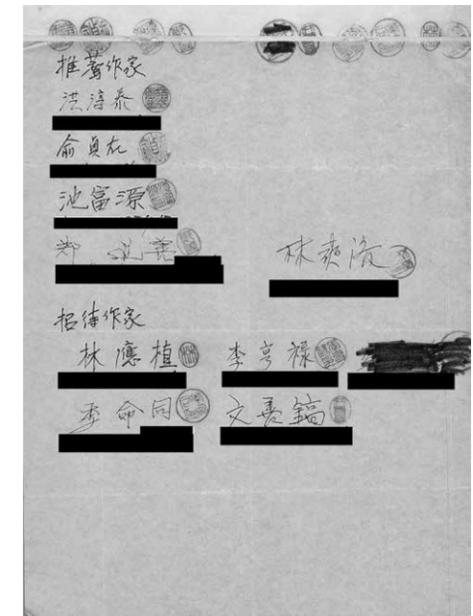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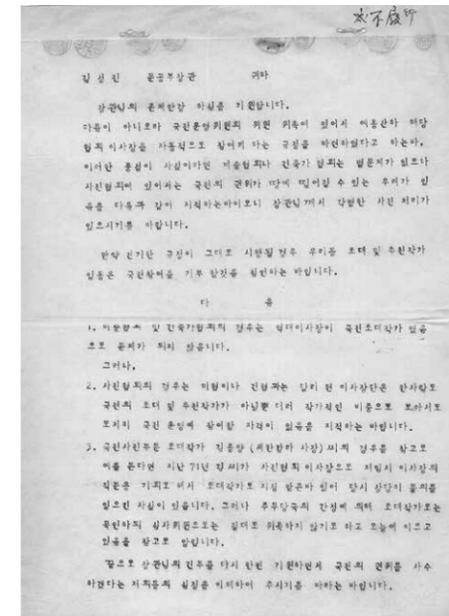
8. 기타

상세한 것은 문화공보부 예술과(☎3820) 국립현대미술관(☎7206) 한국미술협회(☎6955) 한국건축가협회(☎4613) 한국사진협회(☎921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976년 1월 일
문화공보부 장관

[1976년 추정], 임응식 스크랩북 자료

임응식 외, [국전운영위원회 위원 위촉 관련 진정서]



김성진 문공부 장관 귀하

장관님의 존제안강 하심을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국전운영위원회 위원 위촉에 있어서 예총 산하 해당 협회 이사장을 자동적으로 참여케 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다고 하는 바, 이러한 풍설이 사실이라면 미술협회나 건축가협회는 별 문제가 없으나 사진협회에 있어서는 《국전》의 권위가 땅에 떨어질 수 있는 우려가 있음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는 바이오니 장관님께서 각별한 사전 처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전기한 규정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우리들 초대 및 추천작가 일동은 《국전》 참여를 거부할 것을 첩언하는 바입니다.

다음

1. 미술협회 및 건축가협회의 경우는 역대 이사장이 《국전》 초대작가였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2. 사진협회의 경우는 미협이나 건협과는 달리 현 이사장단은 한 사람도 《국전》의 초대 및 추천작가가 아닐뿐더러 작가적인 비중으로 보아서도 도저히 《국전》 운영에 참여할 자격이 없음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3. 《국전》 사진 부문 초대작가 김종양(새한칼라 사장) 씨의 경우를 참고로 예를 든다면 지난 7년 김 씨가 사진협회 이사장으로 재임 시 이사장의 직분을 기회로 초대작가로 지정받은 바 있어 당시 상당히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무당국의 간청에 의해 초대작가로는 묵인하되 심사위원으로는 절대로 위촉하지 않기로 하고 오늘에 이르고 있음을 참고로 알립니다.

끝으로 장관님의 건투를 다시 한 번 기원하면서 《국전》의 권위를 사수하겠다는 저희들의 심정을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서명날인 명단]

추천작가 홍순태, 유정재, 지부원, 정도선, 임석제

초대작가 임응식, 이형록, 이명동, 문선호

[수기: ※ 불이행]

1976년 4월, 『포토그래피』 (통권95호), p.100

「(사진계 소식) 《국전》 운영위원 위촉」

문화공보부는 3월 16일 23명의 국전운영위원회 위원을 위촉하였다. 이번 위촉된 운영위원은 국전운영위원을 3기 이상 연임하지 않은 작가와 《국전》 초대작가, 예술원 회원인 작가, 《국전》 심사위원을 역임한 작가 등을 대상으로 했으며 한국사진협회, 한국미술협회 및 한국건축가협회의 장과 국립현대미술관장을 당연직(當然職)위원으로 위촉하였다. 임기 2년인 이들 운영위원들은 앞으로 《국전》 심사기준의 제정, 《국전》 심사위원의 추천, 《국전》 추천작가 및 초대작가의 추천 및 《국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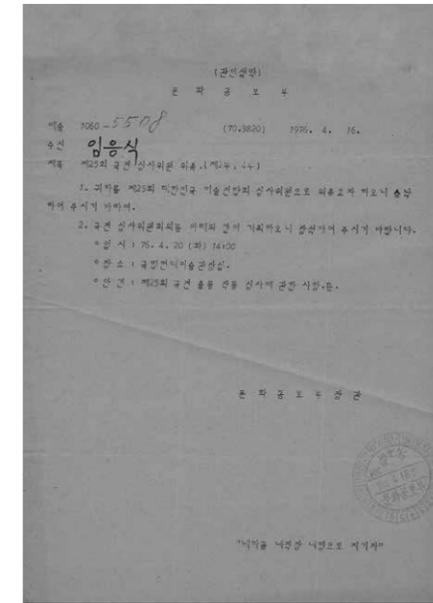
이번에 국전운영위원으로 위촉된 사단 인사는 다음과 같다.

이해선(《국전》 초대작가)

장원훈(한국사진협회 이사장)

1976년 4월 16일, 임응식 스크랩북 자료

문화공보부, 《국전》 심사위원 위촉 및 심사위원회 개최 공문



(관인생략)

문화공보부

예술 1060-5508 (70.3820) 1976. 4. 16

수신 임응식

제목 《제25회 국전》 심사위원 위촉. (제2부, 4부)

- 1. 귀하를 《제25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 심사위원으로 위촉코자 하오니 승낙하여 주시기 바라며.
- 2. 《국전》 심사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76. 4. 20 (화) 14:00
 - 장소 : 국립현대미술관장실.
 - 안건 : 《제25회 국전》 출품 작품 심사에 관한 사항. 끝.

문화공보부 장관

“내 마을 내 직장 내 힘으로 지키자”

1976년 4월 25일, 『조선일보』 5면

「《봄 국전》 잡음 줄인 첫 공개심사, 뛰어난 작품 못 가려 최고상 없애」

‘순간 판정’...충분한 평가 힘들어

《제25회 봄 국전》은 최초의 공개심사로 관심을 모았다. 제도가 바뀌었어도 심사에 늘 잡음이 뒤따랐던 전례에 비추보면, 이번 《국전》은 비교적 공정하고 진지한 심사였다고 볼 수 있다. 제2부 비구상(조형적 추상적 경향의 동양화 서양화 조각)과 제4부 건축, 공예, 사진으로 짜여진 《봄 국전》은 예년과 다른 몇 가지 특징을 보였는데 제2부에서 대통령상을 뽑지 않은 것은 획기적인 일이었다.

《국전》의 발전을 위해 수준작이라도 득점 차가 월등한 작품이 없어서 최고상을 주지 않기로 했다는 것이 남관 심사위원장의 말이다. 심사도 예년보다 까다롭고 엄격해서 《국전》 입선이 어려워졌다는 평도 있다. 서양화 부문의 경우는 4백 7점의 출품작 중 5명의 심사위원들이 의견 일치로 뽑은 입선작이 3점뿐이어서 3~4차례나 재심을 거치고도 60점 예정에 40점 만이 뽑혔다.

이번의 공개심사는 심사를 둘러싼 잡음을 다소나마 줄였다는 점으로 성과가 있었다고 하겠으나 운영상의 몇 가지 흠도 없지 않았다. 심사위원 간에 서로 작품에 대한 토론 없이 입락(入落) 표시중만으로 의사를 표시하여 충분한 평가를 내리기가 힘들었다는 결함이 지적됐다. ‘협상을 위한 토론’이 아니라 서로의 견해를 조정하는 토론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작품을 판정하다 보니 진행에 무리도 많았다.

서양화 부문에서 작품을 거꾸로 놓고 심사하는가 하면, 거리가 먼 자리에서 심사하여 재료 기법을 세밀히 관찰하기가 힘든 경우도 있었다. 제2부보다는 제4부에서 출품작이 늘고 활기를 되찾은 것도 《봄 국전》의 특징의 하나다. 제4부에서 대통령상을 받은 이해선 작 〈옛이야기 A, B〉는 작품의 대담성과 재료 선택에 있어서의 정리된 감각 처리가 높이 평가되고 있다. 제2부 국무총리상을 받은 권훈칠 작 〈사조(思潮) VII〉은 ‘특징이 없다’는 평도 나오고 있다.

동양화 부문 문공부장관상을 받은 성창경 씨의 〈작품76-2〉를 볼 때 비구상에서 구태여 동서양화를 구분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반문을 던져준다.

《국전》의 발전을 위해서는 제도나 심사 방법도 문제겠지만, 보다 근본적인 것은 심사위원의 안목과 작가적 양식이 강조되어야 할 것 같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이야기다.

심사위원들의 각 부문별 심사평은 다음과 같다. (괄호 안은 심사위원)

예년보다 발전 인상

◇동양화(위원장 신영상, 위원 안상철, 오태학)=큰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웠으나 예년에 비하여 전체적으로 발전한 인상을 주었다. 무엇보다 동양화의 본질을 떠나 외래 사조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줄어든 것은 다행한 일이다.

10대 1의 높은 경쟁

◇서양화 (위원장 류경채, 위원 남관, 손동진, 문학진, 정창섭)=《국전》 사상 10.2대 1이라는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공개심사 방법에 익숙하지 못하여 시간을 끌었지만 소신껏 진지하

게 심사했다고 본다.

작품 수준은 예년보다 고른 편이었으나 입선작을 줄여 《국전》의 질을 높이기로 했다.

해방 이후 25회 동안 《국전》의 흔적이 애매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여 올해에는 수준작이라도 특히 뛰어나지 않으면 시상하지 않는 것이 특색이다.

석재 작품 적은 게 흠

◇조각(위원장 김찬식, 위원 최만린, 김봉구)=51점의 출품작 중 낙선권에 드는 작품은 5점 정도여서 수준이 고른 것이 특징이다. 재료 면에서 석재 작품이 적었다는 것이 흠이었지만, 대작이 많이 나왔고 좋은 작품도 적지 않아 수확이 크다고 하겠다.

공예 가족 크게 늘어

◇공예(위원장 김재석, 위원 권순형, 백태원, 백태호, 한도룡)=작년보다 출품작이 1백 2점이 나 늘어났다는 것은 공예 가족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반가운 증거가 아닐 수 없다. 입선작은 예년 수준이어서 경쟁이 심한 편이었으나 수준이 평준화된 것은 좋은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안타까운 ‘계속 저조’

◇건축(위원장 강명구, 위원 송민구[송민영], 김희춘)=건축 부문은 계속 저조하여 안타깝다. 별로 각광도 못 받고 회화나 조각 작품처럼 혜택도 적은 데다 제작비나 노력,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인 것 같다.

외부에만 치중하고 내부에 소홀한 흠도 해결해야 할 문제다. 토론 없는 공개심사도 건축 부문에는 부적당한 것 같다.

고루 향상된 수준

◇사진(위원장 이건중, 위원 박필호, 임응식, 김조현)=작품이 고루 향상됐다. 1인 1선이 아니라 작품 위주로 뽑은 점이 예년과 다른 점이다. 물의를 일으켰던 문제는 《사진 국전》의 정확을 위하여 해결되어야만 한다. 〈정중현 기자〉

1976년 5월 3일-5월 31일, 국립현대미술관[《봄 국전》]
문화공보부 주최, 《제25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



국전운영위원(무순)

위원장 이종우

부위원장 민태식

위원 천경자 박노수 오지호 이마동 김경승 최순우 손석주 김종영 김기창 서세욱
유영국 변종하 이경성 손세일 김기승 김충현 이해선 유강렬 엄덕문 김수근
장원훈

심사위원(무순)

〈제4부〉위원장 백태원

부위원장 김희춘

사진 분과위원장 이진중

위원 박필호 임응식 김조현

초대작가(무순)

〈제4부〉

사진 김조현 이진중 이경모 이해선 임응식 김종양 박필호 안월산 이명동
이형록 정인성 문선호 조현두 김종현

추천작가(무순)

〈제4부〉

사진 이정강 홍순태 임석제 정도선 유정재 지부원 안준천

수상작

- 일반공모상[각 부별 1점 수상]

〈대통령상〉 [1부 동양화, 4부 공예 부문 수상]

〈국무총리상〉 [1부 조각, 2부 서양화, 3부 사군자 부문 수상]

〈문화공보부장관상〉 [각 부문별 1점 수상] 제4부 사진 〈조국의 방패〉 유재정

● 초대·추천작가상

〈초대작가상(예술원회장상)〉 [1부 서양화, 2부 조각 부문 수상]

〈추천작가상(예술원회장상)〉 [1부 서양화, 4부 건축 부문 수상]

■ 사진-제4부

운영위원 〈동태〉 이해선

심사위원 〈설중 설악〉 이진중, 〈설악 청봉운〉 김조현, 〈명동 '76〉 임응식

초대작가 〈천제연폭포〉 김종양, 〈한적〉 김종현, 〈작품 1976〉 조현두, 〈한적한 거리〉 정인성,
〈출항 준비〉 이형록, 〈하동〉 문선호

추천작가 〈콤포지션〉 홍순태, 〈꿈〉 정도선, 〈한〉 임석제, 〈묵연〉 이정강, 〈신록사의 강변〉 지부원,
〈산책〉 유정재, 〈농가일우〉 안준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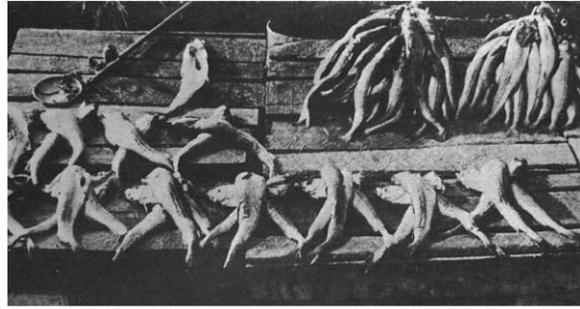
특선 〈고정〉 박홍두, 〈로마의 대사원〉 김영도, 〈탄부〉 이창남, 〈조국애〉 김인식,
〈몽처 나아가자〉 문순화, 〈나의 조국〉 김영민

입선

〈춘가〉 김학원	〈협력〉 이기철	〈양치는 아이〉 차용부
〈형상〉 송일학	〈출어 준비〉 김수경	〈요업촌의 인상〉 김주성
〈원정〉 권진희	〈일〉 송기엽	〈석연〉 배동준
〈포여〉 이덕진	〈어촌의 소경〉 이종태	〈조련장〉 이진식
〈신춘의 찬가〉 구자춘	〈초원〉 박홍두	〈양철 지붕 위의 고양이〉 박상운
〈구성〉 장진필	〈일터로〉 김영만	〈생명〉 정영모
〈계단〉 박병관	〈다대포의 인상〉 이종태	〈한일〉 배동준
〈실루엣〉 김지후	〈서광〉 이정순	〈지휘〉 박옥수
〈눈 오는 날〉 김일창	〈여명의 설악산〉 설찬수	〈골고다〉 강상규
〈선창〉 김석만	〈석양〉 이종태	〈무희〉 박금성
〈갯마을 아이들〉 최병오	〈등교길〉 안 청	〈울동하는 고전미〉 이용권
〈갯마을의 아침〉 정정희	〈강변〉 이창남	〈전야문〉 박도현
〈농가〉 이영달	〈화전민촌〉 이창남	〈야영〉 김기순
〈생동〉 이영범	〈러블리〉 김복만	〈비 온 뒤〉 이진식
〈갈밭〉 송봉운	〈열전〉 최홍만	



문화공보부장관상
〈조국의 방패〉 유재정 [컬러]



운영위원 〈동태〉 이해선



심사위원 〈설중설악〉 이건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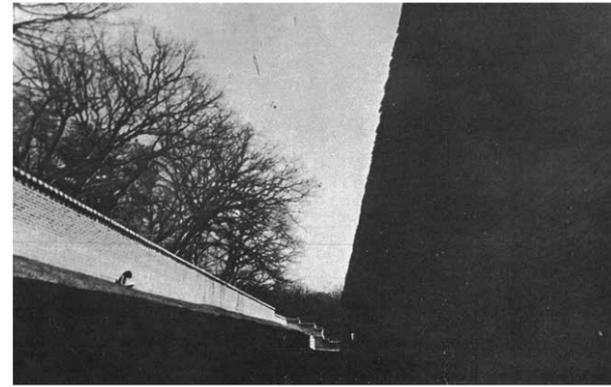
심사위원 〈설악 청봉운〉 김조현



심사위원 〈명동'76〉 임응식



초대작가 〈천제연폭포〉 김종양 [컬러]



초대작가 〈한적〉 김종현



초대작가
〈작품 1976〉 조현두



초대작가 〈한적한 거리〉 정인성



초대작가 〈출항 준비〉 이형록



초대작가 〈하동〉 문선호



추천작가
〈컴포지션〉 홍순태



추천작가 <꿈> 정도선



추천작가 <한> 임석제 [컬러]



특선 <로마의 대사원>
김영도 [컬러]



특선 <탄부> 이창남 [컬러]



특선 <조국애> 김인식



추천작가 <목언> 이정강
[컬러]



추천작가 <신록사의 강변> 지부원 [컬러]



특선 <몽처 나아가자> 문순화 [컬러]



특선 <나의 조국> 김영민
[컬러]



추천작가 <산책> 유정재 [컬러]



추천작가 <농가일우>
안준천



특선 <고정> 박홍두
[컬러]

1976년 5월 7일, 국가기록원-제25회국전철(2), pp.195-201

문화공보부 예술국 예술1과, 《국전》 추천작가 결정에 따른 진정서에 대한 건의문 회신

기안용지

문서번호	예술1060 61059	제출일자	76.5.29	과장	권사무환
제출인	76.5.29	작성일자	76.5.29	작성인	장원훈
주제	사단법인 한국사진협회 이사장 장원훈	장관	장원훈	작성인	장원훈
제목	건의문에 대한 회신	장관	장원훈	작성인	장원훈
내용	사협 제37호(76.5.29)로 제출하신 추천작가 결정에 따른 권정서에 대한 건의문 당부의 업무에 참고하겠음을 회신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끝				

1396195

분류기호 문서번호 예술1060-65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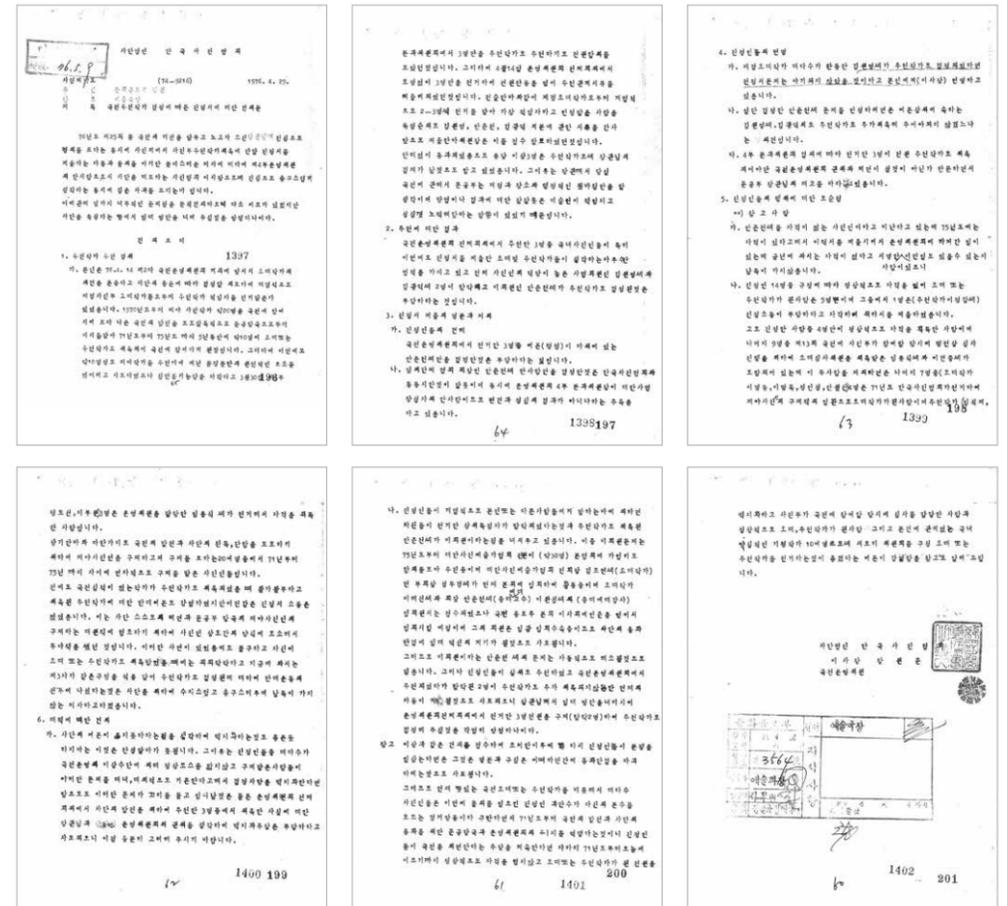
시행일자 75.5.7

경유 수신 참조 사내 중로구 중로1가3(의사빌딩) 사단법인 한국사진협회 이사장 장원훈

제목 건의문에 대한 회신

사협 제37호(76.4.29)로 제출하신 《국전》 추천작가 결정에 따른 진정서에 대한 건의문은 당부의

업무에 참고하겠음을 회신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끝.



사단법인 한국사진협회

사협 제37호 (74-9216) 1976. 4. 29.

수신 문화공보부 장관

참조 예술국장

제목 《국전》 추천작가 결정에 따른 진정서에 대한 건의문

76년도 《제25회 봄 국전》의 개전을 앞두고 노고가 크신 장관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동시에 사진계에서 사진부 추천작가 위촉에 반발 진정서를 제출하는 파동과 물의를 야기한 불미스러운 처사에 대하여 제4부 운영위원의 한사람으로서 사단을 대표하는 사진협회 이사장으로써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동시에 깊은 사과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에 관해 몇 가지 내부적인 문제점을 분석 건의하오니 다소 애로가 있겠지만 사단을 육성하는 뜻에서 일대 영단을 내려 주실 것을 양청하나이다.

건의요지

1. 추천작가 추천 경위

가. 본인은 76.4.14 제2차 국전운영위원회 개최에 앞서서 초대작가의 의견을 존중하고 사단의 중론에 따라 결정할 의도 하에 개별적으로 재경 사진부 초대작가들로부터 추천작가 적임자를 천거 받은바 있었습니다. 1970년도부터 재야 사진작가 약 20명을 《국전》에 참여시켜 보다 나은 《국전》의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문공당국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71년도부터 75년도까지 5년 동안에 약 10명이 초대 또는 추천작가로 위촉되어 《국전》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번에도 약 10명 정도 재야작가를 추천하여 매년 불평불만의 원천적인 요소를 없애려고 시도하였으나 실현 불가능함을 자각하고 3월 30일 제4부 분과위원회에서 3명만을 추천작가로 추천하기로 전원 합의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4월 14일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호명 없이 3명만을 천거하여 전원 찬동을 얻어 추천 관계 서류를 제출케 되었던 것입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재경 초대작가로부터 개별적으로 2-3명씩 천거를 받아 가장 적임자라고 인정받은 사람을 득점 순위로 김원영, 안준천, 김광덕 세 분에 관한 서류를 간사 앞으로 제출한바 위원장은 이를 접수 발표하였던 것입니다.

반대 없이 통과되었으므로 응당 이상 3명은 추천작가로써 장관님의 결재가 날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장관께서 당일 《국전》에 관해서 문공부는 재정과 장소의 행정적인 뒷바침만을 할 생각이며 방법이나 결과에 대한 잘잘못은 미술인이 책임지고 성실히 노력해달라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 추천에 대한 결과

국전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천한 3명 중 국내 사진인들이 특히 이번에도 진정서를 제출한 초대 및 추천작가들이 생각하는바 우수한 업적을 가지고 있고 전체 사진인의 덕망이 높은 사협 회원인 김원영 씨와 김광덕 씨 2명이 탈락되고 비회원인 안준천 씨가 추천작가로 결정된 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3. 진정서 제출의 명분과 저의

가. 진정인들의 견해

국전운영위원회에서 천거한 3명 중 여론(평점)이 하위에 있는 안준천 씨만을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나. 임의단체협회 회장인 안준천 씨 한사람만을 결정한 것은 한국사진협회와 동등시 한 것이 잘못이며 동시에 운영위원회 4부 분과위원장이 대한사협 창설자의 한사람이므로 편견과 정실의 결과가 아니냐하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4. 진정인들의 변명

가. 재경 초대작가 대다수가 찬동한 김원영 씨가 추천작가로 결정되었다면 진정서 문제는 야기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본인에게(이사장) 언명하고 있습니다.

나. 일단 결정한 안준천 씨 문제를 인정하려면은 여론 상위에 속하는 김원영 씨, 김광덕 씨도 추천작가로 추가 위촉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입니다.

다. 4부 분과위원회 결의에 따라 천거한 3명이 전원 추천작가로 위촉되어야만 국전운영위원회 권위와 체면이 설 것이 아닌가 반문하면서 문공부 장관님의 재고를 바라고 있습니다.

5. 진정인들의 행위에 대한 모순점

○○) 참고사항

가. 안준천 씨를 자격이 없는 사진인이라고 비난하고 있는데 75년도에는 자격이 있다고 해서 이력서를 제출시켜서 운영위원회에 가져간 일이 있는데 금년에 와서는 자격이 없다고 서명한 사람이 있으니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는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나. 진정인 14명중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자격을 얻어 초대 또는 추천작가가 된 사람은 5명 뿐이며 그중에서 1명은 (추천작가 이정강 씨) 진정 소동이 부당하다고 자각하여 취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고로 진정한 사람 중 4명만이 정상적으로 자격을 획득한 사람이며 나머지 9명중 《제13회 국전》에 사진부가 참여할 당시에 형편상 심사 진행을 위하여 초대 심사위원을 위촉받은 임응식 씨와 이진중 씨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두 사람을 제외하면은 나머지 7명중 (초대작가 이명동, 이형록, 정인성, 안월산) 4명은 71년도 한국사진협회가 천거하여 재야 사진인의 구제책의 일환으로 초대작가가 된 사람이며 추천작가 (임석제, 정도선, 지부원) 3명은 운영위원을 담당한 임응식 씨가 천거해서 자격을 취득한 사람입니다.

상기한 바와 마찬가지로 《국전》의 발전과 사단의 친목, 단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야 사진인을 구제하고자 구제를 요하는 20여 명 중에서 71년부터 75년까지 사이에 연차적으로 구제를 받은 사진인들입니다.

전에도 《국전》 실적이 없는 작가가 추천작가로 위촉되었을 때 왈가왈부하고 위촉된 추천작가에 대한 반대 여론도 강열하였지만 이번 같은 진정서 소동은 없었습니다. 이는 사단 스스로의 체면과 문공부 당국의 재야 사진인의 구제라는 대원칙에 협조하기 위하여 사진인 상호간의 양식에 호소해서 무마책을 썼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초대 또는 추천작가로 위촉받았을 때에는 희희낙락하고 지금에 와서는 제3자가 같은 규정을 적용받아 추천작가로 결정된 데 대하여 반대운동의 선두에 나섰다는 것은 사단을 위하여 수치스럽고 송구스러우며 납득이 가지 않는 처사라고 하겠습니다.

6. 대책에 대한 건의

가. 사단의 여론이 옳지 못하다는 점을 생각하여 백지화하는 것도 좋은 듯 하지마는 이것은 찬성할 바가 못 됩니다. 그 이유는 진정인들 중 대다수가 《국전》 운영의 비상수단에 의해 정상 코스를 밟지 않고 구제받은 사람들이 이러한 문제를 대내, 대외적으로 거론한다고 해서 결정사항을 백지화 한다면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가 꼬리를 물고 일어날 것은 물론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사단의 발전을 위하여 추천한 3명 중에서 위촉한 사실에 대한

장관님과 국전운영위원회 권위를 생각하여 백지화 주장은 부당하다고 사료되오니 이점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진정인들이 개별적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바에 의하면 자신들이 천거한 상위 득점자가 탈락되었다는 것과 추천작가로 위촉된 안준천 씨가 비회원이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중 비회원 문제는 75년도부터 대한사진예술가협회 전원이 (약 30명) 본 협회에 가입기로 합의를 보아 추진 중이며 대한사진예술가협회 전 회장 김조현 씨(초대작가) 현 부회장 성두경 씨가 현재 본회에 입회하여 활동 중이며 초대작가 이해선 씨와 회장 안준천 씨(중대 예대 교수) 이완섭 씨의(중대 예대 강사) 입회원서는 접수되었으나 《국전》 종료 후 본회 이사회에 인준을 얻어서 입회시킬 예정이며 그의 회원은 일괄 입회 수속 중이므로 사단의 총화 단결에 일대 혁신의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비회원이라는 안준천 씨의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믿읍니다. 그러나 진정인들이 상위로 추천하였고 국전운영위원회에서 추천되었다가 탈락된 2명이 추천작가로 추가 위촉되지 않는 한 현재의 파동이 계속될 것으로 사료되오니 장관님께서 일대 영단을 내리시어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천거한 3명 전원을 구제(탈락 2명)하여 추천작가로 결정해 주실 것을 각별히 양청하나이다.

참고 이상과 같은 건의를 접수하여 조치한 이후에 다시 진정인들이 분쟁을 일삼는다면은 그것은 명분과 구실은 어떠한 간에 총화 단결을 파괴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현재 뜻있는 《국전》 초대 또는 추천작가를 비롯해서 대다수 사진인들은 이번에 물의를 일으킨 진정인 과반수가 자신의 분수를 모르는 경거망동이라 규탄하면서 71년도부터 《국전》의 발전과 사단의 총화를 위한 문공당국과 운영위원회의 취지를 역행하려는 것이니 진정인들이 《국전》을 외면한다는 주장을 계속한다면 차라리 71년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정상적으로 자격을 얻지 않고 초대 또는 추천작가가 된 전원을 백지화하고 사진부가 《국전》에 참여할 당시에 심사를 담당할 사람과 정상적으로 초대, 추천작가가 된 사람 그리고 본 건에 관계없는 국내 양심적인 기성작가 10여명으로써 새로히 위원회를 구성 초대 또는 추천작가를 천거하는 것이 좋겠다는 여론이 강열함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사단법인 한국사진협회
이사장 장 원 훈
국전운영위원

1976년 6월, 『신동아』(통권142호), p.371

이명동, 「(뉴스와 화제-사진) 추천작가 지명 시비」

《제25회 봄 국전》이 열리기 바로 직전 문공부가 《국전》 제4부 사진 부문 추천작가로 안준천 씨(현 중앙대 서라벌예대 사진학과 조교수)를 지명함으로써 해서 사진계는 마치 벌집을 쑤신 듯이 시끄러워졌다.

지난 4월 19일 《국전》 사진 부문 초대작가 문선호, 이진중, 이명동, 임응식, 이형록, 안월산, 정인성, 조현두 씨 등 8명과 추천작가 정도선, 임석제, 유정재, 홍순태, 지부원, 이정강 씨 등 6명은 김성진 문공부 장관 앞으로 진정서를 내고 이번 추천작가로 지명된 안준천 씨는 “그 자격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미달하므로……《국전》의 권위를 위해 추천작가 지명을 취소해 달라”고 진정했다. 또한 이들은 안 씨의 추천작가 지명이 취소되지 않을 경우 앞으로 《국전》 참여를 거부하겠다고 강경한 태도를 밝히고 나섰다.

이러한 사실이 신문지상에 보도되자 과거 《국전》에 참여했던 작가들은 물론 대부분의 중견 작가들이 반발을 하고 나섰다.

본래 《국전》에서의 추천작가의 자격 요건은 《국전》에서 연속 4회 특선, 또는 격 6회 특선을 거쳐야만 한다. 그런데 《국전》 운영 규정에 ‘국내외적으로 미술 활동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도 추천작가로 지명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번 안 씨의 경우는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의 항목에 적응시켜 추천작가로 지명한 것이다.

그런데 문공부 장관이 왜 뚜렷한 작품 활동의 공적도 없고 자격이 없는 사람을 당당히 추천작가로 지명을 하기에 이르렀는가? 물론 국전운영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안 씨를 지명했으므로 문공부 당국은 하등의 잘못도 없을뿐더러 책임도 없다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책임을 문공부가 져야만 한다.

과거의 예를 보아도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의 추천작가 지명에 있어서는 전체 국전운영위원회(1부 2부 3부 4부 합동)에서 해당 작가의 작품 활동의 실적이나 자격 등을 엄중히 검토한 후 결의를 거쳐 문공부 장관에게 추천하면 문공부 당국은 이를 검토한 후 지명을 하게 된다.

그런데 이번 안 씨의 경우는 전체 국전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제4부 운영위원들의 찬동만으로 문공부가 추천작가 지명을 했다는 사실은 무엇인가 납득이 가지 않는다.

그리고 더구나 이번 《봄 국전》에서 사진 부문의 추천작가만을 지명했다는 사실도 그렇고, 또한 《국전》 사진 부문 운영위원이 추천한 3명의 작가의 순위는 김원영, 김광덕, 안준천 씨였는데도 불구하고 끝 순위인 안 씨만을 지명했다는 것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 물론 지명을 할 최종 권한은 문공부 당국에 있겠지만 무엇인가 납득하기 어려운 인상을 주는 것만은 틀림없다.

안 씨의 추천작가 지명 문제로 지난 2년 동안 끈질기게 물의를 자아낸 사실은 현 문공부의 관계자도 잘 알고 있다. 임응식 씨에 의하면 당시 안 씨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추천작가 지명 운동을 했지만 해당 운영위원인 임 씨가 사단의 질서와 《국전》의 권위를 사수한다는 이유로 안 씨를 끝내 추천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렇게 되자 당시의 주무 관리였던 장 모 씨는 입 씨를 설득하는데 또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지만 끝내는 입 씨를 설득시키지 못하고 넘어갔다고 한다.

안 씨의 이번 추천작가 지명에 있어서는 따지고 보면 본인에게는 그다지 잘못이 없다고 할 수도 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문공부 당국의 책임에 앞서 안 씨를 추천한 《국전》 사진 부문 운영위원 이해선, 장원훈 양 씨에게 그 책임을 돌려야 할 것이다.

어쨌든 《국전》의 장래와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안 씨의 추천작가 지명은 취소되어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 여하한 일이 있어도 이번과 같은 물의가 두 번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국전》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문공부의 주무 관리들은 언젠가 그 자리를 떠나면 그만이지만 사진인들은 평생을 지켜야만 하는 터전이기 때문이다.

〈命〉

1976년 6월 7일, 국가기록원-제25회국전철(2), pp.94-95, pp.98-102
문화공보부 예술국 예술1과, [이건중] 청원서에 대한 회신

기안용지

발령번호: 예문 1065 (1976.6.7) | 국문: 1293

제1안
수신: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81-43 이건중
제목: 동건

제2안
수신: 감사담당관
제목: 청원서 처리결과 통보

1. 청와대로부터 대미민 125.1-4484로 이첩된 이건의 청원서에 대하여는 별첨과 같이 청원인에게 회신 처리하였음을 통보합니다.

첨부: 청원인에 대한 회신 공문 사본 끝

이첨된 이건의 청원서에 대하여는 별첨된 안의 청원서에 회신 처리하였음을 통보함내에 리본, 청원서에 대한 회신공문 사본 끝

1293

95

분류기호 문서번호 예술 1060-8401

시행일자 [1976] 6. 7

제목 청원서에 대한 회신

제1안

수신: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81-43 이건중

제목: 동건

1. 귀하가 청와대에 대통령 비서실에 제출하신 사진 부문 추천작가 지명에 관한 청원서가 당부로 이첩되었는바 안준천의 추천작가 지정은 《대한민국미술전람회》 규정 등 관계 규정에 따른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지정한 것이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끝

제2안

수신: 감사담당관

제목: 청원서 처리결과 통보

1. 청와대로부터 대미민 125.1-4484로 이첩된 이건의 청원서에 대하여는 별첨과 같이 청원인에게 회신 처리하였음을 통보합니다.

첨부: 청원인에 대한 회신 공문 사본 끝

청원서-통

1296 98

차오건 文統領 閣下 座下

1297 99

1298 100

1299 101

1300 102

탄원서 일통(一通)

박정희 대통령 각하 좌하(座下)
화춘가절(和春佳節)에
대통령 각하 존체 만수무강 하시옵고
국사다망 하신데 이러한 탄원서를 올려 대단히 죄송하옵니다. 그러나 생각다 못하여 탄원하옵
나이다.

《국전》 사진 부문 추천작가로 안준천 씨가 급조되어 문화공보부로 하여금 발표된 데 대하여
경향 사단이 동요되어 그 자격의 부당성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1976년 4월 16일자
로 문화공보부에 제출되고 동월 20일자 『한국일보』 문화면에 3단 53행의 기사로서 취급되었으며
동월 21일 『동아일보』¹⁹⁾ 문화면 4단 16행으로 기사가 취급된 바 있습니다.

기후(其後) 김상식 예술과장^를 수차 방문하여 진정서를 내게된 취지를 설명하고 《국전》 사
진 부문의 백년대계를^를 위하여 안준천 씨와 같이 자격이 미비한 인사를 추천작가로 추대하
는 모순을 시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김상식 예술과장의 선처하겠다는 답변에 주무부
의 처사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25회 《국전》 목록』에 추천작가로서 안준천 씨의 명단이
게재됨은 시정하지 않을 것을 통고하는 것인 줄 아옵니다. 그리하와 부득이 대통령 각하께 탄원
하는 바이옵니다.

그 내용은 이러하옵니다. 사진 부문 《국전》 운영위원으로 이해선 씨가 관선(官選)되었으며 금
번 춘계 《국전》의 제4부 운영위원장을 겸한 직책의 인사로서 자기의 유리한 위치^를 악용하
여 자기의 출신회의 회장직을 맡은 안준천 씨^를 당시 문화공보부 예술국장이었던 박종국
국장에게 지명 제출하여 국장으로 하여금 사단 내용을 잘 모르는 점을 이용하여 순위를 무시하
고 추천작가로 전격적인 발표를 함으로써 사단에 야기된 사유이옵니다. 이는 이해선 씨가 고의
로 운영위원의 도리^를 정당히 행하지 못한 데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것입옵니다.

그리고 오비이락인지는 모르겠으나 박종국 예술국장이 기획관리실장으로 영전(榮轉)과 동
시에 안준천 씨의 추천작가로 발표되었음을 알게 되었고 발표와 동시에 안준천 씨는 《국전》에
관심도 없던 사람이 작품을 장정하여 추천작가로서 《국전》에 작품^를 제출하는 등 석연치 않
은 점도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안준천 씨에 대하여 소개합니다.

사단의 공헌한 업적이나 작품의 실태도 미급(未及)하며 대한사진예술가협회라 칭하는 회는 사
단법인 한국사진협회에 가입하였던 인사가 자기 불만에서 합동체에서 탈퇴하여 이해선 씨가 만
든 회로서 물론 지부도 없고 일종의 연구회와 동일하옵고 유사 내용의 단체만도 72개의 단체가
경향각지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75년도 한국사진협회 연감』 221P 인용) 사진예술계의 작품적

인 순위로도 과대평가를 하여도 70위 이상에 속하오니 시정을 요구함도 당연한 처사이온 줄 아
옵니다. 중앙대학 예술대학의 조교수라는 교직을 가진 사람으로서 문교부의 교수자격도 받지
못한 관계로 2년제 사진과 전임으로 있는 사람이옵니다. 이러한 인사가 대학 교직에 임하고 있
으니 사단 후배들의 육성이 우려되는 바 큼니다. 《국전》 사단 참여자들의 사기를 위하여 이러한
역(逆) 된 일이 없도록 시정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사진 분야의 위신이 추락되는 것^를 통탄
한 나머지 사단 발전을 위한 일념에서 이러한 부조리^를 제거하여 주시어 질서 있고 명량한
심정으로 전 사단이 소임의 연구 발전에 전념하게 하여주시기 바라옵고 탄원하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이하 개인정보 생략]

76년도 《국전》 사진분과위원장 [이하 개인정보 생략]

초대작가 이진중

① 탄원서 1통

② 참고 서류

가 문화공보부에 제출하였던 진정서 사본 1통

나 『한국일보』 문화면에 게재된 기사 1통

다 『동아일보』 문화면에 게재된 기사 1통

5월 17일부 이진중

참고문서 철(綴)

[이 자료의 뒷장에는 '진정서-《국전》 제4부 (사진부문) 추천 및 초대작가 지정에 관한 건(1976년 4월 17일)',
『한국일보』, 『동아일보』 기사 및 『신동아』 기사가 함께 첨부되어있으나 본 자료집에 수록했거나 내용이 중
복되므로 생략했다. '국가기록원-25회국전철(2)'에는 이진중의 탄원서 외에 안준천 추천작가 지정에 대한
건으로 한국사진협회 부산지부와 한국사진협회 경북지부의 진정서가 문화공보부에 제출되어 "대한민국미
술전람회 관계 규정에 의거 《국전》 운영위원회의 추천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지정한 것이오니 양지하기 바
란다"는 내용으로 회신되었다.]

19) 본 자료집 245쪽 수록.

1976년 7월, 『신동아』 (통권143호), p.373

이명동, 「(뉴스와 화제-사진) 탈피 못하는 회화양식」

《제25회 봄 국전》이 지난 5월 31일로 폐막되었다. 이번 《봄 국전》에서는 작품 심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한 조치로 유래 없는 공개심사를 실시하는 등 다소 진통을 겪기도 했다.

처음으로 시도된 이 공개심사는 과거 《국전》에서 물의를 자아냈던 정실 심사라는 잡음은 어느 정도 막았다고 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심사 과정이 너무나 단조롭고 또 사무적이고 기계적이었다는 비판을 면치 못했다.

특히 사진의 경우는 과거에도 그러했지만 정실 심사니 하는 따위의 잡음 이전에 심사의 기준 즉 사진작품의 올바른 가치평가 같은 것이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실시된 공개심사는 한층 관념적이고 기계적이었다는 평판을 면치 못했다.

사진이 《국전》에 참여한 지 올해로 13년째가 된다. 그러나 《국전》의 사진은 13년 전이나 오늘 날이나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다. 한 분야의 예술작품의 수준이 10여 년의 긴 세월이 흘러갔어도 조금도 새롭게 발전하지 못하고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국전》 사진작품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는 여러 가지 원인과 이유가 있겠지만 첫째로는 앞서서도 지적한 바 있지만 《국전》 작품을 심사하는 심사위원들의 사진예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부족과 무성의한 태도에서 야기된 결과라고 지적하는 일부 주장이 없지 않다.

사진술이 발명된 지 올해로 1백 35년이 되었고, 회화의 품속에서 깊이 잠들고 있던 사진을 깨우치는 모던 포토그래피 운동이 독일에서 바우하우스 창립과 함께 일어난 지도 벌써 60년이 흘렀다. ‘사진으로 돌아가자’ ‘사진은 사진이어야 한다’는 등의 구호는 60년 전에 전개되었던 새로운 사진예술 운동인 모던 포토그래피의 이념이었다.

즉 표현에 따르는 형식과 내용 등 모든 것을 회화의 것과 꼭 같이해야만 했던 당시의 사진예술을 사실성을 강조한 사진 본연의 길로 돌이키려는 운동으로서 큰 성과를 거두었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70여 년 동안 뿌리박은 회화양식의 사진이 좀처럼 사라지질 않고 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국전》 사진작품들은 천편일률적으로 60여 년 전의 회화양식의 것을 되풀이하고 있다. 사진의 역사나 경향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은 크게 의아하게 생각할 것이다.

선진국은 물론 이웃 나라 일본 같은 데에서도 회화양식이 단일사진을 배척하고 나선 지 오래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사진들은 아직도 낡아빠진 회화양식의 품속에서 깊은 잠을 자고 있다.

오늘날 이러한 우리나라의 사진예술을 올바른 경향으로 인도하는 지름길은 오직 《국전》에서 행해지는 작품 심사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낡은 회화양식의 작품을 배척하고 메카니즘성과 기록성이 강조된, 엮음의 복수사진을 우대하는 등 심사에 앞서 새롭고 올바른 사진예술관의 정립이 시급하다.

다음으로는 《국전》 사진 부문의 초대 및 추천작가들의 작품이 새로운 것으로 앞서 가야 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종전에도 그러했고 올해 《봄 국전》에서도 사진 부문의 초대 및 추천작가들의 작품이 일반 응모자들의 낙선 작품과 그 수준이 별 차이가 없었다는 일부의 여론이 있었음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그 분야의 예술을 새롭고 건전한 것으로 앞장서서 인도해야 할 초대나 추천작가들의 소위 모범작품이 이 모양이라고 한다면 그 분야의 초대나 추천작가들이 존재해야 할 아무런 의미도 이 유도 없다 할 것이다.

《국전》의 초대 및 추천작가는 최고의 권위와 영예를 자랑하기에 앞서 그 분야의 예술을 권위 있고 영광스러운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역군의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국가에서 인정한 그 권위나 영예를 교수 자격의 구비 조건으로 이용한다는 따위의 사고는 버려야만 할 것이다.

〈命〉

1977년 2월, 『신동아』(통권150호), p.389

「(뉴스와 화제-미술) 《국전》의 존재 문제」

김성진 문공부 장관의 문예진흥5개년계획에 대한 발언 가운데 “미술계의 의견에 따라 《국전》의 존재를 결정지를 용의가 있다”는 언급은 《국전》 문제를 다시 한 번 진지하게 논의할 계기를 마련해주었다. 《국전》에 대한 시비가 제기되면 그때마다 소극적으로 받아들이거나, 또 언제나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를 해석하려던 종전까지의 주무 측 태도와는 다른, 일견 참신하고 의욕적인 제안으로 이해된다. 어쨌든 《국전》 문제가 이대로 넘어가서는 안 될 시점에 와 있다는 사실을 주무당국에서도 절감하고 있는 인상을 주고 있어 앞으로의 추이가 적지 기대되고 있다.

문화 분야 가운데서도 유독 말썽이 분분했던 곳이 미술 분야[분야]이고, 그 가운데서도 가장 말썽의 핵을 이루었던 것이 《국전》이었다고 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을 듯하다. 그만큼 《국전》이 안고 있는 미술계 현실의 까다로운 방정식이 명쾌하게 풀리지 않았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그간 《국전》은 25회의 전시 기록을 쌓았다. 1943년[1949년]에 창립되어 첫해를 치르고, 동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3년을 걸른 것을 합치면 어언 30여 년에 이르고 있다. 이런 점으로 해서 해방 후 한국미술계는 거의 《국전》과 같이 자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좋은 싫든 미술계의 중심을 형성해 왔다.

어떠한 기구이든 그것이 비대하면 할수록 그 내부에 여러 가지 문제를 파생시키는 법이다. 30년에 가까운 연륜을 쌓아오면서 기구도 비대해질 대로 비대해진 《국전》이 아무런 문제도 안고 있지 않다면 이는 더욱 이상한 노릇이다. 물론 그때그때에 따라 내부의 모순점을 개혁하려는 시도가 뒤따르는 했다. 수차에 걸친 기구의 전폭적인 개혁은 그 좋은 예들이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더 이상 해 볼 수 없다 할 정도로 제도적인 모순점을 해결한 시점에 왔다고까지 논평되었다. 말하자면 제도적인 모순은 그런대로 거의 해결되었다는 얘기다.

지나친 학교별 경쟁의식을 없애기 위하여 대학 재학생의 출품을 금지한 일이나, 경향별 심사에서 빚어진 모순점을 타개하기 위하여 장르별로 따로 전시 체제를 갖춘 점이나, 기성작가들의 참여 정신이 너무 안이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추천작가, 초대작가상 등을 마련하여 창작 분위기를 고취하려는 의도 등은 다 같이 《국전》의 모순점을 그나마 해결한 좋은 제도적 해결이었다. 거기에다 작년부터 실시한 공개심사제의 채택은 《국전》의 제도 개혁이 그 한계점에 온 것 같은 인상을 주기까지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전》은 일반이나 미술가들의 비판이 되고 있음은 무엇인가. 제도적 모순이 해결되어 가고 있음에도 여전히 비판의 화살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그 존재 자체에 대한 반성론으로까지 미치지 않을 수 없다는 결론이 된다. 이 점에서 본다면, 주무 장관의 《국전》 존재에 대한 발언은 가장 시의를 얻은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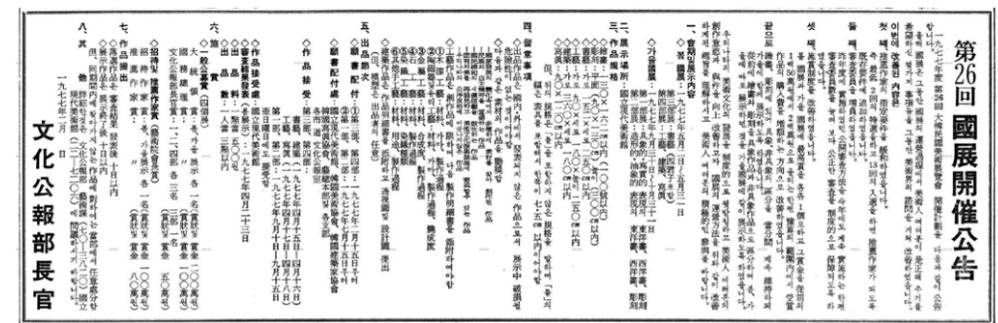
말하자면 《국전》은 이제 그 존재의 의의가 끝난 시점에 와 있다는 이야기다. 한국 현대미술의 상황에서 본다면 문예진흥이 《국전》이란 기구를 통해서가 아닌, 좀 더 다차원적인 입장에서 강구되어야 하겠기 때문이다. 1950년대 한국미술의 발전을 위해서 있음직했던 《국전》이 1970

년대 한국미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오히려 저해적인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면, 이는 당연히 기득권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대국적인 입장에서 그 존재 의의를 허심하게 토의해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점이다.

물론 《국전》 기구의 폐지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리라 본다. 우선 《국전》을 통해서 자라온 기성작가와 《국전》에 뿌리 깊게 발판을 둔 기성세대의 작가들의 반대가 무엇보다도 심각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일부의 권위 조장 때문에 지금의 현상을 계속 유지한다면 미술 발전이란 새로운 도약점은 언제나 마련되지 않을 것도 자명한 일이다. 《국전》이 있음으로써 그것이 주는 화단에의 이점과 폐단을 검토해본다면 그 존재의 문제는 자연적으로 해결될 것이 아닌가 본다.

〈光〉

1977년 2월 1일, 『동아일보』 5면 「제26회 국전」 개최 공고」



1977년도 《제26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 개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올해 《국전》은 그동안 《국전》의 운영과정에서 미술인 여러분이 시정해 주기를 희망하신 몇 가지 사항들을 그동안 미술계의 자문을 거쳐 개선하였습니다.

- 이번에 개선된 내용은
- 첫째, 추천작가의 지정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즉 최저 2회의 특선을 하고 13회의 입선을 하면 추천작가가 되도록 기존 요건에 추가 하였습니다.

둘째, 심사위원을 증원하였습니다.

작년도에 실시하였던 공개심사 방법을 금년에도 계속 실시하는 한편 심사위원 수를 늘려 보다 공정한 심사를 제도적으로 보장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시상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봄 국전》과 《가을 국전》에 최고상을 각각 1개로 하고 그 상금을 종전의 1백50만 원에서 2백만 원으로 올리는 한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상작품의 구입비를 증액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였습니다.

끝으로 회화, 조각에 있어 구상, 비구상의 구분을 당분간 계속 유지하되 가을에 함께 전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종전에 회화와 조각을 구상작품과 비구상작품으로 구분하여 봄, 가을에 따로 전시하던 것을 《가을 국전》에 같이 전시하도록 하였습니다.

1. 회기 및 전시 내용

◇봄 국전 · 1977년 5월 2일~5월 31일

제3부전 · 서예(사군자 포함)

제4부전 · 공예, 건축, 사진

◇가을 국전 · 1977년 9월 30일~10월 31일

제1부전 · 구상적 · 사실적 표현의 동양화, 서양화, 조각

제2부전 · 조형적 · 추상적 표현의 동양화, 서양화, 조각

2. 전시장소 · 국립현대미술관

3. 전시규격

◇회화 · 130×162cm 이내(100호 이내)

◇조각 · 평면(90×130cm) 높이(300cm 이내)

◇서예 · 가로 152×세로 250cm 이내

◇공예 · 가로 90×세로 180×높이 250cm 이내

◇건축 · 가로 360×세로 180cm×높이 250cm 이내

◇사진 · 90×120cm 이내

단, 위의 규격은 '틀'을 포함하지 않은 규격을 말하며 '틀'의 폭은 표구를 포함해서 한쪽이 7.5cm 이내이어야 함

4. 유의사항

◇출품작품은 국내 외에서 발표되지 않은 작품으로서 전시 중 파손될 위험성이 없는 것이어야 함

◇다음과 같은 소재의 작품을 권장함

- 국가발전의 변화 속에서 다양하게 소재를 찾아 창작된 작품

- 민족의 자주정신을 선양하는 작품

- 국민총화의 새가치관을 고취하는 작품

- 고유의 미를 재발견하고 미술문화 진흥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작품

- 우리나라의 공서양속(公序良俗)에 어긋나지 않은 작품

◇공예작품은 창작품에 한하며 다음 제작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함

①목칠공예 · 재료, 가마, 제작과정

②도자기 및 유리공예 · 재료, 가마, 제작과정, 소성도

③금속공예 · 재료, 합성도, 제작과정

④석공예 · 재료, 제작과정

⑤염직공예 · 재료, 염직종류

⑥기타수공예 · 재료, 용도, 제작과정

◇건축작품은 작품명세서를 첨부하고 투시도 및 설계도 제출(단, 모형은 출품자의 임의)

5. 출품절차

◇원서배부 · ①제3부, 제4부 · 1977년 2월 15일부터

②제1부, 제2부 · 1977년 7월 15일부터

◇원서배부처 · 국립현대미술관, 한국미술협회, 한국건축가협회, 한국사진협회, 예총 본부 및 각 지부, 각 시도 문화공보실

◇작품접수 · 제3부, 제4부 ·

서예, 건축(1977년 4월 15일-4월 16일)

공예, 사진(1977년 4월 17일-4월 18일)

제1부, 2부 · 1977년 9월 10일-9월 15일

※일요일에도 접수함

◇작품접수처 · 국립현대미술관

◇심사결과발표(봄전시) · 1977년 4월 23일

◇출품료 · 1점 당 500원

◇출품수 · 1인당 3점 이내

6. 시상

◇일반공모상(4개진)

대통령상 · 봄, 가을 전시 각1명(상장 및 상금 200만 원)

국무총리상 · " (상장 및 상금 100만 원)

문화공보부장관상 · 1, 2, 4부 각3명, 3부 1명(상장 및 상금 50만 원)

◇초대 및 추천작가상(예술원회장상)

초대작가상 · 봄, 가을전시 각 1명(상장 및 상금 100만 원)

추천작가상 · " (상장 및 상금 80만 원)

7. 작품반출

◇낙선작품은 심사결과 발표 후 10일 이내

◇전시작품은 전시종료 후 10일 이내

단, 동 기간 내에 찾아가지 않는 작품에 대하여는 당부에서 임의처분함

8. 기타

상세한 것은 문화공보부 예술과(70-3820) 국립현대미술관(22-720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977년 2월 일

문화공보부 장관

1977년 4월 21일, 『동아일보』 5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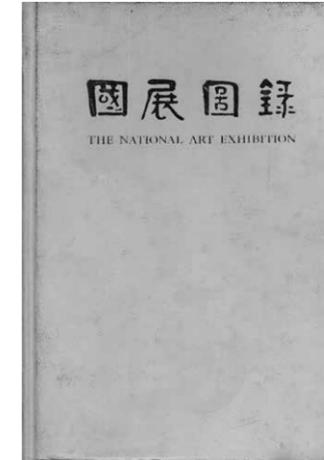
「《봄 국전》 심사에 물의, ‘사진’ 심사위원회에 시비」

20일부터 시작되는 《봄 국전》 심사를 둘러싸고 사진계의 몇몇 원로들이 작년에 안준천 씨를 추천작가로 밀어 넣은 《국전》 운영위원 이해선 씨의 퇴임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형록 임응식 씨 등 사단 중진 11명의 명의로 문공부 장관 앞으로 보낸 건의서에 따르면 《국전》 제4부 사진 부문 운영위원인 이해선 씨가 작년 《국전》에서 ‘정실’로 자격이 없는 안준천 씨를 추천작가로 추천하여 사단에 물의를 일으킨 바 있으며 이로 인해 부당한 과오를 저질렀으므로 이해선 씨의 교체를 요구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초대작가 중 이형록, 문선호, 안월산, 이명동, 이건중, 임응식 씨와 추천작가 중 정도선, 임석제, 유정재, 홍순태, 지부원 씨 등이 작품 출품을 사양하고 있으며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이형록, 문선호 씨 등은 심사를 사양하고 있다.

1977년 5월 2일-5월 31일, 국립현대미술관[《봄 국전》]
문화공보부 주최, 《제26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



국전운영위원(무순)

위원장 이종우

부위원장 민태식

위원 천경자 박노수 오지호 이마동 김경승 최순우 손석주 김종영 김기창 서세옥
유영국 변중하 이경성 손세일 김기승 김충현 이해선 김광덕 이신자 엄덕문
김수근

심사위원(무순)

〈제4부〉 위원장 이천승

부위원장 정인성

사진 분과위원장 이경모

위원 김조현 정인성 조현두 김종현

초대작가(무순)

〈제4부〉 사진 이건중 김종양

추천작가(무순)

〈제4부〉 사진 이정강 안준천

수상작

● 일반공모상

〈대통령상〉

[2부 서양화 부문 수상]

〈국무총리상〉

[2부 조각, 3부 서예 부문 수상]

〈문화공보부장관상〉 4부 사진 〈신월리의 아침〉 박상운

● 초대·추천작가상

〈초대작가상(예술원회장상)〉 [1부 조각, 3부 서예 부문 수상]

〈추천작가상(예술원회장상)〉 [1부 동양화, 4부 공예 부문 수상]

제4부

■ 사진

운영위원 〈설경〉 이해선

심사위원 〈양지〉 김종현, 〈한정〉 이경모, 〈물의 환상곡〉 김조현, 〈관광객〉 정인성

초대작가 〈맹호〉 이진중, 〈해숫음〉 김종양

추천작가 〈무녀 율무〉 안준천, 〈상징〉 이정강

특선 〈마지막 잎새〉 이규현, 〈조국의 기적〉 이봉하, 〈고향〉 차용부, 〈대동맥의 역군〉 오규환,

〈한〉 이종태, 〈끝손질〉 배동준, 〈우리는 즐거워〉 김수열

입선

〈구원의 거화〉 권진희

〈추경〉 이준무

〈반영〉 이기철

〈탐라의 비경〉 김성욱

〈작업〉 양성철

〈화랑의 후예들〉 김상진

〈반영〉 이경홍

〈새 역사의 창조〉 한의섭

〈염불〉 서규원

〈자연의 찬미〉 송봉운

〈일터로 가자〉 김일창

〈고행〉 이연우

〈울〉 최홍만

〈사라져가는 짚신〉 박수돈

〈천국의 계단〉 강상규

〈봄을 기다리는 풍경〉 박재우

〈길〉 강위원

〈병상의 한때〉 차정환

〈통일의 염원〉 김성욱

〈노어부〉 김병원

〈무아〉 구자춘

〈바닷가〉 김윤찬

〈유비〉 서규원

〈이전〉 이창남

〈과문〉 이종태

〈역군들의 의지〉 홍택류

〈배달의 기사〉 유재정

〈산중설일〉 최홍만

〈중산을 향한 의욕〉 홍택류

〈군무〉 박옥수

〈고요의 마을〉 송일학

〈만추〉 김석만

〈강강수월래〉 민병태

〈평화〉 유재정

〈생존〉 예규환

〈환무〉 문종웅

〈정월의 죽물시장〉 문병오

〈번영으로 가는 길〉 박홍두

〈설록〉 권진희

〈고향풍경〉 이영달

〈5월의 여인상〉 박상운

〈듀엣〉 박옥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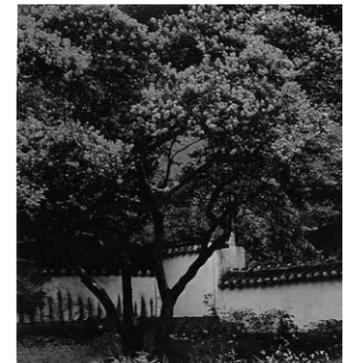
문화공보부장관상 〈신월리의 아침〉 박상운



운영위원 〈설경〉 이해선



심사위원 〈양지〉 김종현



심사위원 〈한정〉 이경모 [컬러]



심사위원 〈물의 환상곡〉 김조현 [컬러]



심사위원 〈관광객〉 정인성



초대작가 <맹호> 이진중 [컬러]



초대작가 <해 솟음> 김종양 [컬러]



특선 <고향> 차용부 [컬러]



특선 <대동맥의 역군> 오규환 [컬러]



추천작가 <무녀 율무> 안준천 [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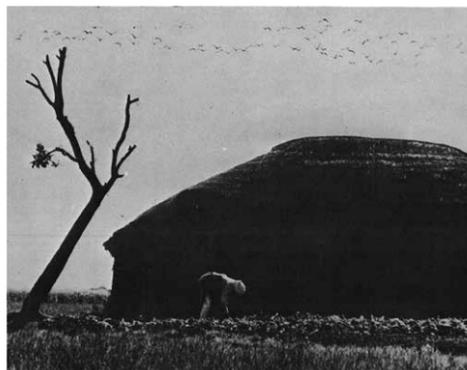
추천작가 <상징> 이정강



특선 <한> 이종태 [컬러]



특선 <끝손질> 배동준 [컬러]



특선 <마지막 잎새> 이규현



특선 <조국의 기적> 이봉하 [컬러]



특선 <우리는 즐거워> 김수열 [컬러]

1977년 6월, 『신동아』(통권154호), p.381

「(뉴스와 화제-미술) 쓸쓸한 《봄 국전》」

《국전》을 4부로 나누어 봄에는 2부(회화, 조각의 비구상)와 4부(공예, 사진, 건축)를 실시하고 가을에는 1부(회화, 조각의 구상)와 3부(서예, 사군자)를 실시해오던 종전의 제도를 바꾸어 봄에는 3부와 4부를 실시하고 가을에는 경향별로 분리 실시해왔던 구상, 비구상을 통합해서 전시한다는 것이 개혁된 내용이다. 올해는 그 첫해가 되는 셈이다.

이른바 순수미술 분야가 제외된 《국전》은 전에 없이 쓸쓸한 느낌을 주고 있는 것이 이번 《봄 국전》에 대한 인상이다. 사진 분야에서 심사 거부란 심각한 문제를 낳기도 했으나, 전체적으로 올 《봄 국전》처럼 조용히 열린 《국전》도 아마 없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말썽이 없었던 만큼 우수한 작품도 없었다는 것이 전체적인 평가인 것 같다. 대통령상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물론 심사의 엄격성과도 결부되어 이야기될 수 있으나 그만큼 전체적인 작품의 질적 저하를 시사하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느 분야에서는 해마다 출품 수가 줄어서 존폐의 문제까지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

대체로 이러한 식어진 《국전》에 대한 열기가 어디에 있는가는 더 연구해보아야 하겠지만 순수미술 분야를 제외한 《국전》이 처음으로 열리는 마당이 이렇게 쓸쓸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선 《국전》이 지금까지 순수미술, 가령 회화와 조각 분야에 그 관심이 주어졌지 여타 분야에 대해선 관심 영역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는 다른 말로 하면 살롱 예술 분야에 대한 극히 자연스런 대중의 관심의 반응인지도 모른다. 살롱적인 전시 성격을 지니지 못한 분야까지도 《국전》 속에 넣어 이른바 전체 미술의 공통적인 향상이란 명분을 지켜온 것이 《국전》이었다는 것이 얼마나 모순된 결과를 낳고 있는가를 이번 《국전》은 웅변으로 말해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꼭 《국전》에 들어와야만 보호되고 성장될 수 있다는 안이하고 무모한 사고방식이 일종의 권위주의적인 사고와 결부되어 오늘과 같은 전람회적인 《국전》의 체제를 만들어 놓았다.

식어진 열기와 쓸쓸한 분위기에 결부하여, 《국전》의 존폐에 대한 문제가 다시 논의되고 있는 점은 어떻게 보면 오늘의 미술계 현실이 《국전》이란 체제를 벗어나야 할 시점에 와 있다는 사실을 환기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미 여러 신문사에서 그 나름의 민전을 구상하고 있으며 《국전》이란 형식을 통한 미술 진흥책이 벌써 시대착오적이란 사실이 지적되고 있는 현실이기도 하다.

〈光〉

1977년 6월, 『신동아』(통권154호), p.386

이명동, 「(뉴스와 화제-사진) 개운치 못한 《사진 국전》」

《제26회 봄 국전》이 5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덕수궁 현대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다.

따지고 보면 《국전》에 사진 부문이 설치되고 열세 번째로 맞는 《사진 국전》이기도 하다. 특히 올해 《국전》 사진 부문에서는 2명의 심사위원이 심사를 거부하고, 초대작가와 추천작가 11명이 출품을 거부하는 등, 불행한 사태가 야기되기도 했다.

지난해 《국전》 운영위원회에서 자격이 미달된 안준천 씨를 추천작가로 지명한 데 대한 반발이 해를 넘기면서까지 지속된 것이라고 하겠다.

어쨌든 개운치 못한 분위기 속에서 《사진 국전》은 개막된 셈이다.

3백 40여 점의 응모작 중에서 뽑힌 50점(특선 8점 포함)의 전시 작품은 그 수준이 어느 해보다도 저조한 것이었다고 혹평을 하는 사람이 많다.

전시 작품을 통해서 느낀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한다면 첫째로 50점의 입선작 중에서 칼라 작품이 무려 34점을 차지했고 흑백 작품은 겨우 16점밖에 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칼라 작품이 전체 입선작의 3분의 2의 비율을 차지했다는 사실은 《사진 국전》이 시작되고 13년 만에 처음 있는 일로서 얼핏 생각하면 이러한 현상은 사진예술의 발전을 뜻하는 것이라고 느껴질지 모르지만 실은 엄청난 후퇴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왜냐하면 우선 칼라 작품은 작가가 단독 작품이 아니고 칼라 라보의 기술자와의 공동 작품이기 때문이다. 찍은 필름을 몽땅 칼라 라보에 다 맡기면, 칼라 라보에서 모든 것을 처리해서 작품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마치 화가가 데상은 자기가 하고 채색은 간판집에 맡겨서 그림을 완성하는 격이라고 하겠다.

우리들이 흔히 사진작품을 비평하는 데 있어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검토한다. 작품 내용의 발상이 적당하고 기발한 것인가와 작품의 표현 기술이 완벽하게 구사되고 있는가 등이다. 전자의 경우는 테마의 선택과 그것이 제3자에게 강력한 공감을 줄 수 있는가 없는가를 말하는 것이고 후자는 기술적인 면에서 그 테마가 지닌 이미지를 1백 퍼센트 표현하고 있는가가 문제가 된다. 즉 아무리 발상이 좋은 테마로서 내용이 좋은 것이라고 해도 그것이 기술적으로 잘 처리, 표현되지 않으면 강력한 호소력을 가지고 제3자에게 전달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하겠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작품의 표현 기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다. 이러한 표현 기술의 처리 과정을 작가 자신이 하지 않고 칼라 라보에다 맡겨서 처리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하겠다. 물론 이 중에는 자신이 직접 작업 처리한 작품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칼라 라보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보면 문제가 된다. 솔직히 건축 작품처럼 공동명의(칼라 라보의 기술자와)로 출품을 하는 것이 작가로서의 올바른 양심이 아니겠는가.

전시 작품의 대부분이 그림엽서와 같은 전근대적인 회화양식의 사진이었다고 하겠다. 다시 말해서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뿐인 사진이라고 할까. 즉 표현성이 없는 작품 이전의 단순한 피사체의 기록성과 재현성만을 엿볼 수 있는 것이었다고 하겠다.

특히 문공부장관상을 받은 <신월리의 아침>은 내용이 없는 표현 기술만이 완벽한 것으로 그림엽서 같은 느낌의 것이었다. 그리고 특선으로 뽑힌 흑백 작품 <마지막 잎새>의 표현 기법인 몽타주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수법을 썼다는 점이다. 농기는 먼도날로 오려 붙이고 철새는 그려 넣어 교묘하게 조작한 것을 특선으로 뽑았다는 사실은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지금으로부터 8, 9년 전 《사진 국전》 특선 작품 중에 독수리의 박제에다 닭을 매어 단 조작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경우가 있었다. 이와 같은 용납할 수 없는 조작된 것을 특선작으로 뽑은 그 책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심사위원들이 져야 한다.

사진성을 짓밟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으며 지탄되어야 할 것이다.
<命>

1977년 6월, 『월간사진』 (통권121호), pp.98-100

「《제26회 봄 국전》」

사진부 심사평 이경모 심사분과위원장

회화와 조각이 빠지고 사진, 공예, 건축, 서예 네 개 부문이 같이 모인 《봄 국전》은 어딘지 모르게 쓸쓸함이 맴도는 가운데 막을 열었다. 거기에 일부 초대, 추천작가가 작년도에 추천된 분과 운영위원 교체를 요구하며 출품과 심사를 사퇴하는 바람에 연일 신문지상에 보도되고 왜 사진 부문은 해마다 말썸이 많으냐는 야유도 받았으나 그래도 사진작품의 출품 수도 늘고 질적으로도 향상한 것은 다행한 일이었다. 작년 이맘때쯤 슬렁이던 사진계가 한참 잠잠하더니 《국전》 심사를 앞두고 재현된 것은 불행한 일이며 심사와 결부시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사진 부문 최고상을 차지한 박상윤 작 <신월리의 아침>은 알맹이 없이 칼라풀 한 소재만 뒤쫓는 작가들에게는 좋은 경종이 되었으리라 믿는다. 셔터 찬스도 알맞았으며 풍요한 농촌의 안개 낀 아침, 등교길의 자전거 탄 여학생의 뒷모습도 인상적이었다. 무성한 포플러와 유유히 흐르는 수로의 물, 아침 안개가 원근감을 잘 나타내 주었으며 국산 인화지를 써서 작화 기법도 완벽하고 드물게[드물게] 보는 걸작이었다.

김수열 작 <우리는 즐거워>는 6.25 후 평화로운 삶을 갈망하던 우리 국민이 큰 감명을 받은 바 있는 《The Family of man》 사진전을 연상케 하는 작품으로서 핑크색 모자가 인상적이었

으며 선생 주변을 맴도는 어린이들의 흔들림이 더욱 효과적이었다.

오규환 작 <대동맥의 역군>은 회감이 넘었으면서도 항상 39세라고 우기는 작가의 노익장을 입증하는 듯, 대형 송수철관의 용접 광경을 다이나믹 하면서 칼리플 하게 잘 처리한 작품이었다.

배동준 작 <끝손질>은 새푸니스트[샤프니스]가 아쉬우며, 이봉화 작 <조국의 기적>은 촬영에는 무척 고심하였으나 제목을 너무나 어렵게 붙인 것 같으며, 이종태 작 <한>에서는 어린이를 카메라 쪽으로 더 가까이 세움으로서 머리 주위를 정리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규현 작 <마지막 잎새>는 발일하는 아낙네가 우측에서 좌측으로 행하여야 되며 하늘의 새떼들도 좀 지나친 감이 든다. 차용부 작 <고향>도 검정 개와 사람 머리가 너무 가까운 듯하였으며, 특선 후보까지 올라왔으나 2점 차이로 기명 투표한 결과 아깝게도 입선에 그친 8 작품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유정재 작 <평화>, 민병태 작 <강강수월래>, 김상옥 작 <통일의 염원>, 박옥수 작 <뚜엘>, 권진희 작 <구원의 거화>, 최홍만 작 <울>, 강상규 작 <천국의 계단>, 구자춘 작 <무아>

[수상소감 생략]

1977년 7월, 『영상』(통권13호), p.96

「《제26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 사진 부문에 대한 나의 의견 (원고 접수순)」

성두경(대한사협 회장)

《제26회 봄 국전》은 조각, 회화가 빠진 서예, 사진, 공예, 건축으로 이루어졌다.

심사위원 수도 각 분과별로 5명에서 7명으로 늘었다. 심사위원 수를 늘인 것은 심사의 좀 더 공정을 기하고자 하는 뜻으로 해석된다. 총 응모 수 347점 중 입상 및 입선작 50점과 초대 7 추천 2점이 전시되었다[되었다]. 전회보다 응모 수가 증가되고 칼라 흑백 비율은 약 7 대 3 정도로 칼라 작품이 많이 출품된 것은 국제적인 추세로서 칼라 사진이 점차 대중화되어 감을 말한다. 작품 내용은 대체로 소재의 다양함과 부자연한 기교 없이 은은하고 차분한 그리고 안정된 색조로서 작화의 신중을 기하였음을 볼 수 있다. 이종태 씨의 <한(閑)>, 차용부 씨의 <고향>, 이영달 씨의 <고향풍경>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흑백 작품의 경우 우리나라 사진 재료 사정이 여의치 않은 여건 하에서도 문공부장관상을 수상한 박상윤 씨의 <신월리의 아침>, 구자춘 씨의 <무아>, 이창남 씨의 <이견(異見)> 등은 촬영기법이나 작화 면에 있어 완벽한 작품이라 하겠다. 전 회보다 응모 수도 증가되고 작품 수준 역시 향상된 것으로 보인다.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모처럼 제정된 최고상(대통령상) 4개 부문 중에서 해당 작품이 없었다는 것은 심히 섭섭한 일이라 하겠다.

또한 일부 심사위원의 사퇴, 초대, 추천작가의 출품 거부 등으로 잡음이 일고 있음은 유감된 일이며 《봄 국전》의 무용론까지 나돌고 있는 차체에 우리 사단의 정화를 위하여 하루속히 해결 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나아가 국가적인 행사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그의 발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믿는 바이다.

홍순태 사진동우회장

1 《국전》 운영에 관한 문제점

(1) 운영위원의 선임

공히 보편타당성이 있고 사계의 권위를 갖으며[가지며] 편견이 없이 공정하게 추천작가와 심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는 양심의 소유자이어야 한다. 76년도에 물의를 일으켰던 운영위원을 그대로 둔 것은 《국전》의 고질적인 병폐를 바로잡기 위하여도 올바르게 시정하여야 할 것이다.

(2) 예총 산하 단체의 이사장을 무조건 국전운영위원회에 위촉하는 것을 반대한다. 이는 각 협회의 이사장의 성격을 망각한 처사이다. 이사장은 선거에 의하여 정치적인 역량에 의하여 선임되므로 예술인으로서의 차원 높은 자질, 인격, 공평한 운영을 잃기 쉽기 때문이다. 이사장을 무조건 운영위원으로 위촉함은 《국전》의 질적 향상과 예술의 발전적인 방향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2. 특선 및 입선작에 관한 의견

특선작 중 수작은 오규환의 <대동맹의 역군>이다. 소재 자체는 새로운 것이 아니지만 콤포지션, 색감, 내용 면에서 사진적 처리가 우수하다. 이규현의 <마지막 잎새>는 어설픈 몽타지와 공간의 공허함을 메꾸기 위해 새군을 그려 넣은 것은 작가의 양심이 의심스럽고 심사위원의 눈이 의심스럽다. 배동준의 <끝손질>은 회화적인 완벽한 색, 선의 구사가 잘되었으나 사진의 생명인 카메라의 흔들림에 의한 해상력이 없다. 입선작 중의 수작은 김성욱의 <통일의 염원>이다. 전형적인 살롱사진이기는 하나 소재의 사진적인 질감력은 우수하며 노출, 색감, 구상력이 모두 완벽하다. 입선작 중 흑백사진의 수작은 구자춘의 <무아>이다. 소재 선택이 우선 새롭고 무아경 속에서 자기 일에 몰두하고 있는 리얼한 모습이 좋았고 광선이 비추어진 톱날의 기하학적인 하이라이트, 톤 콘트라스트, 배경 처리 모두 완벽하다.

3. 《국전》 심사에 관한 의견

예술에 관한 심사는 과학이나 수학적인 공식에 의하지 않으므로 절대적이라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심사 후에는 지나칠 정도의 많은 잡음은 문제점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공개 심사도 시행하여 보았으나 이렇다 할 개선이 안 되었다. 첫째 운영위원의 심사위원 추천이 편파성이 없이 양심적이어야 한다. 둘째 심사위원의 자질은 과거의 권위, 연령 등에 구애 받지 않고 현역에 종사하여 활발한 작품 활동을 영위하고 작가적 양심이 투철하며 사진적인 조류에 정통해야 한다. 셋째 심사 과정에 있어서는 대국적인 견지에서 한국 사진 발전의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였다는 중책을 직감하고 최양의 작품을 선정해야지 자기 지방이나 편파적인 파벌 인지 등에 의한 소인적인 심사를 불식해야 할 것이다.

1978년 2월 1일, 『서울신문』 3면
문화공보부, 「제27회 국전」 개최 공고



제27회(1978년도) 《대한민국 미술전람회》 개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국가 발전의 변화 속에서 다양하게 소재를 찾아 창작된 수준 높은 작품들이 많이 출품되어 우리 고유의 미를 재발견하고 민족의 슬기를 선양하며 미술문화의 발전과 진흥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도록 미술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1. 회기 및 전시내용

- ◇ 봄 국전: 1978년 5월 2일-5월 31일
서예(사군자 포함), 공예, 건축, 사진
- ◇ 가을 국전: 1978년 9월 30일-10월 31일
동양화, 서양화, 조각(구상 및 비구상 분야)

2. 전시장소: 국립현대미술관

3. 작품규격

- ◇ 회화··80호(145×112cm) 이내
- ◇ 조각··평면(90×130cm) 높이(250cm) 이내
- ◇ 서예··가로(120cm)(세로 200cm) 이내
- ◇ 공예··가로(90cm) 세로(180cm) 높이(250cm) 이내
- ◇ 건축··가로(360cm) 세로(180cm) 이내
- ◇ 사진··90×120cm 이내

단, 위의 규격은 '틀'을 포함하지 않은 것임. '틀'은 표구를 포함해서 한 쪽이 7.5cm 이내

4. 출품에 관한 유의사항

- ◇ 출품작품은 국내 외에서 발표되지 않은 작품으로서 전시 중 파손될 위험성이 없는 것이어야 함
- ◇ 공예작품은 창작품에 한하며 다음 제작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함

- 목칠공예: 재료 가마 제작과정 ○ 도자기 및 유리공예: 재료 가마 제작과정 소성도
- 금속공예: 재료 합성도 제작과정 ○ 석공예: 재료 제작과정
- 염직공예: 재료 염직종류 ○ 기타 수공예: 재료 용도 제작과정
- ◇ 건축작품은 작품 설명서를 첨부하고 투시도 및 설계도 제출(단, 모형은 출품자의 임의)

5. 출품절차

- ◇ 원서배부: 봄 국전-1978년 2월 15일부터, 가을 국전-1978년 7월 18일부터
- ◇ 원서배부처: 국립현대미술관, 한국미술협회, 한국건축가협회, 한국사진작가협회, 예총 및 예총 지방 지부, 각 시 도 문화재과
- ◇ 작품접수
 - 봄 국전=서예(1978년 4월 15일-4월 16일)
 - 공예(1978년 4월 15일)
 - 건축(1978년 4월 16일)
 - 사진(1978년 4월 17일)
 - 가을 국전=1978년 9월 15일-9월 18일
 - ※ 일요일에도 접수함
- ◇ 작품접수처=국립현대미술관
- ◇ 심사 결과 발표(봄 국전)=1978년 4월 22일(예정)
- ◇ 출품료=500원
- ◇ 출품수: 1인당 1점(작품 구성상 2개 이상이 1조가 되어 하나의 작품으로 인정되는 것은 1점으로 봄)

6. 시상

- ◇ 일반공모상
 - 대통령상: 봄 가을 전시 각 1명(상장 및 상금 200만 원)
 - 국무총리상: " " (상장 및 상금 90만 원)
 - 문화공보부장관상: 봄 전시 4명(부문별 각 1명)
 - 가을 전시 6명(")(상장 및 상금 70만 원)
- ◇ 초대 추천작가상(예술원회장상)
 - 초대작가상...봄 가을 전시 각 1명(상장 및 상금 130만 원)
 - 추천작가상... " " (상장 및 상금 90만 원)

7. 수상 작품 구입

- ◇ 《국전》 수상작품은 국가에서 영구히 보존 활용하기 위해 당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상작품을 구입할 예정임
- ◇ 구입 예정 작품
 - 대통령상 수상작품
 - 국무총리상 수상작품

- 문화공보부장관상 수상작품

8. 작품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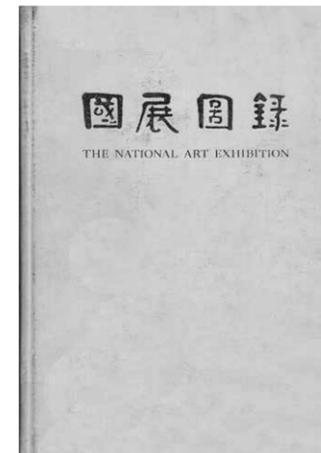
- 낙선작품은 심사 결과 발표 후 10일 이내
- 전시작품은 전시 종료 후 10(일) 이내
 - 단, 동 기간 내에 찾아가지 않는 작품에 대하여는 당부에서 임의 처분함

9. 기타

상세한 것은 문화공보부 예술과(3820) 국립현대미술관(720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978년 2월 일
문화공보부 장관

1978년 5월 2일-5월 31일, 국립현대미술관[《봄 국전》]
문화공보부 주최, 《제27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



국전운영위원(무순)
위원장 이종우

부위원장 민태식

위 원 천경자 박노수 오지호 이마동 김경승 최순우 윤치오 김종영 김기창 서세옥
유영국 변종하 이경성 손세일 김기승 김충현 이신자 엄덕문 김수근 이해선
김광덕

심사위원(무순)

〈제 4 부〉 위원장 강명구
부위원장 이진중

사진 분과위원장 이경모

위 원 김조현 이진중 박필호 문선호 정인성

초대작가(무순)

사진 김조현 이진중 이경모 이해선 임응식 김종양 박필호 안월산 이명동 이형록
정인성 문선호 조현두 김종현 이정강

추천작가(무순)

사진 홍순태 임석제 정도선 유정재 지부원 안준천

수상작품

● 일반공모상

〈대통령상〉 [동양화(비구상) 부문 수상]
〈국무총리상〉 [조각(구상), 공예 부문 수상]
〈문화공보부장관상〉 [각 부문별 1점 수상] 사진 〈숲 속의 연인〉 김생수

● 초대·추천작가상

〈초대작가상(예술원회장상)〉 [서양화(비구상) 부문 수상] 사진 〈실재〉 조현두
〈추천작가상(예술원회장상)〉 [서양화(구상) 부문 수상]

■ 사진

운영위원 〈도정〉 이해선

심사위원 〈칠면조〉 이진중, 〈천불천탑동 점경〉 이경모, 〈송방일우〉 정인성, 〈덕유설경〉 김조현,
〈쌍마〉 문선호

초대작가 〈폐선〉 이정강, 〈수〉 김종현

추천작가 〈무지개 길〉 지부원, 〈구성〉 홍순태, 〈울동〉 유정재, 〈자유의 숲〉 정도선, 〈노경〉 안준천

특선 〈무오년의 새 아침〉 김성욱, 〈갯벌〉 이종태, 〈울〉 이용권, 〈옛 것, 그리고 오늘〉 박옥수,
〈추경〉 박상윤, 〈고목과 백로〉 이봉하

입선

〈해변의 아이들〉 이석재 〈단합〉 김영민 〈사라진 보릿고개〉 송진화
〈하오의 작업장〉 양태구 〈기로〉 김수열 〈옹기촌의 일가〉 문병오
〈자연의 리듬〉 김인태 〈고정〉 박홍두 〈어부의 행진〉 설찬수
〈고추 있는 풍경〉 최은실 〈노점〉 정영모 〈석양의 어부들〉 박수태

〈잔영〉 민병태
〈백의의 맥〉 오규환
〈신리의 겨울〉 임영호
〈자매〉 박인섭
〈계시록〉 양희국
〈설중어부〉 박원석
〈초여름〉 강성혁
〈적막〉 이종원
〈울분의 한탄강〉 최홍만
〈전설의 아침〉 유재정
〈봄 길〉 전형국

〈고을〉 김상영
〈제등〉 이규화
〈작업〉 김진성
〈바다로〉 공병우
〈건어장〉 최기용
〈갯마을 사람들〉 이종철
〈반영〉 정광삼
〈하오〉 김혜경
〈안개 속의 도담상봉〉 윤복호
〈청년 조국〉 양성철
〈길쌈〉 최영철

〈어장〉 박재우
〈적(흔적)〉 김석만
〈얼〉 차용부
〈전통문화의 미〉 이완교
〈농악〉 김형주
〈시골길〉 이정훈
〈낙엽〉 박명숙
〈설화〉 이석규
〈눈 나리는 의상대〉 문순화
〈내일을 향하여〉 김철수



예술원회장상(초대작가상)
〈실재〉 조현두



문화공보부장관상
〈숲 속의 연인〉 김생수 [컬러]



운영위원 〈도정〉 이해선



심사위원 〈칠면조〉 이진중 [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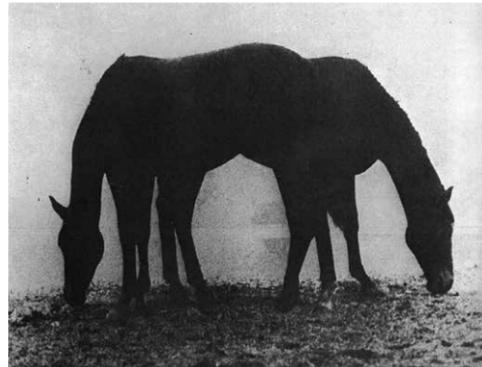
심사위원 <천불천담동 점경> 이경모 [컬러]



심사위원 <승방일우> 정인성



심사위원 <덕유 설경> 김조현 [컬러]



심사위원 <쌍마> 문선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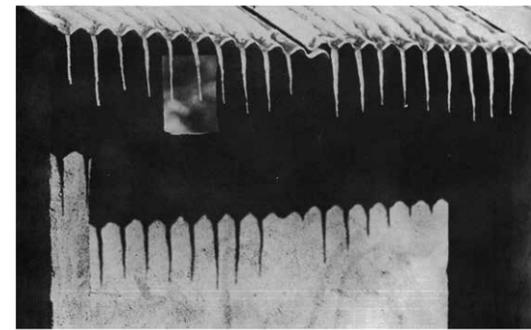
초대작가 <폐선> 이정강



초대작가 <수> 김종현



추천작가 <무지개 길> 지부원 [컬러]



추천작가 <구성> 홍순태



추천작가 <울동> 유정재 [컬러]



추천작가 <자유의 숲> 정도선



추천작가 <노경> 안준천



특선 <갯벌> 이종태 [컬러]



특선 <울> 이용권 [컬러]



특선 <옛것, 그리고 오늘> 박옥수 [컬러]



특선 <추경> 박상윤 [컬러]



특선 <고목과 백로> 이봉하



특선 <무오년의 새 아침> 김성욱 [컬러]

1978년 6월, 『월간사진』(통권132호), p.39

이경모, 「《제27회 봄 국전》 사진부 심사평」

심사분과위원장 · 이경모

1964년 《제13회 국전》에 사진부가 처음으로 참여하였으니 올해로 14년이 된다. 초대작가 조현 두 씨의 작품 <실재(實在)>가 초대작가상을 받았으니 큰 경사라 아니할 수 없다. 작가 조 씨는 64년부터 67년까지 계속하여서 연 4회 특선을 하여 추천작가가 되었으며 7년간 꾸준히 동일계의 좋은 작품을 출품하여서 초대작가가 되었고 77년도에는 심사위원으로 위촉되기까지 한 분으로 시종일관 조형적인 추상계통의 작품을 발표하여 오신 분으로 조형감각에서 새로운 사각(寫角)을 개척하여 온 작가다. 흑백사진의 매력은 풍부한 '구라데이손'[그라데이션]에 있다고 하는데 작품 <실재>는 오랜만에 우리 사진인 뿐 아니라 타 예술 부문의 심사위원들에게도 만족감을 주었습니다.

제도상 큰 변화는 없었지만 종래 1인당 3점 이내로 출품할 수 있었던 규정이 1인당 1점씩으로 출품 제한된 것이 이번 《봄 국전》의 특징이라 하겠다.

역대 《국전》 중 가장 초라했다는 평을 들은 작년도의 《제26회 봄 국전》에서도 사진 부문만은 약 160명이 345점을 출품한 바 있으나 금년에는 1인당 1점씩인데도 245점이나 출품되었으니 약 100명 가까이 더 참여한 셈이다. 이런 면을 들어 주최 측에 입선 작품 수를 20점쯤 늘리자고 강력히 요청하였으나 문공부 당자(當者)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일이니 운영위원회 회의를 재소집하기 전에는 불가능하다고 하여서 시간을 벌기 위하여 전체 출품작의 수준을 본 후에 재차 또 교섭을 하였으나 역시 뜻을 이루지 못하고 말았다.

필자가 작년도에도 역설하였듯이 예술작품을 숫자에 끼워 맞추기보다 심사위원의 양식에 맡기고 입선 및 입상 작품의 수에 유동 폭을 두는 방법도 고려되었어야 할 텐데 금년도에도 뜻을 이루지 못하고 말았다.

수차에 걸친 전광판에 의한 심사로 선출된 특선 후보작 10점을 놓고 운영위원회에서 만든 심사 기준대로 1위를 100점으로 하고 각 순위 간 점수의 차이를 2점으로 하여 기명투표를 하고 합산을 하여 보니 그 결과가 예상한 대로 엉뚱하게 나타나자 심사위원 전원이 이연실색하였으나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각 순위 간을 2점 차이로 기명 투표하여 합산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 같으나 실제로는 더 큰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 내년도에는 《봄 국전》과 《가을 국전》으로 분리하지 말고 통합하여서 가을에 동시에 개최할 것이며 심사 방법도 숫자에만 치중하지 말고 현실에 맞는 심사 기준을 만들어 주시기 바란다.

문공부장관상을 받은 김생수 작 <숲 속의 연인>은 '톤제퍼레이손'[톤 세퍼레이션]을 하여 제작된 작품인데 작가는 꿈은 의지를 표현하기 위하여 직선적인 수목을 배경으로 하였으며 향시 푸른 마음으로 인생 향로를 걸어 나가자는 뜻에서 전체를 녹색으로 처리하면서 한 쌍의 연인을 황색과 적색으로 배치하였고 하부를 흑색으로 처리함으로 작품 전체의 안정감을 주는데 효과적이었으나 '포스타'에서 이용되는 색채 효과와 닮았다고 하여 '포스타레이손'[포스터레이션]

이라고도 불리우는 기법인데 좀 더 강력한 색채 표현을 시도했다라면 하는 생각 간절하다.

김성옥 작 <무오년 새 아침>은 작가가 제호에 너무나도 지나치게 ‘말’ 해를 의식한 감이 있으며 ‘말’ 위치가 좀 더 좌측에 있었으면 하나 촬영 기법이나 작화 기술이 완벽한 수작이며,

박옥수 작 <옛것 그리고 오늘>도 우수작이었으나 좌측 1/8쯤 없애든지 “검정 유니폼”의 여학생 그림자가 좌측으로 길게 나타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박상운 작 <추경>은 작년도에 <신월리의 아침>으로 문공부장관상을 받은 바 있는 저력이 있는 작가로서 금년에도 목가적인 농촌 풍경을 노련한 솜씨로 잘 다루었다.

이봉하 작 <고목과 백로>는 지금까지 국내에서 발표된 ‘백로’ 작품과는 달리 이색적인 작품으로 아름다운 곡선을 자랑하는 고목과 ‘구름’을 재치있게 배치하여 마침 선경에서 ‘백로’를 보는 듯한 착상을 일으키는 작품이다.

이용권 작 <율(律)>은 환상적인 영상으로 현대 발레단을 동감이 나게 표현하였으며 차분한 아름다운 적색이 인상적이었다. 특선 후보에까지 올라왔으나 아깝게 입선에 그친 작품들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유재하 작 <전선의 아침> [유재정 작 <전설의 아침>]

김석만 작 <적>

최홍만 작 <울분의 한탄강>

민병태 작 <잔영>

김수열 작 <기로>

이종원 작 <적막>

윤복호 작 <안개속의 도담산봉>

오규환 작 <백의의 맥>

김인태 작 <자연의 리듬>

추천작가 지명에 대한 반대 서명운동으로 시작하여 일부 심사위원의 사퇴, 초대, 추천작가의 출품 거부 등등으로 76년과 77년 연 2년간 소란했던 《국전》 사진 부문이 금년에는 아무런 잡음 없이 개막되었으며 사진 부문에서 초대작가상 마저 차지하였으니 이런 경사가 또 어디 있으랴.

1978년 6월, 『월간사진』(통권135호), p.40, p.64

서상덕(사진평론가), 「《제27회 봄 국전》 논평-실망감 주는 ‘무감사 작품’」

《제27회 봄 국전》의 사진 부문(이하 《봄 국전》이라 한다)을 보고 난 후의 느낌은 예나 지금이나 별다른 감흥이 없고, 있다면 그저 그렇고 그런 작품전이란 말 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게 솔직한 고백이다.

응모자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는[여러분께는] 심히 미안한 일이지만, 《국전》의 생리나 체질이 지극히 보수적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관전(官展)인 이상 전시작의 내용에 무계가 있어야 할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그런데도 해마다 “그저 그런 식”의 작품들이 전시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봄 국전》에 대하여 너무나 큰 기대를 걸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인다는 말로도 해석된다.

연례행사처럼 뒤따랐던[뒤따랐던] 심사 결과에 대한 불미스러운 후문이 올해에는 별로 없었다는 것이 특이할 뿐, 작품의 경향이나 새로운 기법 등이 도입되거나 시도된 작품이 없는 것이 사진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불만이 되고 있다.

그다음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창작 작품의 명제(命題)이다. 너무나 직설적, 비약적이어서 시류에 영합하는 듯한 인상을 풍기는 이런 따위의 명제는 선진국에서는 물론 통용되지 않지만 창작물의 명제치고는 지나치게 신파, 연극조여서 질로 웃음이 터져 나오게 하는 것도 있다. 예를 들면 <울분의 한탄강>이라든가, <전통문화의 미>, <내일을 향하여>, <백의의 맥>, <모오년[무오년] 새 아침> 등등이 그것인데 명제란 알기 쉽고도 간단한 말로 표현되는 데 그쳐야 할 것으로 안다.

<울분의 한탄강>에 대해서는 이 작가인 최홍만 씨로부터 직접 그 까닭을 설명을 들은 바 있으나 지나치게 상징화하므로써 실패한 네임잉(nameing)[네이밍(naming)]이라 아니 할 수 없고, <백의의 맥>이란 그 뜻을 헤아리기가 무척 어렵다. 명제에 관한 지나친 집착과 신경과민으로 작품의 내용이나 화면이 풍겨주는 분위기를 오히려 깨치고 마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인식해주기를 바란다.

이런 우울한 사실들에도 불구하고 점차 사진작품의 예술성이 높이 평가되어 가고 있다는 조짐이 보이는 것은 매우 다행스럽고도 고무적인 현상이라 하겠다.

수년 전에 신진 기예의 유정재가 최고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한 데 이어 중진 작가인 조현두가 이번 에 작품<실재>로 초대작가상을 차지한 것은 사진계의 커다란 기쁨인 동시에 경사라 아니 할 수 없다.

조현두의 <실재>는 바닷가 모래밭의 일각을 작가의 심상(心像)으로 조형화한 추상 사진이지만 감상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매력을 지니고 있다. 초대작가상이 해마다 돌림으로 수상되던 것이 금년부터는 작품성 위주로 시상됨과 동시에 사진작품이 그것을 선취(先取)했다는 사실은 침체된 사단에 활력소를 주입하는 자극제 구실을 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사진계의 장래가 실망적이지 아니라는 것을 말할 수 있겠다. 물질 속에 내재하는 철학적인 영감을 추상화한 작가의 역량은 말할 것도 없고, 그것에 최고상인 초대작가상을 안겨다 준 《국전》의 앞날이 고무적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지나친 자기도취가 아닌 줄로 안다.

이 자리에서 낱알의 작품을 논평하지는 않겠다. 다만 몇몇 인상적인 작품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해 보기로 하자.

박원석의 <설중어부>는 동감이 좀 부족한 것 같고, 민병태의 <잔영>은 무서운 압력으로 내리누르는 힘을 가진 작품이다. 최은실의 <고추 있는 풍경>은 칼라 사진이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임영호의 <신리의 아침>, 최영철의 <길쌈>, 김석만의 <흔적>은 무난하게 처리된 수준급이라 보았다.

김해경의 <하오>, 설찬수의 <어부의 행진>, 박재우의 <어장>, 최기용의 <건어장>, 이종철의 <갯마을 사람들>, 전형국의 <봄 길> 등은 역시 무난한 작품이며, 특히 문순화의 <눈 내리는 의상대>는 새로운 시각으로 영상화된 작품이라 하겠다. 64p에 계속

《국전》논평- 40p에서 계속

문순화, 김석만, 김해경, 민병태의 이 작품들은 결코 특선작에 손색이 없다고 보아야 하겠으며, 한편 특선작인 <옛것 그리고 오늘 박옥수>, <갯벌 이종태>, <무오년의 새 아침 김성욱>, 그리고 장광상 수상작인 <숲 속의 연인 김생수>는 각각 원숙한 기술을 구사한 작품이긴 하나 깊은 감명을 주지는 못하였다. 한편 이봉하의 <고목과 백로>는 삼중으로 몽따즈한 노작(勞作)이지만 화면 구성에만 신경을 쓴 나머지 line light가 처리되지 않아 몽따즈라는 것을 금방 알아차릴 수 있어 흠이 되었으며, 박상윤의 <추경>은 지평선을 오목형으로 처리한 비범한 카메라 아이에도 불구하고 하늘에다가 너무 큰 공간을 할애하므로 산만한 화면을 만들었다.

몽따즈 계열의 작품으로는 양성철의 <청년조국>이 지나치게 비약적인 명제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화면을 구성했고, 몽따즈나 릴리프 기법과 함께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슬로우 셔터에 의한 동감 표현을 한 이용권의 <울>은 필자로서는 별로 공감을 느끼지 못했다.

그런데 우리가 《국전》에 기대를 거는 이유 중의 하나는 신진들의 등용문이라는 것 외에 이른바 초대작가와 추천작가들의 무감사 출품작에도 관심이 깊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에 있어 초대작가나 추천작가가 된 후의 사진 창작이 그리 신통치 않다는 것을 느낄 때 《국전》의 권위에 대한 불신과 실망감은 상상 이상으로 커지는 것이다.

정도선의 <자유의 숲>은 이미 오래전에 이와 비슷한 칼라 누드 작품이 그에 의해서 발표된 바 있어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필자로서는 실망했고, 정인성의 <승방일우>나 안준천의 <노경>, 홍순태의 <구성> 등은 무감사 작품에 대한 인식을 달리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해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저질(低質) 작품에 대한 제재 방법이 국전운영위원회와 주무자 사이에서 논의가 되고 있더니 당연한 일하면서도 일종의 환멸과 실망을 느끼게 된다.

민전(民展)에 대한 기대를 걸었다가 '동아'²⁰⁾나 '중앙'²¹⁾ 민전이 각각 사진을 탈락시킨 것과 결부시켜 생각해보면 사진가들은 스스로 자각하여 아마추어와는 차원이 다른 작품 세계를 개척, 수립해 주기를 바라지 않을 수 없다.

20) 동아미술제(東亞美術祭). 동아일보사 주최의 《동아사진콘테스트》와 《동아공예대전》을 통합하여 1978년 발족시킨 대표적인 민전이다. 회화·조각 부문과 사진·공예·서예 부문을 분리해 격년으로 개최했다. 2006년부터는 작품 공모에서 전시 기획으로 변경했다

21) 중앙미술대전(東亞美術祭). 1978년부터 『중앙일보』가 주최한 민전으로, 동양화·서양화·조각 부문을 두었고 이후 장르 구분을 없앴다.

1979년 2월 16일, 『서울신문』 3면

문화공보부, 「제28회 국전」 개최 공고



제27회(1979년도) 《대한민국 미술전람회》 개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우리의 자주정신을 드높이고 고유의 미를 담은 수준 높은 창작품이 많이 출품되어 미술문화의 발전과 진흥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도록 미술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1. 회기 및 전시내용

◇ 봄 국전...1979년 5월 1일-5월 30일

서예(사군자 포함), 공예, 건축, 사진

◇ 가을 국전...1979년 10월 2일-10월 31일

동양화, 서양화, 조각(구상 및 비구상 분야)

2. 전시장소...국립현대미술관

3. 작품규격

◇ 회화...80호 이내

◇ 조각...평면(90×130cm), 높이(250cm) 이내

단, 준량이 과중한 작품은 옥외에서 전시함

◇ 서예...가로(120cm), 세로(200cm) 이내

◇ 공예...가로(90cm), 세로(180cm), 높이(250cm) 이내

◇ 건축...가로(360cm), 세로(180cm) 이내

◇ 사진...90×120cm 이내

단, 위의 규격은 '틀'을 포함하지 않은 것임. '틀'의 폭은 표구를 포함해서 한 쪽이 15cm 이하 이어야 함

4. 출품에 관한 유의사항

◇ 출품작품은 국내외에서 발표되지 않은 작품으로서 전시 중 파손될 위험성이 없는 것이어야 함

◇ 공예작품은 창작품에 한하며 다음 제작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함

○ 목칠공예...재료 가마 제작과정 ○ 도자기 및 유리공예...재료 가마 제작과정 소성도

○ 금속공예...재료 합성도 제작과정 ○ 석공예...재료 제작과정

○ 염직공예...재료 염직종류 ○ 기타 수공예...재료 용도 제작과정

◇ 건축작품은 작품 설명서를 첨부하고 투지도 및 설계도 제출(단, 모형은 출품자의 임의)

5. 출품절차

- ◇ 원서배부...봄 국전...1979년 3월부터
가을 국전...1979년 8월부터
- ◇ 원서배부처: 국립현대미술관, 예총, 한국미술협회, 한국건축가협회, 한국사진작가협회, 각 시도 문화재과
- ◇ 작품접수
 - 봄 국전...서예(1979년 4월 14일~15일)
공예(1979년 4월 15일)
건축(1979년 4월 16일)
사진(1979년 4월 16일)
 - 가을 국전=1979년 9월 15일~9월 18일
※(매일 10시~17시까지 접수함)
(일요일에도 접수함)
- ◇ 작품접수처...국립현대미술관
- ◇ 심사 결과 발표(봄 국전)...1979년 4월 21일(예정)
- ◇ 출품료...1,000원
- ◇ 출품수...1인당 1점(작품 구성상 2개 이상이 1조가 되어 하나의 작품으로 인정되는 것은 1점으로 봄)

6. 시상

- ◇ 일반공모상
 - 대통령상...봄 가을 전시 각 1명(상장 및 상금 200만 원)
 - 국무총리상...봄 가을 전시 각 1명(상장 및 상금 130만 원)
 - 문화공보부장관상...봄 전시 4명(부문별 각 1명)
가을 전시 6명(")(상장 및 상금 70만원)
- ◇ 초대 추천작가상(예술원회장상)
 - 초대작가상...봄 가을 전시 각 1명(상장 및 상금 130만 원)
 - 추천작가상...봄 가을 전시 각 1명(상장 및 상금 90만 원)

7. 수상 작품 구입

- ◇ 《국전》 수상작품은 국가에서 영구히 보존 활용하기 위해 당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수상 작품을 구입할 예정임
- ◇ 구입 예정 작품
 - 대통령상 수상작품
 - 국무총리상 수상작품
 - 문화공보부장관상 수상작품

8. 작품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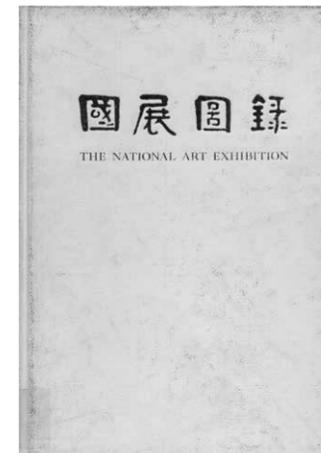
- 낙선작품은 심사 결과 발표 후 10일 이내
- 전시작품은 전시 종료 후 10일 이내
- ※ 기간 내에 찾아가지 않는 작품에 대하여는 당부에서 임의 처분함

9. 기타

상세한 것은 문화공보부 예술과(3820) 또는 국립현대미술관(720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979년 2월 일
문화공보부 장관

1979년 5월 1일-5월 30일, 국립현대미술관[《봄 국전》]
문화공보부 주최, 《제28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



국전운영위원(무순)
위원장 이종우

부위원장 민태식

위 원 천경자 박노수 오지호 이마동 김경승 최순우 윤치오 김종영 김기창 서세옥
유영국 변종하 이경성 손세일 김기승 김충현 이신자 엄덕문 김수근 이해선
김광덕

심사위원(무순)

○ 서예 · 공예 · 건축 · 사진

위원장 강명구

부위원장 한도룡

사진 분과위원장 이진중

위 원 이경모 박필호 정인성 조현두 김종현 이정강

수상작품

● 일반공모상

〈대통령상〉 [조각(비구상), 건축 부문 수상]
〈국무총리상〉 [서양화(구상), 서예 부문 수상]
〈문화공보부장관상〉 [각 부문별 1점 수상] 사진 〈옛 솜씨〉 박수돈

● 초대 · 추천작가상

〈초대작가상(예술원회장상)〉 [동양화(구상), 공예 부문 수상]
〈추천작가상(예술원회장상)〉 [서양화(비구상), 공예 부문 수상]

■ 사진

운영위원 〈어군〉 이해선

심사위원 〈어촌소견〉 정인성, 〈형상〉 이정강, 〈석불〉 이경모, 〈백팔번뇌의 계단〉 김종현,
〈귀소〉 이진중

초대작가 〈임종〉 문선호, 〈산길〉 김조현

추천작가 〈사자의 눈〉 유정재, 〈자연의 무늬〉 지부원, 〈즐거운 가족들〉 안준천, 〈잠식〉 홍순태

특선 〈가을이 올 무렵〉 박옥수, 〈토르소 79〉 박상윤, 〈벽〉 이순홍, 〈휴식〉 이종태,
〈성일〉 김영민, 〈작업〉 이창남, 〈항해의 아침〉 이봉하

입선

〈기다림〉 배동준	〈부부의 결심〉 전형국	〈축복받는 날〉 김복만
〈호수의 아침〉 박현식	〈사라져가는 풍물〉 차용부	〈소고놀이〉 문병오
〈향〉 김석만	〈출어 준비〉 이도운	〈축일〉 왕영상
〈낭만〉 고제열	〈노어부〉 구자춘	〈아름다운 문화유산〉 이완교
〈정〉 정영옥	〈건어장〉 유재성	〈투지〉 유재정
〈자애〉 강창환	〈석양〉 서병열	〈평화의 염원〉 김세권
〈새 아침〉 동태훈	〈역사〉 이동구	〈선의 형성〉 김명규
〈불국사의 설경〉 김영인	〈고〉 김덕용	〈번영의 열기〉 김상영
〈변형〉 김유성	〈맥〉 박주한	〈선골〉 최기용

〈석양 그리고 양떼〉 강중실
〈감나무집 아이들〉 설찬수
〈기다림〉 배동준
〈가을비 오는 창가〉 이용권
〈동백꽃 필 무렵〉 정원섭
〈눈 오는 날〉 김상원
〈장길〉 최병오
〈삶의 행진〉 안 청

〈봉담〉 이석규
〈태초의 꿈〉 정운봉
〈세월〉 김광식
〈환희의 찬가〉 차정환
〈고향의 여름〉 한기수
〈건어〉 최부길
〈합창〉 백태현
〈축복의 중〉 김수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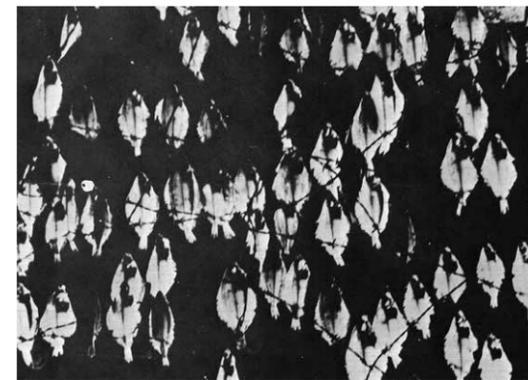
〈근대화의 기수〉 김성욱
〈전념〉 정영모
〈초파일〉 최홍만
〈마음〉 정정웅
〈산사의 주방〉 민경봉
〈조화〉 이규원
〈선으로 가는 길〉 이관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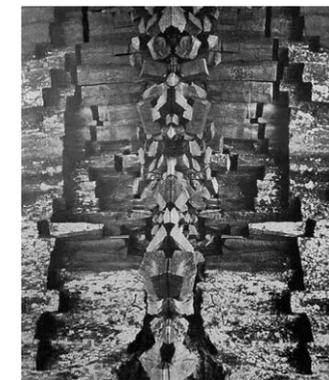
문화공보부장관상
〈옛 솜씨〉 박수돈 [컬러]



운영위원 〈어군〉 이해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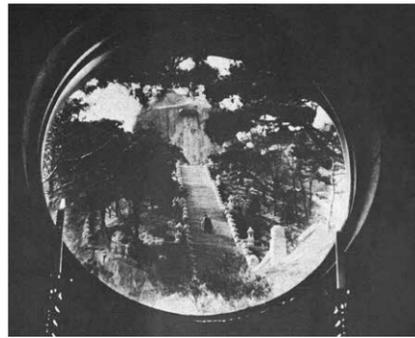
심사위원 〈어촌소견〉 정인성



심사위원 〈형상〉 이정강 [컬러]



심사위원 <석불> 이경모 [컬러]



심사위원 <백팔번뇌의 계단> 김종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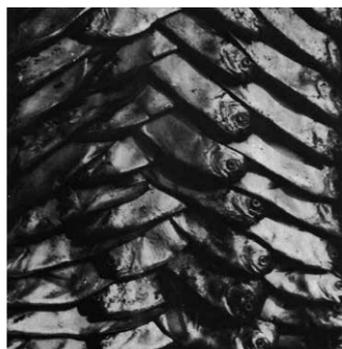
심사위원 <귀소> 이진중



초대작가 <임종> 문선호



초대작가 <산길> 김조현 [컬러]



추천작가 <사자의 눈> 유정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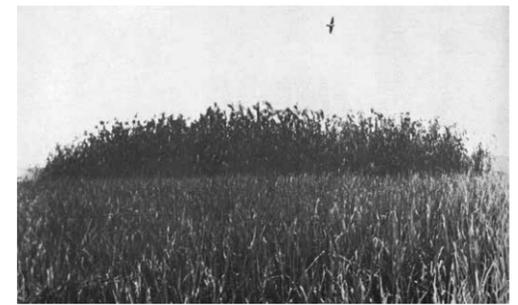
추천작가 <자연의 무늬> 지부원 [컬러]



추천작가 <즐거운 가족들> 안준천 [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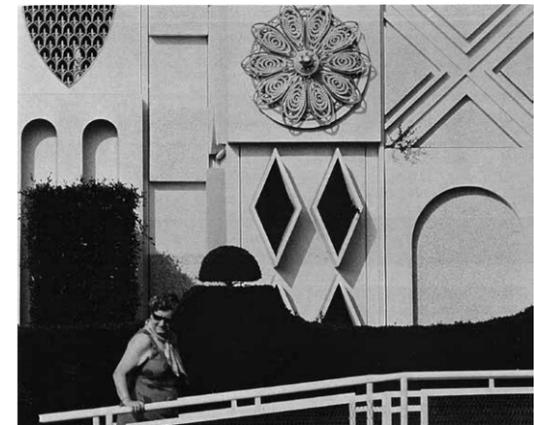
추천작가 <잠식> 홍순태



특선 <가을이 올 무렵> 박옥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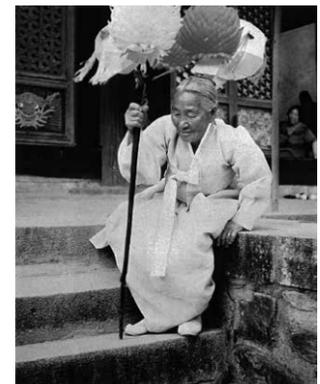
특선 <토르소 79> 박상윤



특선 <벽> 이순홍 [컬러]



특선 <휴식> 이종태 [컬러]



특선 <성일> 김영민 [컬러]



특선 <작업> 이창남 [컬러]



특선 <항해의 아침> 이봉하 [컬러]

1979년 6월, 『월간사진』(통권144호), pp.113-114

서상덕, 「(사진전) 뿌리내린 《국전》」

《제28회 국전》(사진·서예·공예·건축·부문)이 지난 5월 1일부터 덕수궁 현대미술관에서 일 반에게 공개 전시되었다.

1인당 1점씩 출품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응모 작품의 수로 보아 284명의 기성과 신인들이 사 단에의 등용문을 향해 치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작년에 비해서는 약간 많은 사진가들이 응모한 것도 알 수 있다. 그보다도 내용이나 질적 수준이 한결 승화되고 높아졌음을 볼 때 《국 전》(사진 부문)도 이제는 틀이 잡혔을 뿐만 아니라 한국적인 살로니즘[살롱이즘(salonism)]이 뿌리를 내려 정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사진작품에 관한 한 《국전》에 출품되는 작품의 경향이나 내용은 해마다 거의 같은 소재와 표 현을 재탕을 되풀이하는 진부하고 비현대적인 낡은 감각의 작품으로 평가되어 왔다.

《국전》은 관전이라는 제도상의 취약성 때문에 권위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권위 나 전통이 무시 혹은 부정되기도 했는데 이것은 그동안의 심사 경위나 입선 작품들의 경향이 빗 어낸 소치로서 심지어는 일부 사진가들이 완고하게 참여를 꺼리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근년에 이르러 일부의 소수 종파주의자들이 심사에 참여하지 않게 됨에 따라 잡음도 어느 정도 해소되고 입선작들의 경향이 한결 다채 다양해진다. 게다가 이질적인 내용의 기록이 없 어지고 어떤 하나의 리듬을 타는 듯한 조화된 공통성을 띠우게 되었다.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추측된다. 동시에 사진가들의 의식 수준이 해마다 새 롭고도 깊이 있는 미학을 창조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전》의 스타일이나 성격은 이제 완전히 정립되게 되었다고 해석해도 무방할 것이다.

현대 감각으로 소화된 영상들

앞에서 말한 작품 세계의 이질적인 내용의 기록이란 이른바 재래적이며 정통적인 살론[살롱] 픽취와 다분히 사회주의적, 고발적, 보도사진적인 것의 대립을 말한다.

사회주의적, 고발적, 보도사진적인 사진을 출품하는 측에서는 살론[살롱] 픽취가 하나같이 전근대적이며 타기해야 할 낡은 사진이라고 비난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사진가들의 대부분은 《국전》(사진 부문) 운영에서 대거 탈락됨에 따라 그 추종자들이 출품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내 용과 표현 방법을 바꾸어 살론 픽취 취향의 작품을 제작, 출품하므로서 적어도 올해 《국전》에서 는 거의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이와 같은 흐름은 작년도 《국전》에서 그 편린을 엿볼 수 있었거니와 금년에는 그것이 두드러 지게 나타난다. 그리하여 살롱조이기는 하나, 현대적인 감각이 조금씩은 반영되었거나, 현대적 인 감각으로 재조형, 재창조된 영상으로 표현되기에 이르렀으므로 덮어놓고 살롱 사진이라고 비난하지는 못하게 되었다.

그 좋은 예로는 최홍만의 <초파일>을 들 수 있는데 이것은 지금까지의 초파일을 소재로 한 작품들과는 아주 다른 전혀 새로운 영상으로 재현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싶다. 이 작가는 초파일 의 전체적인 톤을 신록으로 장식함으로써 싱싱한 계절감을 표현한 것이다. 다만 강한 호소력이 띠지 않거나, 박력이 부족한 것이 흠이지만 어쨌든 새로운 감각을 불어넣고, 새로운 심미안으로 영상화 한 <초파일의 인상>이 매우 현대적이며 신선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추망되는 작가로는 김덕용(고)을 비롯한 김종실, 왕영상, 이석규, 김석만, 김광식, 송기엽, 최부 길, 문병오, 정영욱, 정운봉, 민경봉, 이관조, 김수열, 박주한, 김유성, 안청, 김상원 등이 있고 특선 한 작가 중에서는 이순홍, 박상윤, 박옥수, 이창남 등이 중견다운 화풍을 확립한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이순홍의 특선작은 소재가 외국인 데다가 외국인이 화면 속에 자리 잡고 있어서 어딘 가 섭섭한 느낌이 들고 이왕이면 한국적인 소재였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주었다.

한편 김복만과 김세권은 다 같이 무리하게 확대한 인화 탓으로 그 작품성이 손상되었는데 이 런 대배울 확대에는 필자 개인의 생각으로는 반성해야 할 문제점들이 많다고 느끼고 있다.

초대작가들의 작품은 해마다(특히 작년부터) 두드러지게 작품성이 표출되고 있어 매우 고무 적인 현상이라 하겠다. 김조현의 <산길>, 이정강 <형상>, 김종현 <번외의 계단>은 근래 보기 드 문 역작이라 하겠거니와 <임종>을 다룬 문선호의 흑백은 E.스미스[Eugene Smith]의 비슷한 내용과 구도의 너무나 유명한 작품(<Spanish Wake>, 1951) 때문에 그 빛을 잃었다고 하겠다.

심미안은 사람에 따라서 천차만별이며 따라서 가치판단도 개인차에 따라 많이 달라지기 마 련이지만 김영민의 특선작인 <성일>이라든가 몇몇 추천작품이 보여주는 영상은 작품성을 과연 얼마만큼 지니고 있는가에 대하여 생각하게 하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이것은 출품작가나 감 상자 또는 심사원이 다 같이 생각해 볼 과제의 하나일 것으로 생각된다.

1979년 11월, 『신동아』(통권183호), p.345

「(뉴스와 화제-미술)《제28회 가을 국전》」

해마다 이렇다 할 이슈나 성과가 없이 치루어 오던 《국전》이 이번 《가을 국전》을 마지막으로 막을 내리게 된다는 소식이다.

그간 미술계의 일각에서 끈질기게 일어났던 《국전》에 대한 비판의 영향 때문인지 내년부터 《국전》은 문예진흥원 쪽으로 넘어가 사실상 종래에 지녀오던 《국전》의 권위는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문예진흥원의 성격이 반관반민 단체라는 점에서 자칫하면 《국전》과 같은 절대적인 권위(권력)도 잃고, 민전이 갖는 자율적인 기능도 잃게 될지 모른다.

사실상 오늘날의 《국전》은 그 성격상으로도 운영상으로도 여러 가지 모순이나 과오가 있어 왔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부인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한국의 현대미술을 보다 더 바람직하게 발전시키자는 데 그 취지가 있었다. 따라서 문제는 《국전》의 성격을 어떻게 설정하며, 그 운영 방식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

《국전》을 주관하는 부처가 달라진다고 해서 《국전》의 결함이 시정된다는 말은 아닐 것이다. 아직 문예진흥원 쪽 《국전》안이 어떻게 나타날지 미지수이나 미리 우려할 것은 방향 설정, 즉 성격이 어떻게 되느냐에 있다. 심사위원 제도나 바뀌고 새 심사위원이 들어선다고 해서 《국전》의 단이 시정될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국전》이 문예진흥원 쪽으로 옮겨졌을 때, 과연 그것이 ‘《국전》’이 되겠느냐 아니면 ‘민전’이 되겠느냐 하는 성격의 변화이다.

《국전》은 어디까지나 국가의 시책, 국가의 의지가 강력히 반영되는 미전이요, 반대로 미전[민전]은 주체 측의 자유스러운 의지가 반영되는 미전인 것이다. 지금까지의 《국전》이 《국전》의 구실을 못한 것은 한마디로 정부가 《국전》이라는 그릇을 제대로 쓰지 못하였다는 데 있다. 그렇다면 과연 문예진흥원이 《국전》의 본래적인 의지를 충분히 살려낼 수 있을지 걱정된다.

《국전》은 1949년에 제1회전이 열린 이후 지난 73년 제22회까진 종합전의 형식으로 열렸고, 74년의 23회부터는 분리시켜 봄, 가을로 나뉘었다. 그러다가 77년의 26회 때에는 이를 다시 개편하여 회화와 조각을 가을에, 그리고 나머지는 봄에 전시하는 방안을 채택하였다. 또 심사제도의 잡음을 막기 위해서 공개심사 제도를 채택하고 소외되었던 비평가들도 상당수 참가하는 길을 열어 놓았다.

그러나 그와 같은 지엽적인 개편이나 개혁으로서는 도저히 《국전》의 모순점을 시정할 수가 없었다. 그럴 것이 《국전》의 모순은 제도나 운영상의 결함보다도 근본적으로 방향(이념 설정)이나 성격상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박용숙〉

1979년 12월, 『계간미술』(통권12호), pp.89-100

원동석, 「(●특별기고)《국전》 30년의 실태와 공과」

《국전》개혁인가, 폐지(廢止)인가

《국전》의 역사는 올해로 28회, 햇수로 30년의 세월을 끌어왔으며 80년부터는 문예진흥원 주관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현대미술의 풍토와 흐름을 알려면 누구나 싫든 좋든 간에 《국전》의 중추적 역학(力學)을 짚어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미술계의 현실이다. 따라서 《국전》의 실태 분석은 단순히 미술계의 현황에 관한 자료적인 파악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심어진 예술 의식의 구조와 사고의 방향까지 깊이 엿보게 하는 의미를 지닌다.

지금까지 《국전》이 밟아 온 과정을 둘러싼 많은 말과 글들이 이야기되고 써져 왔으며 뒷날의 소중한 자료로 남아 있다.

다행히도 나는 이 많은 자료를 꼼꼼히 수집했던 분(조연옥 씨)의 도움을 얻어 훑어볼 수 있었으며 역대 『《국전》도록』을 뒤적이며 맞추어 볼 수 있었다.

그 많은 글들은 평문이든 기사꺼리이든, 해마다 《국전》이 갖는 시비와 잡음의 소용돌이를 그리고 있었으며 거의가 짜증과 혐오에 가까운 감정을 내뿜고 있었다.

그럼에도 《국전》은 끄떡없이 긴 세월 속에 세력과 권위를 떨쳤으며, 미술학도라면 한 번씩은 응모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던 그 흡인력의 정체는 무엇이었던가?

사실 지금까지 《국전》의 정체를 밝히는 그 많은 평문이나 기사의 자료들이 제공하는 이상으로, 더 보탬 새로운 것이 나로서는 없는 것 같다. 그뿐더러 이 시점에 아예 관심조차 갖지 않는 작가들의 성향과 마찬가지로, 나 역시 별로 흥미를 갖게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국전》의 제도에 대한 개혁론보다도 폐지론의 주장을 지지하는 것이 나의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주장의 미학은 무엇인가?

그 결론을 밝히기 전에 《국전》의 공과를 따지고 짚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국전》제도에 대한 구조적 실태 파악을 조사하여 놓은 다음, 그 공과의 득실을 논할 생각이다. 여기에는 물론 많은 평론들이 캐놓은 사실과 논점을 내 나름대로 인용하고 활용하겠다.

《국전》의 창설과 《선전(鮮展)》의 잔재

‘우리나라 미술의 발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1949년에 창설된 《대한민국미술전람회》는, 그 제도적 성격이나 구성원에 있어서 일제 총독부가 주관한 《조선미술전람회》(《선전》)²²⁾의 연장선 위에서 출발되었다는 것이 평자들의 공통된 견해로서 문제를 안고 있었다.

22) 《조선미술전람회》(朝鮮美術展覽會, 약칭 《선전(鮮展)》).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가 식민지 문화정책의 일환으로 개최한 관전 형식의 미술작품 공모전이다. 동양화부, 서양화부, 서예부로 이루어졌고 1922년부터 1944년까지 23회를 개최했다.

이 점을 이경성²³⁾ 씨는 다음과 같이 자세하게 밝히고 있다.

“《국전》 창설에 참여한 미술가나 문교부 당국이 이 기구 형성에 있어 참고로 한 것이 《선전》 규정이다. 《국전》의 부문을 동양화부·서양화부·조각부·공예부·서예부로 한 것은 《선전》의 제1부 동양화(사군자 포함), 제2부 서양화, 제3부 조각부 및 공예부를 따른 것이지만, 규정 자체가 《선전》의 그것과 《국전》의 그것이 같다.

즉 《선전》 규정은 6장 40조로 되어 제1장 총칙, 제2장 출품, 제3장 감사 및 심사, 제4장 특선 및 포상, 제5장 매약 및 반출, 제6장 관람으로 되어 있는데, 《국전》의 규정도 6장 38조로 되어 몇몇 문구만 다를 뿐이다. 더구나 출품자의 구성을 심사위원, 초대작가, 추천작가, 무감사, 일반 공모자로 한 것은 완전히 같은 것이다. 특히 특선 제도나 무감사 제도 같은 것도 전혀 같은 생각의 것이다.”

이와 같이 《선전》 규정을 본따서 《국전》을 창설하게 된 배경은 해방 이후 정치적 대립과 혼란상이 그대로 미술계에도 파급되자, 정부 수립을 계기로 “그때까지 방향을 못 잡고 있던 전체 미술인에게 정치적 신념과 더불어 국가적인 보호 육성을 주자는 데 있었다”고 한다. 말하자면 “좌익계의 미술 인사를 제외시키고 민주 진영의 미술인들에게 거점을 마련해 준다”는 정부의 미술 정책이 그대로 시행된 것이다.

“따라서 초기의 《국전》은 반공적이고 민족적 성격을 지니게 되었으나 동시에 왜색을 일소한다는 의미에서 반일적이었다. 광복 직후 우리 문화가 모든 면에서 왜색을 없애는 데 힘을 다하고 사실 일제의 잔재를 없애는 데 많은 노력과 시일이 소비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미술에도 왜색이 농후하게 담겨 있었다.”

그래서 《국전》의 이념에는 반일적인 것을 표방하고 있었으나, 명분과는 달리 제도적 규정이나 구성원의 실제 운영에 있어 그대로 《선전》을 답습하는 결과를 만들고 말았다.

이와 같이 처음부터 《국전》이 이념상으로 실패하게 되는 원인은 어디에 있었던가? 가장 큰 원인은, 해방의 덕분으로 정치적 지배 세력이 된 이승만 정권의 노선이 보여준 이종성의 현실에 있었다.

이승만 정권은 냉전 체제의 기반을 다지는 반공 이념에는 한 치의 양보도 없었지만, 반일의 표방에는 친일 세력의 지지에 의한 웅립이었기 때문에 명목상에 불과하였다. 민족의 반일 감정이 해방을 맞이하여 일제하의 간악한 친일배에 대한 처단의 소리가 높아지자, 그 활동의 일환으로 세워진 ‘반민특위’가 이승만 정권의 계략에 의해 심한 방해로 무산되고 말았던 과정은 역사가들이 한결같이 폭로하고 있는 당시의 현실이었다. 따라서 정권이 친일 세력의 영합으로 출발하였던 마당에서 관전 체제를 갖춘 《국전》의 성격은 이미 불을 보듯 뻔한 것이었다. 나아가 한국 정치의 반민주적 현실과 반공을 구실로 삼은 경직된 사고의 압박은 일제시대에 길들

23) 이경성(李慶成, 1919~2009). 미술이론가이자 미술행정가이다. 1941년 일본 와세다대학(早稻田大學) 전문부 법률과를 졸업하고 이듬해 동대학 문학부에서 미술사를 전공했다. 인천시립박물관장, 홍익대학교 및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한국미술평론가협회장, 국립현대미술관장 등을 역임했다.

여진 예술가의 상상력과 공동보조를 맞추기에 알맞았다. 즉 후진성의 정치가 어떻게 민주적 자유정신을 체현하지 못한 예술가의 활동과 상상력을 규제하는지 《국전》의 그것이 늘 반영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다음의 원인으로는 미술계의 내부적 사정이 작용한 것으로 찾아볼 수 있다. 좌익계의 미술가를 제외하더라도 민족 예술가들이 뚜렷이 형성된 것은 아니었고 《국전》의 시급한 출범에 공백기를 둘 수 없는 이상, 《선전》을 통해 성장한 작가들에 의해 메울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사실이 시기의 어떤 작가도 《선전》과 관련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결백을 가려낸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무의미한 노릇이었을지 모른다.

고회동이 주동이 되어 《국전》 1회의 심사위원을 선정할 때, 동양화부에서 이상범, 김은호를 친일파라고 유독 제외한 것은, 전체 구성원의 성분을 비교하더라도(별표 III 참조) 분명 불공평한 처사이었으며 다분히 개인감정의 작용이었던 것이다. 다만 추천작가의 명단 속에 그들을 넣어 대우한 셈이었다.

아롱든[아무튼] 《국전》에서 소외된 작가들의 말없는 저항감을 받으면서 출발한 제1회전에는 상상 외로 많은 응모작이 모여 들었는데, 제8회전까지의 총 출품 수를 비교하더라도 단연 압도적 수위를 차지한다. 특히 서양화의 총 출품 수(543점)의 기록은 괄목할 만한 것으로 그 이후의 《국전》 부분별의 주류를 형성하게 되었다.(별표 II 참조) 제1회전의 수상작과 특선작을 들자면 다음과 같다.

대통령상: 류경채 <페르지 근방>(서양화)

국무총리상: 서세옥 <꽃장수>(동양화)

문교부장관상: 조남수 <추경>(동양화), 한중근 <시가 전망>(서양화), 박철주 <건칠 화병>(공예),

김기승 <고시행서>(서예)

특선: 서양화부-이마동, 최광진, 김홍수, 이경희, 조각부-백문기, 김세중, 김만술.

공예부-박여옥, 이초완, 서예부-정환섭, 조수호 등등.

이상의 성과를 놓고 당시의 『평화일보』는 상당히 들뜬 흥분 상태로 보도하고 있었다.

“《제1회 미술전람회》가 경북궁미술관에서 막을 열어(11.20~12.11) 이 대통령과 동(同) 부인이 이 전람회를 관람하였으며 작품마다 전문적인 평을 하여 심사위원 일동을 감격케 하였다. 특히 그 수준에 있어서는 과거에는 보지 못하였던 걸작들이 많아 경악한 생각을 금치 못하게 하였을 뿐 아니라, 세계 수준을 능가할 자신을 새삼스럽게 느끼며 과거 가시덤불 같은 혹독했던 환경 속에서의 연마의 길을 생각할 때 오직 그들의 숭고한 열정에 뜨거운 감격을 느꼈다는 것이다.”

이때부터 매스컴의 보도 자세는 정부의 지시를 따른 것이겠지만 특집 화보를 꾸미고 특종 기사로 다루어 일반 대중의 관심을 유도하였으며, 또한 시시비비도 따지고 들어 《국전》에 대한 열기를 가중시키는 큰 몫을 하여 왔다.

그러나 한편 평론의 일각을 담당한 이경성 씨는 “이때의 전체 분위기는 《선전》의 연장선상에 있었다고 해도 좋을 만큼 독자적인 것이 없었다”고 냉정히 잘라 말하고 있다. 그뿐더러 ‘《제1회 국전》을 말하는 좌담회’(『문예』 1950·1월호)에서는 심사위원, 추천작가들이 모여 털어놓는 말

별표 I 역대 대통령상 수상작가와 작품명

회수	작가	명제	장르	회수	작가	명제	장르
1	류경채	〈폐립지 근방〉	서양화	20	김수현	〈가을의 여심〉	조각
2	이준	〈만추〉	서양화	21	표승현	〈적(跡)〉	서양화 비구상
3	박상옥	〈한일〉	서양화	22	윤우석	〈공예 공장〉	건축 및 사진
4	박노수	〈소운(簫韻)〉	동양화		공동		
5	박래현	〈노점〉	동양화	23	이영찬	〈풍악(楓岳)〉	동양화
6	임직순	〈좌상(坐像)〉	서양화	24	송명규	〈경주문화센터〉	건축 및 사진
7	장이석	〈그늘의 노인〉	서양화	25	박영성	〈회고〉	서양화
8	안상철	〈청일(淸日)〉	동양화	26	유희영	〈부활〉	서양화 비구상
9	이의주	〈온실의 여인〉	서양화	27	양진이	〈초서칠언틀〉	서예
10	김석원	〈육군훈련소 계획〉	건축	28	유정재	〈새아침〉	사진
	박영호			29	박병욱	〈향〉	조각
11	김창락	〈시양(斜陽)〉	서양화	30	강정완	〈회고〉	서양화 비구상
12	박한유	〈비련문 문장〉	공예	31	배재식	〈맹하초목장〉	서예
13	김봉기	〈농년(農年)〉	서양화	32	원대정	〈메이리〉	공예
14	박종배	〈역사의 원(原)〉	조각	33	원문자	〈정원(靜怨)〉	동양화
15	강태성	〈해율(海律)〉	조각	34	이혜선	〈옛 이야기〉	공예
16	김진명	〈화실〉	서양화	35	이 번	〈팽창력〉	서양화 비구상
17	서희환	〈국문전서 애국시〉	서예	36	황창배	〈가을 국전〉	동양화 비구상
18	박길웅	〈혼적 白F75〉	서양화 비구상	37	유희춘	〈봄 국전〉	건축
19	김형근	〈과녁〉	서양화	38	한창조	〈가을 국전〉	조각 비구상

출품 상황의 비교

별표 II (심사·추천작가 제외)

회수	내역	출품점수(서양화)	입선 점수	특선 점수	서양화 입선
1(1949)		840(543)	243	21	116
2(1953)		422(282)	173	28	91
3(1954)		667	142	28	68
4(1955)		579(328)	216	25	90
5(1956)		836	232	34	78
6(1957)		641(280)	235	40	72
7(1958)		687(288)	250	44	104
8(1959)		724	264	44	111
9(1960)		1025	310	42	141

가운데 한결같이 ‘창작 수준 이하’ ‘역작이 없다’는 유감을 내세우고 있다. 개별적으로 동양화에서는 《선전》 때의 화가처럼 구습을 벗지 못하는 선경산수며 미인·인물도를 그리어 출세하려는 젊은 층의 경향을 꼬집고 있으며 대통령상을 받은 〈폐립지 근방〉을 놓고는 아카데미한 입장에서 매우 불안하고 위험한 선례를 남긴 것으로 남관(南寬)은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이 모임에서 민족적 전통과 현대성의 결합이라는 예술의 당면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누구 하나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무엇보다 《선전》의 영향이 무엇이었으며 어떻게 그것에서 탈피할 것인가로부터 풀어야 할 선결 문제가 있었음에도 모두 입을 다물고 만 것이다.

50년대와 관전체제의 확립

《국전》의 제2회는 민족사의 비극인 6·25전쟁으로 3년을 쉬 다음 1953년 정부의 환도에 따라 11월 경북공미술관에서 열렸다.

“그때도 늦게 서두르는 바람에 겨울의 문턱에서 얼어붙은 회장에서 억지로 행사를 치루었다”고 말하는 이경성 씨는, “전쟁을 겪고 나서 좌익분자가 자연 도태되어 한결 순수하고 조출한 기분”이었고 거의가 반공 노선에 중군작가들로서 참여한 입장에서 “친일파 배격 무우드는 해소되어 그 계통의 작가들도 심사에 참가할 수 있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제2회전의 응모 작품 총수는 제1회전 때보다 겨우 절반에 미치었고 1959년 제8회전 까지도 항상 밀도는 저조한 현상을 보였다. (별표 II 참조)

초창기의 혼란 속의 출발보다 작가들의 출품 열이 식어 있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전쟁 이후의 경제적 여건 때문에 작가 지망생이 그만큼 줄게 된 사정이었는지, 《국전》의 출품에 대한 회의적인, 의욕의 상실감 때문이었는지 정확히 짚을 길이 없다.

제2회전의 심사위원으로는 추천작가에서 올라간 이상범·배렴·이마동·김인승·유효중·김종영이 끼어 들고 몇이 빠져나간 이외에는 별 변동이 없었다. 그리고 제8회전까지도 박득순·박상옥·장육진·허백련·최우석·김은호·박영선 등이 끼여 든 것 이외에 거의 일관된 심사위원 구성으로 구조를 이루었다. (별표 IV 참조)

이것은 불과 몇몇 사람에게 의해서 《국전》을 장기간에 걸쳐 지배하고 세력 판도를 만들게 되는 징후를 보여주는 것이다.

수상작들의 특성을 가름하면 동양화에는 박노수(2회)·서세옥(3회)·박노수(4회 대통령상)·박래현(5회 대통령상)·손명운(6회) 등은 인물을 소재로 한 작품을 내놓은 것으로, 최초의 여류 화가로 수상한 박래현의 큐비즘적 공간 분할을 이용한 여인 군상이나 서세옥의 반추상적 스타일 이외에는 별다른 개성이 없는 《선전》 양식의 연속이다. 그리고 허정두(2회)·조방원(4회)·안상철(5회)·안상철(6회)·안상철(7회 부통령상)·안상철(8회 대통령상)은 근대적 시각의 실경감(實景感)이 두드러지나, 한사람에게 4회 연속으로 큰 상을 안겨 줄 만큼 상대적으로 여타 작가는 빈약했는지 의심스럽다. 또한 권영우의 작품(7회)은 초현실적 환상을 담은 특이한 구상이지만, 그것을 동양적이라고 볼 수 있을는지 장르 개념의 혼란을 주고 있다.

서양화에서는 이준(2회 대통령상)·이동훈(2회)·이세득(2회)·박상옥(3회 대통령상)·임직순(5회)·이종식(4회)·임직순(6회 대통령상)·김숙진(6회)·장이석(7회 대통령상)·이의주(9회 대통령상) 등의 작품은 구상 계열의 풍경, 인물을 그린 것으로 《선전》 스타일에서 벗어난 개성을 볼 수 없으며, 큰 상을 받으려면 인물좌상을 다루어야 한다는 항간의 소문을 연상할 만큼, 《국전》의 매너리즘이 틀잡고 있는 것이다. 한편 전혁림(2회)·문학진(3회)·변종하(4회 부통령상)·문학진(7회)·최영림(8회)의 작품은 표현성이 강한 비구상 계열로 독자적 화풍의 개

성을 얻고 있지만, 열세에 몰려 있는 셈이다.

조각부에는 윤영자(3회)·최기원(5회)·배형식(5회 부통령상)·김영중(7회)·전뢰진(6회)·오중욱(8회)·최종태(9회) 등은 《국전》 구상 계열로 각자의 개성이 엇보인다 하더라도, 한결 같이 여체를 다룬 점에서 대학 교육에서의 모델을 대상으로 하는 실습 과정의 연장인 것이며, 이 같은 대상 소재의 한계성은 구상 조각을 휩쓰는 매너리즘으로 되어 있다.

한편 장기은(2회)·김찬식(4회)의 조각은 예외적인 비구상 계열로 남아있으나 역시 열세를 면치 못한다.

이상과 같이 1960년까지의 《국전》의 큰 상 부분에 나타난 경향을 볼 때, 전체적으로 다양성의 풍요함보다도 단조로움의 빈약성으로 흐르고 있다. 그뿐더러 작가의 예술 의식이 현실의 체험과 만나서 이룩되는 세계관을 살펴볼 때, 민족상잔의 6·25라는 뼈아픈 전쟁의 상처가 남겨놓은 현실에 대하여 날카롭게 파헤치고 들추어내는 서사정신의 예술 세계가 없었다는 사실이다. 즉 모든 작가들이 전쟁을 체험하였고 전후 현실의 상처 속에 살면서 분명히 느꼈을 삶의 것됨이나 인간 조건의 상실에 대하여 작가적 양심의 고뇌와 역사의식을 표출하는 새로운 상상력의 확대, 형상과 작업이 《국전》 양식에서는 막혀 있었던 것이다.

50년대의 역사 체험이 낳을 수 있는 민족적 리얼리즘은 《국전》의 관전 체제에서는 기대할 수 없게 되어, 이 비극적 시대의 예술은 아무런 증언도 없는 공백기를 남긴 것이다.

더러는 《국전》 작품 중에 큰 상을 받은 이세득의 〈군상〉(2회)이나 입선작들에서 전쟁 피난민의 행렬이나 생활상을 다루기는 하지만 양식의 구태의연함, 밀도 있는 표현 처리의 부족 등으로 날카로운 의식의 형상화를 이루지 못하고 한낱 서정적 평면성에 그치고 만다.

일제의 총독부가 관장한 《선전》에서 왜색조의 현실 순응이나 복고적 향수의 유한 취미 등으로 민족적 저항 감정을 둔화시키고, 날카로운 현실 의식을 배제한 서정주의만을 순수예술인 양 보호 육성하였던 관전 양식의 생리를 이어받은 것이 《국전》이었고 보면, 정부의 국책을 떠받드는 방향에서 《국전》 양식도 자기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국전》 체제에서 가능한 길이란, 아카데미한 양식만을 고집하는 심사위원들에게 서구적 현대미술의 경향도 길 수 있게 문호 개방을 트는 일이며, 또 다른 하나는 심사위원의 선정과 상의 배정에 있어 파벌적인 독주를 견제하려는 고지 선점의 쟁탈전만이 남아 있을 뿐이었다.

전자는 60년대에 가서 점차 넓어지고 부분별 분화 현상으로 나타났지만, 후자의 파벌 형성, 계보 간의 대립은 처음부터 불씨를 안고 해가 갈수록 치열하게 번지어 추태와 부정의 악순환을 거듭하였다.

파벌의 형성과 잡음의 비등

먼저 50년대에서 60년대에 걸쳐서 파벌의 양상이 어떻게 전개되었으며 심사의 뒷소문으로 남았던 추태를 들어 보자. (물론 이것은 이경성·오광수·이구열·박무일 씨 등이 발표한 글들에 이 관계의 상세한 자료가 나와 있음을 미리 밝혀둔다.)

《국전》의 초기에 파벌의 대립이 시작된 것은 이미 《선전》에서부터 대가들이 길러낸 사제간의

계보 형성으로부터 나누어지고, 그것이 동양화의 경우 부정적일 수 없는 양식상의 맥락이기도 하지만, 《국전》이라는 좁은 등용문을 통해 제자들을 출세시키고자 할 때, 팔이 안으로 굽는 심사의 경쟁이 불붙기 마련이다. 더구나 대학에서 미술과가 생기어 전문적으로 작가들을 양성할 때 대학의 발전과 직결되는 만큼 사제간의 동문 계보 유대는 양식의 추종만이 아닌 이중, 삼중의 엄함이 된다.

초기에 서울대파와 홍익대파의 대립은 이렇게 해서 늘어났고 또 자체의 내부 분열[분열]로 심화되었던 것이다. 여기서 학벌 관계에서 소외된 지방 작가들은 눈치껏 연줄을 찾아 매달리며 세력권에 포섭된다.

역대 심사위원의 명단과 심사의 횟수 및 그들의 학벌이나 사제 관계를 조사하고 수상의 배정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는 일이다.(별표 III 참조)

50년대의 심사위원에는 교회동을 중심으로 노수현·장우성의 서울대 측과 배림이 이상범·변관식·김은호·허백련의 세를 누르면서 서세욱·박노수·안상철·권영우를 일찍 배출시켰다. 여기서 노수현과 변관식은 항상 양측이었고 이상범과 배림, 김은호와 장우성은 사제지간이면서 대립 의식이 강하였다.

비교적 제자가 적고 성미가 괄괄한 변관식은 《국전》 심사의 불만을 노골적으로 터뜨려 세 번 밖에 참가하지 못하였으며, 또 세 번 심사에 참여한 김은호의 불만은 교회동에 당한 설움과 제자와의 서열이 뒤바뀐 것, 자신의 문하생들이 공평한 대우를 받지 못한 사실에 만년 야당을 자처하는 것으로 노출하였다.

그러나 60년대에 가서 그의 문하생인 조중현·김기욱·이유태·안동숙·김화경 등이 심사에 참여하여 팽팽한 맞수를 이루었다. 호남 출신의 심사 작가로서는 이용우의 제자인 최상목, 허백련의 김옥진, 허건의 조방원·김명제·신영복 등은 주로 서울대 세(勢)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따라서 《국전》 28회까지 합하여 총 38명의 심사위원이 동원되고 심사 회수를 비교한다면 단연 서울대 세가 지배적이었다.

한편 서양화부에서는 이종우·도상봉·이마동·이병규·김환기와 김인승(이대)을 합한 홍익대파가, 장발·박득순·장옥진의 서울대파보다 우세하였다. 조각부에서는 홍대의 김경승·윤효중이 서울대의 김종영을 누르며 동문의 제자를 심사에 참여케 했으며 공예부에는 서울대의 이순석 김진갑이, 그리고 서예에서는 손재형·배길기 등이 김용진·이병식[이병직] 김충현의 세보다 우세하였다.

《국전》 출품작의 주류가 단연 서양화 쪽(별표 참조)이며, 홍대파의 보수적 심사위원에 의한 구상 계열이 지배적인 경향으로 나타날 때 외국 유학을 다녀와 추상 양식을 장려하는 장발의 반발은 커지기 시작하였다. 즉 해방 이후의 종합미술단체인 '대한미협'에서 원로금을 떠받들고 법통을 지지하는 윤효중(홍대 미술학부장)과 대립하였던 장발(서울대 미대학장)의 중심 세력은, 1955년 5월에 '대한미협'을 탈피하고 새로이 '한국미협'을 발족시켰으며 동시에 《국전》을 향한 치열한 주도권 쟁탈전이 벌어졌다.

여기서 기선을 잡은 '한국미협'이 심사 안배의 고지를 점령하려 들자, '대한미협' 쪽에서는

완강히 《국전》을 보이콧하는 소동이 벌어졌고, 정부의 조정 에 따라 원상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1961년 5·16의 정권에 의하여 하나의 통합 단체를 이룰 때까지 ‘대한미협’이 홍대파와 중도파 세력의 두터운 기반과 폭넓은 인맥을 조화시키면서 끌고 왔던 것이다.

60년대로 들어서면 《국전》에 고문위원을 두어 초기 심사를 맡았던 원로작가들이 물러나 앉고, 심사위원의 교체 및 증원이 보이지만 고문위원은 호지부지 없어지고, 주도 세력이 길러낸 제자나 외부에서 일부(유영국)가 들어와 심사위원의 숫자는 더욱 많아진다.

이것은 《국전》이 갖는 특이한 통합성으로 한국 미술의 성격적 단면을 말해 준다. 즉 한국 미술은 진정한 의미에서 여야가 없는 상태이며 예술 이념의 변증적 발전 과정이 없다. 따라서 《국전》의 비대한 성장에서 사진이나 건축부가 첨가되고 사이좋은 공존 관계의 장르를 이루되, 양식상의 대립이 생기면 분가하는 것으로 끝난다. 그것이 70년대에서 동양화·서양화·조각부에 각각 구상·비구상으로 이분화시켜 적당히 심사원을 안배하는 것으로 해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전》에 대한 불만은 새로운 개혁안으로 나타날망정 그 제도 자체를 부정 내지 폐지하려 드는 작가나 평론가는 극히 적었다.

아몽든[아무튼] 《국전》의 위력은 대단하였던 만큼 심사 과정을 둘러싼 잡음, 추태, 시비는 끊임 사이가 없었다. 《국전》에서의 경력이 출세와 직결되었기 때문에, 입상하기 위하여 얼마만 한 정성과 금력이 작용해야 한다든지 하는 공공연한 뒷거래며, 어떤 원로작가 중에는 자신이 그리어 입상시켜 놓고 한몫 재미를 보았다가 중단하자 후배작가가 폭로하고 테러를 했다는 얘기와 서로가 먹물을 끼얹는 과염치한[과렴치한] 행위가 공표할 수 없게 많이 나돌았다.

아마 지상으로 폭로된 것 중에서 절정은 1968년 17회의 《국전》 심사 때일 것이다. 우선 그 하나가 16회 때 대통령상을 탄 김진명의 구상 작품(서양화)이 17회 때 입선도 못 하고 낙선한 사실이다. 원로 계열의 입김이 뚜렷한 김진명의 대통령상 작품(〈화실〉)은 뛰어난 상 감은 아니지만 심사위원의 인정을 받은 이상, 그다음 해 내놓은 작품이 거의 같은 심사위원에 의해 낙선된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 일이다. 누가 생각하여도 대통령상 주는 일에 부정 거래했거나 아니면 낙선할 만큼 심사위원의 미움을 샀다는 소리이니 미움 살만한 의혹이란 뻔한 것이 된다.

17회의 대통령상으로는 처음으로 서예 부문에서 서회환의 한글전서 〈애국시〉가 수상했다. 심사위원장으로는 도상봉, 부위원장 손재형, 서예분과위원장 배길기이었으며, 서양화부는 남관, 동양화부에 장우성, 조각부에 김경승, 공예부에 백태호, 건축부에 강명구, 사진부에 이해선이 각각 분과위원장을 맡았다. 7명이 대통령상, 국회의장상, 국무총리상을 투표로 결정하는데, 남관과 백태호를 제외한 5표가 약속한 듯이 서예·조각·동양화로 몰리었다. 여기서 처음 심사에 참여한 남관은 비로소 상의 배정이 둘러먹기 식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리를 박차고 나왔으며 그간의 내막을 폭로해 버린 것이다. 대통령상을 수상한 서회환의 한글 서예를 놓고 지상으로 공방전이 오고 갔다.

남관은 해외 유학의 특전이 붙는 수상의 서예 작가가 국제 미술의 동향에서 무엇을 공부할 것이냐고 따지고 들었으며, 서예가 김응현은 서회환의 한글 서체가 전통적 법식도 모르고 입의로 조작된 서법이라고 신랄하게 공격하였다. 여기에 『주간한국』은 평론가들까지 부추기어 ‘상

장 없는 대통령상’을 발표하여 《국전》 심사의 권위에 도전하는 싸움을 붙였다.

한편 《국전》 쪽에서도 도상봉과 김경승은 심사의 공정성을 애써 변론하였으며, 서예가 대통령상을 받지 못할 하등의 이유도 없다는 일반론을 들어, 남관의 서양 시각적 독선을 비판하고 서회환의 독창적 서체를 옹호 칭찬하였다. 그러나 세론의 분위기는 《국전》 쪽의 판정패로 몰고 갔다. 지금에 와서도 서예가 예술로서 대접받을 수 있는 일반론의 타당성은 있지만, 서회환의 서체가 두루 공인받을 만한 서법인가의 문제는 한글 서체의 부진함에 비추어 시비꺼리로 남아 있다.

예술도 민중도 없이 ‘권위’만 남아

70년대로 들어서면 《국전》의 양상은 원로 작가의 작고와 고령에 의한 자연 은퇴 이외에 세대교체의 변혁이 조금씩 이루어지는 연속성을 보게 된다. 그간 많은 학교에 미술과가 생기어 17회 때의 시끄러움에도 불구하고, 18회 때는 《국전》 사상 최고의 출품 수 2,332명을 기록하였으며 여전히 치열한 좁은 문의 선망을 보였다. 그러나 그 이후로는 출품 수가 푹 떨어지며 1,500명 이하를 밀도는데, 미술 학도의 증가 비례에 비교할 때 《국전》에 대한 관심도의 약화를 말한다.

이미 서울대파와 홍대파의 대립은 내부의 분렬로 의미가 없어지고, 동문의 계보보다도 이념에 의한 그룹의 이합집산이 복잡하게 얽히어 《국전》의 견제 세력을 이룬다. 더우기 신문사나 민간단체의 민전들이 활발해짐에 따라 《국전》을 퇴화시키려는 목소리도 한결 높아지고 있다. 그 뿐더러 《국전》에의 선망은 서울 쪽보다도 지방 쪽에서 더욱 몰려드는 경향으로 나타난다.

사실상 《국전》의 개방성은 어느 때보다 넓어져 어느 부문이든 구상·비구상 가릴 것 없이 선택할 수 있고, 또한 대상작에 비구상 작품이 자주 선정됨으로써 세인의 이목도 높아졌다. 종래에 《국전》을 질타하였던 평론가들도 심사에 참여하고 있으며, 반《국전》파로 자처했던 작가들도 초대 추천작가의 대우를 받고 있다.

그렇다고 《국전》의 출품작들이 해마다 수준이 향상되었다는 징조는 없다. 또한 신문 보도의 관심도 시들해진 것이 사실이다.

《국전》이 길러낸 작가는 거의 미술계를 지배하여 왔다. 이 점은 《국전》의 공적으로 돌릴 수 있다. 반면에 진정한 예술 이념의 향상을 저해시킨 허물도 많다.

이와 같이 낡은 시대의 유품으로서 유럽이나 일본에서도 없어진 제도를 그토록 오래 유지한 까닭은 무엇인가?

그것은 해방 이후의 정치사적 현실이 민주주의적 이념의 진행을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이며 정신적으로 식민지적 사관의 극복이 없었던 예술 의식의 빈곤성 때문이었다.

관준민비의 보수적 풍토에서는 국가기관의 관직명을 붙여 수상작의 위계질서로 심사·초대 추천·특·입선의 등급을 두는 것을 예술가의 더없는 영예가 되고 출세길이 되는 것으로 심어졌다.

매스컴의 보도는 일제히 새로 탄생하는 미술의 스타들에게 초점을 맞추어 떠들고, 관람객은 수상작 앞에 몰리어 고개를 끄덕거림으로 해서, 진정한 자신의 감상안을 속이는 방향으로 이끌

여졌다.

또한 관권의 개입에 의해 《국전》 권위를 손상시키는 비평도 차단되었다. 불평 이상으로 전면 부정을 허용치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예술도 없고 민중도 없는 곳에서 권력과 영합한 예술가들이 위세를 떨치게 되는 것이다.

이제 《국전》은 관전으로서 생명을 끝내고 민간 기구로 이양되어 새로운 탈바꿈을 하든지 정부의 엄정한 중립과 공평한 후원 아래 민전들의 육성과 병행함으로써 민주시대의 이념을 구현해야 한다.

〈미술평론가〉

[별첨Ⅲ 《국전》역대 심사위원 명단과 별첨Ⅳ 《국전》개인별 심사참여 횟수표는 생략]

1980년대

1980년 2월 6일, 『동아일보』 7면

「《국전》 운영 갈팡질팡, 또다시 종전대로-시상만 바뀌」

국전운영위원회(위원장 유경채)가 새로 구성돼 올해의 《국전》은 《제29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라는 이름으로 시상제도만 바꾸고 종전 그대로 열기로 확정했다.

5일 25명으로 구성된 국전운영위원회는 《봄 국전》은 5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문예진흥원의 주관 아래 서예, 공예, 건축, 사진 등 4개 부문의 공모 초대전을 같이 열기로 하고 시상은 각 부문 대상 한 점씩만을 뽑기로 했다.

미술계는 《국전》 운영업무가 문공부로부터 문예진흥원으로 넘어간 뒤 앞으로의 《국전》을 어떤 형태로 열 것이냐를 놓고 논란을 벌이는 가운데 우선 급한 울 《봄 국전》은 각 부문 초대전만으로 열자고 했으나 운영위원회가 새로 구성됨으로써 갑자기 울 《국전》은 그냥 종전대로 하자는 쪽으로 결정됐다.

따라서 가을에도 종전대로 동양화 구상 비구상, 서양화 구상 비구상, 조각 구상 비구상 등 6개 부문의 공모 초대전이 열리게 된다.

1980년 2월 7일, 『동아일보』 8면

「제29회 《국전》 개최 공고」



그간 정부에서 주관 실시해 오던 《국전》이 금년도부터 한국문화예술진흥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본원은 과도적인 조치로 제29회(1980년도) 《대한민국미술전람회》 개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미술 문화의 발전과 진흥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도록 미술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1. 회기 및 전시 내용

◇《봄 국전》=1980년 5월 2일~5월 31일

서예(사군자 포함), 공예, 건축, 사진

◇《가을 국전》=1980년 10월 2일~10월 31일

동양화, 서양화, 조각(구상 및 추상 부문)

2. 전시 장소=국립현대미술관

3. 작품 규격

◇회화=80호 이내

◇조각=평면(90×130cm) 높이(250cm) 이내 단, 중량이 과중한 작품은 실외에서 전시함

◇서예=가로(80cm) 세로(200cm) 이내

◇공예=가로(90cm) 세로(180cm) 높이(250cm) 이내

◇건축=가로(360cm) 세로(180cm) 이내

◇사진=90×120cm 이내

단 위의 규격은 '틀'을 포함하지 않은 것임. '틀'의 폭은 표구를 포함해서 한쪽이 15cm 이내이어야 함

4. 출품에 관한 유의사항

◇출품 작품은 국내외에서 발표되지 않은 작품으로서 전시 중 파손될 위험성이 없는 것이어야 함

◇공예작품은 목칠공예/도자기 및 유리공예/금속공예 석공예/염직공예/기타 수공예 등의 창작품

◇건축작품은 작품 명세서를 첨부하고 투시도 및 설계도 제출 (단, 모형은 출품자의 임의)

5. 출품 절차

◇원서배부=《봄 국전》 1980년 3월부터

《가을 국전》 1980년 8월부터

◇원서 배부처=한국문화예술진흥원 미술회관, 국립현대미술관, 예총, 한국미술협회, 한국건축가협회, 한국사진협회, 각 시도 문화재과

◇작품접수

○《봄 국전》=서예(1980년 4월 16일~17일)

공예(1980년 4월 16일)

건축(1980년 4월 17일)

사진(1980년 4월 17일)

초대추천(1980년 4월 16일~17일)

○《가을 국전》=1980년 9월 중순

※매일 10시~17시까지 접수함(일요일에도 접수함)

◇작품 접수처=국립현대미술관

◇심사 결과 발표=《봄 국전》(1980년 4월 21일 예정)

◇출품료 1,000원

◇출품수=1인당 2점

(작품 구성상 2개 이상이 1조가 되어 하나의 작품으로 인정되는 것은 1점으로 봄)

6. 시상

◇일반공모상

○대상=봄 가을 전시 각 부문별 1명(상장 및 상금)

◇초대 및 추천작가상

○초대작가상=봄 가을 전시 각 1명(상장 및 상금)

○추천작가상=봄 가을 전시 각 1명(")

7. 수상 작품 구입

◇《국전》 수상 작품은 영구히 보존, 활용하기 위해 당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상 작품을 구입할 예정임

8. 작품 반출

◇낙선작품은 심사결과 발표 후 10일 이내

◇전시작품은 전시 종료 후 10일 이내

※기한 내에 찾아가지 않는 작품에 대하여는 당원에서 임의 처분함

9. 기타

◇상세한 것은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미술회관(762-5231 교33·34) 또는 국립현대미술관(22-720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980년 2월 일

한국문화예술진흥원장

1980년 3월, 『신동아』(통권187호), p.391

박용숙, 「(뉴스와 화제-미술) 끊이지 않는 《국전》 개혁안 시비」

이미 여러 차례 보도된 대로 《국전》이 28회로 문공부의 손에서 문예진흥원 쪽으로 넘겨지게 되었다. 그간 미술계는 그 전망에 대해서 나름으로 진단해왔는데 막상 새 《국전》의 개혁을 앞두고 그 시비가 표면화되어 화단은 열화의 도가니가 되었다.

시비의 초점은 진흥원이 마련한 개혁안에 대해서 과거의 《국전》에 참여해 오던 추천 초대작가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섬으로써 비롯되었다.

개혁안의 골자는 《국전》의 명칭을 《대한민국예술제》로 고치고 과거의 대통령·국무총리·문공부장관상을 없애고 그 대신 금·은·동으로 바꾼다는 것과 과거의 《국전》에서 구상과 비구상을 나누었던 것을 통합하며 전람회를 세 분야로 나눈다는 것이다. 즉 1부는 서예·공예·건축·사진으로, 2부는 동양화·서양화·조각, 그리고 3부는 서예·공예·건축·사진·동양화·서양화·조각으로 주로 초대전으로 되어 있다. 또 심사위원은 초대작가 중에서 문예진흥원장이 위촉하기로 되어 있다.

이 개혁안을 훑어보면 전체적으로 과거의 《국전》의 규모를 소폭으로 축소했다는 느낌이 들고 또 전람회의 격을 낮추고 있음을 알 수 있게 된다. 이를테면 정부 주도에서 정부의 하청기관으로 주최권이 격하되었다는 점이다.

필자 자신도 《국전》 개혁론을 적극 지지했던 사람의 하나였지만 이런 안에는 도저히 찬성할 수가 없다. 《국전》의 개혁은 문자 그대로 과거의 《국전》이 잘못된 점이 있었으므로 그것을 고쳐보자는 것이지 그것을 불상[불쌍]사납게 축소하자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흔히 말하는 대로 《국전》은 미술의 아카데미즘을 국가가 장려하는 전시회이므로 도리어 국가의 정책적 의지가 적극적으로 선명하게 들어나야[드러나야] 옳은 것이다. 과거의 《국전》은 명목상 《국전》이었지 실제의 내용은 민전과 다를 바 없는 것이었다. 아니 도리어 민전다운 자유분위기보다는 온갖 잡탕스러운 것이 뒤범벅이 되어 있었다.

개혁론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국전》과 민전의 의미가 선명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과거의 《국전》을 훨씬 더 《국전》답게 개혁해 달라는 것이다. 만일 이와 같은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차라리 《국전》을 폐기하라는 주장마저 있다. 그와 같은 《국전》을 폐기하는 것이 개인주의 시대의 이념을 표방하는 민전을 살리는 길이라는 주장이다.

그런데 이번 진흥원 쪽이 제시한 개혁안은 이러한 기대를 완전히 뒤엎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국전》적인 성격을 나타낼 만한 아무런 흔적도 없으며 방향 제시도 없다. 도리어 그 개혁안은 민전적인 성격이 두드러지는 것 같이 느껴진다. 그러나 과연 문예진흥원이 민전을 운영할 만한 자격이 있는가가 문제다.

최근의 보도는 다시 개혁안이 부결되어 새 시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하고 그 대신 올해의 《국전》은 다시 종전과 같이 정부가 운영한다고 되어 있다. 1년간의 집행유예 선고가 내린 것이다.

차체에 한 마디 더 부연하고 싶은 것은 개혁에 앞서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를테면 《국전》은 폐기되는가 아니면 《국전》은 개혁되어 다시 계승되는가의 두 가지 입장이 선명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만일 《국전》이 28회로 완전히 폐기되는 것이 선언된다면 진흥원 쪽의 개혁안은 개혁이 아니라 새로 시작하는 입장이 되는 것이요, 만일 《국전》 폐기가 아니고 어디까지나 개혁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과거의 것을 고치는 일이므로 기존하고 있는 《국전》 세력, 말하자면 추천·초대작가와 그밖에 관계자들과의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박용숙)

[1980년 4월 추정]

【《국전》 사진부 심사 광경】



©이해선 유족 제공
[좌부터 이해선, 조현두, 이명동, 이정강, 김종현, 문선호, 이형록, 뒷쪽 서 있는 이 박필호]

1980년 4월 23일, 『동아일보』 5면
「《봄 국전》 운영과 문제점」

어정쩡한 관전 탈피

아직 문공부 입김...민간주도완 거리
심사공개 말뿐 대상·특선은 비공개

올봄 《국전》을 ‘민간전’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흑간 있지만 그러나 아직도 역시 관전의 고삐를 완전히 떨쳐버리지는 못한 채로다.

21, 22일 이틀 동안 서예, 공예, 건축, 사진 등 4개 부문에서 심사위원 24명이 심사, 끝내는 문공부 장관의 승인까지 받아야만 입선자를 발표하는 이 ‘예술의 제전’은 아직도 관전의 입김을 쫓아야만 하는지 적이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당초 문공부가 이 말썽 많은 《국전》 운영을 문예진흥원으로 이관하면서 민간 주도를 크게 강조해 왔지만 미술계가 “문예진흥원도 손을 떼라. 우리가 모두 알아서 할 테니”라는 식으로 파열된 참가 열을 보이면서 끝내는 올봄 《국전》의 순수한 민간 주도는 깨져버리고 말았다. 그러나 앞으로 누가 하든 ‘예술에의 관의 손길’이 짝 가셔야 할 것만은 모든 미술인들에게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렇게 되려면 《국전》 운영을 만약 진흥원이 관장하게 되더라도 진흥원 독자로 일을 처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모색돼야 할 것이고 또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진흥원이 하는 일에 일일이 관청에서 도장을 찍어야만 되게 돼 있는 현행법이 개정되어야만 할 것이다.

또한 이번 《국전》은 심사를 공개로 한다고 했지만 낙선 입선작을 고르는 과정에서만 기자들이 참관할 수 있었지 특선작, 대상작을 뽑는 데엔 기자들이 얼씬을 못하게 비밀로 진행하는 등 당초 약속과는 다르게 심사가 진행된 것도 다소 개운치 않은 일이었다.

그러나 이번 《봄 국전》에선 예년에 없이 많은 응모자가 많은 작품을 낸 것이 특색이었다. 그것은 ▲중전의 국전운영위원들을 모두 새 사람들로 갈아치웠다는 점 ▲따라서 심사위원들도 많은 사람이 새 얼굴들이었다는 점 ▲중전에 작품 1인 1점만을 내도록 했던 것을 1인 2점 이내로 내도록 했던 점 등이 작용, 그동안 《국전》이라면 이를 갈고 멀리하던 사람들도 새로운 의욕을 가지고 적극 참가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서예의 경우 작년에 비해 37%, 공예 43%, 사진 64%나 응모 작품 수가 늘어난 것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 건축은 작년보다 2점이 줄어들었는데 이 분야는 본시 《국전》과는 거리가 있는 분야라는 것을 점차 보여주고 있는 듯하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43%의 증가율을 보였는가 하면 이번 《국전》의 전체 심사위원장 엄덕문 씨(건축)는 “해마다 하는 얘기지만 평년작의 수준을 넘어서는 작품들이었으며 의욕과 창의와 노력이 여실히 보이는 작품들이었다”는 평가를 내린 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국전》의 장래는 어둡지만은 않은 것으로 풀이되기도 한다.

서예(심사위원장 오제봉)는 서법에의 충실성이 높아졌고 여성들의 수작이 많아졌으며 공예(이신자)는 완성도의 정밀도와 재료의 다양성이 뚜렷했으며 건축(김태식)은 현실화의 경향이 뚜렷했고 사진(이해선)은 “질이 향상됐다”는 평가를 각각 받고 있다.

심사 끝판에 사진 부문 등이 대상 선정 작업을 놓고 심사위원들끼리 욕지거리와 얄치락뒤치락하는 추태를 부리는 촌극도 보였는데 이는 자체가 필요하다는 주위의 평들이었다. 어쨌든 내년부터는 다시 새로운 면모의 이상적인 《국전》 운영이 되도록 미술계 및 각계의 노력이 기울여져야 할 것이다.

〈김광협 기자〉

1980년 5월 2일-5월 31일, 국립현대미술관 [《봄 국전》]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주최, 《제29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



《국전》운영위원 (무순)

위원장 류경채

부위원장 이종무

위원 조중현 나상목 안동숙 안상철 최영림 김숙진 권옥연 이세득
전퇴진 최종태 김정숙 최만린 배길기 정환섭 백태원 권순형
김희춘 강명구 박필호 이경모 김영중 윤치오 손석주

심사위원(무순)

○ 서예·공예·건축·사진

사진 분과위원장 이해선

위 원 이형록 이정강 이명동 문선호 조현두 김종현

수상 작품

● 일반공모상[각 부문별 수상]

〈대상〉 사진 〈반영〉 이창남

● 초대 추천작가상

〈초대작가상〉 [서양화, 공예 부문 수상]

〈추천작가상〉 [조각, 서예 부문 수상]

□ 사진

운영위원 〈좌불〉 이경모

심사위원 〈회고〉 이해선, 〈노상〉 이형록, 〈속삭임〉 조현두, 〈봄바람〉 문선호, 〈무상〉 김종현,

〈빙하[화]〉 이정강

초대작가 〈만추〉 임석재[임석제], 〈선〉 김조현, 〈도시 공간〉 홍순태

추천작가 〈용광로〉 유정재, 〈파기〉 안준천, 〈운해〉 지부원, 〈슬픈 사연〉 김영민

특선 〈의숙〉 이봉하, 〈오 주여! 자비를〉 박상운, 〈회영〉 차용부, 〈생업〉곽수돈, 〈동〉 장영식,
〈건포〉 이순홍, 〈협력〉 김인식, 〈휴식〉 이종태

입선

〈하르멍의 자장가〉 김원태

〈입춘대길〉 구자춘

〈노부부〉 장진원

〈선담〉 김성옥

〈노인〉 백형원

〈고도〉 최부길

〈만학〉 김용휘

〈성직자〉 정운봉

〈고유미〉 왕영상

〈우리의 패턴〉 박충웅

〈구성〉 강봉규

〈구성〉 김유성

〈태고의 적〉 성희수

〈춘가의 정경〉 이관조

〈벽〉 최홍만

〈세월〉 차정환

〈집념〉 서진길

〈고향집〉 박홍두

〈회고〉 김세권

〈양지〉 정의상

〈추정〉 박옥수

〈향1〉 조동재

〈낙엽〉 김명규

〈환상〉 이용권

〈어촌 소경〉 성재경

〈어촌〉 김석만

〈강변〉 배동준

〈노도〉 송일학

〈은파〉 송봉운

〈설영〉 문순화

〈잔설〉 이정훈

〈뿌리〉 유재정

〈출진〉 김상진

〈합심〉 민경봉

〈초원을 향하여〉 권진희

〈보수작업〉 신동석

〈선무〉 이은주

〈환무〉 김상영

〈이기자〉 안 청

〈무제〉 주동식

〈소리의 조화〉 김인태

〈호반〉 한철우

〈불꽃〉 박혜동

〈민족의 제전〉 유충우

〈행적〉 박노택

〈영상〉 한득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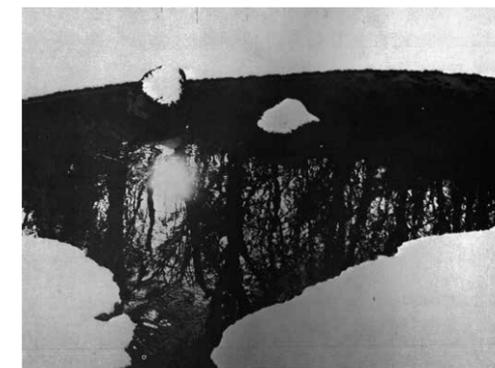
〈자연의 무늬〉 강동문

〈잉태〉 정원섭

〈길조〉 김수복

〈창공〉 송기엽

〈독서의 계절〉 허형구



대상 〈반영〉 이창남



운영위원 〈좌불〉 이경모



심사위원 <회고> 이해선



심사위원 <노상> 이형록



초대작가 <만추> 임석재[임석제] [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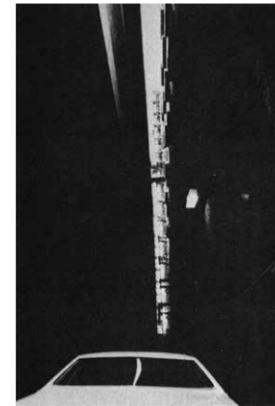
초대작가 <선> 김조현 [컬러]



심사위원 <속삭임> 조현두



심사위원 <봄바람> 문선호



초대작가 <도시 공간> 홍순태



추천작가 <용광로> 유정재 [컬러]



추천작가 <파기> 안준천



심사위원 <무상> 김종현



심사위원 <빙화> 이정강 [컬러]



추천작가 <운해> 지부원 [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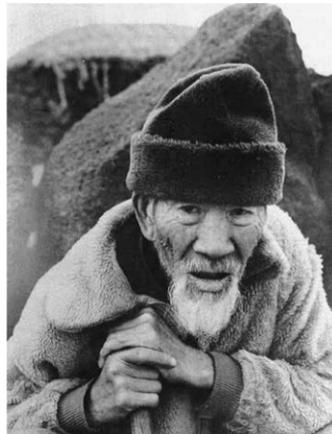
추천작가 <슬픈 사연> 김영민 [컬러]



특선 <의숙> 이봉하 [컬러]



특선 <오 주여! 자비를> 박상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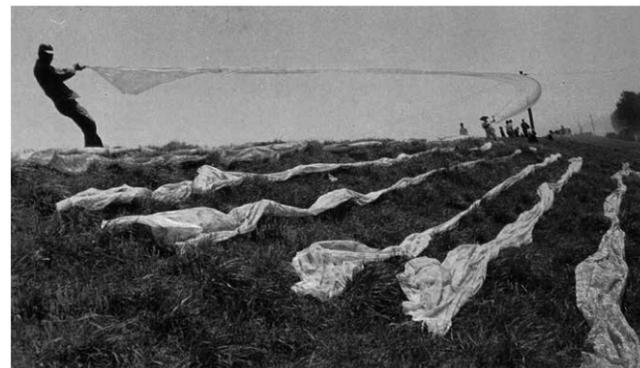
특선 <회영> 차용부



특선 <생업> 박수돈 [컬러]



특선 <동> 장영식 [컬러]



특선 <건포> 이순홍 [컬러]



특선 <협력> 김인식 [컬러]



특선 <휴식> 이종태 [컬러]

1980년 6월, 『영상』(통권56호), p.24

「《제29회 국전》 수상작품, 사진부 대상 이창남 씨의 <반영>」

우리 생활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장면을 '모티브'로 작품화 하여 볼려고 수차에 걸쳐 시도해보다 이 작품을 촬영하게 되었다.

이번 대상을 타게 된 이 작품도 겨울이면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지만 구도가 좋아 촬영한 작품이다. 삼각형 구도에 물속에 잠긴 바위 위에 흰 눈 두 점으로 어두운 공간을 조화를 시켜보았으며 현대감각에 맞게 대담하게 '트리밍'을 하여 구성미를 살려보았다.

이 작품을 촬영 할 때도 흰 눈과 물속에 비친 나무숲의 검은 부분이 너무 대조적인 명암 때문에 '콘트라스트'를 조절 하느라고 'Y2, 휠타'를 사용해서 명암의 비란스를 맞추어 촬영했다. '사용 카메라' HASSELBLAD 80m/m F8 1/60 Y2 휠타 베리크롬 사용. 설명/ 이창남

1980년 6월, 『신동아』(통권190호), p.401

이명동, 「(뉴스와 화제-사진) 질 높여야 할 《국전》 사진 부문」

《국전》의 주관 부서가 문공부로부터 문예진흥원으로 이관된 지 처음으로 열린 제29회 올 《봄 국전》 사진 부문의 입상 및 입선작 전람회가 5월 2일부터 31일까지 덕수궁 현대미술관에서 열려 사진 애호가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올 《봄 국전》은 많은 사람들이 민간이 주도하는 '민전'이라고 인식, 무엇인가 새로운 변혁을 기대했었다. 그러나 결과는 종전의 관전과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게 중평. 다만 달라진 것은 시상 제도와 출품 점수를 1인당 1점에서 2점으로 늘린 것뿐이다.

올 《봄 국전》 사진 부문의 접수 작품은 총 4백 66점, 예년에 비해 양적으로 늘어난 것이었다. 따라서 입상 및 입선작도 출품 점수의 비례에 따라 예년보다는 약간 늘어 60점이 뿔뿔히 전시되고 있다. 전시된 60점의 작품 중 대상을 포함해서 특선작이 9점, 입선작이 51점으로 작품의 양은 예년보다 많은 편이지만 질적인 수준은 낮은 편이라는 것이 중론이었다.

《국전》 사진 부문이 해를 거듭할수록 그 질이 낮아지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사실은 자타가 공인하는 바로, 우리나라 사단을 위해서는 서글픈 일이 아닐 수 없다. 어쨌든 《국전》이 관전이든 민전이든 간에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규모가 큰 공모전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그 수준이 뒤지고 낮아지고 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구명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이다.

《국전》 사진 작품의 고질적인 병폐는 한마디로 사진의 본질을 무시한 데 있다고 하겠다.

즉 사진이 가지는 본래의 성격과 특질을 무시하고 맹목적으로 회화가 지니는 조형적이고 심미적인 미학만을 추구하는 경향이 오늘까지 오랜 세월을 두고 지속되어 왔다는 점이다.

《국전》 사진 작품은 이와 같은 회화양식 지상주의로 굳어버린 채 그 표현의 한계점에서 시들 어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의 바탕에서는 새로운 사진의 창작이란 오히려 한 걸음 더 가깝게 회화 쪽에 접근하는 결과 이외는 아무런 의미도 성과도 얻을 수 없다고 생각된다. 예를 들어 올해 《국전》 전시 작품의 경우도 이러한 회화와 유사한 경향의 사진, 즉 사진성을 무시한 회화의 형식과 그 이미지를 추구한 것들이 상당히[상당히] 많았을 뿐만 아니라 특히 대상을 수상한 〈반영〉은 그 대표적인 작품으로 지적할 수 있다.

물론 사진 작품에서도 회화가 중요시하는 조형성을 추구할 수 있다. 또는 심미적인 미는 물론 추상적인 이미지의 표현까지도 시도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사진의 본질적인 성격을 무시한 회화성 편중의 표현만이 사진예술의 새로운 창작이라고 착각할 정도로 당당히 인정되고 받아들여질 수는 없다는 이야기다.

오늘날 사진을 표현 수단 본질에서 볼 때 영상언어의 기능을 보다 중요시해야 한다는 것은 사진하는 사람의 상식으로 되고 있다.

사진이 진정한 예술적인 차원으로 승화하려면 언제나 사진다운 사진의 성격이 그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하고 그 영상 속에는 제3자의 가슴을 찌르는 강렬한 언어가 담겨져 있어야 한다.

이번 《국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작품 〈반영〉은 조형성도 약할 뿐만 아니라 심미적인 미도 찾아볼 수 없고 또한 제3자의 가슴에 와 닿는[닿는] 언어도 없다는 게 관람자들의 지배적인 여론이었다.

그리고 이번 《국전》에서도 예년 못지않게 작품의 액자나 장정이 요란스러워 관람자들의 눈썰[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어쨌든 앞으로 《국전》의 사진 부문에 말 그대로 우리나라 사단을 대표할 수 있는 작품들이 출품돼 우리 사진계를 이끌었으면 하는 게 사진인들의 바람이다.

〈이명동〉

1980년 6월, 『포토그래피』(통권156호), pp.112-114

서상덕, 「(사진평론) 제2부 《국전》(사진 부분) 문제점들-그 활성화와 바람직한 운영을 위한 개선」

서상덕(사진 평론가)

올해 《국전》은 29회째가 된다. 그리고 사진예술이 《국전》에 포함되기는 1964년의 제13회 때부터 이므로 햇수로는 17년이 되지만 70년도의 《제19회 국전》이 사진·건축 부분의 독립전 준비 때문에 휴전했으므로 정확하게는 16회째가 되는 셈이다.

79년도에는 284명의 작가가 각 1점씩 품출[출품]했으나 80년도에는 1일[인] 2점 이내로 출품 수를 완화한 것도 있고, 민전으로 전환된다는 전망 때문에 소위 재야 작가로 지칭되는 작가와, 그동안 《국전》에의 참여를 거부 또는 외면했던 작가 중의 일부가 출품함으로써 전년에 비해 182점, 64.1%라는 출품 수의 신장율을 보이었다.

이러한 추세는 사진예술 보편화 물결이 《국전》을 거부 또는 외면만 한 것이 아니라는 쪽으로 흐르고 있음을 짐작하게 하는바, 사진계를 위해서는 매우 바람직한 조짐이라 아니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국전》은 민전으로 전환하든, 지금과 같은 성격의 《국전》으로 나가든 간에 실질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신호로도 받아 드러진다.

그러나 이러한 낙관적인 전망과 희망은 입선 그리고 입상된 작품을 대함과 동시에 사라진다. 그것은 누가 보아도 분명히 상위에 올라야 할 작품이 입선으로 그쳤는가 하면 누가 보아도 분명

히 작품성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버젓이 특선의 명예를 누리고 있는 모순을 발견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과거에도 그랬듯이 올해에도 불공평한 심사가 되풀이되었음을 실감하게 되고, 환멸과 배신당한 느낌을 맛보므로서 희망과 기대가 일시에 사라져 버리는 것이다.

《국전》출품 작품은 심사 기준에 의하여

- ① 국가 발전의 변화 속에서 다양하게 소재를 찾아 창작된 작품.
- ② 민족의 자주정신을 선양하는 작품.
- ③ 국민총화의 새 가치관을 고취하는 작품.
- ④ 고유의 미를 재발견하고 미술문화 진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작품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게끔 그 기준에서 못 박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선정된 작품들은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면, 순수한 살롱 작품이 입상하고 있는가 하면, 이와 정반대의 이른바 리얼리즘 사진과 그 인류의 사회 고발적인 보도 사진이 상위 사진으로 뽑히었으며, 때로는 추상작품이, 또 때로는 비구상 작품이 입선과 낙선의 양극 사이를 들락날락하는 무원칙한 혼란과, 가치관의 무쌍한 변화 현상을 거듭하여 왔다.

이러한 괴리현상이 왜 해마다 되풀이되며, 어째서 연례행사와도 같이 일어나고 있으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심사는 왜 공정하고도 엄격하게 이루어지지 않는가? 심사위원은 어찌하여 심사 기준을 도외시하고 편법대로 심사하였는가? 입상작과 입선작 사이의 수공할 수도 납득할 수도 없는 예술성의 격차에 대하여 단 한 번이라도 이론전인[이론적인] 근거가 주어진 일이 있었는가?

《국전》출품작에 대한 심사가 심히 공평 엄정하지 못했다는 것은 사진계 인사들의 상식에 속한다. 또 그와 같은 사실을 양심적인 심사위원들은 시인하고 있다.

무릇 작품 심사란 전지전능하지 않은 인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기에 능히 공평하지 못할 수 있고, 엄정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 역시 상식이다. 그리하여 해마다[해마다] 불공평하고 엄정하지 못한 심사가 자행되었어도 우리는 이를 관용과 아량으로 받아 드렸으며, 비록 일시적으로 불평하고 불만스럽게 생각하면서도 끝내는 그 심사 결과를 승복해 왔었다.

그러나 이러한 비리와 부조리는 해마다 거듭되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제는 관용이나 아량만으로는 시정되지 않을뿐더러, 사진문화가 언제까지나 미개된 상태에서 빈사지경을 헤메지[헤매지] 않을 수 없음을 깨닫기에 이러한 문제점을 이제는 분명히 짚고 파헤쳐서 넘어가야 할 단계에 도달했다고 한다면 이는 과연 필자의 독단일까?

《제29회 국전》작품을 선정함에 있어 일부 심사위원들이 심사 기준에 없는 편법을 썼음은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다.

이들은 60점의 입선 작품을 찬·반에 의한 다수결로 선정한 다음, 그동안 연속 특선한 작가들이 출품한 작품 5점을 가려내고, 9점의 특선 작품 수를 채우기 위한 4점의 작품을 뽑아서 이에 추가하므로써 심사 기준을 따른 것처럼 했다.

여기에서 주목할 사실은 몇몇 심사위원이 연속 4회의 특선을 하는 작가는 자동적으로 추천작

가가 되게 되어 있는 규정을 원용하여 “이왕이면 이번에도 특선시켜주므로써 ‘졸업’을 시켜주자”고 주장한 점이다.

인간 사회에서 혼한 사제관계, 종파관계, 선후배 관계 및 친면이 있고 없고에 따라 심사 기준에 있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는 특혜를 베풀어 “빠 주자”고 할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지는 하나 있어서는 안 될 ‘터부’요 배신이며, 암과 같은 ‘문화 공해’인 동시에 위험한 발상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리고 이들의 논리적 근거로는 이왕에 세 번이나 연속 특선했으니 그 작품의 질이나 수준은 보나 마나 우수하다는 것일 게다.

그러나 원리 원칙에 위배되고, 예술가의 양심까지도 배신하는 비리와 부조리를 정당화, 합리화하기 위한 강변(強弁)에 지나지 않음은 말할 나위도 없다.

나는 여기에서 또 한 가지의 어처구니없는 사실을 지적하고 싶다.

그것은 《국전》이(다른 모든 전람회나 콘테스트가 다 그러하지만) 특정한 소수인의 사유물이 아니며 그 반대인 절대다수의 작가들에게 균등한 기회와, 공평한 형평원칙에 의한 등용문이라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규정이나 기준에 없는 불법적인[불법적인] 편법으로 특정한 인물에게 상이 주어지고 명예가 주어져야 하느냐 말이다.

문제의 핵심은 어찌하여 원칙과 룰을 무시하는 심사가 자행되고 있느냐에 있다. 언제나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지난날, 어떤 운영위원은, 추천작가를 거쳐 초대작가가 된 인사 중에서 심사위원을 선정하게끔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특선으로 입상한 경력이 없는 인사를 초대작가로 추대했었다. 또 정해진바 네 번 연속 특선 경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약 추천작가로 추대된 케이스도 여럿 있다. 따라서 《국전》이 오늘날까지 비리와 부조리에 찬 편법으로 운영되어 온 것은 하등 이상할 것이 못 되는 일이기도 하다.

시초부터 비리로 사직 된 《국전》이 악순환의 인과응보를 감수하지 않을 수 없는 또 다른 실례를 들어보자.

심사 기준에는 특선 후보 작품은 ‘선정할 정수의 2배수의 범위 안에서 선정’하게 되어 있고,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입·락을 결정’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특선 작품 중 최고 득점 작품을 대상 수상 작품으로 선정’하게끔 하는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분명히 6점이라는 감출 수 없는 평점 차이로 대상 수상 작품이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심사위원이 이를 무시하여 승복하지 않고, 재투표로 대상 수상작을 다시 선정하자고 들고 나섰다고 전해진다.

7명의 심사위원이 각각 서명, 날인한 평점 투표는 분명히 심사 기준대로 행해졌건만, 무슨 연유로, 또 어떤 근거를 바탕으로 재투표를 주장했을까? 그 후보 작품은 과연 그만한 수준의 작품 일가[까]? (그렇다 하더라도 결정을 번복할 수는 없지 않은가)

《국전》의 운영 규정이나 심사 기준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과 심사 역시 완전무결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에 속하다[속한다]. 그리고 불완전하고 미비된 규정이나 기준은 그때그때 보완하면 더 바랄 것이 없다.

그런데 인위적이며 작위적인 편법이나 부조리는 쉽사리 고쳐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부조리나 편법은 과감하게 개혁하지 않고서는 고쳐지지 않을 것이 명백하다.

때 묻은 운영위원과 심사위원은 당연히 새사람으로 바뀌어져야 하겠거니와, 이에 앞서, 돈보기로 작품을 드러다 봐야 하는 심사위원들은 스스로 몰러나므로서 유능한 후진에게 길을 터주어야 한다.

운영위원과 심사위원은 일정한 연한 동안 연임하도록 하므로써[함으로써] 비로소 《국전》은 《국전》 나름의 스타일을 확립하게 되고, 어떤 일관된 흐름의 작품과 작가가 등장하게 해야 한다.

이러한 작품(作風)의 확립은 《국전》뿐만 아니라 모든 광의의 콘테스트에 반드시 필요하며, 그 나름의 성격, 그 나름의 전통이 세워지고, 특징 짓게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심사 경위가 글자 그대로 공개리에 또 완전한 자유 분위기 속에서 논리적인 바탕에 입각하여 충분히 토론된 연후에 가부를 종다수결로 결정해야 한다.

명심할 것은 예술작품이란 적어도 점수로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창조적인 예술 작품을 점수로 평가하는 곳은, 모르긴 해도 아마 우리 《국전》에서만 볼 수 있는, 전근대적이며 모욕적인 '문화 폭력'이라 할 수 없다. 이번 심사는 ○×식 가부 결정과, 평점에 의한 채점식을 양용하는 어리석음을 범했거니와, 여기에다 양식과 양심을 포기하고, 기준을 무시한 채 심사하였으니 불미한 추태와 추문이 뒤따르지 않을 수 없는 노릇이다.

원리 원칙을 저버리지 않고, 오로지 공평하고 엄정한 심사를 하는 한 그 결과에 설혹 약간의 하자나 의혹이 있을지라도 이의를 제기하거나 불복하는 사례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국전》뿐 아니라 모든 종류의 콘테스트는 이상과 같은 절차를 밟음으로서 위엄과 권위가 스스로 따르게 마련이며, 그 나름의 전통과 스타일이 세워진다는 것은 너무나도 명료한 일이 아닌가?

제2부 《국전》을 활성화하고, 바람직한 《국전》상을 정립하여 비리와 부조리와 편법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풍토가 정착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국전》에 대한 나의 생각을 간추려서 밝혔음을 첨언한다.

1981년 3월 10일, 『경향신문』 6면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제30회 국전》 개최 공고」



제30회(1981년도) 《대한민국미술전람회》 개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미술 문화의 발전과 진흥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도록 미술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1. 회기 및 전시 내용

- ◇《봄 국전》=1981년 5월 22일~6월 15일 서예(사군자 포함) 공예·건축·사진
- ◇《가을 국전》=1980년 10월 2일~10월 31일 동양화·서양화·조각(구상 및 추상)

2. 전시 장소=국립현대미술관

3. 작품 규격

- ◇회화=80호 이내
- ◇조각=실내-평면(90×130cm) 높이(250cm) 이내 실외-평면(100×200cm) 높이(250cm) 이내
- ◇서예=가로(70cm) 세로(200cm) 이내
- ◇공예=가로(90cm) 세로(180cm) 높이(250cm) 이내
- ◇건축=가로(360cm) 세로(180cm) 이내
- ◇사진=90×120cm 이내

단 위의 규격은 '틀'을 포함하지 않은 것임 '틀'의 폭은 표구를 포함해서 한쪽이 15cm 이내 이어야 함

4. 출품에 관한 유의사항

- ◇출품 작품은 국내외에서 발표되지 않은 작품으로서 전시 중 파손될 위험성이 없는 것 이어야 함
- ◇건축작품은 작품 명세서를 첨부하고 설계도 및 투시도 제출

5. 출품 절차

- ◇원서배부=《봄 국전》: 1981년 3월 20일부터
《가을 국전》: 1981년 8월 10일부터
- ◇원서 배부처=한국문화예술진흥원 미술회관, 국립현대미술관, 예총, 한국미술협회,

한국건축가협회, 한국사진협회, 각 시도 문화재과

◇작품접수

○《봄 국전》=서예(1981년 5월 8일~9일)

공예(1981년 5월 8일)

건축(1981년 5월 9일)

사진(1981년 5월 9일)

초대·추천(1981년 5월 8일~9일)

○《가을 국전》=1981년 9월 14~17일

※매일 10시~17시 까지 접수함(일요일에도 접수함)

◇작품 접수처=국립현대미술관

◇심사 결과 발표=《봄 국전》(1981년 5월 15일 예정)

《가을 국전》(1981년 9월 22일 예정)

◇출품료 2,000원(1점당)

◇출품수=1인당 1점

(작품 구성상 2개 이상이 1조가 되어 하나의 작품으로 인정되는 것은 1점으로 봄)

6.시상

◇일반공모상

○대상=봄·가을 전시 각 부문별 1명(상장 및 상금)

◇초대 및 추천작가상

○초대작가상=봄·가을 전시 각 1명(상장 및 상금)

○추천작가상=봄·가을 전시 각 1명(상장 및 상금)

7.수상작품구입

◇《국전》수상 작품은 영구히 보존, 활용하기 위해 당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입할 예정임

8.작품반출

◇낙선작품은 심사결과 발표 후 5일 이내

◇전시작품은 전시 종료 후 3일 이내

※기한 내에 찾아가지 않는 작품에 대하여는 당원에서 책임지지 않음.

9.기타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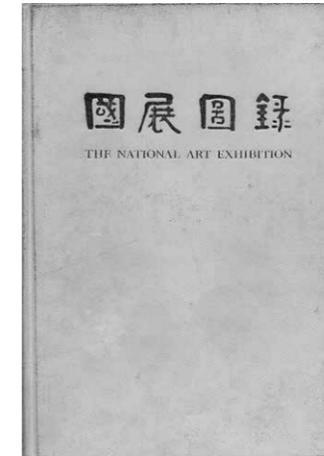
◇상세한 것은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미술회관(762-5231 교33·3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981년 3월 일

한국문화예술진흥원장

1981년 5월 22일-6월 15일, 국립현대미술관[《봄 국전》]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주최, 《제30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



국전운영위원 (무순)

위원장 류경채

부위원장 이종무

위원 조중현 나상목 안동숙 안상철 최영립 이세득 전퇴진 최종태

김정숙 최만린 배길기 정환섭 백태원 권순형 김희춘 강명구

이경모 이경성 최순우 유근준 윤치오 [박필호]

심사위원(무순)

○ 서예·공예·건축·사진

위원장 김중엽

부위원장 김진상

사진 분과위원장 임석제

위 원 정인성 문선호 정도선

수상 작품

● 일반공모상[각 부문별 1점 수상]

〈대상〉 사진 〈환희〉 이은주

● 초대 추천작가상

〈초대작가상〉 [조각(추상), 사진 수상]

사진 〈태고의 장〉 이정강

〈추천작가상〉 [동양화(추상), 공예 수상]

□ 사진

운영위원 <삼면팔비보살> 이경모, <해> 박필호

심사위원 <관광객> 정인성, <설수> 임석재[임석제]

초대작가 <유물> 문선호, <심영> 홍순태, <상춘> 이해선, <행복한 황혼> 지부원, <프로메테우스의 역사> 유정재, <춘경> 안준천, <작품-1> 조두현[조현두], <가을의 시> 이형록, <정경> 김종현, <구성> 김조현, <성역> 이종태, <젊음> 김영민, <다섯 광대의 춤> 박상운, <거리> 이순홍, <원색의 변화> 이봉하

특선 <수녀> 박옥수, <끝손길> 김석만, <염원의 빛> 이기원, <여명> 기세준, <정> 민병태, <내일을 위하여> 김인식, <기원> 최부길, <포인트> 이창남, <비오는 날> 이강복

입선

<설악의 아침> 김재성	<촌로의 장 나들이> 구자춘	<음과 양> 양희국
<새 아침> 양은환	<축하> 안종기	<열선> 이기철
<죽물시장> 박영경	<벽> 김진형	<환상> 이준무
<건시작업> 김장환	<벽> 유지순	<유영> 백영환
<추정> 이화섭	<회귀> 유보일	<파도 위의 해조> 안성환
<농가> 한의섭	<조화> 조무홍	<흐름> 송일학
<만가> 장국현	<모정> 김생수	<화목> 방달성
<상-81> 안봉주	<벗> 지명수	<작업> 정정희
<동> 안 청	<작은 의문> 최홍만	<어부> 김영학
<설일> 송봉운	<열중> 정영모	<소득의 현장> 이복성
<모래 채취장> 공병우	<동심> 하인택	<빙선> 신안남
<대춘> 김국환	<겨울방학> 이용상	<장날> 정해구
<야경> 주성천	<선> 이창성	<우리집 재산> 김영만
<가각> 박계학	<집합> 정상태	<7대 가업> 박수돈
<노승> 심상대	<찬무> 전형국	<장인> 차용부
<영생으로 가는 날> 정윤진	<화술> 최일랑	<고독한 작업> 권진희
<메아리> 민경봉	<전통의 멋> 이희규	<작업> 박종만
<정진> 이승민	<환상의 무> 유재정	<광부> 강위원
<얼굴들> 유후선	<massmedia 역학(새시대 행진곡)> 오명환	<나무> 이영일
<축복의 손길> 윤여익		<탐라의 점경> 고길홍



대상 <환희> 이은주



초대작가상 <태고의 장> 이정강



운영위원 <삼면팔비보살> 이경모



운영위원 <해> 박필호 [컬러]



심사위원 <관광객> 정인성



심사위원 <설수> 임석재[임석제] [컬러]



초대작가 <유물> 문선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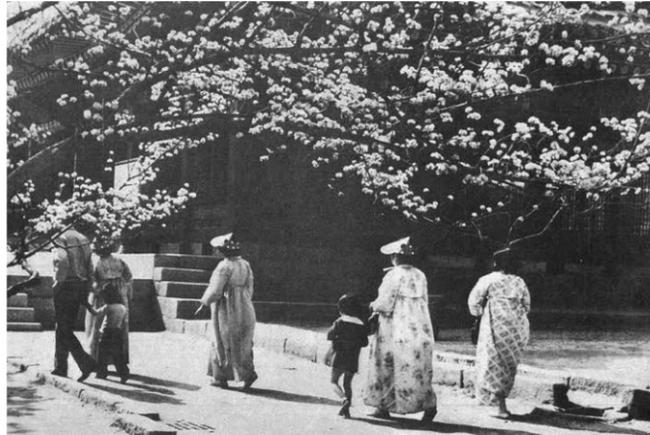
초대작가 <심영> 홍순태 [컬러]



초대작가 <작품-1> 조현두



초대작가 <가을의 시> 이형록 [컬러]



초대작가 <상춘> 이해선



초대작가 <행복한 황혼>
지부원 [컬러]



초대작가 <정경> 김종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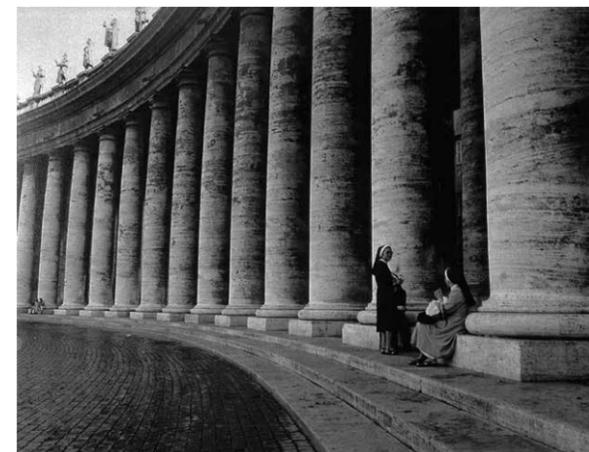
초대작가 <구성> 김조현 [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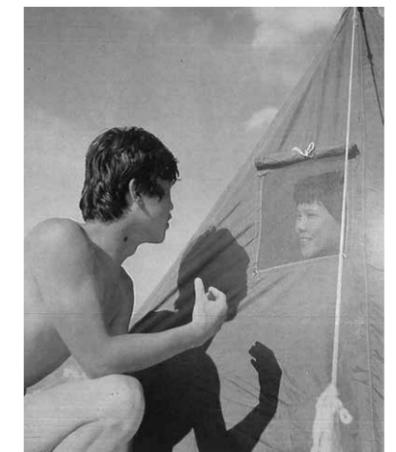
초대작가 <프로메테우스의
역사> 유정재 [컬러]



초대작가 <춘경> 안준천



추천작가 <성역> 이종태 [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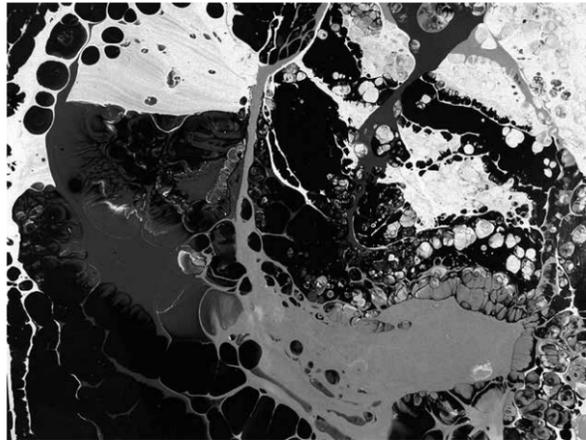
추천작가 <젊음> 김영민 [컬러]



추천작가 <다섯 광대의 춤> 박상윤 [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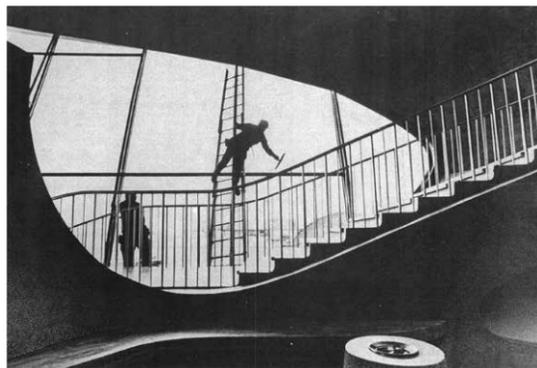
추천작가 <거리> 이순홍 [컬러]



추천작가 <원색의 변화> 이봉하 [컬러]



특선 <수녀> 박옥수



특선 <끝손질> 김석만



특선 <염원의 빛> 이기원 [컬러]



특선 <여명> 기세준 [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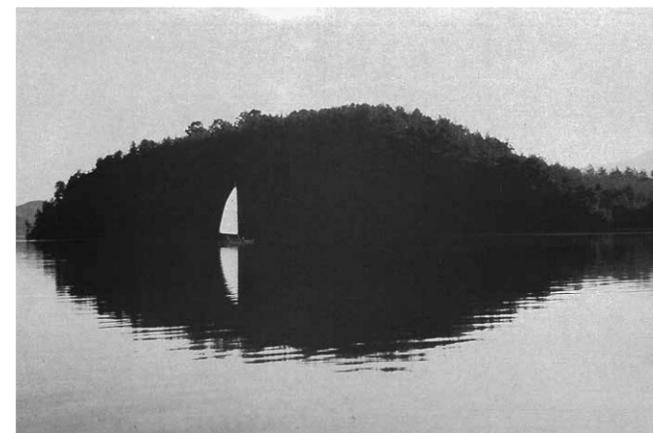
특선 <정> 민병태 [컬러]



특선 <내일을 위하여> 김인식 [컬러]



특선 <기원> 최부길



특선 <포인트> 이창남 [컬러]



특선 <비오는 날> 이강복 [컬러]

1982년 1월 26일, 『매일경제』 9면

「《국전》 개혁 후 사진예술계 초비상, 새 전시회 창설 계기 운영방안 놓고 파란 일 듯」

재야, '사협'에 화살 겨냥

이해타산 버린 체질개선 필요

《사진대전》의 문호개방을 기대

사진계는 요즘 새로 창설될 《사진대전》(가칭) 운용 방안을 놓고 심각한 논란을 벌이고 있다.

사진 1백 년을 맞는 사단은 과거 《국전》 등 전시회와 사협 운영을 놓고 적지 않은 문제를 만 들어 왔으나 최근에는 소강상태를 보여 왔다.

그러나 많은 재야작가들이 새로 창설될 《미술대전》에서 사진이 불행히도 제외된 것이 사실 이므로 이번의 《사진대전》 창설은 또 한 번 사단 개혁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 파란을 예 상케 하고 있다.

더우기 사진작가협회가 앞으로의 모든 권한을 문예진흥원으로부터 일괄 이관받고 있고 적어 도 2월 초순까지는 새로운 《사진대전》(가칭)의 개최 공고를 낸다는 방침 아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중에 있어 그동안 사협으로부터 제외되어 왔던 학계와 재야의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태에 있다.

그런데 한국사진작가협회(이사장 이정강)는 25일 현재 몇 가지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만 밝힐 뿐 구체적 언급을 회피하고 있으나 그 방안은 《미술대전》 등 다른 분야의 개최 요강에 보 조를 맞출 방침이고 핵심이 되고 있는 심사위원 구성 문제는 추천 및 초대작가를 일단 의식하지 않고 20~30명의 심사위원 후보를 먼저 구성, 사협 이사회나 새로운 운영위원회가 이들 중 몇 명 을 다시 선임한다는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학계나 재야 쪽에서는 기술상의 문제는 사협에 맡겨도 되겠지만 운영이나 심사위 원 구성만은 과거의 폐습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도 반드시 공개 논의 후 결정해야 한다고 강 조하고 있다.

또 이번 기회에 이제까지 프로작가들이 외면하고 아마추어 중심으로 이어져 온 사진 풍토를 쇄신해야 한다는 주장도 상당한 설득력을 지닌 채 부각되고 있다.

원로작가 임응식 씨는 사진을 《국전》 종목으로 넣기 위해 고생했던 옛날을 회상하면 이번의 조치는 일면 섭섭하기 그지없다.

그러나 사진이 계속 《미술대전》에 남아 이제까지의 부정적 요소를 답습하기보다는 이렇게 된 것이 오히려 당연한 귀결이라고 전제하면서 앞으로 있을 《사진대전》이 사협 일변도여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

아마추어가 회원의 대부분인 사협은 이번 기회에 과거 《국전》의 초대 및 추천작가 선정에서 소외되었던 재야 사진 전문인들을 대거 흡수, 범 사단적인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이 운 영위원회에서 심사위원 선임을 비롯한 모든 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 이전에 사협 자체도 혁

신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예술전문대학 사진학과장 육명심 씨 역시 현재 작품 활동조차 하지 않는 추천작가나 초 대작가들이 많은 현실을 보면 이들에 대한 재평가가 내려져야 한다.

사협에서는 일단 모든 분야의 전문 사진인들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들로 하여금 참신 하고 새로운 사람을 중심으로 심사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과거의 추천 및 초대작가도 운영위원회를 통해 몇몇 양식 있는 인사들의 경우 재 위촉될 수 있을 것이다. 《국전》에서 쫓겨나 사진의 권위가 실추된 이 마당에 사협과 재야는 이해타산을 버 리고 양식을 되찾아 뭉쳐야 하리라 본다. 아마추어 중심인 사협 역시 이 기회에 체질개선을 해 야 하며 재야와 대등한 비율로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한다.

사협도 외국의 유례가 없는 예술사진만을 강조, 여타 분야를 무시하려는 태도를 이 기회에 버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그는 문예진흥원이 사협에 모든 권한을 일괄 위임한 것도 신중치 못한 처사로 범 사단적인 준비위원회 구성이 선행되었어야 하며 학계, 사진교육자협의 회, 상업사진, 보도사진인 등이 대거 참여하는 사협과 별도의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중앙대학교 사진학과장 유만영 교수는 이번 조치가 사단 전체의 발전의 계기가 되기 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사진대전》은 사협의 전유물이 아닌 범 사단적인 제전이 되어야 하며 세계적인 안목 아래 젊 은 사람들이 마음 놓고 활동할 수 있는 광장이 되어야 한다. 어느 예술 분야에서도 있는 일이긴 하지만 자기 경향의 사진만을 고수, 파벌을 조성하는 일은 이제 지양해야 한다.

그동안 《국전》에 참가를 기피했던 상당수의 재야 엘리트 작가들이 후진 양성을 위해 이번 계 기에 참여하도록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성관 기자】

1982년 2월, 『월간사진』(통권175호), p.133

「(사진계 소식)《국전》제도 폐지」

문화공보부의 1월 16일 발표에 따르면 금년부터 《국전》(《대한민국미술전람회》)의 제도를 폐지하고 그 대신 현대미술관 주관으로 초대전과 문예진흥원 주관의 신인 공모전을 갖게 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 두 전시회에는 사진 부문이 제외되어 앞으로 사진 부문에 대한 문제는 한국사협이 독자적인 계획이 수립될 때까지는 당분간 공백 상태에 놓였다.

또한 《국전》추천작가, 초대작가 제도도 같이 폐지되어 그 동안 단 한 번도 심사 과정에 대한 말썽 없이 지낸 적이 없는 《국전》도 이 제도 개혁으로 사진예술 발전 과정의 커다란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1982년 3월, 『영상』(통권77호), p.16

전순룡, 「(시론)《국전》사진부 발지(發止)[폐지(廢止)]의 뜻」

사진이 '관전으로' 운영된 지 18년 만에 《국전》이 올해부터 《대한민국미술대전》인 《신인공모전》으로 발전적으로 제도 개선을 하므로 독자 운영을 하게 되었다.

문공부는 이번 《국전》제도 개선에서도 밝혔듯이 사진은 그 자체적 특성에 따라 타 미술과는 별도로 운영케 한 것이다.

이 같은 82년도부터 개최될 《미술대전》은 아직 세부적인 개최 계획이 세워지지 않아 이에 따른 문제점 피력은 못 하겠으나, 우리 사진들은 좀 더 민주적이고, 좀 더 창의적이고, 세계 속에 대한민국 사진이라는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작품을 고를 수 있는 운영 요강이 마련되어야겠다.

그동안 《국전》에 사진 부문이 추가 운영된 것은 1964년 10월부터 이다.

18년 동안 《국전》에서의 사진 부문은 24명의 추천 및 초대작가를 배출하기도 했지만, 이에 따른 잡음과 분규는 가장 순수해야만 되는 예술 속에 큰 오점과 가치 질서를 어지럽혀 온 것이다.

입상[을] 위해 뒷돈 거래, 파벌 조성 등 부작용은 결과적으로 한국 사진의 퇴보를 보여주기 도 했지만, 운영위원과 심사위원들의 계보 확대를 위한 문제는 사진을 공부해야 할 사진학도들에게 창작보다는 정치에 눈을 뜨게 하는 큰 과오를 범하게도 했다.

더우기 한 나라에 가장 권위를 내세운 그동안의 《국전》에서 사진은 '아카데미즘'만을 고수하

므로서 실험적이고, 창작성이 짙은 작품은 외면당하고 회화적 성격을 띤 '그림 같은 것'이 늘 입상이 되는 졸속마져[마저] 연출해 온 것이다.

독창성이 없는 독창성 경쟁, 이 속에서 어떠한 의미라도 부여하고 싶다.

그것은 창작이 정직해야 할 뿐만 아니라 책임이 있어야만 한다는 기본 원칙이 이번 제도가 개선되는 공모전에 운영과 심사 과정에서 지켜지지 않는다면 예술로서의 사진, 그 존립 자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실상, 우리 사진계는 지난 70년대 까지만도 '어느 시대에서 있는가?'를, '어떠한 이념'을 바탕으로 제작되고 있는가?'를 무심하게 지내왔다고 해도 변명하지 못할 것이다.

더우기 이 같은 바탕 속에서도 국제화되는 기류를 타고, 모방하는 작품을 만들어 왔음도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후유증은 급변하는 사진 기술과 기자재의 개발에 따라 거리와 시차를 무시하고 세계를 동시에 엮어가는 작품성은 이제라도 작가적 양심을 재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국전》에서의 사진이 보수적인 '장르'에서의 탈피하지 못한 채 계속되고 있을 때 '새로운 형상성'이라는 대단한 이념을 내걸고, '민전 시대'를 개막한 동아일보사는 그동안의 《동아 사진컨테스트》를 발전시켜, 79년도부터 사진 부문을 공모했다.

이 당시 《동아미술대전》은 '과제작'이라는 열린 개념의 형상화로 사진가들에게 무거운 짐을 주므로써[줌으로써] 창작의 어려움을 통감케 하는 등, 그동안 쉽게만 생각하던 사진에 새로운 문제성을 제시[하고] 정말로 무게를 주는 이념적 작품을 창출케 한 주역 노릇을 했으며, 여기에 한국 사진계에 엮음 사진을 토착화시켜 《국전》과의 '장르'를 달리한 권위 있는 사진 공모에 거보를 내던져 된 것이다.

이렇게 관전이 보수적인 사고방식으로 추구되므로서 고답적인 퇴보를 해 볼 때, 다각적 입장에서 연구해 온 민전 운영자들이 이 과제를 '새로운 형상성'으로 나타낸 것은 수확일 수 있지만, 어떠한 부류에서는 변칙이라는 외면도 감수해야 했다.

이제 우리 사진계도 82년도의 신인 공모전을 계기로 일부 작가들의 기득권인 양 굳림하던 시대에서 벗어나, 과감한 운영 쇄신으로 창작적 새 활기를 되찾아야 하겠다.

더우기 한 시대를 배경으로 한 사진가의 한 점의 작품이라도 대중의 눈을 의식하는 '이념'을 내포한 기획, 예술로서 호흡하는 작품성은 비로서[비로소] 예술의 힘을 승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사진평론가)

1982년 4월, 『영상』(통권78호), pp.29-33

「(□특별대담) [이명동, 이경모, 홍순태] 《대한민국사진전람회》 출범 이렇게 생각한다」

사진의 권위는 회복되어야 한다 이명동(전 《국전》 초대작가)

□ 이번에 《국전》 제도가 개편되어 사진만의 독자적인 전람회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근간의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 도의적인 책임은 사진인 모두에게 있으나 나 자신을 포함해서 실제 운영하고 참여해 왔던 《국전》 운영위원, 사협 집행위원들에게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선생님께서는 한 때 《국전》 무용론을 주장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이: 나는 임응식 선생과 함께 사진계에서 야당적인 입장을 취해온 사람으로 5-6년 전부터 《국전》 사진 무용론을 주장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국전》 사진부가 사진의 독자적인 특성을 무시하고 사진의 가치 평가를 올바르게 하지 못하여 진정한 사진문화 발전에 기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진의 역사는 불과 140년으로, 사진이 시작되고부터 초기 80년 동안에는 사진이 회화를 모방해 발전을 하지 못했다가 사진의 독자적인 영역을 개발하며 발전해 왔는데, 《국전》 사진부는 아무런 발전도 하지 못했던 초기 회화 모방 시대로 역류해 갔으므로 그런 상태로 존재하기보다는 없는 게 낫다는 생각입니다.

□ 회화에 구상과 비구상이 있듯이 사진도 어느 한쪽만 옳다고 할 것이 아니라 회화주의 사진과 리얼리즘 계열 사진을 모두 인정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무엇을 찍느냐'와 '어떻게 찍느냐'로 나누어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전자는 객관성이 강한 것으로 현실을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묘사하는 것인데 이런 사진은 생명력이 강하고 진실성과 리얼리티를 추구합니다. 반면에, 후자는 주관적인 의식이 강한 것으로 다분히 회화적입니다. 이것은 알맞은 장소에 적당한 모델을 데려다 놓고 아름답게 꾸며 표현하는 것입니다. 작가가 자기의 개성에 맞는 쪽으로 찍는 것은 좋으나 결과적으로 어느 것이 사진의 장점을 살리느냐가 문제입니다. 사진의 생명은 기록성과 재현성으로 사진이 예술성으로는 따르지 못할 회화를 모방하기보다는 사진의 독자적인 영역을 개발[개발]시켜 나가는 것이 사진 발전에 보다 유용한 것입니다.

□ 지금 현재 사진도 하나의 예술로 인정받고 있고, 사진의 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 선생님께서 사진의 예술성이 회화를 따르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현재 사진은 어떠한 예술보다도 크게 대중에게 어필되고 있으며 매스 미디어로서도 중요한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진은 메카니즘의 기능에 의한 복제성, 양산성의 기능이 있어 꼭 예술성이 아니더라도 이 특징들을 잘 살려 나가는데 사진의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사진의 독자성이 명확하게 있는데 사진이 회화의 옷을 입고 회화의 정신을 담아 그것을 모방해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 보다 발전적인 《사진대전》의 앞날을 위하여 과거의 잘못을 반성해 보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사진에 대한 개념 파악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촬영회를 한다 해서 가 보면 국내 생산도 되지 않는 필름, 인화지 등을 막대하게 투입하여 탈렌트 얼굴이 나 찍고 있는데, 아무런 사회적 효용성이 없는 사진을 찍느라 막대한 외화를 소비하는 것에 대해 차체에 사진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 선생님께서는 사진인들이 사진의 특징을 살리지 못한 가치 없는 사진을 찍어 왔기 때문에 발전이 침체되고 오늘날 이러한 현상까지 불러온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사진작가란 프로의식이 있어야 하는데 사협은 사진을 취미 도락으로 즐기며 촬영대회에 몇 번 입상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진계가 어떻게 되든 아무런 책임감도 느끼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자기에게 누러지는 명예만이 중요할 뿐 이러한 생각이 《국전》을 전락하게 한 요인인 것입니다.

한국 사진계를 건전하게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차체에 소수정예로 pro사진가협회를 결성하여 이들이 사진계를 이끌고 나가게 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현대미술관 초대전에 사진이 초대받지 못한 것은 가슴 아픈 일입니다만 오는 6월경에 미술관 측에서 임응식 선생의 개인 초대전을 열 계획이므로 기대를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실력 있는 사진가는 개별적으로라도 초대하여 건전한 사진 문화를 육성하겠다는 의미로 파악되기 때문입니다. 제2, 제3의 임응식은 반드시 나올 것이고 그래야만 하므로 그것은 한국 사진계의 발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 과거 추천, 초대작가 제도를 완전히 백지화하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가 있을 듯싶는데 이후 계승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과거 《국전》이, 인맥 등이 얽힌 정실 심사를 해 왔기 때문에 실력으로 된 사람이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로서는 《사진대전》의 건전한 출발을 위해서 이것은 계승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앞으로 사진계의 발전을 위해 말씀해 주시고 싶은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 과거 추천, 초대작가, 심사, 운영위원들은 사협 주관 대전에 전혀 참가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또한 정규 사진 교육을 받은 사람들로 신진대사가 되어야 하겠고 그들로 하여금 우리 사진계를 이끌고 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일은 사진이 그 하락한 권위를 회복하고 진정한 예술로 평가받기 위해 노력할 좋은 계기로 삼아야겠습니다. 또한 사협을 전면 해체하여 충분한 자질을 가진 사람들로 새로운 집단을 구성하여 다시는 무너지지도 짓밟히지도 않을 확고한 터전을 마련해야겠습니다. 저로서는 이번 일은 발전의 계기이지 문화 자체의 가치 하락이라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 오랜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사진계를 위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는 정말 발전해야 할 때 이경모(전《국전》초대작가)

□ 이번에 《국전》 제도가 개편되어 사진이 《국전》에서 분리되어, 사협 측에서 독자적인 전람회를 구성, 운영하게 되었는데 금번의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 우선 사진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에 사진이 《국전》에서 분리된 것에 대해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으나 지금은 지금까지의 시시비비를 따지기보다는 이번 일을 사진계 발전의 한 계기로 만들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 그러면 현재 발표되어 있는 《대한민국사진전람회》의 요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현재 사협이 공표한 《사진대전》의 요강을 보면 주로 신인 공모전에 치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근간을 이루어 왔던 추천, 초대작가 제도를 완전히 폐지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진인들이 서로 대화를 나누되, 사협이 중심이 되어 공청회를 열어 여러 의견을 들은 후 결정을 내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지금까지 추천작가가 될 때까지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다가 일단 추천작가가 되면 공부를 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서, 이런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번에 폐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 일부 그런 작가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존 추천작가 제도에 그러한 폐단이 있어 일단 폐지한다고 하여도 그 유사한 제도는 있어야[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신인을 발굴했으면 양성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그러면 어떤 식으로 기존 추천작가 제도를 계승하는 것이 가장 타당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이: 현재 현대미술관 기성작가 초대전에 사진이 유감스럽게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작가 18분, 추천작가 5분 등 23인 만으로 따로 전시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니 《대한민국사진전람회》 전시회 중에 그분들을 위한 구역을 따로 하나 만들어 전시를 하는 게 무난할 것 같습니다.

□ 그러면 일단 《국전》에서 선출된 추천, 초대작가분들은 그런 식으로 계승을 한다고 하지만 추천작가가 되기 위해 노력하시고 계시던 분들을 분들을[중복 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 추천작가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던 사람들 즉, 특선을 3번쯤 했다거나, 특선 1번에 입선을 10번 정도 한 사람들은 추천작가가 되기일보 직전에 모든 것이 무산되어 버린 폭인데, 지금까지 추천작가가 되기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은 사람에게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가라는 것은 너무 억울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들의 지금까지의 노력은 구체되어야 합니다. 그 상황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을 모아, 사협 측에 제시하여 그들의 노력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 무릇 모든 전람회나 콘테스트의 권위를 높이기 위한 방법은 심사의 공정성이라고 생각합니

다만, 지금까지 《국전》의 심사에는 참 말이 많았습니다.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 과거의 잘못을 한번 되돌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지난날의 《국전》 심사의 문제점이라면 무엇을 들 수 있을까요?

이: 지금까지 《국전》 심사 시 잡음이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술품의 심사란 예술성의 전달과 수용이 문제가 되는 것이므로 자로 재듯 치밀할 수도 없고 한 작품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가 모두 같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술품 심사의 특성 자체의 문제점 때문에 논란이 생기는 것이지, 과거 《국전》이 정실 심사를 해서 생긴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출품된 작품이 심사위원의 공명을 얻어야 높은 점수를 받는데, 그렇지 못한 작품을 출품한 사람들 사이에서 뭔가 있는 게 아니냐는 소리가 나오고 그것이 점차 과장되어 퍼져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러면 앞으로 공정하고 권위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이: 이상적인 심사 방법으로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 5~7명의 심사위원이 점수를 숫자로 표시하지 말고 작품에 대해 충분히 토론한 후,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즉, 가령 'ㄱ'이라는 심사위원이 'ㄴ'이라는 작품을 추천한다면 그 추천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여 서로의 의견을 교환한 후 선발한다면, 정실이 개입될 여지도 없고 작품 자체에 대해서도 타당한 평가가 내려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 그러면 앞으로 사진계의 발전을 위한 제언을 한마디 해 주시지요.

이: 어디나 마찬가지로 대화의 부재 현상은 서로 간에 반목을 조장하게 되므로 서로 대화를 하여 순서에 맞게 일을 해결해야 하겠습니다. 처음 《국전》에 사진이 가입되었을 때 심사위원이 자기파에서 덜 나왔다고 해서 말썽을 일으킨 일이 있었는데 문제를 일으키기보다는 관계 요로에 말해 자신의 뜻이 관철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진계는 싸움만 한다는 인상을 외부에 준다면 그것은 분명히 사진 발전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평소 사협이 하는 일에 늘 반대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명백한 대안 없이 반대만 하기보다는 사협의 공청회[공청회] 등에 나와 평소 생각하고 느끼는 것, 하고 싶은 이야기 등을 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더 발전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사진계가 발전하려면 첫째, 대화를 해야 합니다. 현재 생활주의 계열 사진을 하는 분들과 회화주의 사진을 하는 분들이 서로 반목, 질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서로 상대방을 존중해 주고 대화하는 풍토를 다져 나가야 되겠습니다. 둘째, 대학에서 정식으로 사진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신진대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부연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대한민국사진전람회》 운영 시 사협 측이 운영의 묘를 잘 살려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진의 《국전》 분리는 사진계의 진정한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으며 그렇게 만드는 것이 사진인의 임무입니다. 저 역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모든 사진인이 그러한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 오랜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보다 다양한 사진의 발전을 위하여 홍순태(전《국전》초대작가)

□ 이번에 사진이 《국전》에서 분리되어 독자적인 전람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근간의 이러한 변화가 사진계 발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홍: 지금까지 《국전》의 문제점이라면 사진이 《국전》의 한 파트로 들어있었기 때문에 사진이 사진으로서의 독자성을 살리지 못하고 회화를 모방하는 경향이 있는 등 사진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질 못했습니다. 《국전》 안에 사진이 계속 있는 상태라면 회화 모방 상태의 담보로 발전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해 왔으므로 이번을 계기로 사진의 바람직한 방향 제시와 발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 공간에서 이번 일을 두고 많은 말들이 오가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어차피 관전에서 벗어나 민전으로 가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니 방향 전환의 좋은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 《국전》 안에 사진이 계속 있는 상태로는 발전이 어렵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홍: 우리나라 사진계에는 지금 중진 층이 없습니다. 60대가 사진을 일구어 놓은 세대라면 50대가 이를 계승해서 확고하게 발전시켜야 하는데 이렇게 중추를 이루어야 할 50대가 바로 40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국전》 심사위원의 대부분이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에 계신 분으로 이분들은 일평생 보시고 공부하신 사진이 아카데미한 살롱풍의 사진으로 자연히 《국전》에서도 이런 류의 사진을 선호하시는 것입니다.

□ 제 경우, 회화주의 사진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나 그런 류의 사진은 하나의 발전 과정으로 중요할 뿐이고 이것을 기반으로 보다 더 발돋움[발돋움]해서 새로운 시각 영상 언어를 전달해주는 방향으로 진보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전》에서 회화주의 사진만을 주장한다면 그런 류의 사진이 성행하던 1920년대에 머물러 전혀 발전이 되지 않습니다.

□ 그러시면 《국전》이 사진 발전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못했던 말씀이신지요?

홍: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 자신[이] 《국전》 출신 작가로 1967년에 《국전》에 데뷔한 이래 1975년에 초대작가가 되기까지 우리나라 사진인이 거쳐야 할 계층적인 계보를 다 거쳐 온 사람으로 《국전》의 발전과 더불어 성장해 왔으므로 《국전》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나 거기에서 보다 더 발전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 앞으로 《사진전람회》를 잘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는 역점을 두어야 할 부분과 특별히 개선해야 될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홍: 심사위원의 인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심사위원의 구성에 있어서 어느 한 분야에만 치중하지 말고 여러 방면의 심사위원들을 골고루 모셔야 다양하고 수준 높은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 그런데 이러한 운영의 재 문제는 사협 측이 주관을 해야 하는데 사협 회원은 1,500여 명이지만

정말 우리나라 사진 발전에 프로 의식을 가지고 기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100여 명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들을 제외한 대부분이 순수 아마튜어인데 이들이 《사진대전》을 잘 이끌어 나갈지 깊이 우려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는 문예진흥원이 사진에 관한 한 모든 권한을 사협 측에 위임했으니 여기에 기대를 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 사협에 가입하지 않은 프로 사진가들은 “《국전》이 《사진대전》으로 바뀌어 봐야 운영하는 사람들이 다 같은 사람인데 크게 달라져서 발전할 가능성이 있을까?”하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편으로 재야 프로들은 큰 기대는 하지 않고 있는 편입니다.

□ 재야의 우수 프로 작가들을 참여시켜 사단에 발전적인 활력소를 불어넣기 위해서는 일본과 같이 프로 작가들을 따로 구성하는 방안이 바람직합니다. 사협은 사협대로 존립을 시키고 발전은 프로작가협회가 주도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이러한 모임이 구성될 수 있는 분위기가 올해 연말쯤이면 조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왕 사협에 이관이 되었으니 이번 심사위원은 정말 사진에 일심전력 주력하여 작가 의식을 가지고 자기 세계를 개척해 나가고 있는 작가분들로 모셔 과거의 일들을 혁신해서 발전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 《국전》이 30회로 일단 막을 내리고 《사진대전》이 출범을 하게 되니 과거 《국전》 시대 때 배출된 추천작가들의 향방이 모호해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 사협 이사진의 대다수가 《국전》에 야망을 품고 출품을 해 왔으나 뜻대로 되지 않은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이유로 이들의 대다수가 추천작가 제도에 대해 감정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고 그래서 추천 초대작가제를 백지화시킨 것 같습니다.

□ 그러나 일단 초대전에서마저 사진이 제외되어 있으니 그분들이 지금껏 이루어 놓은 공적은 인정을 해 주어 사협 측에서 따로 초대전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것은 선배에 대한 예우가 아니겠습니까?

□ 일단 추천작가가 되면 과보호를 받아 온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이번에 변화를 준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에 대해 의견은 어떠신지요?

홍: 사실 추천작가의 작품이 입선도 되지 않을 정도의 수준인 적도 많았습니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자각해서 모범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겠습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문제이므로 이런 문제가 추천작가 제도의 계승 여부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추천, 초대작가 제도의 계승 문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기회에 반성을 해서 모범이 되는 작품을 출품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 앞으로 《대한민국사진전람회》가 진정한 사진 발전의 장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홍: 우선 심사위원의 구성을 어느 한 분야에 편중됨이 없도록 다양하게 해야겠습니다. 모든 저널리스트, 아카데미한 살롱풍 사진에 정통하신 분, 현대 사진으로서 세계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영상 사진에 심취해 계신 분 등을 고루 다양하게 모셔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보도사진 분야, 살롱풍 사진, 영상 언어를 중시한 포토 에세이나 엮음 사진 등 현대 사진 등으로 사진이 다양하게

발전할 것입니다.

또한 규모가 커지게 되면 보도사진 분야, 상업사진 분야, 창작사진 분야 등으로 구분하여 계열별로 모집하여 여러 분야의 사진이 골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주어야 합니다.

요즈음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영상 사진은 50대 이상은 거의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세계적인 사진 발전의 조류가 그렇게 흐르고 있으니 그런 사진을 한국 사단에서도 꼭 인정을 해야겠습니다. 창작이란 현상의 담보가 아니라 자꾸 개발해 나가는 것이니까요.

□ 바쁘신 시간 중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참고 자료

《국전》 사진부 관련 참고 자료 목록

《국전》 관련 참고 자료 목록

※ 『《국전》 사진부 자료집』에 실린 자료를 제외한 《국전》 사진부 관련 자료 및 《국전》 전반에 관한 참고자료의 목록을 정리한 것이다.

일간지

임응식, 「(나의 제언) 《국전》에 사진부를», 『조선일보』, 1955.8.30.

「(물방울)», 『동아일보』, 1956.2.4.

「미술계 내분의 단면」, 『동아일보』, 1956.10.7.

이안순, 「사진의 문화적 위치, 종합전에도 사진부를 두도록」,

『경향신문』, 1956.11.15.

임응식, 「《국전》과 사진부」, 『문총회보』, 1957.2.12.

「건축 사진, 문화도 향상목표, 《국전》 개최 신규정 마련」,

『조선일보』, 1957.3.31.

「같은 길을 가는 부부 (5) 사진 정도선(41) 김선옥(39) 부부」,

『동아일보』, 1957.4.6.

「사진부도 두기로 미술분위서 결정」, 『경향신문』, 1957.6.14.

「미술분위서 설치합의. 《국전》에 사진부」, 『조선일보』, 1957.6.14.

「예술원상 수상자 결정」, 『경향신문』, 1957.6.25.

「(탁목조(啄木鳥))」, 『경향신문』, 1957.6.26.

이명동, 「사진의 예술성, 《국전》의 사진부 설치 문제」, 『동아일보』,

1957.7.27.

구왕삼, 「경북지역문화 1년의 회고 1957」, 『매일신문』, 1957.12.22.

「사진예술 단독 《국전》 개최? 사협에서 강경한 태도를 표명」,

『문화시보』, 1958.7.4.

「(모일모시(某日某時))」, 『경향신문』, 1958.8.4.

「대한사연 임원개선」, 『경향신문』, 1960.6.2.

「예술가와 생업가의 구별」, 『경향신문』, 1960.6.30.

구왕삼, 「6 25 10년 ⑤ 사진, 활기 띤 해의 진출」, 『매일신문』,

1960.6.30.

「《국전》은 개혁되어야한다」, 『동아일보』, 1960.7.23.

「예술계 갈등이 원인, 《국전》 반입작품 겨우 63점」, 『조선일보』,

1960.9.13.

「구라과 1주의 특전도, 《국전》 입상자 상금 최종 결정」,

『경향신문』, 1961.12.13.

「(횡설수설)」, 『동아일보』, 1962.1.9.

정희섭, 「《국전》에 사진 부문 추가는 당연, 문교부 장관의

고려설을 듣고」, 『동아일보』, 1963.4.12.

「사진 부문 《국전》 참가 예총서 당국에 건의」, 『경향신문』,

1963.5.7.

「10월 10일부터 올해 《국전》, 9월 23일부터 작품반입」, 『경향신문』,

1963.5.18.

「“사진” 부문도 《국전》에 추가를」, 『동아일보』, 1964.6.25.

「《국전》에 사진 부문도 예술원 정총서 가결」, 『동아일보』,

1964.6.27.

「사진부 추가 건의 사협서 《국전》에」, 『경향신문』, 1964.6.27.

「제13회 《국전》 10월 16일부터 한 달 경북공서」, 『동아일보』,

1964.8.19.

「출품료에 비난 《국전》 사진 부문 참가」, 『경향신문』, 1964.8.19.

「《국전》에 사진부, 올해부터 신설」, 『조선일보』, 1964.8.19.

임응식, 「(시론) 《국전》 사진부 신설에 제(際)하여」, 『홍대신문』,

1964.8.20.

임응식, 「사진예술의 과제, 《국전》에 사진가임을 경하하며」,

『동아일보』, 1964.9.2.

「한국창작사진협회' 발족, 《국전》에 대비 재야중견들 중심으로」,

『조선일보』, 1964.9.2.

「《국전》 앞둔 사진계, 체접받는 사진작가들」, 『경향신문』, 1964.9.9.

「《국전》 “출품료 징수는 부당” 미협서 건의문」, 『동아일보』,

1964.9.15.

「《국전》 출품료 안 받기로」, 『경향신문』, 1964.9.26.

「《국전》의 문제점」, 『동아일보』, 1964.9.29.

「오늘 《국전》 마감 사진 부문 첫 선 150점」, 『경향신문』, 1964.10.7.

「《국전》 마감, 총 2134점, 대체로 작년보다 저조」, 『조선일보』,

1964.10.7.

「《국전》 출품, 모두 2천 166점, 마감 어제 작년보다 줄어」,

『동아일보』, 1964.10.8.

「두 심사위원 사양」, 『동아일보』, 1964.10.8.

「2명이 사퇴 사진 부문 심위원」, 『경향신문』, 1964.10.9.

「《국전》 출품작 심사를 시작」, 『동아일보』, 1964.10.9.

「《국전》 사진 공예부 더수궁에서 전시」, 『조선일보』, 1964.10.10.

「《국전》 입선작」, 『동아일보』, 1964.10.12.

「《제 13회 국전》, 일부 입선작 선정」, 『경향신문』, 1964.10.12.

「수는 줄었으나 질은 향상 《제 13회 국전》 특선작만 75점 입선작

6백 18점」, 『동아일보』, 1964.10.12.

「“영예의 산실” 안팎, (사진) 처음부터 풍파, 수준은 높은 편」,

『동아일보』, 1964.10.13.

「사진부 심사위의 차질, 임응식 강사 《국전》 심사위원을 보이콧」,

『홍대신문』, 1964.10.15.

「《제13회 국전》 심사위원, 본대학 교강사 11명에 위촉」,

심사위원장에 이종우 교수」, 『홍대신문』, 1964.10.15.

「(사설) 《국전》의 개막」, 『홍대신문』, 1964.10.15.

「또 한 번 《국전》을 맞이하면서」, 『조선일보』, 1964.10.15.

「《국전》 심위의 편파성 한국미협서 지적」, 『조선일보』, 1964.10.17.

「《국전》 심위 규정 제정」, 『경향신문』, 1964.11.6.

「《국전》 사진부 시정사항, 창협서 관계처에 건의」, 『홍대신문』,

1965.8.10.

「《국전》 앞으로 5주 출품료 심사원 등 문제점을 살펴본다」,

『동아일보』, 1965.9.9.

「《국전》 심사위원 49명 명단 발표」, 『경향신문』, 1965.10.5.

「심사위원 49명 발표 《제14회 국전》」, 『동아일보』, 1965.10.5.

「《제14회 국전》의 개막에 즈음하여」, 『조선일보』, 1965.10.16.

「《제14회 국전》 총평, 위촉된 창의력」, 『중앙일보』, 1965.11.13.

「《제15회 국전》 내일부터 작품반입」, 『동아일보』, 1966.9.23.

「심사위원 결정 《제15회 국전》」, 『경향신문』, 1966.9.28.

「《국전》 심사위원 결정」, 『동아일보』, 1966.9.29.

「《15회 국전》 입선작 발표 서양화 등 7개 부문에 654점 전시」,

『경향신문』, 1966.10.7.

「15회 대통령상에 조각 〈해울〉」, 『조선일보』, 1966.10.8.

「납은 미학에서 탈피하라—《제15회 국전》에 붙인다」, 『경향신문』,

1966.10.10.

「《15회 국전》 개막」, 『동아일보』, 1966.10.11.

「《제15회 국전》의 개막과 예술의 전진적 자세」, 『조선일보』,

1966.10.14.

이명동, 「(스케치) 권위 잃은 《국전》 사진부」, 『동아일보』,

1966.10.22.

「(단신) [[《국전》 정상화 건의]」, 『주간한국』, 1967.8.20.

「(문화단신) 《국전》에 추천작가 두도록, 창작사협, 문교부에

건의」, 『한국일보』, 1967.8.20.

「《국전》 사진부 정상화, 창작사진협서 건의」, 『동아일보』,

1967.8.22.

「심사위원 다시 선정을, 창작사진협서 《국전》 정상화 건의」,

『대한일보』, 1967.8.24.

「《16회 국전》 10월 개막」, 『동아일보』, 1967.8.26.

「(시민 가이드)《제16회 국전》 작품 접수」, 『경향신문』, 1967.8.28.

「《국전》 13일부터 접수」, 『경향신문』, 1967.9.12.

「사진 등 줄이어 《국전》 출품작 접수」, 『경향신문』, 1967.9.13.

「심사위원 43명 선출」, 『경향신문』, 1967.9.20.

「대통령상에 김진명 씨 서양화 〈화실〉 《제16회 국전》」, 『동아일보』,

1967.9.23.

「《제16회 국전》 입선자 명단」, 『동아일보』, 1967.9.23.

「《국전》과 시상의 형식화」, 『동아일보』, 1967.9.25.

「《국전》 상 10배로, 올해부터 적용」, 『경향신문』, 1967.9.27.

「국향(菊香) 속에 핀 《국전》」, 『경향신문』, 1967.9.30.

「《국전》 내막」, 『경향신문』, 1967.10.16.

「《국전》, 격년제로」, 『경향신문』, 1968.9.3.

「현역작가로 구성 《17회 국전》 심위원」, 『매일경제』, 1968.9.3.

「《국전》을 격년제로 한해는 국제전 개최」, 『매일경제』, 1968.9.3.

「10월 5일부터 《국전》」, 『동아일보』, 1968.9.3.

「《국전》 격년제로, 국가서 수상작품 전부 매입」, 『동아일보』,

1968.9.3.

「《국전》 운영 쇄신의 방향」, 『경향신문』, 1968.9.4.

「《국전》개혁론」, 『경향신문』, 1968.9.4.

「권위 있는 《국전》을」, 『동아일보』, 1968.9.5.

「《국전》 혁신의 문제점」, 『조선일보』, 1968.9.5.

「홍 문공장관 담 《국전》 격년제 않는다」, 『경향신문』, 1968.9.6.

「올해 《국전》 심사위원 45명 선정」, 『경향신문』, 1968.9.14.

「《국전》 심사위원장 도상봉 씨 선출」, 『경향신문』, 1968.9.19.

「《17회 국전》 특·입선자」, 『경향신문』, 1968.9.28.

「《국전》 개막」, 『매일경제』, 1968.10.5.

「《17회 국전》 시비, 남관 분위장 사퇴의 변」, 『동아일보』, 1968.10.8.

「영화행정(映畫行政) 난맥 추궁 문공부 국감」, 『동아일보』,

1968.10.11.

임영방, 「《국전》 총평, 대체로 예년 수준, 수확은

〈초토(焦土)〉〈핵F90〉」, 『경향신문』, 1968.10.23.

「잘 팔리는 《국전》 출품작들 문공부 '지원 기간'까지 설정」,

『경향신문』, 1968.11.9.

「(장관 잘 돼감니까) 국감·예산심의에 비친 행정의 허점(6)

문화공보부」, 『경향신문』, 1968.11.13.

「《17회 국전》 입선작 102점 팔려」, 『동아일보』, 1968.11.19.

「《18회 국전》, 10월 8일부터 한 달」, 『동아일보』, 1969.6.3.

「《국전》 10월 8일 개막, 경북공미술관서 한 달 동안」, 『동아일보』,

1969.8.9.

「연례 말썽, 《국전》 심사제도 개혁」, 『조선일보』, 1969.8.29.

「《국전》, 10월 8일개」, 『경향신문』, 1969.8.30.

「《제18회 국전》, 달라질 점과 그 문제점」, 『조선일보』, 1969.8.31.

「올 《국전》 추천작가 189명 확정」, 『동아일보』, 1969.9.2.

「미술행정 미술인에 자문」, 『동아일보』, 1969.9.6.

「《국전》 연기」, 『경향신문』, 1969.9.9.

「《국전》 10월 20일로 연기」, 『동아일보』, 1969.9.9.

「《국전》 심사에 신평(新風)을」, 『경향신문』, 1969.9.10.

「말썽 많은 《국전》 심사」, 『동아일보』, 1969.9.11.

「《국전》 심사위원 선정에 진통」, 『경향신문』, 1969.9.20.

「덜레머에 빠진 《국전》 개혁안」, 『경향신문』, 1969.9.27.
 「《국전》 심사를 공개」, 『조선일보』, 1969.9.30.
 「국립현대미술관 자문위 15명 선정」, 『동아일보』, 1969.10.1.
 「각의서 의결, 《국전》 심사위 폐지」, 『조선일보』, 1969.10.1.
 「《국전》 심사 잇따라 혼선, 화단 계보 싸움 여전, 행정 갈팡질팡, '개혁'도 수포로」, 『동아일보』, 1969.10.2.
 「운영자문위 결성 국립현대미술관」, 『매일경제』, 1969.10.3.
 「새 얼굴의 《국전》을」, 『동아일보』, 1969.10.7.
 「《국전》 심사위원 40명 추천」, 『경향신문』, 1969.10.9.
 「《국전》 심사위원 확정」, 『동아일보』, 1969.10.9.
 「《국전》 심사위원 40명 선출, “운영자문위원 겸임 못한다” 원칙 깨뜨려」, 『조선일보』, 1969.10.9.
 「우울한 ‘미술의 가을’, 개혁위 잡음에 말려」, 『조선일보』, 1969.10.11.
 「《국전》 심사 비공개로」, 『조선일보』, 1969.10.12.
 「《제18회 국전》 입선작 총 420점」, 『동아일보』, 1969.10.15.
 「《제18회 국전》 심사 완료를 보고」, 『조선일보』, 1969.10.16.
 「국전제도연구위원 예총·예술원에 의뢰」, 『경향신문』, 1969.12.17.
 「연구위 구성키로 《국전》 말썽 없애게」, 『매일경제』, 1969.12.18.
 「총평 《제18회 국전》, 수상작품을 중심으로」, 『조선일보』, 1969.10.23.
 「《국전》-문화예술상 제도연구위 구성」, 『조선일보』, 1970.1.18.
 「《국전》 문예상 제도연구위 발족」, 『경향신문』, 1970.1.21.
 「《국전》 제도연구위 시안 미술계서 큰 반발」, 『동아일보』, 1970.5.26.
 「《국전》 운영 공청회 9일, 기독교회관」, 『경향신문』, 1970.7.7.
 「“사진·건축은 제외, 대통령상은 기성에게만” 9일 공청회 《국전》 운영 개혁안」, 『경향신문』, 1970.7.8.
 「《국전》 개혁안의 전면재고 요구」, 『조선일보』, 1970.7.10.
 「건축·사진 제외는 국제관례 무시한 것」, 『경향신문』, 1970.7.10.
 「(여적(餘滴))」, 『경향신문』, 1970.7.11.
 「《국전》 운영 초안'에 거센 반론, 9일 공청회에서 나온 문제점」, 『동아일보』, 1970.7.11.
 「《국전》 운영 초안 수정」, 『동아일보』, 1970.7.17.
 「문공부에 넘겨진 제도위의 '쇄신 초안' 《국전》의 새 불씨」, 『동아일보』, 1970.7.18.
 「진통 겪는 《국전》 개혁안」, 『경향신문』, 1970.7.24.
 「《국전》 개혁안 매듭」, 『조선일보』, 1970.7.25.
 「《국전》 운영안 수정 확정 제도연구위」, 『동아일보』, 1970.7.25.
 「《국전》 개혁안, 사진·건축·공예 분리」, 『경향신문』, 1970.7.25.
 「역풍 만난 《국전》 개혁안, 공예 건축 사진 분리 조항에 큰 반발 “세계 미술 사조 외면한 독선 가치 개념에 혼동만”」, 『경향신문』,

1970.7.28.
 「개혁안대로 잘 안 될 올해 《국전》」, 『조선일보』, 1970.7.29.
 「《국전》 운영위원 15명 위촉 발표」, 『경향신문』, 1970.8.1.
 「《국전》 운영위원 위촉, 비미술인 4명-미술인 11명」, 『조선일보』, 1970.8.1.
 「《국전》 순위 2차 회의, 공예 다시 넣기로」, 『동아일보』, 1970.8.11.
 「《국전》 심사규정안 마련」, 『조선일보』, 1970.10.10.
 이일동, 「《국전》과 구설수」, 『조선일보』, 1970.10.16.
 「내년 봄에 제2 《국전》, 사진 건축 부문 최고상제로」, 『경향신문』, 1970.12.7.
 「사진·건축 부문 전시회 4월중 개최 예정」, 『동아일보』, 1971.1.11.
 「《국전》 개관일자를 10월 10일로 고정」, 『동아일보』, 1971.1.20.
 「《국전》서 독립한 두 부문 《건축 및 사진전》」, 『동아일보』, 1971.8.23.
 「심사위원 발표 《대한민국 건축 사진전》」, 『동아일보』, 1971.8.30.
 「대상에 〈민족통일-광장〉 〈복악설경〉, 《제1회 대한민국 건축 사진전》 입상작 결정」, 『동아일보』, 1971.8.30.
 「첫 《건축·사진전》의 언저리 기대 못 미친 독립전」, 『경향신문』, 1971.8.31.
 「건축〈민족광장〉, 사진〈복악설경〉, 《제1회 국전》 대상」, 『조선일보』, 1971.8.31.
 이명동, 「《제1회 건축 사진전》 심사평, 예년의 수준…수작없어 서운」, 『동아일보』, 1971.9.6.
 「《국전》과 관계하여 문화정책에 요망한다」, 『조선일보』, 1971.10.3.
 「《제2회 건축·사진전》 대통령상에 〈공예공장 있는 마을 계획안〉」, 『경향신문』, 1972.9.5.
 「대통령상에 〈공예공장 마을〉, 《2회 건축-사진전》서」, 『조선일보』, 1972.9.6.
 「대통령상 〈경주문화센터〉 건축, 《사진-건축전》 입상작 발표…총리상 〈절구〉」, 『조선일보』, 1973.8.28.
 이명동, 「《제3회 사진 국전》을 보고, 권위 잃은 추천 초대 작품」, 『동아일보』, 1973.9.6.
 「《국전》 분리 미술계의 반응, 구상-비구상 구분에 관심, 《국전》운영위 “아직 논의단계일뿐”」, 『조선일보』, 1973.9.12.
 「“《국전》 출품 그림 크기 줄여” 김 총리 지시, 50~1백호 이내로」, 『조선일보』, 1973.10.23.
 「《제23회 국전》 2, 4부 대통령상에 〈부활〉(서양화) 〈새아침〉(사진)」, 『경향신문』, 1974.4.22.
 「《국전》 대통령상 2부 유희영 씨 〈부활〉 4부 유정재 씨 〈새아침〉」, 『동아일보』, 1974.4.22.
 「《춘계 국전》 영광의 얼굴들」, 『동아일보』, 1974.4.23.
 「제23회 2-4부 지상중계, 《춘계 국전》」, 『조선일보』, 1974.4.23.

「범 화단' 노력 구체화」, 『경향신문』, 1974.4.23.
 「《제23회 국전》(제1부, 제3부) 개최 공고, 미상」, 1974.6.〔날짜 미상〕
 「《국전》 문제점, '저질' 부른 확충」, 『조선일보』, 1974.9.24.
 「현대미술관에 《국전》 운영 이관」, 『조선일보』, 1974.10.4.
 「《제24회 국전》 개최 공고」, 『경향신문』, 1975.1.21.
 「《국전》 수상 상금 대폭 인상, 대통령상 150만원」, 『조선일보』, 1975.1.21.
 「《국전》 2-4부 심사평, 아류풍 탈피 뚜렷한 주체」, 『조선일보』, 1975.4.23.
 「《국전》과 미술인의 자세」, 『동아일보』, 1975.4.24.
 이일, 「(문화계 30년) 미술《국전》 통해 민족예술 방향 설정, 재야작가 무대 된 '초대전」, 『동아일보』, 1975.8.18.
 「오늘의 미술문화와 《국전》」, 『동아일보』, 1975.10.2.
 「문화의 달'에 보내는 공개상, 한국문화 이대로 좋은가 〈1《국전》」, 『조선일보』, 1975.10.5.
 「《봄 국전》 5월 3일 개막, 문공부 실시계획 확정」, 『매일경제』, 1976.2.7.
 「4대 《국전》 운영위원 23명 위촉」, 『경향신문』, 1976.3.17.
 「《국전》 운영위원 위촉」, 『동아일보』, 1976.3.17.
 「(미술) 《국전》운영에 바라는 미술계의 소리, “공개심사로 일반에 참여의식을…”」, 『중앙일보』, 1976.3.19.
 「《국전》 공개심사제로, 문공부 올봄부터 잡음 등 없애기 위해」, 『경향신문』, 1976.4.17.
 「《국전》 심사 공개로, 올봄부터…평론가 등 초청입회」, 『동아일보』, 1976.4.17.
 「(사설)《국전》 심사의 공개」, 『동아일보』, 1976.4.19.
 「공개심사제가 실시되면…'잡음' 해소에 도움 '압력' 배제가 열쇠」, 『동아일보』, 1976.4.19.
 「화단 발전에의 자구제 《국전》 공개심사의 뜻과 문제점」, 『경향신문』, 1976.4.19.
 「전기(轉機) 맞은 혁신 《국전》, 21일 막 올린 첫 공개심사」, 『신아일보』, 1976.4.21.
 「《봄 국전》 첫 공개심사의 현장 '공정'을 겨누는 눈과 귀」, 『경향신문』, 1976.4.22.
 「관심 속에 진행되는 《국전》 첫 공개심사」, 『동아일보』, 1976.4.22.
 「《봄 국전》 입상작 결정 대통령상 〈옛 이야기〉(공예부문 이해선 작)」, 『동아일보』, 1976.4.23.
 「《25회 봄 국전》 대통령상 공예 〈옛 이야기〉 이해선 작」, 『경향신문』, 1976.4.23.
 「공개심사장 낙수」, 『경향신문』, 1976.4.24.
 「《봄 국전》 5월 3일~31일 미술관서 입선작품 2백 38점」, 『경향신문』, 1976.4.24.

「《봄 국전》 개막 현대미술관서」, 『매일경제』, 1976.5.3.
 「문화의 달'에 보내는 공개상, 한국문화 이대로 좋은가 〈2《국전》이 걸어온 길」, 『조선일보』, 1976.10.6.
 「문화의 달'에 보내는 공개상, 한국문화 이대로 좋은가 〈3《국전》의 인맥」, 『조선일보』, 1976.10.7.
 「문화의 달'에 보내는 공개상, 한국문화 이대로 좋은가 〈4《국전》의 추태」, 『조선일보』, 1976.10.8.
 「문화의 달'에 보내는 공개상, 한국문화 이대로 좋은가 〈4《국전》의 진로」, 『조선일보』, 1976.10.9.
 「구상·비구상 가늘에 함께」, 『경향신문』, 1977.1.20.
 「획기적 개혁 앞둔 사진포서 《국전》 운영 변경의 배경」, 『경향신문』, 1977.1.20.
 「구상·비구상을 통합 문공부 《국전》 운영제도를 일부 변경」, 『동아일보』, 1977.1.20.
 「구상·비구상 가늘에 동시 전시-문공부 《국전》 개편 서예-공예-건축-사진은 봄에」, 『조선일보』, 1977.1.20.
 문선호, 「설자리 찾은 '중간작품' 《국전》 개선'과 반향」, 『동아일보』, 1977.1.21.
 「구상, 비구상 없앨 수 없다, 《국전》 운영방법 개선에 붙여」, 『부산일보』, 1977.1.21.
 「개선을 향한 첫발, 《국전》 운영방식 변경의 허와 실」, 『국제신문』, 1977.1.23.
 「미술인들의 반성이 아쉽다, 《국전》 제도의 변경을 보고」, 『동아일보』, 1977.1.24.
 「근대미술사 정립, 1~26회 《국전》 수상작품 전시」, 『강원일보』, 1977.1.30.
 「문공부 일정 확정 《봄 국전》 5월 2일부터 《가을 국전》 9월 30일부터」, 『동아일보』, 1977.1.31.
 「봄 5월 2일·가을 9월 30일 문공부,올해 《국전》 개최 일정 확정」, 『동아일보』, 1977.2.1.
 「《봄 국전》 출품작 1400점 '작품 수준 예년보다 향상된 듯」, 『경향신문』, 1977.4.21.
 「《국전》 사진 부문 분류-심사, 출품거부 속출」, 『서울일보』, 1977.4.22.
 김조현, 「(심사평) 질양(質量)서 좋아지고 소재 취급도 진지」, 『경향신문』, 1977.4.23.
 「《제26회 봄 국전》 국무총리상 권창륜 작 서예 〈고의〉」, 『조선일보』, 1977.4.24.
 「초라해진 《국전》」, 『조선일보』, 1977.4.24.
 「시들하고 허전한 《봄 국전》」, 『한국일보』, 1977.4.24.
 「(낙서함)'건축' 출품작 고작 12점…'사진'선 잡음 일어 5명만이 심사에, 3시간 30분간의 마라톤 회의서도 결국 “대통령상감 없다”

결론」, 『경향신문』, 1977.4.25.
 「시들한 잔치…《봄 국전》」, 『중앙일보』, 1977.4.25.
 「김빠진 《봄 국전》」, 『신아일보』, 1977.4.25.
 「지방 여건의 어려움 딛고, 《봄 국전》 특선한 부산 사진작가 3명」, 『부산일보』, 1977.4.27.
 「미술계에 《국전》 개혁론」, 『동아일보』, 1977.4.30.
 「《봄 국전》과 《국전》 회의론」, 『동아일보』, 1977.5.6.
 「《봄 국전》을 보내며」, 『조선일보』, 1977.5.19.
 「문공부 《국전》 통합 검토」, 『동아일보』, 1977.5.20.
 「제도를 넘어선 문제, 또 흔들리는 《국전》에의 제언」, 『부산일보』, 1977.5.22.
 「미술계에 ‘국전’ 통합론」, 『경향신문』, 1977.5.23.
 「원점으로 돌아간 《국전》」, 『국제신문』, 1977.5.24.
 「가장 초라한 《봄 국전》, 일반공개 폐막」, 『조선일보』, 1977.6.4.
 「한눈에 볼 ‘국전 27년’」, 『동아일보』, 1977.9.16.
 「갈수록 떨어지는 《국전》 수준」, 『조선일보』, 1977.9.23.
 「《국전》 발자취를 한눈에, 《역대수상작전》」, 『중앙일보』, 1977.11.30.
 「의욕적이고 뜻 깊은 전시 주목 끈 《국전 역대수상작품전》」, 『경향신문』, 1977.12.8.
 「역대 《국전수상작품전》」, 『경향신문』, 1977.12.17.
 「양(量)만 풍성-질(質)은 기형적 젊은 작가 중심 ‘미술제’ 특징 보여」, 『경향신문』, 1977.12.21.
 「정부, ‘역대 《국전》 수상 작품’ 구입 준비 작업에 열 올려」, 『경향신문』, 1978.1.17.
 「《봄· 가을 국전》 개최 문공부 일자 확정」, 『매일경제』, 1978.3.4.
 「《봄 국전》 유감」, 『중앙일보』, 1978.4.22.
 「(사설)《국전》의 변모」, 『서울신문』, 1978.4.25.
 「대통령상 못 고른 《봄 국전》」, 『경향신문』, 1978.4.25.
 「《국전》 제도 개선할 점 많다」, 『서울신문』, 1978.5.2.
 「(오늘의 눈) 허전한 《봄 국전》」, 『서울신문』, 1978.5.2.
 「덕수궁서 일말까지 《봄 국전》 개막」, 『동아일보』, 1978.5.2.
 「(기자의 눈) 그림 없어 쓸쓸한 《봄 국전》」, 『한국일보』, 1978.5.4.
 「초라한 《제27회 봄 국전》, 점점 멀어져가는 일반의 관심」, 『조선주간』, 1978.5.7.
 「《국전》 전시 작품 58점 도난 휴일 새벽」, 『동아일보』, 1978.11.20.
 「(미술)《국전》심사 누가 얼마나 했나」, 『조선일보』, 1979.4.20.
 「대통령상 건축 유회준 씨 《28회 봄 국전》」, 『경향신문』, 1979.4.21.
 「(미술)《국전》 인식이 달라졌다. 기성 참여로 ‘발전’ 기대, 건축 부문 대통령상 18년만의 경사」, 『조선일보』, 1979.4.22.
 「《봄 국전》의 심사 공개 폐기…대통령상은 만장일치로」, 『경향신문』, 1979.4.23.

「《봄 국전》의 새로운 경향」, 『중앙일보』, 1979.4.23.
 「(전망)《국전》 이대로 좋은가」, 『동아일보』, 1979.4.23.
 「《국전》에서 민전으로」, 『동아일보』, 1979.9.22.
 「《국전》 진로 싸고 ‘의견’ 만발」, 『조선일보』, 1979.10.20.
 「79년 《봄 국전》에서 문공장관상을 획득한 사진 부문의 <옛 솜씨>(곽수돈 작)」, 『경향신문』, 1979.12.24.
 「설왕설래 속 공중에 뜬 《국전》」, 『경향신문』, 1980.1.14.
 「《국전》 개혁안, 대통령상 없애고 부문별 대상제로」, 『경향신문』, 1980.1.26.
 「‘《국전》 개혁’에 거는 기대」, 『경향신문』, 1980.1.28.
 「‘새 《국전》’은 어디로…운영 싸고 문예진흥원·미술인 의견 대립」, 『동아일보』, 1980.1.29.
 「《봄 국전》5월 1일부터 7개 부문 기성 초대전으로 민전 따른 사단법인 곧 발족」, 『경향신문』, 1980.2.2.
 「(십자로)진흥원, 《국전》 진로 빨리 밝혀야」, 『조선일보』, 1980.2.5.
 「《국전》 공모전으로 환원, 문예진흥원 운영위서 결의」, 『경향신문』, 1980.2.6.
 「《국전》 운영 갈팡질팡」, 『동아일보』, 1980.2.6.
 「새로움 없는 ‘새 《국전》’」, 『동아일보』, 1980.2.7.
 「문공부가 밝힌 80년 문화예술 시책 각종 문예사업 민간 주도로」, 『경향신문』, 1980.2.12.
 「《봄 국전》 작품심사 공개 실시 모두 1,186점」, 『경향신문』, 1980.4.22.
 「《봄 국전》 4개 부문 대상, 최오실(서예) 안미형(공예) 이창남(사진) 정옥기 이경돈 조용우 씨(건축 부문)」, 『경향신문』, 1980.4.23.
 「《봄 국전》 부문별로 대상」, 『동아일보』, 1980.4.23.
 「《제29회 봄 국전》」, 『조선일보』, 1980.4.24.
 「(여적(餘滴))」, 『경향신문』, 1980.4.24.
 「《제29회 봄 국전》 입상자 발표 대상 4· 특선작 29점발표」, 『매일경제』, 1980.4.24.
 「오는 1일 《봄 국전》 현대미술관서 개막」, 『경향신문』, 1980.4.26.
 「새 맛 없는 민영 ‘국전」」, 『경향신문』, 1980.4.28.
 「(화랑가) 1일부터 《봄 국전》 개막」, 『매일경제』, 1980.4.30.
 「각 부문 대상4· 특선작 27점에 《29회 봄 국전》 시상식 가져」, 『매일경제』, 1980.6.3.
 「“한다”“안 한다” 논란 매듭 ‘《봄 국전》 개최하기로」, 『동아일보』, 1981.3.6.
 「《봄 국전》…5월 22일부터 25일간」, 『동아일보』, 1981.3.10.
 「《봄 국전》 5월 22일에, 출품 마감은 5월 9일」, 『경향신문』, 1981.3.10.
 「울 《봄 국전》 5월 22일부터」, 『매일경제』, 1981.3.13.
 「(심사평)‘필연에 의한 작품 제작’ 결의 부족」, 『동아일보』,

1981.5.16.
 「(문화)《30회 봄 국전》 입상자 발표 / 대상 수상자 인터뷰」, 『조선일보』, 1981.5.17.
 「《봄 국전》 빛낸 영예의 얼굴들 4개 부문 대상 수상자 인터뷰」, 『경향신문』, 1981.5.18.
 「이은주 작 <환희> 대상 《제30회 봄 국전》 사진 부문」, 『매일경제』, 1981.5.19.
 「문공부 확정 《국전》 신인공모전으로 개편, 명칭 《대한민국미술대전》」, 『동아일보』, 1982.1.16.
 「(해설) 33년만의 탈바꿈 새 모습으로 개편되는 《국전》」, 『동아일보』, 1982.1.16.
 「막 내린 30년 《국전》, 사진은 마지막이 된 81년 가을 《국전》 개막식」, 『동아일보』, 1982.1.16.
 「울해부터 개선 공개심사·매일상제로 《국전》을 신인공모전으로」, 『경향신문』, 1982.1.16.
 「30년의 숙제…《국전》 대수술 개혁의 의의」, 『경향신문』, 1982.1.16.
 「《국전》 30년 일지」, 『경향신문』, 1982.1.16.
 「《국전》 개혁은 잘 한 일」, 『매일경제』, 1982.1.18.
 「《국전》 개혁」, 『동아일보』, 1982.1.18.
 「화제와 말쑥과…《국전》 33년」, 『동아일보』, 1982.1.18.
 「《국전》 역대 대통령상·대상 수상자」, 『동아일보』, 1982.1.18.
 「《국전》 연혁」, 『동아일보』, 1982.1.18.
 「제도개혁에 거는 기대 전문가 대담, 새 《국전》 운영양식에 달렸다」, 『동아일보』, 1982.1.18.
 「《국전》 개혁의 참뜻-문화예술도 자생 능력 길러야」, 『경향신문』, 1982.1.18.
 「“새 《국전》은 작품 위주로” 운영은 이렇게-미술계의 의견」, 『경향신문』, 1982.1.19.
 이일, 「막 내린 ‘국전’ 우산 시대」, 『동아일보』, 1982.1.19.
 「《사진대전》 운영방향 토의, 사협, 공청회 열어」, 『매일경제』, 1982.2.1.
 「사진협회 이경강 이사장 《대한민국사진전》 준비」, 『경향신문』, 1982.2.16.
 「《대한민국사진전》 7월 10일부터 개최」, 『동아일보』, 1982.2.17.
 임응식, 「(나의 비망록) 렌즈에 담은 소명(36), 국전 사진 부문 신설」, 『부산매일』, 1991.10.22.

월간지 / 계간지

김영주, 「미술인의 양식에 호소함-《국전》분규’에 제언하면서」, 『신미술』, 1956.11.

「‘《국전》 사진부’가 설치되기까지」, 『주간한국』(제3호), 1964.10.11.
 「(뉴스와 화제-미술)《제13회 국전》의 결산」, 『신동아』, 1964.12.
 「(뉴스와 화제-미술)《국전》 주변」, 『신동아』, 1965.11.
 「(뉴스와 화제-미술)《국전》의 권위」, 『신동아』, 1966.11.
 이일, 「《국전》의 비현실화」, 『세대』, 1966.12.
 박서보, 「《국전》 중지론」, 『세대』, 1967.2.
 임응식, 「《국전》을 정상화 하자」, 『포토그래피』, 1967.7-8.
 이구열, 「《국전》은 왜 해마다 말썬인가: 권위구조의 발자취」, 『신동아』, 1967.10.
 「(뉴스와 화제-미술)《국전》 안팎」, 『신동아』, 1967.11.
 「(뉴스와 화제-미술)《국전》의 국전(局轉)」, 『신동아』, 1968.10.
 「(사단 뉴스)《제17회 국전》」, 『포토그래피』, 1968.10-11.
 「(문화단평-미술)《국전》과 매스컴-신문지상의 ‘국전’전(展)」, 『월간중앙』, 1968.11.
 박서보, 「《국전》의 검은 백서」, 『월간중앙』, 1968.11.
 「(뉴스와 화제-미술)《국전》 병인(病因)의 소재(所在)」, 『신동아』, 1968.11.
 허천, 「우리나라 《국전》에 대한 소고」, 『국회보』, 1968.11.
 「《제17회 국전》에서」, 『포토그래피』, 1968.12.
 「(사단 뉴스) 김종현 씨 《국전》 추천작가」, 『포토그래피』, 1968.12.
 「(뉴스와 화제-미술)《국전》개혁 건의」, 『신동아』, 1969.1.
 「(뉴스와 화제-미술) ‘민전’의 항방」, 『신동아』, 1969.2.
 「(사진계 소식)《대한민국미술전람회》」, 『포토그래피』, 1969.8.
 이일, 「(공간시평-미술)《국전》의 행방은 과연 어디로」, 『공간』, 1969.9.
 「(뉴스와 화제-미술) 국립현대미술관과 《국전》」, 『신동아』, 1969.10.
 이경성, 「(공간시평-미술) 국립현대미술관」, 『공간』, 1969.10.
 「(사진계 소식)《제18회 국전》 소식」, 『포토그래피』, 1969.11.
 이일, 「《국전》의 정체와 행방」, 『사상계』, 1969.11.
 이경성, 「(원색 화보 해설)《제18회 국전》」, 『신동아』, 1969.12.
 이명동, 「(뉴스와 화제)《국전》 사진부의 존폐」, 『신동아』, 1970.1.
 남관, 조연현, 「(대담)《국전》에의 새로운 기대- ‘국전’제도연구위의 성격과 문제점」, 『예술계』, 1970.7(여름호).
 「(문화단평-미술) 연례 《국전》 시비-《국전》 운영위원회」, 『월간중앙』, 1970.9.
 이성수, 「(오늘의 맥박 ⑤) ‘국전’ 개편의 시시비비」, 『신동아』, 1970.9.
 「(뉴스와 화제-미술)《국전》개혁안과 운영위원」, 『신동아』, 1970.9.
 오광수, 「(뉴스와 컬럼-미술계)《국전》제도개혁의 뒷면」, 『예술계』, 1970.10(가을호).
 이일, 「《국전》의 어제와 오늘」, 『세대』, 1970.10.

이명동, 「(뉴스와 화제-사진) 사진이 제외된 <국전>」, 『신동아』, 1970.12.

오광수, 「(뉴스와 컬럼-미술계)<국전>과 기구개혁」, 『예술계』, 1970.12(겨울호).

이명동, 「(뉴스와 화제-사진)<제1회 건축 및 사진전>」, 『신동아』, 1971.3.

이명동, 「(뉴스와 화제-사진) 통합되는 사단」, 『신동아』, 1971.8.

이명동, 「(원색화보 해설)<대한민국 사진 및 건축 전람회>」, 『신동아』, 1971.10.

윤주영, 「<제1회 건축 및 사진 국전>을 열면서」, 『포토그래피』, 1971.10.

김희춘, 「심사소감/<국전> 수상자 및 입선자 명단」, 『포토그래피』, 1971.10.

「<국전> 전시 작품」, 『포토그래피』, 1971.10.

이명동, 「(뉴스와 화제-사진) 새 '건축 사진전'」, 『신동아』, 1972.4.

「(사진계 소식)<제2회 사진 국전> 마감 심사위원 결정」, 『포토그래피』, 1972.9.

「(사진계 소식)<제2회 건축 및 사진 국전> 입상 및 입선작가 명단」, 『포토그래피』, 1972.10.

이명동, 「(뉴스와 화제-사진) 칼라사진의 작품성」, 『신동아』, 1972.11.

「(사진계 소식)<제3회 사진 국전> 소식」, 『포토그래피』, 1973.8.

「(사진계 소식)<제3회 건축 및 사진 국전>」, 『포토그래피』, 1973.9.

「<제3회 건축 및 사진 국전>에서」, 『포토그래피』, 1973.10.

「<제3회 건축 및 사진 국전>에서」, 『포토그래피』, 1973.11.

「(뉴스와 화제-미술)<국전>의 구상 비구상 분리」, 『신동아』, 1973.11.

이명동, 「(뉴스와 화제-사진) 작품 빈곤과 사단 침체」, 『신동아』, 1973.11.

「(뉴스와 화제-미술)<국전>과 기록화」, 『신동아』, 1973.12.

이명동, 「(뉴스와 화제-사진)복수사진의 개발 문제」, 『신동아』, 1973.12.

「(사진계 소식)<제23회 국전>개최 요강」, 『포토그래피』, 1974.3.

「(뉴스와 화제-미술) 제1차 중흥계획」, 『신동아』, 1974.3.

「(사진계 소식)<제4회 건축 및 사진 국전> 소식」, 『포토그래피』, 1974.4.

「(사진계 소식)<제23회 봄 국전> 심사 결과 발표」, 『포토그래피』, 1974.5.

「<제23회 대한민국 미술전람회> 제4부 사진 부문 입상 및 입선작 중에서」, 『포토그래피』, 1974.5.

「<제23회 대한민국 미술전람회> 제4부 사진 부문 입상 및 입선작 중에서」, 『포토그래피』, 1974.6.

「(뉴스와 화제-미술)<국전> 분리와 재야작가 포섭」, 『신동아』, 1974.6.

이경성, 「<국전> 그 역사와 허실」, 『체신』, 1974.10.

「<제24회 국전> 출품 요령」, 『포토그래피』, 1975.3.

「(뉴스와 화제-미술)<국전> 개최 공고」, 『신동아』, 1975.3.

「<제24회 국전> 심사발표」, 『포토그래피』, 1975.5.

이명동, 「(뉴스와 화제-사진)<봄 국전>의 문제점」, 『신동아』, 1975.6.

「<제24회 국전>에서」, 『포토그래피』, 1975.6.

유준상, 「이달의 미술: <국전>과 나와 우리: 예술은 개성의 자율적 발전을 바탕으로」, 『세대』, 1975.6.

「<제24회 국전>에서(2)」, 『포토그래피』, 1975.7.

「<제24회 국전>에서(3)」, 『포토그래피』, 1975.8.

이일 외, 「<국전>: 지금대로 좋은가 <좌담>」, 『공간』, 1976.3.

「(사진계 소식)<제25회 국전> 개최공고」, 『포토그래피』, 1976.3.

이일, 「<국전> 공개심사제가 제기하는 것」, 『공간』, 1976.5.

「(뉴스와 화제-미술)<국전> 운영위 개편」, 『신동아』, 1976.5.

「<제25회 국전>에서」, 『월간사진』, 1976.6.

「<제25회 국전> 사진 부문 안청, 최홍만」, 『영상』, 1976.6.

「(뉴스와 화제-미술)<국전> 공개심사」, 『신동아』, 1976.6.

이홍우, 「(사랑방)<국전> 심사는 <국전> 작가만이 해야 하는 편파성」, 『공간』, 1976.10.

「(특집)<국전> 초대작가 8인선: 김조현, 이진중, 이경모, 이혜선, 임응식, 이형록, 정인선[성], 조현두」, 『영상』, 1977.1.

오광수, 「미술: <국전>운영체제의 개혁」, 『세대』, 1977.3.

「(사진계 소식)<제26회 (봄) 국전> 수상작 발표」, 『월간사진』, 1977.5.

이일, 「미술: <국전>의 '재통합론'이 의미하는 것」, 『공간』, 1977.6.

「<국전> 수상작품」, 『월간사진』, 1977.7.

「<26회 국전> 사진 입선 중에서」, 『영상』, 1977.7.

유근준, 「미술: 초라한 <봄 국전>」, 『세대』, 1977.7.

이구열, 「평론가의 참여와 <국전> 제도의 한계」, 『공간』, 1977.10.

이명동, 「(뉴스와 화제-사진)<동아민전>의 시발」, 『신동아』, 1977.11.

정중현, 「르뵘: <국전>이 걸어온 길」, 『화랑』, 1977.12(겨울호).

「좌담: <국전>, 무엇이 문제인가」, 『화랑』, 1977.12(겨울호).

오광수, 「(뉴스와 화제-미술)<역대 국전 수상작품전>」, 『신동아』, 1978.2.

「(사진계 소식)<제27회 봄 국전> 입상 및 입선작 선정」,

『월간사진』, 1978.5.

이명동, 「(뉴스와 화제-사진)연륜이 부끄러운 <사진 국전>」, 『신동아』, 1978.6.

「<제27회 국전> 입상작」, 『월간사진』, 1978.6.

「<제27회 국전>에서」, 『월간사진』, 1978.7.

「(특집)<제27회 국전> 작품」, 『영상』, 1978.7.

「<제27회 국전>에서」, 『월간사진』, 1978.8.

변종하, 유준상, 「대담: 오늘의 문제-<국전>과 민전」, 『화랑』, 1978.12(겨울호).

박용숙, 「(뉴스와 화제-미술) 민전의 대두와 극사실주의 경향의 78년」, 『신동아』, 1979.2.

「<제28회 국전> 작품모집」, 『영상』, 1979.4.

「<제28회 봄 국전>에서」, 『월간사진』, 1979.5.

「(사진계 소식)<제28회 봄 국전> 문화공보부장관상에 관수돈 씨」, 『월간사진』, 1979.5.

「<제28회 봄 국전>에서」, 『월간사진』, 1979.6.

이명동, 「(뉴스와 화제-사진)<봄 국전> 사진 부문을 보고」, 『신동아』, 1979.7.

「<28회 국전> 입선작품2: 『영상』추천작가/최기용: 김유성」, 『영상』, 1979.7.

박용숙, 「(뉴스와 화제-미술)<국전>과 <대한미술원전>」, 『신동아』, 1979.12.

「(사진계 소식)<국전> 운영위원 사진 부문 박필호, 이경모 선생 선출/<국전> 추천작가 및 초대작가 선출」, 『월간사진』, 1980.3.

「<국전>소식-사진 부문 운영위원에 <국전>초대작가 박필호, 이경모 양씨를 선임」, 『영상』, 1980.4.

「(사진계 소식)<제29회 봄 국전> 심사결과」, 『월간사진』, 1980.5.

이일, 「민전의 과제: 그 허와 실」, 『화랑』, 1980.6(여름호).

「<제29회 국전> 초대작 대상 특선작에서」, 『월간사진』, 1980.6.

「<국전> 출품작 소개」, 『영상』, 1980.6.

「<제29회 국전> 수상자 소개」, 『영상』, 1980.6.

「<국전> 초대작가 및 추천작가의 출품과 심사 회수 집계」, 『영상』, 1980.6.

「<제29회 국전> 출품작 운영위원 초대작가」, 『영상』, 1980.7.

「<국전> 출품작3: 최홍만, 권진희」, 『영상』, 1980.8.

「바로잡습니다(1980년 7월호 <국전> 초대작가 및 추천작가의 출품과 심사 회수 집계 정정)」, 『영상』, 1980.8.

김인환, 「(뉴스와 화제-미술) 또다시 <국전>을 이야기 한다」, 『신동아』, 1980.12.

「(사진계 소식) 81년도 <국전>(사진 부문)개최 5월 22일부터 6월 15일까지」, 『월간사진』, 1981.5.

「(사진계 소식) 81년 <봄 국전> 사진부」, 『월간사진』, 1981.6.

「<국전> 초대작가 작품」, 『월간사진』, 1981.6.

「<국전> 입상작품」, 『월간사진』, 1981.7.

「<국전> 작품소개」, 『영상』, 1981.7.

박재능, 「월평5: <국전> 탐방」, 『영상』, 1981.7.

김영희, 「<국전> 대상 작품소개 <환희> 이은주」, 『영상』, 1981.7.

박재능, 「(사단시감) 시대의 흐름을 실감한다」, 『영상』, 1982.3.

「(사진계 소식)<제1회 대한민국 사진전> 7월 9일부터 전시대상 1점만 매입」, 『월간사진』, 1982.5.

「<국전> 작품 중에서」, 『월간사진』, 1982.8.

「<제1회 국전> 소감」, 『월간사진』, 1982.8.

「<제1회 국전> 입선작 중에서」, 『월간사진』, 1982.9.

이태호, 「관전의 권위, 그 양지와 음지」, 『계간미술』, 1985.6.

원동석, 「숨가빴던 한국미술 반세기, 그 순간들」, 『가나아트』, 1995.3-4.

이규일, 「서울대와 홍대와 만들어낸 장발과 윤효중-1955년 한국미술가협회 발족을 전후로 한 헤게모니 싸움」, 『가나아트』, 1995.3-4.

이규일, 「울지도 웃지도 못할 <국전> 심사의 흑막」, 『가나아트』, 1995.3-4.

최석태, 「말썽 많은 <국전>의 폐지와 각종 민전의 창설」, 『가나아트』, 1995.3-4.

「해방 50년 한국미술계 주요사건 연표」, 『가나아트』, 1995.3-4.

단행본

대한민국예술원 편, 『한국예술총람-자료편』, 예술원사무국 편, 1965.

한국사진협회, 『1976년 한국사진연감』, 1976.

국립현대미술관, 『역대국전자료집 1회-26회』, 바른손, 1977.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예연감』, 1977.

국립현대미술관 편저, 『한국현대미술사: 사진』, 동화출판공사, 1979.

한국근대미술연구소, 『국전30년』, 수문서관, 1981.

오광수, 『한국현대미술사: 1900년 이후 한국미술의 전개』, 열화당, 1989.

이경성, 『어느 미술관장의 회상』, 시공사, 1998.

최일, 『한국근대미술의 역사: 한국미술사사전 1945-1961』, 열화당, 2006.

예술의 전당 편, 『1970년대 한국미술: 국전과 민전』, 예술의 전당, 2007.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 『한국미술공모전의 역사』,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 2014.

국가기록물

문화공보부 예술국 예술1과, 「대한민국미술전람회 규정(대통령령) 제정」(문예술1062.1), 『제13회국전철』, 1964.8.24.

윤천주 문교부장관, 「대한민국미술전람회 전시작품 심사위원회 규정(안)」, 1964.10.5.

문화공보부 예술국 예술1과, 「《제13회 국전》불참 위원 해촉」, 『제13회국전철』, 1964.10.15.

공보부, 「문교부령 제632호(대한민국미술전람회 규정)」,

『관보』(제3870호), 1964.10.23.

문화공보부 예술국 예술1과, 「제15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 심사위원 위촉」(문예술1062.1-360), 『제15회국전철』, 1966.9.27.

_____, 「제13회 국전 사진부 지방 순회전시 청원에 관한 승인 건」(문예술1062.1-507), 『제13회국전철』, 1964.11.6.

_____, 「국전 심사 종합 보고」(문예술1062.1),

『제15회국전철』, 1966.10.7.

국전추천작가, 「국전 개혁을 위한 건의서」, 『제17회국전철(2)』, 1968.11.25.

이석재 총무처장관, 「대한민국미술전람회 전시작품 심사위원회 규정 중 개정의 건(안)」, 1968.12.21.

문화공보부 예술국 예술1과, 「제18회 국전 관계 사진 제1회 건축사진전 사진」, 『제18회국전철(1)』, 1969.

공보부, 「대통령령 제3,724호(대한민국미술전람회 전시작품 심사위원회 규정 중 개정의 건)」, 『관보』(제5142호), 1969.1.9.

문화공보부 예술국 예술1과, 「대한민국미술전람회 규정 개정」, 『제18회국전철(1)』, 1969.6.14.

공보부, 「문화공보부령 제12호(대한민국미술전람회 규정 개정령)」, 『관보』(제5288호), 1969.7.2.

이석재 총무처장관, 「대한민국미술전람회 전시작품 심사위원회 규정 폐지령(안)」, 1969.9.29.

공보부, 「대통령령 제4,172호(대한민국미술전람회 전시작품 심사위원회 규정 폐지령)」, 『관보』(제5378호), 1969.10.23.

문화공보부 예술국 예술1과, 「국전 제도 개선」(예술1062-), 『제19회국전철(1)』, 1969.11.28.

_____, 「국전제도연구위원회 개최」(예술1062-),

『제19회국전철(1)』, 1969.11.28.

_____, 「국전제도개선연구위원회 위원

추천」(예술1062-19151), 『제19회국전철(1)』, 1969.12.2.

_____, 「국전에서 사진부 분리」(예술1060-16657),

『제19회국전철(1)』, 1970.

_____, 「국전 제도 개선」(예술1060-),

『제22회국전철』, 1973.5.18.

_____, 「국전 제도 개선작업 결과보고」(예술1060-),

『제22회국전철』, 1973.12.29.

문화공보부 예술국 예술1과, 「《국전》 심사결과 보고」,

『제23회국전철(1)』, 1974.4.22.

심홍선 총무처장관, 「대한민국미술전람회 운영위원회 규정(안)」, 1974.4.30.

공보부, 「문화공보부령 제45호(대한민국미술전람회 규정 중 개정령)」, 『관보』(제6985호), 1975.2.28.

문화공보부 예술국 예술1과, 「국전 운영위원 및 심사위원(2, 4부) 합동회의 결과보고」(예술1060-), 『제24회국전철(2)』, 1975.4.19.

_____, 「제24회 국전(제2부, 4부) 종합 결과보고」,

『제24회국전철(4)』, 1975.6.23.

_____, 「제25회 국전(제2부, 제4부) 작품심사 결과보고」(예술1060-6067), 『제25회국전철(1)』, 1976.4.27.

_____, 「진정서에 대한 회신」(예술1060-7022),

『제25회국전철(2)』, 1976.5.14.

_____, 「진정서에 대한 회신」(예술1060-7023),

『제25회국전철(2)』, 1976.5.14

_____, 「대한민국미술전람회 규정

개정」(예술1060-), 『제26회국전철(1)』, 1977.1.17.

공보부, 「문화공보부령 제56호(대한민국미술전람회 규정 중 개정령)」, 『관보』(제7570호), 1977.2.9.

문화공보부 예술국 예술1과, 「제26회 봄국전 작품심사 결과보고」(예술1060-), 『제26회국전철(1)』, 1977.4.25.

문화공보부, 「작품구입 현황 및 소재 통보」(예술1060-), 「국전 수상작품 관리전환」, 1978.11.16.

_____, 「제27회 봄국전 작품심사

결과보고」(예술1060-), 『제27회국전철』, 1978.4.21.

_____, 「대한민국미술전람회 규칙 중 개정령

공포」(법무182-), 『제27회국전철』, 1978.8.29.

공보부, 「문화공보부령 제64호(대한민국미술전람회 규칙 중 개정령)」, 『관보』(제8040호), 1978.9.1.

문화공보부 예술국 예술1과, 「제28회 봄국전 심사결과 보고」,

『제28회국전철』, 1979.4.20.

공보부, 「문화공보부령 제68호(대한민국미술전람회 규정

폐지령)」, 『관보』(제8418호), 1979.12.10.